ChungNam
Heart of Korea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 연 설 문 집

제 10 권

(2004년 7월 1일 ~ 2005년 6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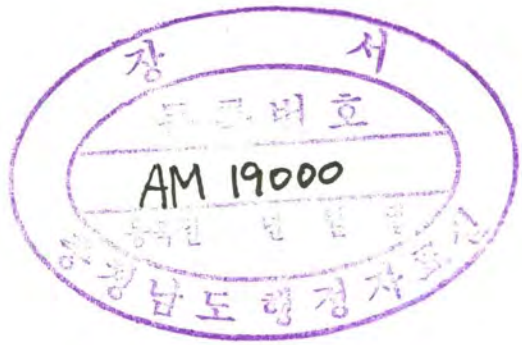




충남도청행정자료실

AM019000

충청남도
www.chungnam.net


장 서
AM 19000
경상남도행정자료실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 연 설 문 집

제 10 권

(2004년 7월 1일 ~ 2005년 6월 30일)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 민족 번영과 국운 융성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 중심지가 될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전경






▲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방문 (2004. 7. 24)



▲ 신행정수도 편입예정지 주민과의 대화(2004. 8. 31)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현판 제막식(2004. 10. 19)



▲ 신행정수도 위헌결정과 관련 3개 시 · 도 합동대책회의에서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는 심지사 (2004. 11. 4)

▼ 신행정수도사수 범충남연대 출범식 (2004. 11. 22)




▼ 단식농성주민을 격려하는 심지사 (2004. 12. 3)





▲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홍보활동을 펴는 심지사 (2004. 12. 31)




▲ 신행정수도건설 촉구 충청권주민 대집회 (2005. 1. 27)

▼ 신행정수도 건설 관철을 위해 주민의견을 결집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심지사






#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기반 확충




▲ 정부혁신세계포럼에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장 대표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정책사례를 발표하는 심지사 (2005. 5. 25)







▲ 지역혁신협의회와 혁신분권연구단을 통해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주력하였다.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5. 2. 1)



▲ 천안~서울간 수도권전철 개통식 (2005. 1. 20)




▲ 새로운 비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세미나 (2005. 4. 27)

# 경제제일 道政의 활력 추진




▲ 경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4. 8. 30)




▲ 충청권 벤처프라자 참가업체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는 심지사 (2004. 9. 2)




▲ 건전한 소비생활을 다짐하는 범도민 결의 대회를 가졌다. (2004. 11. 5)




▲ 경기도와 지역상생발전 협약식을 맺어 새로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5. 1. 27)




▲ 수출 200억불을 달성한 수출역군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심지사 (2004. 12. 6)




▲ 지역경제주체간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심지사 (2004. 12. 22)

# 국제교류협력의 다변화



▲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특별주와 자매결연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폭넓은 교류 기반을 구축하였다. (2004. 9. 13)

▼ 벨기에 유미코아社와 양해각서 체결 (2004. 11. 29)






▲ 미국 오웬스코닝社와 투자합의서 체결 (2005. 4. 11)




▲ 베트남 롱안성과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2005. 6. 9)

▼ 초청공연을 하기 위해 백제문화제 행사장을 방문한 타이완 까오슝市 국악단 (2004. 10. 9)



▼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지사와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심지사 (2005. 5. 26)



#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 개방화의 파고를 넘기 위한 농어업정책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였다. (2004. 7. 20)

▼ 서울에서 열린 충남 쌀축제 (2004. 10. 29)




▼ 제12회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 (2004. 11. 8)






▲ 홍동 문당마을에서 1社1村 자매결연행사를 갖고 농촌사랑에 앞장섰다. (2004. 10. 13)

▼ 농정현장에 뛰어들어 농민과 함께하는 심지사





# 더불어 사는 복지忠南 구현




▲ LA슈라이너병원과 무료시술협정을 맺어 난치병에 걸린 장애아동들을 치료해주는 사랑의 인술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 제10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휠체어 장애체험을 하는 심지사 (2004. 10. 14)




▲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2004. 11. 16)




▲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랑을 담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2004. 9. 3)



▲ 성탄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위로하는 심지사 (2004. 12. 24)

# 여성의 권익 향상




▲ 여성정책개발원 개원 5주년을 맞아 한 · 일 여성노인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2004. 7. 7)




▲ 여성단체지도자 교육을 통해 여성 스스로가 변화에 참여해야 함을 역설하는 심지사 (2004. 11. 9)




▲ 제1회 충남여성 정치캠프 대토론회에서 여성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심자사 (2005. 5. 26)






▲ 제4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통해 유관순열사의 얼을 되살려 사회를 위한 큰사랑을 펼쳐주기를 당부하는 심지사 (2005. 3. 31)




◀ 제21회 충남여성한마음축제를 개최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다. (2004. 7. 5)

# 격조 높은 지역문화 창달



▲ 국제화시대 손색없는 관광문화예술상품으로 부상한 2004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개막식 (2004. 8. 17)



▲ 제45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팀을 격려하는 심지사 (2004. 9. 30)

▼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2004. 10. 7)





▲ 숙모전 춘향대제에서 초헌관으로 헌작을 하는 심지사 (2005. 4. 22)




▲ 문화관광정책 대토론회 (2004. 10. 21)

▼ 충남문화상 수상자들과 함께 (2004. 10. 26)



# 체육 强道의 위상 제고




▲ 역대 대회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은 2005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개회식 (2005. 5. 14)





▲ 아테네올림픽에 출전하는 이은정 선수를 격려하는 심지사 2004. 7. 26)



▲ 제85회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선수를 시상하는 심지사 (2004. 11. 3)



▲ 200만 도민의 성원으로 장애인체전에서 3년 연속 종합 3위의 위업을 이룩하였다.

# 주민과 함께하는 與民행정 구현




▲ 통 · 리장 연찬회를 갖고 지역애로사항과 바람 등을 수렴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2004. 11. 19)



▲ 지역특산물코너에 들러 현장대화를 나누는 심지사 (2004. 11. 2)




▲ 아산시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는 심지사 (2005. 1. 25)




▲ 서천군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상인과 담소를 나누는 심지사 (2005. 2. 17)



▲ 방울토마토 재배현장을 찾아 수확체험을 하는 심지사 (2005. 1. 21)



▲ 지역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인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2005. 2. 18)

# 民族精氣와 忠南精神의 발양



▲ 3.1절 기념 봉화제에 참석하여 애국선열들의 영전에 분향하는 심지사 (2005. 2. 28)

▼ 보훈병원 입원환자를 위문하는 심지사 (2005. 6. 1)





▲ 태극기마당에 게양될 태극기에 서명하는 심지사 (2005. 3. 1)




▲ 4대가 함께 사는 자랑스런 효행가정을 발굴 · 표창함으로써 경로효친의 확산에 주력하였다. (2004. 7 .19)




▲ 의식개혁대강연회에서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심지사 (2004. 9. 3)

▼ 스승과 제자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스승 존경운동에 앞장섰다. (2005. 5. 20)



#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




▲ 모처럼만에 자연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05. 5. 21)




▲ 직장협의회 임원들과 토론회를 갖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들을 협의하였다. (2004. 11. 8)



▲ 실국본부 서무담당자와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며 격려하는 심지사 (2004. 8. 4)

▼ 지방행정연수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기쁨을 함께하며 (2004. 11. 5)



# 머 리 말

이 책은 심대평 충청남도지사가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여러 행사나 회의 때 행한 연설과 글을 담았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마무리하는 지난 1년은 우리 충남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고품질 도정을 역동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새로운 충남시대의 창출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국운융성과 민족번영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우리도민이 극심한 심리적 공황과 허탈에 빠지게 되자, 심지사는 500만 충청권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연기·공주 일대에 건설되도록 하는 성과를 일구어 냈으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개도 이래 처음으로 수출 200억불을 돌파하는 위업을 이룩하였는가 하면 수출증가액과 무역흑자액 전국 1위를 달성하여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도가 최우수기관으로 표창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의 확정, 당진~평택간 해상도계분쟁 승소, 한보철강 경영 정상화, 그리고 석문국가산업단지의 토지공사 개발 확정 등 주요현안사업들이 마무리되어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가

운데 충남-경기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중심으로의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여 전자정보, 자동차, 농축산 바이오 등 5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역경제 주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역특화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100년만의 폭설피해 속에서도 단보당 쌀 생산 8년 연속 1위의 위업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쌀 품평회에서 우리고장의 쌀이 최우수로 선정되어 품질 면에서도 전국 최고로 평가받았습니다.

저소득 주민·어르신·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섬세한 보살핌을 통해 더불어 사는 복지충남을 구현하였고,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매력 있는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다시 찾는 관광기반을 확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미래지향적 도정혁신을 추진하여 분권시대에 걸맞은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민의 편익을 높이는 봉사행정과 전자지방정부 구현에도 앞장서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도민과 한마음이 되어 자랑스러운 성과를 일구어온 지난 1년은 우리 도정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한 해로 남을 것입니다.

심지사의 행정철학과 지역발전을 위한 발자취가 담긴 이 책은 자치도정의 소중한 기록으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도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값진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면서 이 책을 발간합니다.

2004년 7월

충청남도 비서실장

# 沈 大 平 忠淸南道知事 演說文集 第10卷

# 차 례

## 2004년 7월


충남체육을 위한 힘찬 도약 ····· 1

▶ 제33회 전국소년체전 시상식 축사 / 7. 1.

선진 복지의 요람 ····· 4

▶ 공주시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식 격려사 / 7. 1.

관광 태안의 미래를 여는 낭만의 해수욕장 ····· 7

▶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개장식 축사 / 7. 3.

사진은 21세기 미술의 새로운 총아 ····· 10

▶ 제34회 충청남도사진대전 시상식 축사 / 7. 3.

진지한 자아성찰의 기회 ····· 13

▶ 제5차 합동수계법회 축사 / 7. 4.

함께 일하고 같이 키우는 것이 모두의 행복 ····· 16

▶ 제9회 여성주간기념 제21회 충남여성한마음대회 축사 / 7. 5.

미래를 함께 여는 지구촌의 단짝 자매 ····· 19
▶ 한일여성포럼 참가자 만찬 환영사 / 7. 6.

모범적인 동반자관계 ····· 22
▶ 한일여성포럼 격려사 / 7. 7.

향토문화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의 길잡이 ····· 25
▶ 천안문화원 개원50주년 기념행사 격려사 / 7. 10.

충남청소년의 따뜻한 마음의 등불 ····· 28
▶ 청소년종합상담실 개소10주년 기념식 격려사 / 7. 13.

공직사회의 한 축을 이끄는 여성 리더 ····· 31
▶ 관리직 여성공무원 연찬회 격려말씀 / 7. 14.

새로운 충청시대의 개척 ····· 34
▶ 목요조찬회 인사말씀 / 7. 14.

충남농정의 새로운 미래 ····· 37
▶ 농업정책 대토론회 인사말씀 / 7. 20.

사랑받는 충남교육 구현 ····· 41
▶ 제12대 충청남도교육감 취임식 축사 / 7. 22.

신행정수도 건설 의지 재확인 ····· 45
▶ 총리 오찬 인사말씀 / 7. 24.

당당한 스포츠맨십 ····· 47
▶ 제29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축사 / 7. 26.

승리의 벅찬 감격을 안고 다시 만나길 ····· 50
▶ 유도선수단 하계강화훈련 발대식 인사말씀 / 7. 31.

## 2004년 8월

경쟁력 있는 수산물의 관광자원화 ····· 53
▶ 제2회 태안군 안흥항 오징어대축제 축사 / 8. 1.

상위 입상의 견인차 ····· 56
▶ 전국체전 고등부지도자 필승결의대회 격려사 / 8. 6.

조치원 복숭아의 명성 회복 ····· 59
▶ 제2회 조치원 복숭아축제 축사 / 8. 6.

신앙심 가득한 고장 ····· 62
▶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제8차 정치총회 인사말씀 / 8. 16.

지역간 균형발전과 통합전략 마련 ····· 64
▶ 충청남도의정회 대토론회 축사 / 8. 16

격조 있는 자연미술의 대명사 ····· 68
▶ 2004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리셉션 인사말씀 / 8. 17.

새로운 변화에 맞는 비전 제시 ····· 70
▶ 제2차 충청남도지역혁신협의회 인사말씀 / 8. 17.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 ····· 73
▶ 2004 충남새농민연찬회 축사 / 8. 18.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 더욱 중요 ····· 76
▶ 신행정수도 건설 성공기원 범국민물결대회 대회사 / 8. 19.

효율적인 지방이양 추진 ····· 79
▶ 지방이양촉진 워크숍 격려사 / 8. 20.

건실한 가정을 통한 건강한 사회 ····· 82
▶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정기총회 탄방동미사 인사말씀 / 8. 22.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원 ····· 84
▶ 경제혁신 대토론회 인사말씀 / 8. 30.

통계의 가치와 역할 ····· 87
▶ 2004 세계통계기구특별회의 만찬 환영사 / 8. 30.

## 2004년 9월

통일역량을 키워가는 지름길 ····· 90
▶ 제1회 충남평화통일포럼 창립기념토론회 축사 / 9. 2.

2만불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경제모형 ····· 93
▶ 중도일보 기고문 / 9. 3.

경제성장에 걸맞은 성숙한 사회 ····· 97
▶ 바르게살기협의회 의식개혁대강연회 격려사 / 9. 3.

고품격 복지정책의 구현 ····· 100
▶ 제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 / 9. 3.

도민의 대변자 ····· 103
▶ 제4기 충남도정신문 주부명예기자 위촉식 인사말씀 / 9. 6.

기능 한국의 미래 담보 ····· 106
▶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결단식 격려사 / 9. 7.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친구 ····· 109
▶ 베트남 롱안성과 우호협력양해각서 체결 기념사 / 9. 8.

지방정부차원의 굳건한 신뢰 구축 ····· 112
▶ 롱안성장 주최 환영만찬 답사 / 9. 8.

양 지역 우정과 공동의 번영 ····· 114
▶ 족자카르타특별주지사 주최 환영만찬 답사 / 9. 12.

공동번영을 위한 약속 ····· 116
▶ 족자카르타특별주와 자매결연양해각서 체결 기념사 / 9. 13.

우리사회의 공통신념 ····· 119
▶ 전국 시·도 새마을부녀회 회장단 연찬회 인사말씀 / 9. 14.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실천 ····· 122
▶ 제4회 전국 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 시상식 격려사 / 9. 15.

지역화합을 이끄는 구심체 ····· 125
▶ 제2회 충청남도여성생활체육대회 치사 / 9. 16.

지역에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 128
▶ 제6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만찬사 / 9. 16.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 ····· 131
▶ 건양대학교 명곡전시관 준공식 축사 / 9. 17.

우리의 시대적 소명 ····· 134
▶ 평화번영을 위한 충청남도대회 격려사 / 9. 17.

자연과학교육의 산실 ····· 137
▶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개관식 축사 / 9. 21.

박애정신을 일깨우는 산교육장 ····· 140
▶ 성 김대건신부 생가 축성식 및 기념관 기공식 축사 / 9. 22.

지역문화 창달의 나침반 ····· 143
▶ 대전문화방송 창사40주년 기념식 축사 / 9. 23.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여성상 ····· 145
▶ 여성통 · 리장 연찬회 격려말씀 / 9. 23.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 148
▶ 추석명절 담화문 / 9. 28.

## 2004년 10월


하나 되어 평화로 ····· 150

▶ 2004 계룡축제 치사 / 10. 1.

하나의 아시아를 이루는 계기 ····· 153

▶ 제9회 공주아시아1인극제 축사 / 10. 1.

토속신앙의 예술적 가치 조명 ····· 156

▶ 임립미술관 특별기획초대전 축사 / 10. 1.

우리문화의 역량 발현 ····· 158

▶ 전국 향토연극제 개막식 축사 / 10. 2.

새로운 보령시대를 여는 원동력 ····· 161

▶ 제13회 만세보령문화제 시민체육대회 치사 / 10. 2.

우리의 대표적인 흥의 문화 ····· 164

▶ 제3회 충청남도풍물대회 축사 / 10. 3.

참으로 아름다운 삶 ····· 167

▶ 사랑의 선교회 창립15주년 기념행사 축사 / 10. 4.

상생하고 도약하는 계기 ····· 170

▶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세미나 축사 / 10. 4

겨레의 얼을 계승하는 무대 ····· 173

▶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회사 / 10. 5.

신행정수도 건설의 자양분 ····· 176
▶ 신행정수도 건설 전문가 대토론회 축사 / 10. 5.

도민의 자긍심 높여 주길 ····· 179
▶ 제85회 전국체전출전선수단 결단식 격려사 / 10. 6.

아태지역 중심국가로 도약 ····· 182
▶ 아태정책연구원 이사장 방문 환영인사 / 10. 6.

공동발전의 디딤돌 ····· 185
▶ 한국방송연상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기념사 / 10. 7.

감동과 화합의 대축전 ····· 187
▶ 제50회 백제문화제 치사 / 10. 9.

건강 충남을 이룩하는 밀알 ····· 190
▶ 제18회 약의 날 기념식 축사 / 10. 9.

상생 발전하는 모델 제시 ····· 193
▶ 1사1촌 자매결연 및 친환경농산물 대축제 축사 / 10. 13.

앞서가는 정보화마을 ····· 196
▶ 예산증실골 사과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개관식 축사 / 10. 13.

국민대통합을 선도하는 원동력 ····· 199
▶ 국민생활체육 회원단체 워크숍 인사말씀 / 10. 13.

## 2004년 10월


하나 되어 평화로 ····· 150

▶ 2004 계룡축제 치사 / 10. 1.

하나의 아시아를 이루는 계기 ····· 153

▶ 제9회 공주아시아1인극제 축사 / 10. 1.

토속신앙의 예술적 가치 조명 ····· 156

▶ 임립미술관 특별기획초대전 축사 / 10. 1.

우리문화의 역량 발현 ····· 158

▶ 전국 향토연극제 개막식 축사 / 10. 2.

새로운 보령시대를 여는 원동력 ····· 161

▶ 제13회 만세보령문화제 시민체육대회 치사 / 10. 2.

우리의 대표적인 흥의 문화 ····· 164

▶ 제3회 충청남도풍물대회 축사 / 10. 3.

참으로 아름다운 삶 ····· 167

▶ 사랑의 선교회 창립15주년 기념행사 축사 / 10. 4.

상생하고 도약하는 계기 ····· 170

▶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세미나 축사 / 10. 4

겨레의 얼을 계승하는 무대 ····· 173

▶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회사 / 10. 5.

신행정수도 건설의 자양분 ····· 176
▶ 신행정수도 건설 전문가 대토론회 축사 / 10. 5.

도민의 자긍심 높여 주길 ····· 179
▶ 제85회 전국체전출전선수단 결단식 격려사 / 10. 6.

아태지역 중심국가로 도약 ····· 182
▶ 아태정책연구원 이사장 방문 환영인사 / 10. 6.

공동발전의 디딤돌 ····· 185
▶ 한국방송연상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기념사 / 10. 7.

감동과 화합의 대축전 ····· 187
▶ 제50회 백제문화제 치사 / 10. 9.

건강 충남을 이룩하는 밀알 ····· 190
▶ 제18회 약의 날 기념식 축사 / 10. 9.

상생 발전하는 모델 제시 ····· 193
▶ 1사1촌 자매결연 및 친환경농산물 대축제 축사 / 10. 13.

앞서가는 정보화마을 ····· 196
▶ 예산증실골 사과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개관식 축사 / 10. 13.

국민대통합을 선도하는 원동력 ····· 199
▶ 국민생활체육 회원단체 워크숍 인사말씀 / 10. 13.

자랑스런 인생의 승리자 ····· 201
▶ 제10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대회사 / 10. 14.

민족공동체의 행위예술 ····· 204
▶ 제14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격려사 / 10. 15.

희생과 봉사의 발자취 ····· 206
▶ 제14차 충남지구JC특우회 우정의 날 축사 / 10. 15.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보육모델 창조 ····· 209
▶ 제3회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 격려사 / 10. 16.

충남의 긍지를 드높인 계기 ····· 212
▶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격려사 / 10. 19.

자율과 분권이라는 시대의 흐름 ····· 214
▶ 제3회 지역혁신협의회 격려사 / 10. 19.

관광충남 도약의 밑거름 ····· 217
▶ 관광정책토론회 인사말씀 / 10. 21.

우리농촌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 220
▶ 2004 아줌마대축제 겸 우리농수산물 큰잔치 축사 / 10. 21.

화합과 결속의 한마당 ····· 223
▶ 제5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대회사 / 10. 21.

참으로 소중한 결실 ····· 226
▶ 제3회 백제문화개발연구원 학술회의 축사 / 10. 22.

생명의 소중함을 개닫는 체험의 장 ····· 229
▶ 2004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개막식 격려사 / 10. 22.

지역미술제의 새로운 성공모델 ····· 232
▶ 2004 제1회 공주국제미술제 축사 / 10. 22.

세계적인 디스플레이의 메카 ····· 235
▶ 에버테크노공장 준공식 축사 / 10. 22.

국민적 성원의 출발점 ····· 238
▶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위촉식 인사말씀 / 10. 25.

충청도민회의 새로운 출발 ····· 241
▶ 미동부 충청도민회장 이 · 취임식 축사 / 10. 25.

나눔과 봉사의 정신 ····· 244
▶ 제12회 여성자원봉사자대회 대회사 / 10. 26.

향토문화와 지역사회의 발전 ····· 247
▶ 제48회 충청남도문화상 시상식 식사 / 10. 26.

세계 일류를 향한 도전 ····· 250
▶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치사 / 10. 27.

생명존중정신의 구현 ····· 253
▶ 한국불교선농회 선농원농장 개원식 축사 / 10. 28.

생산적 복지의 실현 ····· 256
▶ 2004 충남자활한마당대회 격려사 / 10. 29.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길 ····· 259
▶ 2004 충남쌀축제 환영사 / 10. 29.

지역문화의 창달과 발전 ····· 262
▶ 2004 충남문화예술인대회 축사 / 10. 30.

## 2004년 11월

따스한 품으로 감싸는 사랑 ····· 265
▶ 어머니포순이봉사단 발대식 축사 / 11. 1.

주민의 건강은 곧 지역발전의 원동력 ····· 268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명사칼럼 / 11. 1.

이웃과 지역을 위한 고귀한 역할 ····· 271
▶ 2004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 대회사 / 11. 2.

숭고한 사랑의 실천 ····· 274
▶ 사랑의 인술사업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축사 / 11. 2.

농촌 사랑의 실천 ····· 277
▶ 제41회 충청남도 4-H경진대회 치사 / 11. 3.

새로운 용기와 희망 ····· 280
▶ 제85회 전국체전선수단 해단식 치사 / 11. 3.

충남인이 하나로 뭉칠 때 ····· 283
▶ 시·군의회의원 의정연수 축사 / 11. 4.

함께 손잡고 힘을 내는 출발점 ····· 287
▶ 제16회 연기농업인 화합대회 축사 / 11. 4.

경제발전의 지름길 ····· 290
▶ 건전소비생활 범도민 다짐대회 격려사 / 11. 5.

백제역사문화의 가치 재발견 ····· 293
▶ 백제향기찾기 자동차랠리 격려사 / 11. 6.

지역사회 안정을 이루는 첫걸음 ····· 295
▶ 제12회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 식사 / 11. 8.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능력 함양 ····· 299
▶ 2004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격려사 / 11. 9.

재미있는 소일거리 ····· 302
▶ 실버인터넷 경진대회 시상식 인사말씀 / 11. 9.

지역혁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 ····· 305
▶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자 격려 만찬사 / 11. 10.

어둠을 밝히는 횃불 ····· 307
▶ 대한적십자사 창립99주년 기념 2004년 지사연차대회 축사 / 11. 12.

품격높은 경로복지정책의 구현 ····· 310
▶ 노인복지정책토론회 인사말씀 / 11. 16.

변함없이 이어지는 적십자정신 ····· 313

▶ 대한적십자사 대전 · 충남지사회장 이 · 취임식 축사 / 11. 16.

새로운 기업문화 창조 ····· 316

▶ 기업하기 좋은 천안·아산 만들기 대토론회 격려사 / 11. 17.

새로운 농촌건설의 적임자 ····· 319

▶ 제24회 충청남도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격려사 / 11. 18.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대장정 ····· 322

▶ 신행정수도 사수 범충남연대 출범식 치사 / 11. 22.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산업 ····· 326

▶ 제18회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치사 / 11. 22.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 ····· 329

▶ 브뤼셀 투자유치설명회 환영인사 / 11. 29.

## 2004년 12월

사회 개혁과 통합의 토대 ····· 332

▶ 제3회 충남 NGO-DAY 만찬 축사 / 12. 2.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준 역사적 쾌거 ····· 335

▶ 제41회 무역의 날 포상전수식 격려사 / 12. 6.

진정한 師道의 표상 ····· 338
▶ TJB 백제문화재단 교육대상 시상식 축하메시지 / 12. 9.

함께 참여하여 얻는 보람 ····· 340
▶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 송년의 밤 인사말씀 / 12. 9.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 ····· 343
▶ 2004 신문경영자 세미나 인사말씀 / 12. 10.

국가 장래를 담보하는 원천 ····· 346
▶ 제16회 충청남도교육상 시상식 축사 / 12. 13.

지역경제의 방향타 ····· 349
▶ 2004 충남벤처인대회 축하메시지 / 12. 13.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모습 ····· 351
▶ 새마을부녀회 평가대회 및 외국인여성과 어울한마당 치사 / 12. 13.

통일을 위한 큰 뜻 ····· 354
▶ 제2회 충남평화통일포럼 세미나 축사 / 12. 15.

금메달을 향한 집념어린 노력 ····· 357
▶ 충청남도 카누인의 밤 격려사 / 12. 15.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 ····· 360
▶ 제8기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수료식 격려사 / 12. 17.

주도적인 분권화 노력 ····· 363
▶ 혁신분권연구단 창단식 인사말씀 / 12. 20.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 ····· 366

▶ 산 · 산 · 학 · 연 협력 활성화 토론회 인사말씀 / 12. 22.

불교문화의 창조적 계승 ····· 369

▶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기공식 축사 / 12. 22.

맞춤형 자원봉사체제 구축 ····· 372

▶ 충청남도 전문자원봉사단 발대식 식사 / 12. 23.

우리지역을 이끌어 나갈 소중한 일꾼 ····· 376

▶ 의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인사말씀 / 12. 28.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온 공직의 귀감 ····· 379

▶ 2004 하반기 정년 · 명예퇴임식 치사 / 12. 28.

국민운동으로 재점화 ····· 382

▶ 2004 충남지역새마을운동 평가보고대회 치사 / 12. 29.

충남의 이미지를 드높인 한 해 ····· 385

▶ 2004 송년사 / 12. 31.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의지 ····· 387

▶ 제야의 종 타종식 인사말씀 / 12. 31.

## 2005년 1월


새로운 도전과 영광이 함께 하는 한 해 ····· 389

▶ 계룡산 천왕봉 해맞이행사 축하메시지 / 1. 1.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충남시대 ····· 391

▶ 신년사 / 1. 1.

위대한 충남시대를 향한 힘찬 도약 ····· 393

▶ 2005년 시무식사 / 1. 3.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성취하는 해 ····· 401

▶ 2005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 1. 3.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시발점 ····· 404

▶ 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신년사 / 1. 5.

안정과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 407

▶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 1. 5.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찬 사회 ····· 410

▶ 2005년도 신년조찬기도회 격려사 / 1. 6.

화해와 상생의 시대 ····· 413

▶ 대전불교단체연합회 신년하례대법회 축사 / 1. 8.

신행정수도 '대안 해법' 4원칙 ····· 416

▶ 동아일보 기고문 / 1. 9.

뜨거운 가슴을 열고 하나가 되는 자리 ····· 419
▶ 촛불문화행사 인사말씀 / 1. 17.

신행정수도 건설의 충족요건 ····· 421
▶ 신행정수도 관련 세미나 기조연설 / 1. 18.

지방화시대를 스스로 열어갈 역량 구축 ····· 429
▶ 혁신분권연구단 워크숍 인사말씀 / 1. 18.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년의 힘 ····· 432
▶ 충남지구JC회장단 취임식 축사 / 1. 20.

충청인의 단합된 모습과 저력 ····· 435
▶ 충청향우회중앙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축사 / 1. 20.

신행정수도 건설 홍보의 전령사 ····· 438
▶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대국민홍보단 발대식 격려사 / 1. 24.

충남경제의 힘찬 도약을 위한 출발점 ····· 442
▶ 기업인단체 신년교례회 축사 / 1. 27.

중부권 물류의 중심 항만 ····· 445
▶ 당진항 명명식 치사 / 1. 28.

충남농업의 도약을 위한 희망 ····· 448
▶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축사 / 1. 31.

## 2005년 2월

21세기 충남문화의 양대축 ····· 451

▶ 내포문화권개발 활성화 심포지엄 축사 / 2. 1.

지역발전의 중심 ····· 454

▶ JC특우회장단 이 · 취임식 축사 / 2. 1.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 457

▶ 대전고등학교 제84회 졸업식 축사 / 2. 5.

풍요로움과 정겨움이 넘치는 시간 ····· 460

▶ 설맞이 담화문 / 2. 9.

균형발전의 첫걸음 ····· 462

▶ 충청투데이 기고문 / 2. 11.

우리사회의 당당한 주역 ····· 465

▶ 청양대학 제6회 졸업식 치사 / 2. 16.

우리고장 농업발전의 구심체 ····· 468

▶ 2004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식 축사 / 2. 21.

'혁신' 성공요체는 참여와 실천 ····· 471

▶ 중도일보 기고문 / 2. 21.

청정 충남의 견인차 ····· 474

▶ 제3기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총회 축사 / 2. 22.

이 시대의 진정한 교육자 ····· 477
▶ 신극범 대전대학교총장 이임식 축사 / 2. 25.

지역사회 스승의 본보기 ····· 480
▶ 이광진 충남대학교총장 이임식 축사 / 2. 28.

온 겨레가 하나 되는 혼불 ····· 483
▶ 제27회 3·1절 기념 봉화제 축사 / 2. 28.

## 2005년 3월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 횃불 ····· 486
▶ 3 · 1절 조찬기도회 인사말씀 / 3. 1.

숭고한 조국애의 발로 ····· 489
▶ 제86회 3 · 1절 기념행사 기념사 / 3. 1.

우리겨레 민족혼의 표상 ····· 492
▶ 제1회 태극기사랑 한마당 격려사 / 3. 1.

애국애족정신의 시금석 ····· 495
▶ 한훈 선생 어록비 제막식 축사 / 3. 1.

원대한 비전 펼치시길 ····· 497
▶ 제3대 청양대학장 취임식 축사 / 3. 2.

보람찬 대학생활을 위한 출발점 ····· 500
▶ 청양대학 2005학년도 입학식 축사 / 3. 2.

아름다운 추억과 낭만 ····· 503
▶ 가수 윤형주 노래비 제막식 축사 / 3. 4.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공간 ····· 505
▶ 백제군사문화박물관 개관식 축사 / 3. 7.

민주주의 승리의 도화선 ····· 508
▶ 3·8 민주의거 45주년 기념식 축사 / 3. 8.

충남환경의 지킴이 ····· 511
▶ 한국환경운동 충청남도지역본부 발대식 축사 / 3. 10.

경로효친정신 재점화의 원동력 ····· 514
▶ 서천군노인종합복지타운 기공식 치사 / 3. 10.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이웃 ····· 517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기총회 치사 / 3. 11.

분권과 통합을 통한 조화와 균형 ····· 520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토론회 축사 / 3. 11.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일 ····· 523
▶ 충청투데이 기고문 / 3. 11.

재도약을 향한 새로운 전기 ····· 526
▶ 충남대학교총장 취임식 축사 / 3. 17.

신뢰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 529
▶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축사 / 3. 17.

여성농업인의 밝은 미래를 위한 출발 ····· 532
▶ 한국여성농업인 충남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축사 / 3. 18.

도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사랑 ····· 535
▶ 2005 행정동우회 정기총회 축사 / 3. 24.

도청가족 화합과 동료애 증진의 구심점 ····· 538
▶ 직장협의회 정기총회 축사 / 3. 24.

사랑과 봉사의 전도사 ····· 541
▶ 충남간호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치사 / 3. 25.

이웃과 사회를 위한 큰사랑의 실천 ····· 544
▶ 제4회 유관순상 시상식 식사 / 3. 31.

## 2005년 4월

민족자주성 회복의 계기 ····· 548
▶ 고구려대탐험전 개막식 축사 / 4. 1.

21세기 과학기술 한국을 꿈꾸며 ····· 551
▶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비전 명사칼럼 / 4. 1.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요람 ····· 556
▶ 강경중앙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 축사 / 4. 3.

희망이 솟구칠 터전을 만드는 일 ····· 559
▶ 2005 사랑의 집짓기사업 기공식 축사 / 4. 5.

새봄에 피우는 상생의 꽃 ····· 562
▶ 충청투데이 기고문 / 4. 6.

자랑스런 동포사회 건설 ····· 565
▶ LA한인경제인 초청만찬 만찬사 / 4. 7.

고향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 ····· 568
▶ 미동남부 충청향우회 주최 초청만찬 만찬사 / 4. 9.

충청인의 명예와 위상 제고 ····· 571
▶ 미동부 충청도민회 주최 환영만찬 만찬사 / 4. 12.

편안함과 반가움이 넘치는 자리 ····· 574
▶ 가락회 주최 환영만찬 만찬사 / 4. 13.

국가적 대역사의 성공적 완수 ····· 577
▶ 제44회 연기군민체육대회 치사 / 4. 17.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소중한 자원 ····· 580
▶ 2005년도 충남지방기능경기대회 대회사 / 4. 19.

희망과 의지로 이룬 값진 승리 ····· 583
▶ 제25회 장애인의 날 행사 대회사 / 4. 20.

자아계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밑거름 ····· 586

▶ 제5기 충남여성자치대학 개강식 인사말씀 / 4. 21.

충남미래를 향한 든든한 방향타 ····· 589

▶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격려사 / 4. 21.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의 기본요건 ····· 592

▶ 제42회 법의 날 기념행사 축사 / 4. 25.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동량 ····· 595

▶ 영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격려사 / 4. 25.

직원화합과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 598

▶ 청심회 영산홍축제 인사말씀 / 4. 26.

미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정성 ····· 600

▶ 충남의 미래비전 및 핵심전략 세미나 축사 / 4. 27.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 ····· 603

▶ 호서대 가족기업체결식 격려사 / 4. 28.

21세기 천안 번영의 힘찬 동력 ····· 606

▶ 제43회 천안시민체육대회 치사 / 4. 30.

## 2005년 5월


오늘의 번영을 일군 역량 ····· 609

▶ 근로자의 날 행사 축사 / 5. 1.

민족정신을 이어주는 매개체 ····· 612

▶ 제15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격려사 / 5. 4.

지역산업 기술혁신의 전진기지 ····· 615

▶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방사무소 청사 준공식 축사 / 5. 4.

지혜와 헌신의 등불 ····· 618

▶ 부처님 오신 날 봉축연등점등식 축하말씀 / 5. 4.

미래를 떠받치고 나갈 기둥 ····· 620

▶ 제83회 어린이날 기념식 기념사 / 5. 5.

인성과 도리가 살아있는 훈훈한 사회 ····· 623

▶ 제5회 전국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 대회사 / 5. 7.

행동하는 인류애의 실천 ····· 626

▶ 국제로타리 3620지구 제10차 지구대회 축사 / 5. 8.

승리를 향한 힘찬 발걸음 ····· 629

▶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결단식 격려사 / 5. 10.

참다운 지방행정의 새모습 ····· 632

▶ 제1회 자치단체단체장 혁신토론회 환영사 / 5. 13.

생활체육축전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 635
▶ 충청투데이 기고문 / 5. 13.

생활체육이라는 공통분모 ····· 638
▶ 한 · 일생활교류 환영연 환영사 / 5. 13.

국론통합과 국력신장의 원동력 ····· 641
▶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환영사 / 5. 14.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 644
▶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축사 / 5. 15.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활력소 ····· 647
▶ 제13회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축사 / 5. 19.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 650
▶ 충남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워크숍 축사 / 5. 19

우리가 오래도록 간직해야 할 자산 ····· 653
▶ 제24회 스승의 날 기념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 행사 치사 / 5. 20.

서해안시대를 열어갈 인재양성의 요람 ····· 656
▶ 신성대학 개교 10주년 기념식 축사 / 5. 20.

자유수호에 대한 의지 ····· 659
▶ 전몰참전미군용사 위령비제막 추모식 기념사 / 5. 20.

빛나는 전통과 명예의 계승 · 발전 ····· 662
▶ 대전고 2005 정기총회 및 모교방문의 날 축사 / 5. 21.

여론 형성의 리더 ····· 665
▶ 대전 · 충남기자협회 체육대회 축사 / 5. 21.

새로운 활력과 힘을 얻는 시간 ····· 667
▶ 한마음 체육대회 격려말씀 / 5. 21.

하나가 되는 동료의식 ····· 669
▶ 한마음 체육대회 마무리말씀 / 5. 21.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 ····· 671
▶ 제13회 충남여성포럼 대토론회 축사 / 5. 26.

우리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 ····· 674
▶ 제35회 충청남도미술대전 시상식 축사 / 5. 27.

건강과 행복의 구심체 ····· 677
▶ 제2회 충청남도장애인생활체육 탁구대회 대회사 / 5. 27.

향후 회원들의 정신적 구심체 ····· 679
▶ 재인충남도민회 체육대회 축사 / 5. 28.

자아 성찰의 시간 ····· 682
▶ 제22회 천주교 전국공무원피정 축사 / 5. 28.

우리사회의 통합과 화해를 위한 노력 ····· 685
▶ 대한성공회대전교구 설립40주년 감사성찬례 및 선교대회 축사 / 5. 29.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지역 ····· 688
▶ 행정자치부장관 방문 인사말씀 / 5. 30.

지역문화 창달의 빛나는 시금석 ····· 691
▶ 당진 문예의 전당 개관식 축사 / 5. 31.

충남을 대표하는 바람직한 기업인상 ····· 694
▶ 제12회 충청남도 기업인대회 축사 / 5. 31.

## 2005년 6월

따뜻한 사랑의 메신저 ····· 697
▶ 적십자봉사원 한마음체육대회 축사 / 6. 2.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 700
▶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식 기념사 / 6. 4.

우리 모두 가슴을 열고 하나가 되어 ····· 703
▶ 2005년도 충남장애인부모대회 축사 / 6. 4.

전통문화 발전의 밑거름 ····· 706
▶ 제9회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치사 / 6. 4.

100년을 향한 새로운 시작 ····· 709
▶ 충남발전연구원 개원10주년 기념식 치사 / 6. 7.

건강한 생활을 이루는 활력소 ····· 712
▶ 제3회 충남어머니생활체육대회 치사 / 6. 8.

인간승리의 참모습 ····· 715
▶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대회사 / 6. 8.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 ····· 718
▶ 베트남 롱안성장 환영만찬 인사말씀 / 6. 8.

국제무대에서의 든든한 동반자 ····· 720
▶ 베트남 롱안성과 우호협력협정서 조인식 기념사 / 6. 9.

하나로 어우러지는 한마당 ····· 723
▶ 제1회 충남시 · 군의회의원 체육대회 축사 / 6. 10.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 726
▶ 충청투데이 기고문 / 6. 10.

충청인의 마음을 모으는 구심체 ····· 729
▶ 재제주 충청인의 날 행사 축사 / 6. 12.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 ····· 732
▶ 제11회 도의새마을운동촉진대회 치사 / 6. 14.

역대대회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 ····· 735
▶ 2005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 해단식 격려사 / 6. 14.

한 · 일 문화교류의 전도사 ····· 738
▶ 제26차 한 · 일불교문화교류 수덕사대회 인사말씀 / 6. 14.

충청권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 ····· 741
▶ 충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세미나 축사 / 6. 15.

지역안전의 지킴이 ····· 744
▶ 천안의용소방대 60년사 발간 격려사 / 6. 15.

건강한 지역사회의 디딤돌 ····· 746
▶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 개원식 축사 / 6. 16.

지역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도 ····· 749
▶ CBS대전방송 발전과 대전·충남지역 성시화를 위한 부흥대성회 축사 / 6. 16.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 ····· 752
▶ 여성유권자 전진대회 환영사 / 6. 17.

영속적인 청년운동의 보루 ····· 755
▶ 제36차 JCI Korea 충남지구회원대회 축사 / 6. 18.

새로운 충남시대의 창조 ····· 758
▶ 민선자치 10주년 기념식 기자회견 / 6. 21.

충남체육의 미래를 밝게 하는 밑거름 ····· 767
▶ 제33회 충남소년체전 및 제34회 전국소년체전유공자 종합시상식 축사 / 6. 21.

국력 신장과 국운 융성을 위해 매진 ····· 770
▶ 6.25전쟁 제55주년 기념행사 기념사 / 6. 24.

맑고 깨끗한 고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 ····· 773
▶ 참게종묘 방류행사 인사말씀 / 6. 24.

숭고한 인류애의 실천 ····· 776
▶ 향림원 이전 준공식 축사 / 6. 25.

국민과 함께 하는 신문 ····· 779

▶ 한겨레신문 창간17돌 행사 축사 / 6. 25.

자랑스런 충남의 위상을 실현시킨 산증인 ····· 781

▶ 2005 상반기 정년 · 명예퇴임식 치사 / 6. 27.

품질은 기업경쟁력의 원천 ····· 784

▶ 2005 품질경영대회 대회사 / 6. 30.

**부 록** ····· 787

▶ 분야별 연설문 색인 목록

# 충남체육을 위한 힘찬 도약

제33회 전국소년체전 시상식 축사

2004. 7.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시상식은 지난 제32회 충남 소년체육대회와 제3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결산하고 선수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에도 兩大 소년체육대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형식 충남교육감 권한대행님과 양기택 교육위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각 시군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 지도교사와 지도자 여러분, 출전선수와 부모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불굴의 투혼으로 당당한 승리를 거두어 표창을 받으신 선수와 지도자님, 유공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와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년체육대회는 미래의 체육 꿈나무들을 위한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유망한 선수를 발굴하여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선수

들 간의 우정을 다지는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대회의 뜻에 걸맞게, 정말 참다운 우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더욱 두드러진 노력과 투지로 값진 승리의 결실을 거두신 분들이십니다.

비록 도 전체적으로는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선수단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는 그 어떤 메달보다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많은 뒷받침과 응원을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각 종목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하고 경기력 향상의 성과를 거둔 것은, 아쉬움 속에서도 소중한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충청남도 학교 체육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전체 매달수가 우리 도의 역대 성적 가운데 두 번째이며 모든 시군에서 한 게 이상의 메달을 획득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학교체육활성화 5개년 계획도 우리 학교 체육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눈에 보이는 성과나 나타나면 전국체전에서 6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한 체육 강도의 저력을 더 크게 떨치게 될 것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와 싸우며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낸 투지를 살려, 이제 우리는 더욱 힘찬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충남체육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자부심으로 더 큰 힘과 의지를 길러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이 더 큰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오늘 시상식이 충남 체육의 힘찬 도약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활력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진 복지의 요람

공주시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식 격려사

2004. 7.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공주시청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사무소'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될 본 사무소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영희 시장님과 공주시청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축하를 해주시는 이복구 도의회 의장님, 김태룡 공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소한 공주시 사회복지사무소는 어렵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또는 어린이와 여성처럼,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고 참다운 참여복지의 실현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민의 기대도 아주 클 것입니다.

소속 공무원 여러분은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줄 압니다.

아픈 시민들은 찾아가서 보살펴 드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난 봉사를 통해 더욱 깊은 신뢰를 얻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무소가 바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복지행정 시스템에 대한 試金石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회복지전담기구를 얼마나 잘 운영해 주시느냐에 따라 충남도민과 공주시민의 삶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주 각별한 마음 자세로 매사에 정성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무소를 적극 활용하시면서, 앞으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원과 격려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과 관계자,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이 7월의 첫날이니까, 금년도 벌써 하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지방분권과 신행정수도건설의 가시화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는 자치도정은 남은 하반기에도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는 충남 건설에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치역량과 지역경쟁력 강화,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에 전력을 쏟으면서 금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고품질 충남 경영'을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참여복지의 고품격화'를 위해 도정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첫 업무를 시작하는 공주시 사회복지사무소는 이러한 복지도정을 뒷받침하면서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것으

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사무소 개소식이 충남 복지 행정의 고품격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사랑하는 선진 복지의 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한 공주시민과 동료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늘 활기찬 여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 태안의 미래를 여는 낭만의 해수욕장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개장식 축사

2004. 7. 3.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자랑이며 서해안 3대 해수욕장의 하나인 만리포해수욕장이 여러분 모두의 환영 속에 개장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손님맞이 준비에 정성을 다해주신 진태구 태안군수님, 김봉영 만리포관광협회 회장님과 태안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과 관광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세워진 노래비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이곳 만리포해수욕장은 젊은 '꿈'과 낭만어린 '사랑'을 간직한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천연규사로 이루어진 완만한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 그리고 맑은 바닷물은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는 피서철마다 약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국적인 명소가 되면서 그 聲價를 더하고 있습니다.

태안군민 여러분께서 그만큼 잘 가꾸어 주시고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푸신 덕분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만리포해수욕장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다시 이곳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제 군민 여러분께서 해 주실 일은 바로 그러한 손님들에게 당초 기대한 만큼의 만족감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가운데 저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도록 하여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좋은 인상을 심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태안군민과 내빈 여러분!

태안군은 어느 곳보다 값지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간직한 축복받은 고장입니다.

전국 유일의 해안국립공원과 1천 3백리 해안에 펼쳐진 30개가 넘는 해수욕장은 세계적인 관광과 휴양의 명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특색 있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그리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즐길거리까지 주어진다면 '관광 태안'의 미래는 더욱 밝고 희망찰 것입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태안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이곳 태안반도 일대를 천혜의 자연을 살린 해양 리조트권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도 더욱 촉진하여 태안군이 명실상부한 '서해안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드릴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관광문화의 선진화'를 통해 교통과 숙박 등의 관광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고장이 가진 관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이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정성을 모아주십사는 당부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개장식이 아름다운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안기고 지역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차고 활기 넘치는 여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진은 21세기 미술의 새로운 총아

제34회 충청남도사진대전 시상식 축사

2004. 7. 3.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 사진작가 여러분의 예술적 감성을 담아 열리는 제34회 충청남도 사진대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이번 대전에서 입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축하를 드리며, 훌륭한 작품으로 행사를 빛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대전을 주관해 주시는 최차열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협의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심사를 맡아 수고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의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한 장의 사진은 아름다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들 삶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저의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도, 볼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우리 가족사의 둘도 없는 기록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은, 그 현장성과 사실성으로 인하여 때로는 인류 역사의 생생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잃었던 가족을 찾아 준 것이 빛바랜 사진 한 장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가 160여년에 이르면서, 오늘날의 사진은 인간 생활과 역사의 기록이라는 실용성을 넘어 고유의 예술 분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21세기 미술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르면서 작가는 물론 이를 취미로 즐기는 애호가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대전에 예년보다 훨씬 많은 작품이 접수되고 그 수준도 높아졌다고 하니, 우리 충남의 사진예술도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역의 작가 여러분께서 남다른 열정으로 창작활동을 해주시고 사진예술 보급을 위해 애써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진작가와 내빈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상반기를 넘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온 민선3기 자치도정도 이제 후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은,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쟁력 제고와 자치역량의 강화, 그리고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성을 쏟은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른바 'Heart of Korea'를 우리 충남의 월드브랜드로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도약을 위한 '고품질 충남 경영'에 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지금까지 추진해온 도정을 알차게 마

무리하고 충청남도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중심은 물론 경제와 문화의 중추로 가꾸어 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에도 더욱 진력하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비롯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도 격조 높은 충남문화의 부흥을 위해 더 뜨거운 열정을 모아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34년 연륜의 충남사진대전이 이에 큰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향토 사진예술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진작가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작품 활동도 더욱 왕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지한 자아성찰의 기회

제5차 합동수계법회 축사

2004. 7. 4.

전국에서 오신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원과 가족 여러분!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불심을 다지고자 열리는 제5차 합동수계법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고장 수덕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 큰 계법을 주시기 위해 특별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존경하는 법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큰 스님께 정중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법회를 위해 여러모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법정 수덕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덕스님, 그리고 박종순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불교도라면 누구나 지켜야할 다섯 가지 계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살생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잠시 후 수계 의식을 치르게 되면, 여러분은 불자로서는 물론 공직자이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사 그릇됨이 없이 행동해야 하고 자기 수양을 위한 信行에도 더욱 힘써야 함은 물론입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는 평소 경계하고 삼가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기 이익보다는 국리민복을 먼저 추구해야 하는 公僕으로서 더욱 높은 도덕성과 투철한 윤리의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수계법회가 이 같은 공직자의 본분을 되새기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갖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만물에게 자비를 행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국민과 이웃 모두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자는 아름다운 다짐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곳 수덕사는 이처럼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을 갖기에 더없이 훌륭한 도량인 만큼 여러분 모두 값진 깨달음을 얻고 가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대덕스님과 공무원 불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 덕숭총림 수덕사는 선불교의 대선사인 만공 스님께서 '世界一花'의 큰 뜻을 펼치고자 정진하신 곳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꽃이라는 이 선지자적 사상은 지구촌이 하나 되는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깊은 울림으로 통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는 스님의 이상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질 않고 나라 안에서도 계층이나 지역간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공직자이며 불제자이신 여러분께서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고

그로 인한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의 행정을 통합하고 조정해온 역량과 지극한 불심이 우리 사회를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의 꽃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世界一花'의 사상이 꽃피고 따뜻한 포용의 문화를 간직한 우리 충청남도에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밝은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머무시는 동안 부디 편안하시고 마음 가득 甘露를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각 소속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加被가 늘 함께 하시길 합장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일하고 같이 키우는 것이 모두의 행복

제9회 여성주간기념 제21회 충남여성한마음대회 축사

2004. 7. 5.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제21회 충청남도 여성대회'는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여성주간을 기념하면서 1백만 충남여성들의 활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여러분의 잔치입니다.

이 뜻깊은 대회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우리 고장에 사랑과 희망을 더해주시는 조준자 충남 여성단체협의회장님, 각 단체장님과 여성지도자, 그리고 모든 충남여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협의회장직을 맡아 수고해주신 김용남 생활개선협의회장님, 표창을 받으신 유공자와 '평등문화가정패'를 받으신 모범 가정에도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성원하고 격려해주시는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과 함께 첫 여성주간이 시작되면서,

이제 매년 7월은 여성 여러분의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성의 계절은 '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리 여성도 '여름'처럼 정열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거듭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이끌어 가는 당당한 자부심과 활기찬 의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우리 충남 여성의 열정과 의지가 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내성적이고 순종적 의미만의 여성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 창의적인 능력과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지니신 21세기의 여성이십니다.

'양성평등 문화'란, 바로 이러한 여성의 자질과 능력을 남성의 에너지와 조화시켜 국가와 사회 발전을 함께 이룩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여성주간의 주제인 "함께 일하고 같이 키우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말도 남녀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더 큰 자신감으로 힘차게 일어나 주셔야 합니다.

균등한 기회 속에 권리를 찾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다하는, 더욱 떳떳하고 당찬 민주여성으로서 그 역할을 맡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남여성과 귀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민선3기 자치도정을 맡은 지도 벌써 전반기인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역경쟁력과 자치역량을 높이고 미

래 인재 양성에 매진한 시간이었다면 남은 2년은 이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충남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고품질 충남 경영에 최선을 다하면서 'Heart of Korea'를 세계적 브랜드로 만드는데 모든 정성을 쏟을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을 위해서는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기혼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직업 능력 개발 시책도 적극 확대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출발하는 후반기 도정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기대하면서, 모쪼록 오늘 한마음다짐대회가 우리 충남여성의 긍지와 명예를 높이는 아름다운 화합의 마당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를 함께 여는 지구촌의 단짝 자매

한일여성포럼 참가자 만찬 환영사

2004. 7. 6.

존경하는 시오타니 요시코 지사님, 먼 길 오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縣政으로 시간을 내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히 방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 동행을 해주신 방문단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반가운 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여서 아주 뜻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오타니 요시코 지사님을 비롯해서 구마모토현을 대표하시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저로서는 더욱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양 지역의 여성 지도자 분들이 따뜻한 우정을 나누게 된 것은 바로 지난 2001년에 있었던 첫 한일 여성 포럼이 그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양 지역을 오가며 몇 차례 행사를 갖게 되면서, 여성계의 교류가 더 한층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와 구마모토현은 벌써 21년째 긴밀한 우호를 다져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이처럼 오랜 기간, 한결같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간에 쌓아온 우정과 신뢰가 그만큼 두텁고, 서로의 노력도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다져온 충실한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먼 미래까지 이어지는 지구촌의 단짝 자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양 지역 여성 여러분께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일 열리는 포럼처럼, 서로가 만남과 대화의 기회도 자주 갖고 교류 분야도 확대해서 지속적인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견인차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道에서도 이러한 여러분의 교류활동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협조해 드리고 앞으로 발전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오늘 묵으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낙조가 가장 아름답다는 안면도의 '꽃지해수욕장'입니다.

옛날에는 근처에 해당화가 만발하여 이름도 '꽃지'라 하였고, 이런 유래가 있어서인지 지난 2002년에는 바로 이곳에서 국제꽃박람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비록 하룻밤 머무실 예정이지만 부디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길 기대하면서, 편안히 식사하시고 남은 일정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양 지역의 우호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주시는 시오타니 요시코 지사님과 구마모토현 여성 지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모범적인 동반자 관계

한일여성포럼 격려사

2004. 7.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일 여성 포럼은 우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의 개원 5주년에 즈음하여 특별히 시오타니 요시코 구마모토현 지사님과 일본의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위해 멀리서 우리 도를 방문해주시고 기조연설까지 준비해주신 시오타니 요시코 지사님과 방문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님, 임선희 충남여성포럼 선임대표님을 비롯한 포럼 참가가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가 21세기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고령화 현상'이라고 예견한대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본은 벌써 30여년 전에,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한일 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바로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따른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매의 인연을 맺고 있는 우리 도와 구마모토현의 노인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서로 지혜를 모아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주제인 '노인복지정책'을 그동안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하신 어르신들에게 인생의 2모작을 설계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호의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의 공헌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함으로써 제2의 삶을 보람차게 가꾸어 가시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참여복지의 고품질화'라는 대명제 아래,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충남 노인복지 2010'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측면에서는 심신의 요양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참여 측면에서는 일자리 만들기와 사회활동 권장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책들이 남녀를 따로 고려하여 추진되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여성 어르신들께는 앞으로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시오타니 요시코 지사님과 포럼 참가자 여러분!

구마모토현은 우리 도가 국제적 교류를 맺은 첫 친구로서, 아주 모범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21년간의 깊은 신뢰 속에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여성과 노인복지 분야까지 확대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양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깊은 이해로 각 지역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관련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쪼록 귀중하게 마련된 오늘 이 자리가 양 지역간 각종 정책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뜻깊고 알찬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기꺼이 먼 길을 와주신 지사님과 일행 여러분께 다시 한번 謝意를 표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아름답고 행복한 내일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향토문화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의 길잡이

천안문화원 개원50주년 기념행사 격려사

2004. 7. 10.

존경하는 천안시민과 문화 가족 여러분!

천안지역의 문화 발전과 예술 진흥을 선도해온 천안문화원이, 오늘로 개원 5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향토문화를 선양하며 지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해 오신 민병달 원장님을 비롯한 천안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문화 발전에 헌신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성원을 보내주시는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천안문화원이 첫 걸음을 내디딜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문화 여건은 참으로 척박하기만 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 속에서 '문화'라는 말은 오히려 사치스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문화원이었습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아 새로운 희망을 일깨우고 국가 재건의 도화선에 불을 당긴 주체가 바로 지방의 문화원들이었던 것입니다.

천안문화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의 하나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향토문화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각종 문예 정보지를 발간하여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안내하고 내실 있는 '문화학교' 운영으로 지역민의 문화 역량을 높여 주었습니다.

4년 연속 전국 최우수문화원으로 선정되면서, 전국 220개 문화원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와 보람이 충남의 首府 도시를 이끄시는 천안시민과 지역 문화인 여러분의 하나 된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여러분의 정성으로 뿌려진 문화의 씨앗들이, 이제 큰 나무로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의 문화가족과 내빈 여러분!

천안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인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목표로 하시는 인구 50만의 천안시대가 머지않으면서,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에서, 멋과 흥,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천안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흥타령의 신명 속에 예의와 충절이 함께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문화의 도시, 천안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원 50주년을 맞은 천안문화원이 바로 그러한 천안 고유의 문화

적 정체성과 역사성을 이어가는 견인차가 되어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천안문화원을 비롯한 각 지역의 문화원들이 더욱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기념행사가 우리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마련한 문화행사도 성황리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천안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남청소년의 따뜻한 마음의 등불

청소년종합상담실 개소10주년 기념식 격려사

2004. 7. 13.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장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등불이 되어온 충청남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이 뜻 깊은 개소 1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성심을 다해 상담실을 운영해 주시고 많은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전해철 실장님과 상담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두드러진 공적으로 표창을 받으신 유공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특강을 위해 멀리서 와주신 이혜성 한국청소년상담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참으로 꿈이 많지만 그만큼 고민도 많습니다.

가정이나 학교, 또는 친구간의 문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마음으로 호소하고 싶을 때가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은 바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키워

주는 일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내일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힘찬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하루 평균 스무 건이 넘는 약 8만 건의 상담을 통해 미래의 주역들에게 희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이 되고 때로는 부모나 친구가 되어 주면서, 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소중한 사랑의 봉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활동은 학교까지 찾아가는 직접 상담과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과 같은 사업으로 더욱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인권센터'와 '청소년 성교육 센터'는 청소년의 권익보장과 올바른 성문화 보급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여러분의 지극한 사랑과 아름다운 봉사 정신이 이처럼 알찬 성과와 값진 보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실 가족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내빈 여러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는 부모의 무관심에서 오는 욕구불만과 인간관계의 부조화에서 오는 충동적 사고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소외되어 사랑을 공급 받을 대상이 없을 때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을 베풀며 사회 전체가 공동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 공동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나아가 훌륭한 미래 인재를 길러 내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충남 청소년 비전계획'과 '미래 인재 양성시책' 도 이 같은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모쪼록 오늘 기념행사를 계기로 미래의 주역이 될 당당한 충남의 청소년 육성에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상담실이 이에 구심체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년간 충남 청소년들의 든든한 친구 역할을 해주신 상담실 가족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충남 청소년종합상담실의 더 큰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직사회의 한 축을 이끄는 여성 리더

관리직 여성공무원 연찬회 격려말씀

2004. 7. 14.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각자의 업무로 바쁜 중에도 밝은 얼굴로 연찬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와 각 시·군의 관리직 공직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치하와 위로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창기 대전대 교수님, 그리고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가족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우리 충청남도 공직사회의 한 축을 이끌어 가는 당당한 여성 리더들입니다.

도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소관 업무를 관리하면서, 때로는 도정이나 일선행정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더욱 미덥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업무에 대한 능력이 모두들 뛰어나고 그 열정도 남다르다는 점입니다.

간부급이나 관리직에 오르는 여성 공직자들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실제로도 눈에 띄는 업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사회와 도정의 발전은 여러분의 정성이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민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자치행정에서 여성 특유의 정감어린 친화력과 자상함은 행정의 신뢰를 크게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세계적 브랜드로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Heart of Korea'에는 바로 이러한 충남행정의 따뜻한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품질 충남경영' 역시 지혜롭고 치밀하게 행정 하나하나의 수준을 높여 나갈 때 그 실현이 가능합니다.

우리 충남도정이 구현하려는 두 가지 큰 목표가, 따스한 심성과 섬세한 창의력을 간직한 여성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정성과 지혜를 모아 달라는 당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여성 동료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에 열린 세계 여성지도자 대회에 참가한 조앤 하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社의 대외 협력 전무는, 지도자의 요건으로서 '팀플레이' 능력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모든 조직원을 포용하고 능률적으로 통솔하여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창조적이고 활기찬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비전과 신념에 따라 동료를 설득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당찬 자

# 공직사회의 한 축을 이끄는 여성 리더

관리직 여성공무원 연찬회 격려말씀

2004. 7. 14.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각자의 업무로 바쁜 중에도 밝은 얼굴로 연찬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와 각 시·군의 관리직 공직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치하와 위로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창기 대전대 교수님, 그리고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가족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우리 충청남도 공직사회의 한 축을 이끌어 가는 당당한 여성 리더들입니다.

도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소관 업무를 관리하면서, 때로는 도정이나 일선행정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더욱 미덥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업무에 대한 능력이 모두들 뛰어나고 그 열정도 남다르다는 점입니다.

간부급이나 관리직에 오르는 여성 공직자들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실제로도 눈에 띄는 업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사회와 도정의 발전은 여러분의 정성이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민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자치행정에서 여성 특유의 정감어린 친화력과 자상함은 행정의 신뢰를 크게 높여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세계적 브랜드로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Heart of Korea'에는 바로 이러한 충남행정의 따뜻한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품질 충남경영' 역시 지혜롭고 치밀하게 행정 하나하나의 수준을 높여 나갈 때 그 실현이 가능합니다.

우리 충남도정이 구현하려는 두 가지 큰 목표가, 따스한 심성과 섬세한 창의력을 간직한 여성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정성과 지혜를 모아 달라는 당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여성 동료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에 열린 세계 여성지도자 대회에 참가한 조앤 하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社의 대외 협력 전무는, 지도자의 요건으로서 '팀플레이' 능력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모든 조직원을 포용하고 능률적으로 통솔하여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창조적이고 활기찬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비전과 신념에 따라 동료를 설득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당찬 자

부심을 가진 리더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여성 공직자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관리자의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전체 여성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모쪼록 더 큰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 속의 일류 충남을 여러분의 힘으로 창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연찬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알차고 유익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거듭 고마움을 전하며,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한 가운데 앞으로의 공직생활에도 보람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충청시대의 개척

목요조찬회 인사말씀

2004. 7. 14.

안녕하십니까?

매번 참석을 한다고 마음은 먹었으면서도 그 때마다 다른 일정이 있어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점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도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지역의 기관·단체장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에 있었던 제 에세이집 출판기념회時 멀리까지 찾아와 주시고 축하의 뜻을 보내주신 厚意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謝意를 표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책이고 시기적으로도 마땅치 않아 조촐하게 치르려고 했습니다만, 예상 외로 많은 분들께서 격려를 해주셔서 오히려 불편과 부담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이미 계획된 일정이고 규정상 제약도 많아 소홀함이 더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충청지역의 최대 현안은 역시 新행정수도 건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정지가 최종 확정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일부의 반대론자들이 헌법 소원까지 제출한 상태여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차 강조한대로 이것은 국가균형발전과 민족의 천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선택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중대사인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충청인만이라도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12일, 전라북도지사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처럼, 우리가 타당한 논리로 설득해 나간다면 국민들도 이에 공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닥친 일이 바로 여름 장마철의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재난 예방입니다.

지난 3월의 폭설과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서도 세심한 대비를 해주시고, 상호 협조체제도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하반기인 7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혼란합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500만 충청인이 중심을 잡고 의연하게 국민화합과 사회 안정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는 새로운 충청시대를 위해 기관·단체장님들께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궂은 날씨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더욱 기운차게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충남농정의 새로운 미래

농업정책 대토론회 인사말씀

2004. 7. 20.

오늘 충남 농어업의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한 정책대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지역 농어업 발전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주수 농림부차관님과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서정의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조연설을 해주실 성진근 교수님과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김철호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유상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 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각 도에서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농어업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고 계신 농어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어업은 새로운 변화의 물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농어업에 대한 기존의 관념과 사고만을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농어업의 현실과 대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등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농업테크노파크를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농업혁신과 클러스트의 주체로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우리 농어업의 희망 찾기에 충청남도가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이곳을 중심으로 충남농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21만평 규모의 이곳에는 앞으로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네트워크와 집적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지식을 바탕으로 모험과 도전을 실천하는 벤처농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정책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맞춤농정과 최고를 지향하는 명품농정을 추구할 것이며, 안전과 품질은 충남 농정의 2대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과 소득화에도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틀도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초 우리 도는 고품질 충남경영을 선언하고 월드브랜드 「Heart of Korea 충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농산물 브랜드를 접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Heart of World」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랑스런 50만 농어업인 여러분!

농어업은 경제적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 산업과의 격차가 발생하고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편협한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

니다.

이러한 불리함은 생산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가슴을 열고 지혜를 모아야 하며, 농어촌이 생활공간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충남농정은 농어촌의 황폐화야말로 단순히 식량 생산기지가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의 쾌적함과 마음의 고향이라는 우리의 정서적 쉼터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를 해소해 나가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먹고 입는 모든 것은 첨단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우리 농어업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머지않아 첨단생명산업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업에 대한 저의 개인적 신념이자 지난 10여년간 충남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농어촌 현장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갖게 된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확신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분야별로 실무차원에서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이 간과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우리는 보다 낳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충남농정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꾸어 가기 위한 대열에 앞장서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받는 충남교육 구현

제12대 충청남도교육감 취임식 축사

2004. 7. 22.

오늘 우리 충남교육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제12대 충청남도 교육감 취임식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민선 제4기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절대적 지지로 당선되시어 오늘 취임식을 갖는 오제직 교육감님께 200만 충남 도민과 더불어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복기왕 국회의원님,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양기택 교육위원회 의장님, 이광진 충남대학교 총장님, 이상윤 한남대학교 총장님, 강지형 공주교육대학교 총장님, 지역 교육장님과 초·중·고 학교장님, 교육위원님과 각 학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축하의 자리에 참석해왔습니다만, 오늘 저는 매우 남다른 감회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교육감님과 맺어온 소중한 인연도 인연입니다만, 교육감님께서 평소 지니고 계신 열정과 역량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

기에 앞으로 보여주실 우리 충남교육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님께서는 일찍이 교육현장의 최일선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쳐 보이신 분이십니다.

왕성한 연구활동과 저술활동이 함께 했던 공주대학교 재임시절에는 2세 교육을 담당할 사범대생들을 지도하시면서 참師道의 길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1998년부터 2년 동안 공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펼쳐 보이신 교육행정가로서의 모습은 교육감님이 지니신 역량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주창하신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행복한 배움터'는 바로 이와 같은 산 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속에는 교육감님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배어있으며,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감님께서는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40년이 넘는 학술적 경륜을 토대로 창의적인 지역정책을 개발하여 도정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을 제공해 주신 일은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훌륭하신 분이 우리 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충남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크게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때는 일찍이 없었

습니다.

교육이야말로 현재는 물론,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꽃피게 하는 원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교육의 위기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尊師愛弟의 정신이 무너지고 참된 도리와 인격도야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가 단순한 지식 전달의 장소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망각한 때문이며, 이를 올바로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교육이 바로서고 올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성심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님께서 지성과 덕성이 풍부한 으뜸인재를 육성하고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문화의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미래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 교육'으로 교육 지표를 설정하신 일은 오늘의 상황을 바로 보신 것이며,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이와 같은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교육가족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충남 교육을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커다란 업적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도 또한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구현되고 도민이 만족해하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취임식이 이러한 기대와 다짐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교육입

국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더욱 새롭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제직 제12대 충남 교육감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행정수도 건설 의지 재확인

총리 오찬 인사말씀

2004. 7. 24.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해찬 국무총리님,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과 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소찬의 자리를 함께 하게 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리님의 우리 도 방문을 거듭 환영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끝 더위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참으로 무더운 날씨인데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둘러보시느라 총리님 이하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신행정수도건설 예정지가 지닌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는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진부한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전혀 생산성 없는 논리로 이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인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참여정부의 의지와 로드맵에 대하여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총리님의 예정지 방문은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해주는 것이며, 앞으로의 진행일정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위한 것이며, 앞으로 열어갈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면서,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으로서 성심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총리님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비록 소찬이지만, 즐거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당당한 스포츠맨십

제29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축사

2004. 7. 26.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하신 오영희 공주시장님, 김태룡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 뜨거운 여름을 아름다운 땀방울로 수놓을 양정모 올림픽 제패기념 제29회 KBS배 전국레슬링 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충남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우리 고장을 찾아온 선수와 임원, 그리고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천신일 대한레슬링협회 회장님과 김윤태 충남레슬링협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선수 여러분이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레슬링은 인류가 행하고 있는 운동 중 가장 오래

된 투기종목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몸과 몸을 밀착시키고 상대 선수와의 숨소리를 나누며 기량과 힘을 겨루는 솔직하고 원초적인 스포츠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슬링은 국제무대에서 전통적인 우리의 메달밭으로 국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오늘 대회의 기원이 되고 있는 1976년 몬트리얼 올림픽의 영웅 양정모 선수에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수들이 레슬링을 통해 떨친 대한남아의 기상은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레슬링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경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펼쳐지는 대회를 통해 레슬링이 지닌 이러한 열정과 재미를 우리 국민들에게 선사해 주리라 굳게 믿습니다.

경기를 통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물론, 당당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여러분의 준비는 이미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다부진 어깨, 자신감 넘치는 얼굴은 이를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번 경기를 통해 한층 성숙한 기량을 선보일 것이며, 당당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

당당하게 경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이 구슬땀을 흘리며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런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도전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새

롭게 느끼게 될 것이며, 아낌없는 박수로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선수 여러분의 후회 없는 선전을 당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는 것으로 축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승리의 벅찬 감격을 안고 다시 만나길

유도선수단 하계강화훈련 발대식 인사말씀

2004. 7. 31

자랑스런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유도회 임원여러분!

오늘 우리 도 유도 선수단의 발대식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도 유도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유도팀의 하계강화훈련 발대식에 참여해 주신 김정행 대한유도협회장님을 비롯한 김규수 용인대 무도대학장님, 박순진 용인대 교육대학원장님, 최종삼 대한유도회 전무이사님, 장인권 대한유도회 경기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과 충남유도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태 회장님, 조용철 용인대 유도학과장 겸 道 유도회 전무이사님을 비롯한 유도회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10월 8일 충북에서 개막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이 이제 꼭 69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발대식은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될 하계강화훈련에 앞서 금년 전국체전에서 최고의 결실을 맺기 위한 팀의 전략과 선수 개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굳은 결의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98년 제주도 전국체전에서 3위로 입상한 이래, 6년 연속 상위권 성적을 이루어냄으로써 타 시도로부터 부러움과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도종목의 성적 또한 최근 3년간 점차 향상됨으로써 우리 도 상위 입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체육여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육인 모두의 굳은 의지와 땀방울이 모아져 이룩해 낸 값진 성과이며, 종목을 맡은 체육지도자의 지도력과 선수들의 신념이 한데 어우러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도경기는 여타 기록경기 종목보다 훨씬 더 강인한 투지와 체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도는 제가 후원이사를 맡고 있는 종목으로서 더욱 더 애착이 가고 그 목표와 성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요즘, 본격적으로 접어든 훈련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남은 기간 여러분이 흘리는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바로 좋은 결실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노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보람과 기쁨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유도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선수 여러분 모두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고 승리의 벅찬 감격을 가슴에 안고 다

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쟁력 있는 수산물의 관광자원화

제2회 태안군 안흥항 오징어대축제 축사

2004. 8. 1.

자랑스런 태안군민과 수산인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문석호 국회의원님, 진태구 태안군수님,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관내 기관 단체장님과 수산관련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오늘 서해의 관문이자 어업전진기지인 이곳 안흥항에서 제2회 태안군 안흥항 오징어 대축제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경축하면서, 오늘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창희 오징어축제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수산업과 내 고장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따뜻한 손님맞이에 앞장서 주시고 계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오징어 하면 우리는 흔히 동해안을 떠올렸습니다.

오징어의 서식 분포지나 어획량은 차치하고라도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동해안 오징어에 대한 명성은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

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서해안에서도 오징어가 잡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격렬비열도에서 어청도 근해에 이르기까지 100여척에 이르는 어선들이 오징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곳 안흥항의 하루 어획량만 해도 7천 상자에서 8천 상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우리 또한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는데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명성에 대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수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음식물 개발과 이에 따른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지면서 오징어는 동해안이라는 등식을 고착화 하는 요인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장점으로 얼마든지 살려나갈 수 있는 여러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무관심해온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오징어 문제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여건들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성심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상 그 어디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리아스식 해안과 아름다운 해수욕장, 해안국립공원이 위치한 청정해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하여 이곳 태안의 자랑이 되고 있는 꽃게와 대하 그리고

오징어 등 풍부한 수산물이 관광상품화로 거듭날 때, 관광태안을 향한 시너지 효과는 발휘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오징어 축제가 가지는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우리의 수산물을 찾아내고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시킴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꾸어가자는 다짐의 장이 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지역 주민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준비한 이번 오징어 축제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광상품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축제준비에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위 입상의 견인차

전국체전 고등부지도자 필승결의대회 격려사

2004. 8. 6.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85회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다짐하기 위한 고등부지도자 필승결의 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오제직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불볕더위 속에서 전국체전 상위입상 의지를 불태우며, 고등부선수단의 훈련 지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남태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출전고교 교장선생님, 지도교사, 코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격려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양기택 도교육위원회 의장님과 박성호 교육위원님, 김평산 천안시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시·군 교육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 기량을 펼칠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이제 오늘로써 꼭 63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98년 제주체전에서 3위로 입상한 이래 2001년 종합우승을 비롯하여 6년 연속 상위권을 지켜내는 자랑스런 위업을 이루어 냈습니다.

전국체전에서의 이와 같은 쾌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한 충남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임은 물론, 우리 200만 도민들의 가슴속에 자긍심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상을 차지하는 것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와 같은 성적은 타 시도로부터 경계와 타도의 대상이 되는 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에서 서울과 경기, 그리고 개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5위 이내의 상위권 쟁취를 위하여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감안할 때,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체육을 이끌어 가고 계신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여건에서 고등부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가 거둔 우수한 성적의 이면에는 고등부의 역할이 참으로 컸습니다.

지난해에도 고등부는 우리 도가 종합 4위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가 금년에도 이와 같은 선전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제85회 전국체전에서 상위 입상을 이끄는 견인차와도 같은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오제직 교육감님은 충남체육과 학교체육발전에 대해 깊

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고등부 지도자들의 결의와 다짐을 갖는 시간을 마련한 것만 보더라도 교육감님의 의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또한 선수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열심히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정성으로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러한 마음을 결전 일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훌륭한 마무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충남체육에 대한 노고와 사랑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치원 복숭아의 명성 회복

제2회 조치원 복숭아축제 축사

2004. 8. 6.

자랑스런 연기군민 여러분!

국내·외 관광객과 Y-팜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 고장 연기군의 자랑이 되고 있는 복숭아의 풍작을 축하하고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2회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봉 연기 군수님, 이선희 복숭아축제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계신 김행기 시장·군수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각 시장·군수님, 임상전·유환준 도의원님, 황우성 연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각 시·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표시열 고려대 부총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님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특산물 생산을 통해 내고장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이번 축제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연기군민 여러분 !

자치도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처럼 마음 풍족한 자리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행사장 가득 넘치는 풋풋한 복숭아 내음도 그렇고 활기찬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편안함과 넉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3월의 때 아닌 폭설과 이후 계속된 지루한 봄비를 이겨내고 오늘 이처럼 풍족한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날씨야 전적으로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만, 저는 봄비가 멈추고 이후 계속된 화창한 날씨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불볕더위 속에서 맛나게 익어가는 과일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땅의 정직함을 믿으며 구슬땀을 흘려주신 여러분의 정성이 하늘에 닿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늘의 결실을 일궈내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런 연기군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숭아는 이제 이곳 연기의 상징어가 되었습니다.

1908년 처음 복숭아나무가 식재된 이래 우리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기술을 개발하고 정성을 기울여 당도 높고 단단하기로 이름난 오늘의 조치원 복숭아의 명성을 쌓아올렸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조치원 복숭아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확신합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은 물론이려니와 연기하면 떠오르는 복숭아에 대한 넓은 인지도는 이미 상대와의 경쟁에서 멀리 앞서 나간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새롭고 넓은 시장을 생각한다면 거리상이나 상품성에서 이를 선점하고 있는 조치원 복숭아의 미래는 더욱 밝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이를 자축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명성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는 군민 여러분께서 이를 위한 일에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이고 힘차게 나서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조치원 복숭아의 명성을 쌓아올리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행사가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성취와 보람의 기쁨을 안겨주는 흥겨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는 것으로 축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앙심 가득한 고장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제8차 정기총회 인사말씀

2004. 8. 16.

존경하는 성직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저를 오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인사말씀 드릴 기회까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 고장을 찾아오신 각국의 성직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번 회의 기간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8박 9일 동안 여러분이 머무르시게 될 우리 고장 충남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자 예수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소중한 은혜로움으로 나타난 신심 가득한 고장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이자 성인으로 시성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님의 탄생지인 솔뫼 성지를 비롯해서 이곳과 가까운 황새바위 등 10여개에 이르는 성지는 우리 고장이야말로 참으로 축복받은 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전의는 한국 가톨릭 성직자와 신자 교육기관인 대전 가톨릭대학과 정하상 교육회관이 위치한 곳으로 미래 한국 가톨릭의 희망을 잉태하는 복된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고장에서 '생명문화를 지향하는 아시아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FABC(Federation of Asian Bishops Conferences) 제8차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가 FABC가 추구하는 정신을 구현하는 기회가 되고 35억 아시아인들에게 귀중한 복음을 들려주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FABC 제8차 정기총회가 우리 고장에서 개최된 것을 축하하면서, 예수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간 균형발전과 통합전략 마련

충청남도의정회 대토론회 축사

2004. 8. 16.

오늘 우리 도 의정회에서 주관하는'신행정수도 이전 및 도청 이전에 관한 발전전략 대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용설 충청남도 의정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도 시장·군수님과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제발표와 토론회에 함께 참여 해주신 국회의원, 시장 군수님, 학계의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일에는 우리 도의 연기와 공주지역이 신행정수도건설 최종 입지로 확정 발표되는 커다란 경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각각의 후보지별 점수 발표 시에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이를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일정에 조금도 차질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은 이번 발표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이와 같은 결실을 얻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일구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행정수도건설이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존의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진실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통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는 세계사적으로 살펴보아도 21세기 첫 신수도인 만큼 최첨단의 정보화 도시로 만들어 내는 방안이라든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문제, 수 백 년 동안 삶의 터전이 되어왔던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 등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주 충청권행정협의회를 열어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충청권의 공조체계를 재확인하고 대전과 충남·북이 고루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아직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은 이를 아우르면서 좋은 신행정수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와 원거리에 있는 서해안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광역개발계획 수립 등 다방면의 신행정수도 연계발전전략을 구상하면서

도청이전을 그 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청이전의 추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는 지금도 변함없는 저의 신념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바탕위에서 최적의 입지가 선정되도록 하는 일에 지혜와 정성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도청이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통합을 이루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번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여러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둘러싼 충남과 충북, 그리고 대전의 지자체간 협조와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 후보지가 선정되어도 이에 승복하겠다는 충청권의 공조체계가 수립되고 이를 철저히 지켜낸 것이 오늘 우리가 거둔 성과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도 의정회에서 '신행정수도 및 도청이전 발전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대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지니신 분들과 학계의 전문가 여러분이 함께 하신 자리이니 만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다 명확히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련해주시는 훌륭한 방안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치 도정 또한 이를 실현해 내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일정에 조금도 차질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은 이번 발표가 갖는 또 다른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이와 같은 결실을 얻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일구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행정수도건설이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존의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진실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통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는 세계사적으로 살펴보아도 21세기 첫 신수도인 만큼 최첨단의 정보화 도시로 만들어 내는 방안이라든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문제, 수 백 년 동안 삶의 터전이 되어왔던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 등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주 충청권행정협의회를 열어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충청권의 공조체계를 재확인하고 대전과 충남·북이 고루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아직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은 이를 아우르면서 좋은 신행정수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와 원거리에 있는 서해안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광역개발계획 수립 등 다방면의 신행정수도 연계발전전략을 구상하면서

도청이전을 그 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청이전의 추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는 지금도 변함없는 저의 신념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바탕위에서 최적의 입지가 선정되도록 하는 일에 지혜와 정성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도청이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통합을 이루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번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여러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둘러싼 충남과 충북, 그리고 대전의 지자체간 협조와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 후보지가 선정되어도 이에 승복하겠다는 충청권의 공조체계가 수립되고 이를 철저히 지켜낸 것이 오늘 우리가 거둔 성과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도 의정회에서 '신행정수도 및 도청이전 발전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대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지니신 분들과 학계의 전문가 여러분이 함께 하신 자리이니 만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다 명확히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련해주시는 훌륭한 방안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치 도정 또한 이를 실현해 내

는 일에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충청남도 의정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는 것으로 축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격조 있는 자연미술의 대명사

2004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리셉션 인사말씀

2004. 8. 17.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막식 행사에 이어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던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무더운 지금,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조직위원회 위원장님, 고승현 한국자연미술가협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훌륭한 작품을 제작하시고 설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작가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미술 애호가,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개막식 행사가 끝난 후 장군봉 일대에 설치된 작가여러분의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비록 1시간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만, 저에게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술에 대한 선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흔히 예술, 그 중에서도 미술하면 매우 난해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연 속에 설치된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그 자체가 미술이며,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예술 그 자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와 숲, 그리고 그 사이로 난 오솔길이 화폭이고 소재이고 주제였습니다.

특히 미국인 스티븐 시겔(Steven Siegel) 작가의 작품인 장작더미를 보면서 지역과 시공을 넘어 인간이 느끼는 평온함과 아늑함, 그리고 아름다움은 동일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작품을 보는 모든 분들이 느끼는 한결같은 소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는 10월 말까지 '미술을 통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금강비엔날레가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함께 하는 가운데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자연미술의 대명사로 자리매김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새로운 변화에 맞는 비전 제시

제2차 충청남도지역혁신협의회 인사말씀

2004. 8. 17.

존경하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도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2차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전체협의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평소에 지역을 위한 일에 헌신하시고, 오늘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석원 충남혁신협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협의회에 새롭게 참여해 주실 것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신규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하는 마음에서 큰 박수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1일에는 우리 도의 연기와 공주지역이 신행정수도의 건설예정지로 확정 발표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예정지 확정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 수도권의 일극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균형국가 건설의 의지와 함께 그동안 官중심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시스템에서 지방중심의 분권국가로의 지향을 국내·외에 천명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충남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행정의 중심지인 동시에 동북아 시대의 경제·문화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소 늦었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이를 환영하고 경축하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와 같은 흐름의 중심에 서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됨은 물론,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각 지역에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변화의 물결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지역기업, 학계, NGO, 언론 등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충남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 도의 새로운 변화와 위상에 걸 맞는 비전과 전략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지역혁신역량을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전자·정보,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관광 등 5대전략산업과 地緣사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신 성장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의 혁신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이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인식하고, 공감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지역의 혁신 리더이십니다.

지역혁신5개년 계획이 도내 곳곳에서 구체화되고, 도민 모두가 혁신의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주시고 언제나 지역을 위한 일에 앞장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

2004 충남새농민연찬회 축사

2004. 8. 18.

자랑스런 새농민회 회원 여러분 !

오늘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신기술 교육을 위한 2004 충남 새농민 연찬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오늘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연 충남 새 농민회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 오시고 오늘 그 공적으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면서,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명귀진 도의원님, 유상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 안상현 전국 새농민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만남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 농민회 회원 여러분을 그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우리 도 농정을 위해 가슴을 열고 만날 수 있는 동지이며,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의지와 열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라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 컨벤션 홀을 가득 메운 여러분을 보면서 저의 이러한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경과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분이 일구어온 성과에서, 그리고 성하의 계절을 달구는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런 새 농민회 회원 여러분 !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에게 몰아쳤던 숱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충남 농정의 확고한 위상을 구축한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룬 이 자랑스런 성과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온 결과이며, 해낼 수 있다는 굳건한 의지와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다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농산물의 생산비 증가와 가격하락이 이어지면서 농촌경제가 위축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WTO 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불가능할 것이란 인식을 넘어 가능이라는 현실을 만들어 왔듯이 이번의 새로운 도전 또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너와 나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자치도정은 희망 있는 농업과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해 새로운 과제의 발굴과 추진에 정진함은 물론,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개발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힘써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자립과 과학 그리고 협동의 새 농민 3대 정신의 실천을 통해 6·25 전쟁 등으로 피폐해진 농촌 사회를 재건하고 녹색혁명을 일구는 견인차가 되어왔듯이 이번 위기극복에도 선봉이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새 농민회 회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지금의 이 어려움을 우리의 뜨거운 의지와 열정으로 극복해 내십시다.

우리가 손잡고 농업과 농촌의 희망을 일구어 가십시다.

오늘 열두 번째 새 농민회 연찬회를 맞아 여러분과 함께 이런 다짐을 나누면서, 모쪼록 이번 연찬회가 충남 농업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가운데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남새농민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 더욱 중요

신행정수도 건설 성공기원 범국민물결대회 대회사

2004. 8. 19.

자랑스런 충청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될 신행정수도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민남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공동의장님, 조수종 지방분권운동 충북본부상임공동대표님, 안성호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님, 이상선 충남본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강용식 신행정수도건설 자문위원장님, 충청권 시도지사님과 시장·군수·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1일에는 신행정수도건설 예정 후보지에 대한 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토 공간의 다극화를 통하여 수도권 집중으로부터 발생되는 폐해를 극복하자.' '지방의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열어가자' 라고 하는 우리의 열망이 마침내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이야말로 우리의 천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의 실현을 위해 애써온 우리 모두의 값진 승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성과의 바탕위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혜와 정성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찬반논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집행부를 통해 입지선정이 완료된 것이 분명한 오늘의 현실에서 이를 재검토하자는 것은 결국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 국가정책의 실현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 더욱 중요하고 너무도 많습니다.

신행정수도를 최첨단의 정보화 도시로 만들어 내는 일이라든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일, 그리고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원주민들의 이주 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충청권 3개 시·도 공조의 틀에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신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뿐만 아니라 수도권·강원권·영호남권 등 전국토가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국토 공간으로 재배치되도록 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념과 의지로 오늘의 결과를 창출해 내었듯이 지금부터 열어갈 미래 또한 우리의 하나 된 모습에서 알차게 열매 맺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를 확인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이를 위한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행사가 국가균형발전 및 모범적인 신행정수도 건설로 가는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효율적인 지방이양 추진

지방이양촉진 워크숍 격려사

2004. 8. 20.

오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분권담당관들이 함께하신 가운데 지방이양촉진 워크숍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지방분권의 최우선 과제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수고해주실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발족을 축하하면서, 오늘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재창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의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님,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워크숍은 지난 99년 발족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이양 추진방향에 대한 전략모색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발전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수도권 일극의 중앙집권적 발전전략이 빚어온 폐해를 극복하고 획기적인 분권과 분산, 그리고 분업을 통한 국가 재구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권한과 재원의 이전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려 지방스스로 특화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추진해온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각의 과제들에 대한 착실한 실천을 준비하고 있어 분권형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방분권 정책의 성공에 대한 의구심으로 지방에 대한 권한과 재원의 이양에 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난 5년간 심혈을 기울여 중앙에서 처리하는 1,090개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키로 결정하였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는 이중 456개의 사무에 대한 권한만을 이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성공에 대한 의구심 외에 아직도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중앙집권이 효율적이라는 그릇된 관행과 중앙과 지방간의 불신의 벽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포괄적 기능이양',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에 입각하여 단위사무가 아닌 기능중심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국가가 처한 국내외적 환경하에서 국가발전과 주민복

지를 위한 최선의 역할 분담이 무엇인가를 찾고 자기중심적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노력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공감하고 계신바와 같이 지방이양의 성공적 추진은 여기 계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그리고 지방의 혁신분권 담당관들이 선도에 서고 중앙부처와 지방의 모든 공무원과 학계, 시민단체들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워크숍이 가지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떠한 기능들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토론과 대화의 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와 현업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함께 하신 자리이니 만큼 실질적이고 훌륭한 방안들이 마련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거듭 오늘 행사준비에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실한 가정을 통한 건강한 사회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정기총회 탄방동미사 인사말씀

2004. 8. 22.

존경하는 최 안드레아 대주교님, 경 요셉 주교님을 비롯한 국내외 성직자 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하신 형제 자매 교우 여러분 !

오늘 탄방동 성당의 주일미사에 참석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도드리고 이처럼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 지역과 신자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해주신 존경하는 성직자 여러분과 교형자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

오늘 우리는 '혼인갱신미사'를 통해 새로운 부부로 거듭나 건실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을 하느님 앞에 다짐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부는 가정을 이루는 기본이며, 가정은 부부의 사랑을 중심으로 생명을 잉태시키고 양육하는 곳이자 안정과 편안함을 안겨주는 안식처 입니다.

또한 가정은 사회화를 이루는 가장 기초단위가 되는 곳으로 지역과 사회, 그리고 교회의 건강함을 이루는 원천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래 우리의 현실은 이혼율의 급증 등, 가정의 위기가 정신의 위기, 생명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경요셉 주교님께서 금년을 '복음적인 가정 교회의 해'로 정하시고 오늘 우리가 혼인갱신미사 시간을 가진 것도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구해내자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인류의 미래는 전적으로 가정에 달려있다.' '교회는 가정을 최우선 사목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고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아주교회의 연합회 제8차 정기총회에서도 주제를 '생명문화를 지향하는 아시아 가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사랑과 믿음을 매개체로 하고 있는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건실한 가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이루려는 우리 교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형 자매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느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구현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뜻깊은 주일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거듭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언제나 가득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원

경제혁신 대토론회 인사말씀

2004. 8. 30.

오늘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의 실체적 구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혁신 대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산업현장에서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경제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허범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님,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손상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님, 심영섭 산업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경제관련 직능단체 대표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경제인 여러분 !

저는 평소에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기업이며, 기업 활동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행정과 지역사회는 기업인들이 신명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습니

다.

행정에 기업가 정신을 도입한 경영행정을 추구하고 기업인 여러분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선언한 것은 저의 이러한 소신과 우리 도의 경제시책이 보다 구체화된 하나의 예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데 저와 우리 도의 이러한 판단은 옳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도가 쌓아올린 여러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산업적 기반이 거의 없는 전통적인 농업 도에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혁신 클러스터의 육성을 통해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가경제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02년 1월, '기업하기 좋은 충남'선언 이후에는 산자부로부터 전국에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도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도내 기업의 수출·생산·판로 등 생산활동지표가 전국 비교 1위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성과와는 별개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경제동력을 찾고 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센 요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미래 국가산업발전을 선도할 충남산업혁신체계 구축과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의 육성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은 특성화된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새로운 활력을 심어줄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초일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비롯해 '자동차 클러스터'와 '게임·영상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BIO 산업' 등 "4대 신지식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며, 전통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충남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한 신기술 개발과 산학연 컨소시엄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나눔과 화합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노사분규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 확산에 노력할 것이며,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가 등 물가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 일자리 마련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실물경제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토론회가 이를 구체화 하는데 필요한 훌륭한 방안들이 마련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결합하여 보다 발전된 경제혁신플랜을 수립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토론시간도 갖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이 이러한 기대와 다짐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원 충남'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국가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신 경제인 가족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통계의 가치와 역할

2004 세계통계기구특별회의 만찬 환영사

2004. 8. 30.

존경하는 스티븐 스티글러 세계통계기구 회장님과 세계 각국의 통계학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오종남 통계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국가번영을 위한 통계과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는 세계통계기구 2004 특별회의에 참석하여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학술회의참가를 위해 우리 고장을 찾아오신 각국의 통계학자 여러분을 200만 충남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창 세계통계기구 부회장님을 비롯한 한국통계학회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세계통계기구는 1885년 설립된 이래,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관 역할을 비롯하여, 국제학술회의 등의 교류·협력활동을 통해 통계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지난 2001년 서울을 비롯하여 동경과 북경 등 주로 각국의 수도를 중심으로 일곱 번의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인 우리 지역에서 이와 같은 국제행사가 개최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특히 사전행사로 진행된 '지방분권시대의 지역통계의 진단과 조망'이라는 세미나는 이번 포럼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성과로 지방분권화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통계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학술회의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통계인 여러분 !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경제는 지표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제활동이 통계를 바탕으로 한 지표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으로 통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통계는 현대 우리 생활의 거의 전 부분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사회현상의 진단이나 국가정책의 결정, 그리고 성과 평가 등 많은 분야에서 통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가 현재의 상황을 수와 양으로 파악하여 법칙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임을 상기할 때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물론, 지금 세계 각국이 통계의 새로운 방법론과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통계의 가치와 역할이 가진 중요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학술회의가 세계적인 석학들이 함께 하신 자리이니 만큼,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기회가 되고 통계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기대와 확신을 나누면서, 모쪼록 이번 우리 지역 방문이 당초에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 준비에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계통계기구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찬이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통일역량을 키워가는 지름길

제1회 충남평화통일포럼 창립기념토론회 축사

2004. 9. 2.

오늘 민족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제1회 충남평화통일포럼 창립기념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희수 충남평화통일포럼 대표회장님과 김태완 민주평통 천안시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님, 김희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교수님과 사회단체 임원님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실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통일은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 내야 하는 이 시대의 소명이

라는 점을 생각할 때, 오늘 토론회가 가지는 이러한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과 번영을 위한 일에 일로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남북간의 화해분위기 조성과 교류와 협력차원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남북간 정상의 만남과 6·15 남북 공동선언의 발표가 그 서막을 알리는 축포였다면, 이후 진행된 철도와 도로의 연결, 그리고 개성공단 건설과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등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이루는 가시적 성과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발생한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 참사 때 우리 국민이 보여준 뜨거운 동포애와 최근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군사분계선 지역의 선전활동 중단, 그리고 서해상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간 통신망의 구축은 통일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펼쳐온 민족 대통합을 향한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님, 그리고 통일포럼 위원님 여러분!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통일의 길은 멀고 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북핵을 둘러싼 북·미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탈북자의 한국 이송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일방적 대화중단 예에서 보듯이 남북간의 신뢰구축 문제 또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통일방법론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이념적 갈등이 표출되면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내부의 합치된 의사를 먼저 도출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의 실천을 통해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해 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고 뜻을 모아 주신 것도 바로 이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이야말로 통일의 역량을 키워가는 지름길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선도적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준비에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는 것으로 축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만불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경제모형

중도일보 기고문

2004. 9. 3.

최근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소비침체와 투자위축, 고유가와 중국의 긴축정책 등 주로 외부적인 영향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사상 최고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과거처럼 투자와 소비를 유발시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구조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내부의 문제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가 중대한 전환점에 봉착해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엔진을 점화시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느냐, 아니면 마의 1만불 함정에 걸려 선진국의 문턱에서 낙오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1995년 IMF 경제위기 이후 '잃어버린 8년'속에서 묶여있는 동안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었다. 과거 우리경제를 지탱하던 경쟁력의 원천이던 노동과 자본은 지식과 기술로 대체되었고 웰빙과 노마디즘(nomadism)으로 상징되는 문화와 감성중시의 조류는 대량생산에 의지하던 우리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집적(cluster)과 상호연계(network)의 형성으로 자생적인 지역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을 적용하여 앞서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의 기저는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고 선진국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불가피한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설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를 정치적으로 양자택일하는 힘의 논리도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신성장동력원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 논리는 경제 논리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경제가 답보하는 가장 큰 원인인 성장잠재력의 하락은 중앙집중과 수도권 과밀에 의한 비용의 급증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수확체감의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수도권만으로는 세계와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명제에도 이론이 없는 듯하다. 수도권의 총생산 점유율이 95년 45.4%에서 02년 47.7%로 높아지고 연구개발비의 62.7%가 수도권에 집중 투자되고 있음에도 성장잠재력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그동안의 수도권 중심틀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방의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되찾고자 하는 획기적 발상의 전환 없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신행정수도의 입지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민해야할 문제도 행정의 중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의 중심지로서 국가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3기 충남도정의 출발과 함께 지역의 자생력 강화 없이는 국가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자치역량강화, 지역경쟁력 제고, 미래인재 양성을 도정목표로 정하고 역점 추진하여왔다.

또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기업이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안정된 경영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2002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이후 기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 도는 생산, 수출 등의 주요경제지표의 상승폭이 전국 최고로 나타나는 등 역동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은 기업을 후원하며 존중하고, 기업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가자는 공감대와 노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유럽에 위치한 강소국인 핀란드의 울루(Oulu)지역 사례는 우리가 지향해야할 자치분권경제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노키아의 성공신화 이면에는 울루지역 주민들의 기업사랑 문화와 산학연관 주체들이 합심하여 세계적인 기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울루지역 자체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거래하고 울루와 노키아 주식을 소유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한다.

최근 우리 도에서 중점육성중인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최첨단산업 관련 업체의 입지 러시와 함께 한보철강의 조기정상화 등 지역경제에 희망찬 청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경제는 자기실현적 속성이 강해 희망의 눈으로 경제를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욱 좋아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 마음을 희망으로 채우고 함께 화합과 상생의 기업사랑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난 여름 우리의 마음을 불쾌감으로 짓누르던 더위가 한줄기 소나기와 청량한 가을바람에 밀려났듯이 충남경제의 희망찬 미래가 대한민국을 유쾌하게 만들어가는 활력소가 될 것을 믿는다.

주식회사 충남의 CEO로서 언젠가 우리 힘으로 만든 세계 일류기업들과 함께 충남 「Heart of Korea」의 주식이 뉴욕증시에 블루칩으로 상종가를 치는 그날을 향해 뛰어야 한다.

# 경제성장에 걸맞은 성숙한 사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의식개혁대강연회 격려사

2004. 9. 3.

오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열어가는 길목에서 건전한 국민의식 함양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 건설을 위한 의식개혁 대강연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진수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주신 박동윤 도의회의장님, 오제직 도교육감님, 송인동 충남지방경찰청장님, 그리고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론으로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 겸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발전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경제발전이 반드시 사회발전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저는 이 말을 음미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근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확히 집어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자랑스런 경제발전을 이룩해 냈지만, 사회발전까지 이루어 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하는 답을 하기 어려운 것이 솔직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 부조화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과는 별도로 우리에게 짙은 그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면수심의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가치관의 하락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 등은 그 우려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의 이익보다는 제 몫 찾기에만 열중하고, 님비주의 사고가 만연해지면서 더욱 커지기만 하는 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은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잘못된 경제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자리를 내준 탓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망각한데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장에 걸맞은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성심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적 번영과 정신적 풍요가 조화를 이루는 넉넉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런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여러분!

그동안 저는 인본행정을 도정철학의 하나로 삼아 우리의 훌륭한 정신문화를 진작시켜오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도의새마을운동과 스승존경운동, 그리고 충남정신 발양운동 등을 적극 추진해온 것도 바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생활문화 실천운동과 국민대화합운동,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해 보여준 여러분의 역할은 올바른 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이 어떠해야하는가를 알려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러한 역할이 변함없이 이어져 사랑이 있는 가정, 나눔이 넘치는 이웃, 양보와 신뢰가 꽃피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훌륭한 자양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의식과 생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의식개혁을 위한 강연회가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토의 중심이자 민족정신문화의 본향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번 강연회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고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나하나 구체화 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품격 복지정책의 구현

제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

2004. 9. 3.

자랑스런 사회복지인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오제직 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복지충남 실현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제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오늘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수진 충남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본복지를 근간으로 참된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리 지역 사회복지인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 그 공적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이 살기에는 겨울보다는 그래도 여름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올 여름은 이 말이 적용되기 어려울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만의 폭염 소식이 전해지고 취약한 생활여건에 놓인 몇몇 노인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움이야 계절을 따라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은 우리 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사회부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를 비롯해서 각종 복지시책의 발굴과 시행은 물론, 찾아가는 복지, 사랑을 담은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온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영세민이나 노인, 청소년이나 소년 소녀가장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놓여있는 계층에 대한 경우는 더욱 특별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제도권 밖에서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제도 또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가 금년 초에 있었던 충남 월드브랜드 선포 및 고품질 충남경영 선언을 통해 고품격 복지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이미 선언을 통해 우리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만, 우리 도는 따뜻한 가슴과 손길로 빈곤과 외로움을 보살피는 복지, 도민 모두가 나눔과 봉사의 주체가 되는 열린 봉사의 공동체를 고품격 복

지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늘진 곳에는 희망의 햇빛을 비추고 추운 곳에는 사랑의 햇볕을 쪼여서 지역간이나 계층간의 구분 없이 골고루 행복을 나누는 복지체계를 갖추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이러한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열린 자세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실천해 나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항상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며 생활하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제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복지충남을 구현하는 일에 정성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우리 사회의 복된 삶을 향해 헌신 해오신 사회복지인 여러분께 우리 도민들이 드리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민의 대변자

제4기 충남도정신문 주부명예기자 위촉식 인사말씀

2004. 9. 6.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4기 충남도정신문 주부명예기자 위촉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생생한 도정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써주신 장순화 회장님, 최영선 총무님을 비롯한 3기 주부명예기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투철한 사명감과 왕성한 기고활동으로 오늘 감사패를 받으신 천안시 박인숙 기자님, 아산시 이충경 기자님, 그리고 홍성군 한병례 기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주부명예기자 여러분!

오늘 도정신문과 한 가족이 되신 제4기 주부명예기자님들은 총 70명으로 연임자와 신규자가 고루 배분되었고, 시·군별, 연령별로도 폭넓게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신규자중 현재 문학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25명이나

되는 등 매우 수준높은 경륜과 능력을 소지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주부명예기자에 응모하게 된 동기가 전업주부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도정발전을 위한 일꾼을 자임해오셨기에 앞으로 도정신문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 가운데 마음 한편으로 무척 흐뭇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몸담게 될 도정신문인 '충남도정'은 지난 1990년, 제가 관선 도지사를 할 때 정보화사회를 맞아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텃밭을 만들고자 창간하였습니다.

2000년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이버 도정신문을 제작 하는 등 어느덧 14년째에 이르면서 지금까지 355호를 발행하며, 도정의 대변자로서 도민들에게 올바른 도정소식을 전달하는 가운데 도민이 도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해왔습니다.

창간 직후부터 관영매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96년, 제1기 주부명예기자 65명을 위촉,하여 뉴스의 취재·제작과정에 주부명예기자를 참여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촉된 주부명예기자님들은 그동안 도민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 현장에서 살아있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셨으며, 잘못된 도정정보는 올바로 이해시키는 등 음지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특히, 저를 감동시킨 것은 얼마 돼지도 않는 원고료를 푼푼이 모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을 찾아 김장을 담가주는 등 봉사활동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오신 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도정과 도민을 위해 애써주신 선배 주부명예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주부명예기자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갈수록 확대되어 이제는 국가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부의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아내이며, 며느리인 동시에 도정신문의 명예기자로 1인 4역을 해야 하기에 앞으로 기자활동을 하시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주부명예기자로 위촉되신 여러분은 이러한 처지를 슬기롭게 극복하시면서 도정과 도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에 충실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정신문을 여러분의 힘으로 만든다는 사명감을 잊지 마시고 도정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도정의 비판자로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날카로운 에지로 도정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이 도정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는 점을 늘 명심하시고, 행정의 손길이 미쳐 못 미치는 곳의 애환과 바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훈훈한 정담이나 미담사례, 도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개선사항 등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접하시면서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드는 문턱에서 오늘 제4기 주부명예기자로 위촉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밝은 웃음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능 한국의 미래 담보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결단식 격려사

2004. 9. 7.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오제직 교육감님, 문형남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님, 이병하 신성대 학장님, 권영학 천안부시장님, 각 시·군 교육청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장선생님과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장도에 오르는 선수단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고장의 명예를 짊어지고 출전하는 선수단 여러분에게 200만 도민과 더불어 뜨거운 성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그동안 선수들의 지도와 뒷바라지에 정성을 다해주신 학교장님과 지도교사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와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오늘 장도에 오르는 여러분을 보니 참으로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을 연마해왔으며, 오늘 당

당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기능인으로서 우뚝 서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와 이를 적극 뒷받침 해주신 선생님들의 노고가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펼쳐준 이러한 각고의 노력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국대회에서 유감없이 발휘되리라 확신합니다.

생각해보면, 유능한 기능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근래의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열어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물론, 먼 미래까지 유능한 기능인과 기술발전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우리가 겪고 어려운 경제 여건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 분야와 통신기기분야에서 세계최고를 달리고 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파급효과는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경제성장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기를 이루는 대부분의 부품기술을 외국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첨단의 아이템이라도 그것이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능한 기능인 양성과 기술의 발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시켜주는 동시에 여러분이 기능인으로서 걸어갈 장래 또한 매우 밝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그와 같은 기능인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 기능한국의 미래를 짊어진 전문기능인으로서 그 이름을 아로새길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경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지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린 구슬땀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확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모쪼록 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전문기능인으로서 서기 위한 여러분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선수여러분의 장도를 축하하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친구

베트남 롱안성과 우호협력양해각서 체결 기념사

2004. 9. 8.

여응 궉 쑤언 성장님을 비롯한 롱안성 관계관 여러분!

오늘 베트남 롱안성과 대한민국 충청남도와의 우호적 선린관계 시대를 여는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은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21세기 베트남의 번영을 선도하며 힘차게 발전하고 있는 롱안성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우리 200만 도민이 드리는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성과가 있기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성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우리 국민에게 있어 베트남은 매우 가깝고 친숙한 나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양국이 맺어온 돈독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과 베트남과의 교류역사는 13세기경으로 거슬러 올

라갑니다.

1226년 베트남의 리왕조가 멸망하자 리 롱 뜨엉(이용상)은 배를 타고 망명길에 올랐고 이후 우리나라에 정착함으로써 한국 화산 李氏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를 기려 화산 이씨 후손이 베트남에 투자할 경우 특별히 내국민 대우를 하면서, 그 오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양국은 근세기에 들어 고통과 시련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혹한 식민지 지배를 당했고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토가 분단되었으며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비극을 겪은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때 양국 사이에 불행했던 과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국은 그 아픈 상처를 서로가 치유하며 지난 1992년,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새롭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베트남의 6대 무역상대국이자 4대 투자국으로 공동번영의 동반자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예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성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베트남 속담에 "천은 잘라서 재단해야 항상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사람은 항상 찾아가서 만나야 그만큼 친해진다."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양 지역의 교류와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가를 잘 표현해 주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바다를 건너와 아주 소중한 친구를 만났고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래도록 변치 않는 우정을 쌓아 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충청남도는 이를 위한 일에 성심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체결한 우호협력 양해각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지켜갈 것이며, 양 지역이 화해와 협력의 지구촌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가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갈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체결한 양해각서가 兩 지역 관계 발전의 새 길을 여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든든한 새 친구인 롱안省의 무궁한 발전과 여응 궉 쑤언 성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神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정부차원의 굳건한 신뢰구축

롱안성장 주최 환영만찬 답사

2004. 9. 8.

존경하는 여응 궉 쑤언 롱안성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먼저, 우리 일행을 뜨겁게 환영해주시고 이처럼 성대한 자리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베트남 방문이 처음입니다만, 마치 이웃 동네에 온 것처럼 매우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 문화, 국민정서 등 많은 부분에서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986년 이후 베트남의 "도이모이" 쇄신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국가정책에 신뢰를 이끈 롱안성과 교류의 장을 열어 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충청남도와 롱안성이 체결한 우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는 국가간의 협력증진을 떠나 지방정부차원의 굳건한 신뢰를 쌓고 상호 번영을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속담에 "친구간의 우정은 넓은 바다도 메운다."는 말이 있듯이 진

정한 친구이자 가까운 이웃이 된 우리는 앞으로 교역과 투자, 그리고 인적 교류와 문화적 교감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롱안성의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 그리고 우리 도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다면 양 지역 모두가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며,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진정한 우호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길 기대하면서, 우리 방문단에게 아낌없는 후의를 베풀어주신 여응 궉 쑤언 성장님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 지역의 우정과 공동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으로 제가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롱안성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분들의 건승을 위하여, 건배!

감사합니다.

# 양 지역 우정과 공동의 번영

족자카르타 특별주지사 주최 환영만찬 답사

2004. 9. 12.

존경하는 함응꾸 부워노 10세 족자카르타 특별주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이처럼 성대한 환영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께 우리 200만 충남 도민의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거대한 시장 잠재력, 그리고 근면한 국민들로 아세안의 중심국으로 부상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상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16세기 후반 마타람 왕국의 수도였으며 많은 불교 유적 등 관광과 교육의 도시인 족자카르타 특별주와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족자카르타 특별주가 우리 충청남도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준 높은 문화를 창조한 역사와 전통의 고장이며,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친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함께 도우며 일 한다'는 뜻의 '고똥로용'정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같은 의미를 지닌 '상부상조의 정신'이 있습니다.

저는 양 지역이 이와 같은 정신으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함께 열어갈 미래는 밝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내일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주지사님께서도 우리 도를 방문하시어 진정한 자매결연관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번영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방문단에게 아낌없는 후의를 베풀어주시는 함응꾸 부워노 10세 특별주지사님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양 지역의 우정과 공동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으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족자카르타 특별주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분들의 건승을 위하여, 건배!

감사합니다.

# 공동번영을 위한 약속

족자카르타 특별주와 자매결연양해각서 체결 기념사

2004. 9. 13.

함응꾸 부워노 10세 주지사님을 비롯한 족자카르타 특별주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충청남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특별주간에 새로운 교류협력의 장을 여는 역사적인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양 지역간의 깊은 우의를 확인하는 가운데 '자매결연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양해각서가 체결되기까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함응쿠 부워노 10세 주지사님을 비롯한 州정부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양 도·주는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무대의 동반자로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지구촌 시대의 한 가족으로서 더 큰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아름다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저는 양 지역이 이와 같은 굳은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 정부간에 맺어온 오랜 유대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양국은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 경제 ·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5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아시아내 제1위의 투자대상국이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3분의 2를 공급하는 중요한 자원 공급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한국인만도 2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미 양국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양국의 돈독한 관계가 족자카르타 특별주와 우리 충청남도를 잇는 우정의 가교역할을 한 것입니다.

특히 양 지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품격 높은 문화를 창조해 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자카르타 특별주는 16세기 후반 마타람 왕국의 수도였고 자바문화의 원천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또한 1천5백년전 찬란한 동방문화를 꽃피운 옛 백제국의 터전으로 그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히 높은 곳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양 지역의 유사성이야말로 든든한 동반자로 서기에 충분한 여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양 지역이 우정과 번영을 위해 추구해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함응꾸 부워노 10세 주지사님을 비롯한 족자카르타 특별주 관계관 여러분!

인도네시아 속담에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친구는 믿음으로 사귀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들은 이곳 족자카르타 특별주 주민 여러분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며, 영원한 벗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 맺은 양해각서의 준수는 물론,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과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체결한 '자매결연양해각서'가 양 도·주의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굳건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든든한 새 친구인 족자카르타 특별주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신의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사회의 공통 신념

전국 시·도 새마을부녀회 회장단 연찬회 인사말씀

2004. 9. 14.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가을을 열어가는 길목에서 지난 시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다짐을 위한 전국 시·도 새마을부녀회 회장단 연찬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숙현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수성 중앙회장님, 안경달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장님, 그리고 한창숙 충청남도 새마을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회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동남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공무상 여러 차례 해외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

다.

특히 오랜 침묵의 잠에서 깨어나 새롭게 일어서고자 하는 개발국가들의 변화속도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동남아 출장길에서 느낀 감회 또한 이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과거를 털고 새로운 정책과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국토와 인구,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지닌 인적자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경쟁력이 되고 있었으며, 그들이 지니고 있는 굳은 의지는 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의지와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해 낼 수 있다'는 새마을 정신이 우리 사회 공통의 신념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안정 또한 그와 같은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랑스런 새마을 부녀회 회장단 여러분!

저는 이번 동남아 출장에서 그들을 통해 지난 시절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이를 통해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정말 반갑고 성원을 보내 주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보다 30년 전에 그런 일들을 해낸 우리가 이에 와서 그들의 추적이나 두려워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마을 정신을 떠올리고 이를 재도약의 원천으로 삼아나가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새마을 운동 실천의 선봉에 서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 다시 전국으로 이어지는 부녀새마을 운동의 파급효과는 오늘날 우리가 이룬 성과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보여주신 새마을 운동에 대한 헌신과 봉사는 변함없이 이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다시 한번 펼쳐지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역할과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연찬회가 이를 다짐하는 가운데 더욱 활기차게 부녀새마을운동을 펼쳐나갈 결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언제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실천

제4회 전국 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 시상식 격려사

2004. 9. 15.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4회 전국 청소년적십자 백일장 대회 입선작 시상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만우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작품을 통해 스승의 숭고한 은혜를 훌륭하게 표현하여 입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발전과 운영지도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선생님들께 따뜻한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영웅전으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크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그 생명을 보람 있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탄생은 부모의 힘이지만 정신의 탄생은 스승의 힘인 것을 강조한 말로 스승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스승님들은 우리가 장차 쓸모 있는 생명으로 성장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스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승님들을 가장 높은 위치에 모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으며, 예와 정성을 다해 이를 실천해왔습니다.

이는 지금에 와서도 변함없는 우리의 전통적 미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할 정도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잠시 비쳐지는 잘못된 모습일 뿐,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펼치고 있는 스승존경운동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날로 커지고, 특히 여러분이 작품을 통해 보여준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훈훈한 정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청소년 적십자 단원 여러분!

한 나라의 백년대계는 후세들의 교육에 달려있고, 올바른 교육은 신성한 교권의 확립과 우리 사회의 올바른 스승존경의 정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저는 늘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관선지사시절부터 스승존경운동을 펼쳐온 것도 우리 고장이 스승의 날 발상지로서 그 뜻을 이어가지는 뜻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확고한 신념

이 제 가슴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 생각은 변함없을 것이며, 우리 도의 시책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도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 학교와 사회 등 우리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힘을 모아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백일장대회에서 보여준 사제간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라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닌 그 소중한 마음 변치마시고 스승님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시상식이 이런 다짐을 함께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작품 속에 깃들어 있는 사제간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밝고 아름다운 교육풍토를 만들어나가는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과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화합을 이끄는 구심체

제2회 충청남도여성생활체육대회 치사

2004. 9. 16

여성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윤 도의회의장님, 오제직 도교육감님, 그리고 조규선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 고장 여성생활체육가족 여러분의 한마당 잔치인 제2회 충청남도 여성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희택 도 생활체육협의회장님과 강춘식 서산시 생활체육협의회장님, 그리고 종목별 도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여성생활체육 가족 여러분!

근대 교육의 창시자인 페스탈로치는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조국에 충실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 어렵다.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정 나아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도 건강해야 한다.'고 하여 건강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21세기 복지국가로 접어들면서 국민의 건강은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복지정책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건강증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설립하여 생활체육 진흥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포츠는 일부 선수나 소수의 상류층 또는 남성만이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만, 지난 2002년 월드컵의 국민적 열기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서 이러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른 바 웰빙붐과 주5일제 근무제의 시행은 생활체육의 확산에 기폭제가 되었으며, 그 결과 이제 어디에서든지 아침저녁으로 부부 또는 가족끼리 함께 모여 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체육은 가족건강을 지키는 밑바탕이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며, 지역화합과 국가통합을 이끄는 구심체인 것입니다.

저는 생활체육이 우리 지역에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족 건강을 책임지시는 주부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6년 연속 전국체전 상위권에 입상한 도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여성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엘리트체육에 이어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전국 최고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전국 평가에서 우리도 협의회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5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영광도 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빛나는 성과는 최희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이 자

리에 참석하신 여성생활체육동호인 여러분께서 하나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여성생활체육 가족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남의 저력을 살려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생활체육 동호회원 여러분의 우정을 다지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에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제6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만찬사

2004. 9. 16.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전국 지방의제 21 관계자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시간의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6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개막을 맞아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행사를 위해 우리 고장을 찾아 오신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당초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뜻깊은 대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1992년 리우회의에서 '의제 21'이 21세기 지구촌의 행동강령으로 채택된 이래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경제 · 사회 · 환경 등 전 부문에 걸쳐 통합적 발전을 이뤄 내자는 것입니다.

불과 10여년 남짓한 기간에 전세계 700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 21' 실천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운동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 · 관 · 군이 파트너십 정신에 따라 지방의제21 추진 기구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현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만들기 운동의 구심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NGO와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시험모델이자 훈련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의제 21이 주는 또 다른 의미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운동이 지역사회에서 확고히 뿌리내리고 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전제되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찰과 창조, 지역에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서 이를 위한 훌륭한 방안들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도 오시는 길에 느꼈을 줄 압니다만, 우리 고장 안면도는 바다와 송림이 잘 어우러진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장입니다.

특히 방금전 저 바다 건너로 지는 낙조를 보면서 여러분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만끽 하셨을 줄로 압니다.

모쪼록 머무시는 동안 이와 같은 자연의 여유로움도 느끼면서, 지방의제 21차원의 새로운 운동모델을 발굴하고 경험의 교환과 친목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보람과 기쁨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 준공식 축사

2004. 9. 17.

오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지역의 정보·교육·문화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될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 건양문화콘서트홀, 그리고 취업매직센터 준공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오늘 준공식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희수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 대학교 총장님, 국회의원님, 의회 의원님, 기관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건양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식정보화사회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세계 일류가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치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 지방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 자본, 산업, 문화 등이 집중되어 불균형 성장을 초래해왔고,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입지가 약화되면서 지역경제도 함께 침체되는 악순환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이런 불합리가 해소되리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스스로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학문분야를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며, 경쟁력 있는 기술과 지식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때 지역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이 지역혁신활동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는 가운데 지자체, 지역기업, 사회단체 등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건양대학교는 일찍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대학'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 IT,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실버산업 지역혁신클러스터 코어 구축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실버 RIS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세수 증대의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양대학교가 그동안 벌여온 노력이 성과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심대학으로 우뚝 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공하는 명곡정보관을 비롯하여 두 동의 건물은 바로 이러한 성과의 상징이며, 앞으로 건양대학교가 지역사회에서 더욱 강화해나갈 역할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건립된 세 동의 건물이 지역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는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평생교육의 장이자, 지역문화를 선양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구심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기대를 나누면서, 이를 위한 일에 우리 자치도정 또한 힘을 합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명곡정보관을 비롯한 시설들의 준공을 축하하면서, 건양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의 시대적 소명

평화번영을 위한 충청남도대회 격려사

2004. 9. 17

오늘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평화번영을 위한 충청남도대회 및 제35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한민족통일문예제전에서 입상의 영예를 차지한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하여도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규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양수 중앙의장님, 김행기 금산군수님, 심정수 도의회 위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977년 통일의 의지를 선양하는 모임으로 출발한 민족통일협의회가 어느덧 30년 가까운 연륜을 쌓아왔습니다.

그동안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통일을 향한 도민의 의지를 모으고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는 견인

차로서 역할을 다해주셨습니다.

특히 각종 통일관련 토론회는 물론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방견학과 한민족통일문예작품공모전 등은 전후 세대들에게 안보의 중요성과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는 평소 여러분께서 지니신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통일된 민주국가를 반드시 이루어 후손들에게 복된 삶의 터전을 물려주겠다는 투철한 소명의식이 맺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이 가지는 의의가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니신 이와 같은 정신이 그대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품을 통해 만나본 우리의 젊은 청소년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분방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지향하는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통일이니 번영이니 하는 문제는 관심 밖의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바람직하고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과 청소년 여러분!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민족의 통일과 번영은 반드시 우리가 열어가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민족적 불행을 우리의 다음세대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슴을 열고 생각과 의견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변치 않는 확신으로 우리들 가슴속에 자리잡게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를 위한 일에 여러분이 앞장 서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손잡고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길에 나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행사가 이를 다시금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신 가운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연과학교육의 산실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개관식 축사

2004. 9. 21.

오늘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 자락에 자연과학교육의 산실 역할을 하게 될 자연사박물관이 개관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오늘 개관식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석 청운문화재단 이사장님과 김보성 박물관건립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기관·단체장님들께 존경과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해주신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님, 오영희 공주시장님, 김재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 강지형 공주교육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흔히 한 나라의 박물관은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이나 경제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이나 영국의 대영박물관, 그리고 미국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이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미스소니언박물관과 같은 자연사 박물관의 등장은 박물관이 가진

가치는 물론, 자연사가 지닌 소중한 의미에 대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연사에 관한 연구는 생물학, 지질학, 광물학 등을 토대로 인류와 지구의 기원과 변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며, 자연사박물관은 바로 이와 같은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는 소중한 교육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청운재단과 민간투자 협약을 맺어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것도 이와 같은 자연사 박물관이 지닌 가치와 소중함 때문이며, 자연사에 대한 연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중한 자료들을 전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넓혀주는 체험 공간이 필요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곳에 이처럼 자랑스런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이 설립되기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사 박물관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와 우리나라 자연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수 십 년 동안 私財를 털어 희귀한 자료를 수집해 오신 청운재단 이기석 이사장님의 열정과 의지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대하여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 !

오늘 문을 연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규모면에서 국내 자연사박물관중 최대이며, 학술적인 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원본보존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의 크기를 자랑하는 '계룡이'라고 명명된 공룡과 얼

마 전 대전시에서 발굴된 국내 最古의 미이라인 '학봉장군' 등 대단히 소중한 가치를 지닌 유물과 표본을 전시하여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실, 자연사연구실, 사진촬영실 등을 비롯해 자연사연구와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의 시설은 인근 대학과 다른 박물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자연과학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해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이 자라나는 2세들에게 자연과학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산교육장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객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관광명소가 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뜻깊은 개관을 맞아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모쪼록 오늘 개관하는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개관이 있기까지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애정신을 일깨우는 산교육장

성 김대건신부 생가 축성식 및 기념관 기공식 축사

2004. 9. 22.

오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나라 천주교의 모태인 이곳 솔뫼 성지에서 성 김대건 신부님의 생가 축성식과 기념관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천주교대전교구장 경갑룡 주교님, 윤인규 신부님을 비롯한 성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함께해주신 김낙성 국회의원님, 성기문·정용해 도의원님, 민종기 당진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 김대건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이자 성인으로 시성되신 103위 순교성인 중 한 분이십니다.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천주교에 대한 모진 박해를 무릅쓰고 교리와 문화를 전파하셨으며, 마침내 순교로서 오늘날 한국천주교의 못자리를 일구

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학문을 직접 수학하신 신지식인이었으며, 중화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시는 등 서양의 학식을 신앙실천을 통해 전파하려한 선각자이시기도 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신자들에게 남긴 편지에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유언하셨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살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실 만큼 효성도 지극하신 분이셨습니다.

나보다는 남을 사랑하는 박애정신과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으신 그 분의 이와 같은 숭고한 생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믿음과 정의에 대한 용기가 갈수록 희박해져가는 이 시대를 생각할 때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 분의 한없는 희생정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짐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생가 축성식 및 기념관 기공식은 이와 같은 이분의 숭고한 삶의 케적을 숭모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가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는 그때 못지않은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위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의 발달과는 별도로 도덕성의 상실과 가치관의 하락은 안타까움을 넘어 우려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님께서 실천으로 이루어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정신이 다시 이 땅에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신부님께서 이 땅에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셨을 때의 순결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웃을 향해 가슴을 열고 당신의 희생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생가 축성 및 기념관 기공식이 주는 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곳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거룩한 희생과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가운데 각박한 세태를 살아가면서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성지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를 이어나갈 자라나는 2세들에게 박애와 봉사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산교육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이런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모쪼록 이를 위한 일에 우리 모두의 성심을 모아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 김대건 신부 생가 축성식 및 기념관 기공식을 축하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문화 창달의 나침반

대전문화방송 창사40주년 기념식 축사

2004. 9. 23.

존경하는 김상기 사장님과 대전문화방송 가족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상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대전문화방송 창사 4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충남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오신 대전문화방송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문화방송은 지난 1964년 첫 전파를 쏘아 올린 이래 우리 충청인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달해 주는 성실한 동반자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 갑천에 새 보금자리를 튼 이후에는 다양해지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방송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의 이러한 역할은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新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에도 모아져 지역의 미래를 열어 가는 데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우리 충청이 그 중심에 서서 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길잡이 역할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창사 40주년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충청권 시청자들로부터 더 큰 믿음과 사랑을 얻는 대전문화방송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 방송문화 창달의 나침반이 되어 주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대전문화방송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여성상

여성 통·리장 연찬회 격려말씀

2004. 9. 23.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화 향기가 그윽한 계절에 이렇게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2004 여성 통·리장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교육에 참여해주신 여성 통·리장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시기는 짧지만,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시기는 영원하다.'는 공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동양의 유교사상에는 현모양처의 여성상을 중요시 해왔던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유교의 영향이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상은 여성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자 생활의 실천윤리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여성이 한 사람의 사회인이기 이전에 아내,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이러한 1인 다역이 마치 마땅히 하여야 하는 여성의 도리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이는 근대화 이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머니들은 계속된 사회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가정을 충실히 지키며 자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마치 자신의 숙명으로 여기고 일생을 헌신해오셨습니다.

자랑스런 여성 통·리장 여러분!

하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전통적 여성상에 머물 수만은 없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다원화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함은 물론,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당당한 여성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와 같은 불합리한 요소들을 극복해내는 일 또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이요,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이를 극복해내고 당당한 리더로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여성분들이 타고난 부드러움과 섬세함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남성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일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을 소명으로 알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리장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분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여성상이며,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열어갈 미래는 '도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고장'이며,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하나 된 힘과 특히 통·리장 여러분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해에 이어 이와 같은 시간을 마련한 것도 여러분의 지방행정참여를 제고하고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 이상으로 앞으로도 도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에 충실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교육이 여성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소양을 높이고, 도정의 흐름도 이해하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교육에 참여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맞아 가정에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추석명절 담화문

2004. 9. 28.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찾으시는 귀성객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은 고향의 따스함과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과 귀성객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 비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추석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검소한 명절을 보내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때만 되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어려운 이웃과 실향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포근한 고향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명절을 검소하게 보내는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신행정수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되어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하나 되어 평화로

2004 계룡축제 치사

2004. 10. 1.

자랑스런 계룡시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3만여 계룡시민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2004 계룡축제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만 충남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오늘 축제가 개최되기까지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흥묵 계룡시장님, 김용호 계룡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님, 이진 공주영상정보대 학장님, 홍갑식 육군 참모차장님, 변평섭 대전매일신문사 회장님, 임성규 논산시장님, 송영철 도의회 의원님, 이지웅 계룡시 의회 의장과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계룡시민 여러분 !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남다른 감회로 섰습니다.

지난 1년 전 여러분과 함께 계룡자치시대의 서막을 올렸던 감회와 감격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서로의 벅찬 가슴을 끌어안고 감격의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계룡시' 라는 당당한 이름으로 새 역사를 열어가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으며, 이곳을 21세기 가장 모범적인 삶터로 가꾸어 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것은 결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계룡이 지닌 특성을 그대로 살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전원의 도시, 최첨단 정보기능과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 군인과 가족들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선진국형 군사모델도시로 가꾸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가슴을 열고 하나가 되었으며, 뜻을 모아 힘찬 삽질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런 계룡시민 여러분 !

오늘의 축제는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를 서로가 위로하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계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축제가 '하나 되어 평화로' 라는 슬로건처럼 민관군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축제가 해를 거듭 할수록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가꾸어져 세계적인 군문화 엑스포로 발전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를 충분히 해내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열정과 참여는 이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일에 우리 다시 한번 지혜와 성심을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축제 준비에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계룡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의 아시아를 이루는 계기

제9회 공주아시아1인극제 축사

2004. 10. 1

오늘 아름다운 몸짓을 통해 커다란 감동을 선사하게 될 제9회 공주 아시아1인극제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우성 공주민속극박물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 우리 고장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과 제7회 소민상을 수상하신 노재영 선생님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의 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것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고,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1996년, 처음 우리 고장에 1인극제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만해도 1인극제라고 하는 것이 듣기에도 생소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 지역적 한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 공주에서 시작된 아시아 1인극제는 올해로서 9년이라는 연륜을 쌓아오며, 우리 고장의 대표적 문화예술 행사로 굳건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역사 속에서 전승되고 계승되어 왔던 문화예술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문화예술을 넘어 이해와 협력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하나의 아시아를 이루는데도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아 1인극제가 거둔 이와 같은 성과야말로 우리들 가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역량이 꽃을 피운 것이며, 심우성 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 예술인 여러분께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21세를 가르쳐 지방화 시대, 혹은 문화의 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방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시대이며, 문화의 힘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 힘과 역량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열정과 의지,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공주 아시아1인극제가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것이자 전체 아시아인의 것이며,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함축되어 개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공주 아시아 1인극제가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심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만이 지방화 시대, 문화의 세기를 열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를 위한 일에 함께 나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이번 1인극제가 아시아 연극을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되살려 내는 가운데, 알차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 준비에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토속신앙의 예술적 가치 조명

임립미술관 특별기획초대전 축사

2004. 10. 1.

오늘 10월을 여는 길목에서 '한국 토속신앙에 관한 예술적 접근'이라는 특별기획 초대전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행사 준비에 애를 쓰신 임립 미술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작품을 출품하신 43명의 작가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오영희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흔히 문화를 가르쳐 그 사회 생활방식의 총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이를 일구어온 삶의 모습 그 자체가 고스란히 그 속에 담겨져 이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형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전해오는 문화를 습득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게 마련입니다만,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토속 신앙은 바로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탄생된 것으로 그 속에는 화를 쫓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원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토속신앙을 통해 사람들의 기원이 무엇을 담고 있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성장기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은 물론,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속에 나타나는 여러 형태와 의식에 대하여 미술형식으로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이를 표현해내는 일은 우리나라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술적 접근을 통해 신앙형태를 미술의 다양한 현식으로 작품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술 세미나를 통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기획전이 이러한 기획 의도를 모두 이루는 가운데 한국현대미술에 나타나는 토속신앙의 영향과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적인 문화의 특성을 살리는 21세기 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봄은 물론, 미술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저변인구의 확대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특별기획전 개최를 축하하면서, 가을의 풍성함 만큼 알찬 성과 일구는 나날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문화의 역량 발현

전국 향토연극제 개막식 축사

2004. 10. 2.

오늘 풍성한 문화의 계절을 맞아 전국향토연극제가 우리 고장 공주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이번 행사를 위해 우리 고장을 찾아오신 연극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번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종훈 한국연극협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차범석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님, 최주봉 전국향토연극제 홍보대사님, 무용인 홍신자님, 연극인 윤석화, 박정자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연극인 여러분 !

저는 오늘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전국향토연극제의 개막을 통해 우리 고장 공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우뚝 섰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래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가 끊임없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시작된 금강자연비엔날레가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장군봉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가하면, 어제는 아시아1인극제가 개막되어 아시아 연극인들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22일에는 제1회 국제미술제가 이곳 공주에서 막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전국적인 행사는 물론,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연이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곳 공주가 지닌 문화적 역량이 그만큼 큼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땅은 우리의 선인들께서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웠던 곳입니다.

공산성을 중심으로 한 일대의 유적들과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유물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꽃피운 문화가 얼마나 찬연했던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통이 훌륭한 자양분이 되어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온 것이며, 오늘날 공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랑스런 연극인 여러분 !

오늘부터 개막되는 전국향토연극제 또한 이를 배경으로 하여 이곳 공주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흔히 연극은 말과 몸짓을 통해 사람이 지닌 희로애락을 표현해내는 예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극의 기원을 오랜 태고적에서부터 찾고 많은 분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연극이 지닌 바로 이와 같은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개막되는 전국향토 연극제는 기존 연극이 지닌 이러한 친밀감에다 지역의 숨겨진 설화와 민속적 소재를 발굴하여 연극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번 연극제가 문화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토속적이고 향토성 짙은 한국적 연극을 완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하는 이번 전국향토연극제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게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 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보령시대를 여는 원동력

제13회 만세보령문화제 시민체육대회 치사

2004. 10. 2.

자랑스런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땀과 노력이 보람으로 영그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11만 보령시민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제13회 만세보령문화제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경축하면서, 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시우 보령시장님을 비롯한 보령시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류근찬 국회의원님, 오찬규 · 이준우 도의원님, 임대식 보령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각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령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보령시민 여러분!

예로부터 보령은 대대손손 복된 삶을 누리는 곳이라 하여 만세보령이라

일컬어 왔습니다.

오서산과 성주산을 지붕으로 삼고 청정한 바닷가가 눈앞에 펼쳐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해산물 그리고 유서 깊은 문화유산은 이러한 명성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대천항과 오천항의 개발, 보령~안면간 연육교 건설, 장항선 철도 개량, 그리고 보령 시네마월드 조성 등을 통해 이곳 보령은 서해안의 중심도시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산업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성화사업은진작부터 이를 시행해온 보령시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여러분께서는 보령머드를 지역브랜드 상품으로 개발하고, 신비의 바닷길 무창포를 관광상품화 하는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에 앞장서오셨습니다.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해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분의 역량이야말로 새로운 보령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임은 물론, 지방분권시대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모델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런 보령시민 여러분 !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과 맞물려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나로 뭉쳐 단합하고 내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라는 일체감을 형성하는 일이며,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회가 이를 위한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수와 응원단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모두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되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이런 바램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도약하는 만세보령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령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의 대표적인 흥의 문화

제3회 충청남도풍물대회 축사

2004. 10. 3.

자랑스런 풍물단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찬란한 백제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곳 부여에서 제3회 충청남도 풍물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경축하면서, 그동안 대회 준비에 애쓰신 강주형 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주신 김학원 국회의원님, 김무환 부여군수님, 그리고 부여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각 고장의 명예를 걸고 이 대회에 참가하신 시·군 대표팀과 축하 공연팀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생활 속에서 恨과 흥을 적절히 결합시키며 수준 높은 멋을 창조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풍물은 농사로 인해 힘든 노동을 즐겁고 활기찬 노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춤과 가락, 재주 등 신명나는 요소를 결합시킨 우리의 대

표적인 흥의 문화입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정초에는 지신밟기, 농번기에는 두레굿, 그리고 추석에는 풍물로 철따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흥겨운 판을 벌이는 가운데 그 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해왔습니다.

풍물을 통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마을 주민간의 화합도 다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 왔던 것입니다.

자랑스런 풍물단원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와 같은 전통문화가 여러분에 의하여 전승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감성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아 여가문화의 확산과 함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흥미적 요소가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흥의 산물인 풍물이 경쟁력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풍물은 흥겨운 가락과 해학적인 춤사위로 인해 만국 공통의 언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는 언어와 풍습을 달리하고 있는 외국인들조차 우리의 풍물공연을 보며 어깨를 들썩이고 쉽게 동화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풍물이 흥미적 요소를 강조하는 감성의 시대, 21세기의 중심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가치를 지닌 민속예술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성심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그동안 주부풍물대회로 개최되던 행사를 참가의 폭을 넓혀 확대 개최하고 사라져가는 우리 고장 고유의 풍물을 찾아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온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이번 대회가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풍물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우리 도민들의 가슴에 희망과 역동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신명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흥에 겨워 들썩이는 어께만큼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하는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그동안 갈고 닦은 여러분의 기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으로 아름다운 삶

사랑의 선교회 창립15주년 기념행사 축사

2004. 10. 4.

오늘 맑고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서 사랑의 선교회 창립 15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경로위안잔치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오늘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사랑의 선교회 박명순 베드로 신부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신현삼 안드레아 주교님, 김성수 시몬 성공회대학교총장님, 강희복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님과 어르신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 사랑의 선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거룩한 희생을 실천해온 사랑의 선교회가 어느덧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구현된 것으로 참으로 소중하고 뜻깊

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선교회는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에 참 사랑을 실천해오셨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과 결식노인, 그리고 실직자와 노숙자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선교회가 펼쳐온 나눔의 삶 실천운동은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발생하는 노인문제에 관하여 펼쳐온 남다른 관심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을 정확히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선교회가 우리의 실제 생활 현장 속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하는 회원 여러분의 숭고한 정성이 모아져 일구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운 여건에 놓인 분들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은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아직 세세한 곳에까지 행정의 손길이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복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실천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펼쳐 오신 사랑의 봉사활동이 더욱 가치 있고 고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희생과 봉사정신이야말로 우리 고장이 4천만이 살고 싶

은 고장으로 거듭나는데 견인차가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 여러분 또한 경로의 달인 10월을 맞아 '더불어 사는 삶!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란 주제로 펼치는 사랑의 선교회 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립 15주년을 축하하면서, 사랑의 선교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생하고 도약하는 계기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세미나 축사

2004. 10. 4.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신 충청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창기·윤진수 상임공동대표님을 비롯한 행범련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건설은 지난 8월의 최종입지 선정이후 정부의 로드맵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도권 일부 반대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특별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야당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12월이면 예정지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행정수도건설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행정수도를 받아들여야 할 우리에게는 더욱더 많은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고 하

겠습니다.

우선은 행정수도의 세부경계를 설정하는 일이라든지, 예정지 내의 이주대상 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를 원활하게 마무리 하는 일, 그리고 예정지 밖 5km까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제한에 따른 거주민의 위로와 안정된 생활문제 등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행정수도를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루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 또한 그 어느 것에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계기를 맞아 우리 道를 비롯한 충청권 모두가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충청권이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행정수도 인근 충남지역에 대한 관리방안과 충청권의 대표도시인 대전시가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연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또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이 추진력을 얻고 있는 이 때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신행정수도가 우리의 목표대로 추진되고 그를 토대로 우리 충청권을 포함한 전 국토가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한 일에 조금 더 노력하고 지혜와 성심을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이를 위한 훌륭한 방안들이 마련되는 계기

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하여주신 행범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겨레의 얼을 계승하는 무대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회사

2004. 10. 5.

존경하는 민속예술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을 맞아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운 이곳 부여에서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각 고장을 대표해서 축제에 참가하신 전국의 민속예술인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축제를 준비해주신 김무환 부여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와 부여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배종신 문화관광부차관님, 오영희 공주시장님, 이재열 부여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민속예술인 여러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문화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에서 불고 있는 韓流열풍과 세계 유명 영화제를 휩쓸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면 이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문화의 전달자로서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민족 고유의 독창성을 살려 우수한 민족문화를 창출해왔습니다.

또한, 우리민족은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오면서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절기마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풍속을 만들어 이를 생활 속에서 즐기는 멋과 낭만을 창조해왔습니다.

마을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너나없이 함께 모여 흥겨운 한 판을 마련하고 이를 훌륭한 민속예술로 승화시켜왔던 것입니다.

농악을 들으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한 달간 전국에서 무려 2,400만 인파가 모여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하는 신명의 문화는 지금도 이러한 흥의 문화가 우리 핏 속에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것은 무조건 낡고 지루한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고유의 예술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축제도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58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사라져 가는 향토민속예술을 발굴하여 우리 겨레의 얼과 숨결을 되살리는 산실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과 민속예술인이 하나가 되는 흥겨운 한마당을

만들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백마강 구드래 우리 멋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바로 이와 같은 민족적 자긍심과 신명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펼치는 축제의 장입니다.

민속예술인 여러분과 전 국민이 한데 어울려 펼치는 화합의 장이며, 더 나은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다짐의 한마당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펼치시는 몸짓 하나 하나는 여러분 개인에게는 물론, 여러분의 고장에 영광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자랑스런 민족예술문화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를 계기로 향토민속예술이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로 자리 잡아 온 누리에 신명나는 장단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오늘 축제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참석하신 여러분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행정수도 건설의 자양분

신행정수도 건설 전문가 대토론회 축사

2004. 10. 5

자랑스런 충청인 여러분!

오늘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충청권의 위기와 기회에 대하여 지혜를 나누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전문가 대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원식 중도일보 대표이사님, 이병하 충남발전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군수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1일에는 신행정수도건설 최종 입지로 연기-공주지역이 확정·발표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구조를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다핵형 국토구조로 전환되어야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우리의 열망이 마침내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이야말로 우리의 천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이의 실현을 위해 애써온 우리 모두의 값진 승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차질 없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혜와 정성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은 지역간 · 세대간 ·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발전을 통하여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물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건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위와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는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중요하고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를 최첨단의 정보화 도시로 만들어 내는 일이라든지, 부동산 투기와 난 개발을 방지하는 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부득이 이주를 해야 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주거대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행정수도건설이 우리 충청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 강원권 · 영호남권 등 전국토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국토 공간으로 재배치되도록 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시간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념과 의지로 오늘

의 결과를 창출해 내었듯이 지금부터 열어갈 미래 또한 우리의 하나 된 모습에서 알차게 열매를 맺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과제를 슬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자리이니 만큼, 이에 대한 훌륭한 방안들이 마련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전문가 여러분이 주신 고견은 신행정수도를 건설해 나가는데 있어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중도일보 창간 53주년 기념으로 열린 대토론회가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추진에 활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민의 자긍심 높여 주길

제85회 전국체전출전선수단 결단식 격려사

2004. 10. 6.

자랑스런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는 8일부터 충북에서 열리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필승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일등 충남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김정인 총감독님을 비롯한 선수단 여러분께 우리 200만 충남도민이 드리는 뜨거운 성원과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선수들의 훈련지도와 뒷바라지를 위해 애써주신 각 가맹경기단체장님과 지도자여러분, 그리고 여러 학교장님과 학부모님께 심심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수단의 장도를 축하해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오제직 교육감님,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이기봉 연기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대지'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펄벅은 "힘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고, 용기는 마음속에 있는 의지에서 우러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벌써 10여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민선자치도정이 실시되

면서 대전시와의 분리로 쇠약해진 道勢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하면 된다.'는 용기를 갖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가시적인 것은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을 통해 도민의 자긍심과 진취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여겼으며, 이를 위한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 98년 전국체전에서 3위로 입상한 이래 6년 연속 상위권 입상의 금자탑을 이루어냈으며, 마침내 2001년에는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음으로써 체육 强道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해왔습니다.

전국체전의 상위입상을 통해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충남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성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만 도민과 선수단,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께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값진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충남체육의 금자탑을 이루고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을 되살리기 위하여 장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 도민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선사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체전에서의 승리를 위한 일념으로 오늘을 준비해왔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와 작열하는 태양의 불볕더위도 기필코 승리 하여야 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와 신념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8일부터 펼쳐지는 전국체전은 이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당히 경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실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그동안 여러분과 마음과 정성을 함께한 200만 충남 도민 모두의 자랑스런 승리요,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새로운 충남시대를 힘차게 여는 도약의 원동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번 제85회 전국체전에서의 승리를 굳게 다짐하면서, 이번 체전 기간 동안 선수단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혼신을 다해 훈련에 임해준 선수단 여러분에게 뜨거운 치하와 격려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승리의 기쁨 속에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태지역 중심국가로 도약

아태정책연구원 이사장 방문 환영인사

2004. 10. 6.

존경하는 신희석 아태정책연구원 이사장님, 김재춘 전 대사님, 하시모토 요시히로 정책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 !

오늘 아태정책연구원 제90차 포럼의 일환으로 우리 고장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도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용교 정책기획관입니다.

국회문광위 국정감사로 인해 간부 다수가 불참한데 대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아태정책연구원은 아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내외 정세의 심층적 연구와 분석을 추진하고, 우리 나라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정책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정세분석과 남북한 관계 및 정책제

안을 다룬 연구지의 발행, 그리고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정책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포럼의 개최 등을 통해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아태정책연구원의 이와 같은 역할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당당한 일원이자, 중심 국가로 서게 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여러분의 이러한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확대되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아태정책연구원 연구진 여러분 !

잠시 후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우리 도정에 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충남은 현재 두 가지의 커다란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행정수도건설 입지의 확정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앙집권의 폐해로부터 벗어나 중앙과 지방을 다 함께 살리는 유일한 정책대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숫한 난관을 극복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행정수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원주민을 포함한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등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여러분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께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좋은 정책대안을 마련해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충남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혁신 클러스터의 육성을 통해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가경제의 새로

운 동력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은 '세계 초일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비롯해 '자동차 클러스터'와 '게임 · 영상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BIO 산업' 등 '4대 신지식 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통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충남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한 신기술 개발과 산학연 컨소시엄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중에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경제전문가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경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고장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너무 제 욕심만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좋은 시간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쪼록 이번 우리 도 방문이 여러분의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우리 도 방문을 환영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발전의 디딤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기념사

2004. 10. 7.

방금 우리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충청남도간에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이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충청남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제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고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문화산업은 그 지역의 문화유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08년 세계문화산업 5대 강국의 진입을 목표로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고급인력의 양성과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들이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세계문화산업시장의 선점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산업시장은 디지털방송시대와 유비쿼터스시대를 맞아 이에

적합한 콘텐츠를 누가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최근 몇 년 전부터 문화산업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오늘 이렇게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문화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양기관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풍부한 노하우와 우리 충남이 보유한 찬란한 문화유산과 천안·아산지역에 집적된 IT기술을 결합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정보교류와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양기관간 문화산업분야에 대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한 일에 양기관이 더욱 노력하고 협력해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이 양기관 공동발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에 협조해 주신 고진 원장님과 진흥원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동과 화합의 대축전

제50회 백제문화제 치사

2004. 10. 9.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왕도 부여에서 제50회 백제문화제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경축하면서, 그동안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무환 부여군수님을 비롯한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오제직 도 교육감님,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조길연 · 유병기 · 조남계 · 홍표근 도의원님, 우리 도 시장 · 군수님과 시군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멀리 외국에서 와주신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 대학교대표단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도민 여러분!

찬란했던 백제의 얼과 슬기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백제문화제를 개최한 지 어느덧 5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오늘날 백제문화제의 효시가 된 것은 지난날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백제 3충신을 기리기 위해 제례를 마련한 것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제 백제문화제는 명실상부한 전국 3대 축전의 하나이며, 나아가 동북아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모두가 자랑스런 백제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정성과 노력을 다해 일구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백제에 대하여 의자왕과 3천 궁녀로 대표되는 패망의 역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이후 승자인 신라의 입장에서 기록된 잘못된 역사입니다.

일찍이 백제는 동방의 로마제국이라 불리며 발달된 해상세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지배력을 확장했던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는 송서와 양서 등 중국 正史의 기록과 당시의 천문관측 기록 등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자료가 왜곡되고, 그동안 심도 있는 연구가 미흡하여 이를 당당히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역사문화원을 설립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여 백제문화 중흥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제의 왕도가 이곳 부여에 자리 잡은 지 1,400여년이 흐른 지금, 그 옛날의 영화와 번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

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 나아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옛 선조들의 진취적인 개척정신과 미래지향적 도전정신을 이어받아 이 중대한 과업을 성공리에 완수해야만 하겠습니다.

잘못된 백제역사를 바로잡고 찬란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선양하는 가운데 우리 후손들에게 4천만이 살고 싶은 복된 터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제50회 백제문화제가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결연히 다지는 가운데 앞으로 이 문화제를 통해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함께 누리는 백제문화'란 기치 아래 열린 제50회 백제문화제가 충남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는 감동과 화합의 축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이런 기대와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백제문화 선양을 위해 성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 충남을 이룩하는 밀알

제18회 약의 날 기념식 축사

2004. 10. 9.

오늘 우리 고장의 전통적인 휴양도시인 이곳 아산에서 충청남도약사회가 주관하는 제18회 약의 날 행사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200만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늘 정성을 다해주시고 오늘 행사 준비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노숙희 충청남도약사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원희목 대한약사회장님, 이대형 대전·충남 약업협의회장님, 그리고 약사·약업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관한 격언 중에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는 유사 이래 건강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왔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전개하여왔습니다.

의술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치료약의 개발은 물론, 삶의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까지 인류가 이루고자 한 건강백세를 위한 노력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꿈꾸는 무병장수의 길은 멀기만 한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정작 누구나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가속화되는 경쟁과 과중한 스트레스, 그리고 악화된 환경 등으로 인한 생활여건의 변화는 이를 수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로 인한 약물의 오·남용과 최근의 'PPA성분' 함유 감기약 파동에서 보듯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 중 보건복지분야의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로 생명공학분야를 선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을 치료할 때 병보다는 사람을 보고하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생명존중의 바탕위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약업인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민 건강의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해오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한 각종 캠페인을 펼쳤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약으로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것이며,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미 생명존중의 정신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와 같은 역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며,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 것도 이를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약, 행복한 삶'이란 주제로 열린 오늘 행사가 약사·약업인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고, 건강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밀알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이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도민의 건강유지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충남약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생 발전하는 모델 제시

1사1촌 자매결연 및 친환경농산물 대축제 축사
2004. 10. 13.

오늘 온 누리가 황금빛으로 물든 결실의 계절을 맞아 친환경농업으로 이름난 이곳 문당마을에서 1社1村 자매결연과 함께 친환경농산물 대축제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유상호 농협충남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김주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님과 기업인 여러분, 김기연 충남새농민회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 대표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석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님과 채현병 홍성군수님을 비롯한 홍성군민 여러분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로서 세계는 점차 하나의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시장도 DDA와 FTA 등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충분한 준비를 마치지 못해 이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타까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기업에서 소비자의 구매욕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변신을 꾀하듯이 농업도 이제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사고와 방법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웰빙붐으로 인해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때에 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은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화학비료나 농약 대신 퇴비나 천적 등을 활용하여 무공해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도시민들은 다소 값을 더 주더라도 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문당마을에서 생산되는 오리농법쌀이 정부수매가보다 50% 정도 더 비싸지만 오히려 물량이 모자라 팔지 못하는 예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확산과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침체된 농촌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社1村 자매결연을 맺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과 농촌이 상생발전 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고부가가치형 농업을 창출하고, 잘 사는 농촌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전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살 길을 모색하다보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는 반드시 다가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농촌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복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갑시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이러한 결의를 다지는 가운데 충남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발전해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1社1村 자매결연에 참여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앞서가는 정보화마을

예산증실골 사과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개관식 축사

2004. 10. 13.

오늘 예산 증실골 사과마을 정보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개관식이 있기까지 애써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신 권오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종순 예산군수님, 이용면 도의원님, 그리고 이회운 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과 예산군민 여러분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예산군민 여러분!

흔히 농촌은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요,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늘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스함과 언제나 그리운 어린 시절 추억이 있으며, 우리의 전통문화와 생명을 잇게 하는 자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농촌은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농업구조 개혁을 채 마무리 하지 못한 상황에서 DDA와 FTA 등 농업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활로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이 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과 웰빙붐으로 인해 농촌체험관광과 친환경농업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이 잘 살지 않고는 주민의 삶의 질도, 국가의 번영도 기약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주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간다면 우리 농촌은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작년 9월에 전국 최초로 농업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지난 7월에는 농업정책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충남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정보센터 개관식도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증실마을에서는 일찍부터 키 낮은 사과를 재배하여 품질인증을 받고 이를 지역브랜드로 만들어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는 한편, 과수원 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앞으로 증실사과마을을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보화마을로 가꾸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개관된 정보센터가 앞으로 여러분의 소득 창출과 정보화 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농업과 관광산업도 함께 발전시키는 요람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사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대통합을 선도하는 원동력

국민생활체육 회원단체 워크숍 인사말씀

2004. 10. 13.

오늘 국민생활체육 회원단체 워크숍을 맞아 우리나라 생활체육을 이끌어 가시는 국민생활체육 회장단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워크숍 개최를 축하하면서, 이번 행사 참석을 위해 우리 고장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삼탁 국민생활체육 협의회장님, 시·도 생활체육협의회장님, 그리고 전국 종목별 회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장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래 우리 도 생활체육은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시·도 협의회 평가시 2001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일이라든가,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이루어 온 일, 그리고 2005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을 유치한 일 등은 그 중 하나의 예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야말로 최희택 도 생활체육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 생

활체육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관련하여 우리 도는 천안시를 주무대로 하여 공주와 아산시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의 대축전을 통하여 국민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2001년 전국체전 개최를 통하여 그 역량을 펼쳐 보였으며, 경험을 축적하여왔습니다.

행사비 10억원도 이미 확보하였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각종 대회출전 및 유치 등 생활체육 지원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워크숍이 이러한 다짐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회장단 여러분의 화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이루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랑스런 인생의 승리자

제10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대회사

2004. 10. 14.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과 보령시민 여러분!

온 누리에 풍요로움이 가득한 오늘 대대손손 복된 삶을 누리는 곳 보령에서 도내 8만 장애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제10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건휘 충남지체장애인협회장님, 황화성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지부장님, 그리고 이양기 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장님과 이시우 보령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박동윤 도의회의장님, 오제직 도교육감님, 한창숙 도새마을회장님, 그리고 유상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보령시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 여러분의 뒷바라지에 애써주신 관련

단체 임원과 가족여러분, 그리고 대회진행을 도와주실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지난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 장애인 올림픽에서 하반신 불수의 몸으로 좌식스키 금메달을 딴 캐나다의 스테이시 코헛 선수는 "진정으로 원한다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 선수와 비교할 때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인생의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에서 오는 좌절과 실의를 극복하고 오늘의 자랑스런 결과를 일구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장애인체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200만 도민과 함께 지난해 우리 도가 개최한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투지로 지난 5월 개최된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3위의 쾌거를 이루어낸 든든한 기둥이기도 합니다.

오늘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에서 당당히 나서서 참여하는 자신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뙤약볕과 눈보라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임원과 가족, 그리고 보령시민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응원과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8,000여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이 대회를 장애인들

만의 잔치가 아닌 200만 도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 축제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된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내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 도가 3년 연속 상위권에 입상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충남을 더욱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가운데 복된 삶의 터전으로 가꾸는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승리의 기쁨과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족공동체의 행위예술

제14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격려사

2004. 10. 15.

오늘 황금들녘이 넘실대는 풍성한 계절을 맞아 찬란한 내포문화를 꽃피운 이곳 홍성에서 열네 번째 민속대제전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각 시·군을 대표해서 참가한 선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원식 중도일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채현병 홍성군수님과 이은태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과 홍성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선수 여러분, 그리고 홍성군민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힘든 농경생활을 음악과 놀이로 달래며, 마을의 화합을 다지는 가운데 이를 하나의 전통민속예술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민속놀이는 근래 들어 물밀 듯이 밀려오는 외래문화로 한 때 그 명맥이 끊길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것을 소중히 하고 이를 지켜내려는 분들의 노력에 의해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민속놀이가 삶의 애환과 기쁨을 그대로 반영한 민족공동체의 행위예술로, 그 이면에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민족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민속대제전은 옛 선인들의 민속놀이를 재현함으로써 조상들의 얼과 숨결을 느끼는 가운데 향토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키는 산실 역할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고, 다함께 하나가 되는 가운데 흥겨운 한마당을 만들었고, 이는 곧 우리 200만 도민의 마음을 결집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제전은 국가의 대역사인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가 우리 고장으로 확정된 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 나아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새로운 천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가슴 벅찬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민속놀이를 더욱 계승·발전시켜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런 문화로 물려줌으로써 빛나는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꽃피우고, 이 땅을 흥겨운 가락이 넘쳐나는 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제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랑스런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면서, 우리 모두가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해나가는 동반자임을 새롭게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희생과 봉사의 발자취

제14차 충남지구JC특우회 우정의 날 축사

2004. 10. 15.

오늘 제14차 충남지구JC 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이곳 장항에서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날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이갑복 장항JC 특우회장님, 조성준 충남지구JC 특우회장님, 심재규 JC 특우회 중앙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류근찬 국회의원님,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충남지구JC 특우회원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인류사회는 개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1951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되살리기 위해 출발한

우리나라 JC운동도 나보다는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발자취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50여년동안 여러분은 '조국의 근대화는 청년의 책임'이라는 기치 아래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뿌린 헌신적인 참여정신과 봉사의 실천은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이와 같은 JC운동이야말로 이 땅에 늘 푸른 청년정신을 심는 것이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랑스런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런 JC 특우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처럼 전후 우리 사회와 지역의 발전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해 주신 분들이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역할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난날 국가재건의 불을 지피기 위하여 온 국민의 가슴에 불어넣었던 뜨거운 신념과 행동철학이 다시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과 맞물려 충남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 자란 독수리가 드넓은 창공을 향해 힘찬 나래를 펴듯이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굳건한 의지와 확신을 갖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나간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희망의 미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확신합

니다.

이를 위한 일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지혜를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열린 마음 열린 우정, 충남사랑 화합으로'라는 구호 아래 개최된 오늘 행사가 그동안 펼쳐온 충남 JC 특우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더욱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뜻깊은 행사를 축하드리며, 충남지구JC 특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보육모델 창조

제3회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 격려사

2004. 10. 16.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보육인 여러분의 화합을 다지는 제3회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이번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원주 도 보육시설연합회장님과 이재우 도 보육정보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해주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오영희 공주시장님, 그리고 최운용·송민구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꿈나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느라 애쓰시는 보육시설 종사자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충남보육인 여러분!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생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노인인구 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바로 생산가능연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머지않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영유아 보육정책은 경제, 국방 등 국가주요정책에 밀려 충분한 투자가이루어지지 못해 직장여성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IMF로 인해 가정의 해체가 늘어가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의 증가와 사교육비 부담 가중 등으로 젊은층이 출산을 기피하여 이제 더 이상 출산과 보육의 문제를 여성과 가정의 몫으로 남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고, 내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에 충남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영유아 보육의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난 7월에 영유아 보육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인성학습원을 개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과 함께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보육모델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충남 보육가족 여러분!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어린이는 신이 인간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낸 사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는 우리의 밝은 희망이요, 소중한 보배이자,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어린이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곧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꿈나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며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장하신 분들입니다.

모쪼록 오늘 한마음대회가 보육인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가운데 앞으로 충남보육사업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장 꿈나무들을 양성하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든 보육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남의 긍지를 드높인 계기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격려사

2004. 10. 19.

오늘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고장의 명예를 빛내준 기능인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먼저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오제직 교육감님과 한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방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위가 극심했던 여름방학 동안에도 지도교사님들을 성심을 다해 내조해주신 사모님들께도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도교사와 선수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작년도보다 무려 4단계나 성적이 오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요리직종은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는가 하면, 판금은 금메달과 은메달을 동시에 획득하여 우리 도의 성적 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주조와 건축제도는 아깝게도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열심히 선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내년에는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를 비롯해 교육청 · 학교 · 공단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청과 학교는 기술 훈련,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방사무소는 훈련과 대회의 정보 제공, 도는 종합 지원 등 관련기관이 분야별로 역할을 나누어 혼연일체를 이루는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간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성과는 충남인의 긍지를 드높이고, 200만 도민에게 큰 용기를 심어주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모쪼록 올해의 성적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내년 대전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합니다.

도에서도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충남의 성적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도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율과 분권이라는 시대의 흐름

제3차 지역혁신협의회 격려사

2004. 10. 19.

존경하는 지역혁신 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곳 국립 공주대학교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제3차 지역혁신협의회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평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오늘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최석원 혁신협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동윤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특강을 해주실 이정식 교수님, 그리고 토론 발제를 해주실 기영석 교수님과 김학민 교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회별로는 여러 차례의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전체협의회와 분과협의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신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우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도의 역동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회의가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1달러에서 1995년 1만 달러를 달성 할 때까지 중앙정부에서 경제를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생산요소들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이른바 노동 및 자본투입위주의 성장전략을 추구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남들이 모두 놀라는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는 이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를 통한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새로운 가치이자 동력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까지 1만불 시대가 계획과 집중에 의한 '한강의 기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 국가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충청이 중심이 되는 '금강의 기적'으로 창출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나라 안팎으로 고유가와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올8월까지 192억 6천 400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 동기보다 70.2%가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8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전국의 53%를 차지 할 만큼 국가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또한 자동차부품산업 등 전략산업의 집적화를 통하여 2000년이후 지속적인 투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만해도 전국

3위인 7억 4천 7백만 달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따른 차질 없는 진행은 지역균형개발과 국가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 충남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부상케 하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이한 이러한 비전과 好機도 주민의 혁신의지와 노력, 그리고 참여가 함께 할 때만이 좋은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전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성공의 확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지역의 혁신 리더로서 지역혁신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구체화되고, 도민 모두가 혁신의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우리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많이 마련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주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충남 도약의 밑거름

관광정책토론회 인사말씀

2004. 10. 21.

오늘 21세기 충남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관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관광정책 대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선현장에서 우리 충남관광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광업계 종사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윤 도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과 시장·군수 여러분,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관광가족 여러분!

지난날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주요한 외화획득원이었으며, IMF 금융위기 때에도 흑자를 거두는 등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를 되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수침체 속에서도 외국관광객은 정체를 보이는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급증하고 있어 관광산업의 만성적자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결과가 초래된 원인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변화하는 국내외의 여건과 관광객 욕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도권 중심의 투자와 획일적인 문화콘텐츠, 그리고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등 관광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지금 관광산업은 새로운 미래유망산업으로 재도약해 나가야 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미국의 존 나이스빗 교수가 "관광은 글로벌 경제의 무한성장산업이다."고 말한 것처럼 관광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실제로 세계관광기구에서도 소득증대에 따른 여가활동 증가, 노인인구 확산, 그리고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을 들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얼마 전에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등이 개통되어 전국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또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바다, 산, 강, 온천 등을 두루 갖춘 천혜의 관광지로서 백제·내포문화 등 찬란한 역사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정한 환경, 유서깊은 전통문화, 그리고 풍부한 먹거리를 지니고 있어 다양한 체험여행과 테마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좋은 환경과 기회를 잘 활용하여 어떻게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업계와 지역문화원 등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주체들 간에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수준높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는 건물하나 지을 때나 나무 하나를 심을 때에도 미관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들이 절실한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우리 충남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토론회가 우리의 이러한 다짐을 다지는 가운데 새로운 충남관광의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충남의 관광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농촌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2004 아줌마대축제 겸 우리농수산물 큰잔치 축사

2004. 10. 21

존경하는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여러분!

온 누리에 풍요로움이 가득한 계절을 맞아 어려워진 나라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2004 아줌마 대축제 겸 우리 농수산물 큰잔치가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이 뜻깊은 축제를 마련해주신 변평섭 대전매일신문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염홍철 대전시장님, 박동윤 충청남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유상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농어업인과 소비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에서 그동안 우수한 한우를 생산하신 공로로 표장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줌마는 어머니를 사회적 입장에서 부르는 호칭으로, 우리 충청도의 구수한 인정이 넘쳐나는 정겨운 말입니다.

우리는 아줌마 하면 서글서글한 말투와 넉넉한 마음씨로 늘 우리를 감싸

주는 포근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수많은 변화와 혼란 속에서도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루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의 심리학자들이 그토록 짧은 기간 내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 그 이면에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영원한 모성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아기 때에는 자식을 모유로 키우며 정서적인 안정을 주었으며, 성장기 때에는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높은 향학열로 자식을 공부시킨 것이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머니들은 숭고한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 희생해오셨으며, 국가발전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오신 참으로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자랑스런 아줌마 여러분!

이제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면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제적으로 개방압력이 거세어지고, 국내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변화와 개혁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농수산물은 값싼 외국의 수입농수산물에 밀리는가 하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는 오염으로 인한 불신과 외면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웰빙붐이 확산되면서 身土不二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우리나라 친환경농수산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바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아줌마들에게 충청도의 청정한 농수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

를 북돋아 주고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정이 많으신 우리 충청도 아줌마들이 우리의 농수산물을 더 많은 사랑으로 애용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번 대축제를 통해 우리 충청도 아줌마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멋진 화합의 한마당을 만드는 가운데 우리 농어촌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축제를 준비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화합과 결속의 한마당

제5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대회사

2004. 10. 21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천안시민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런 시·군 선수단 여러분!

오늘 온 누리에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200만 도민의 화합과 전진의 대축제인 제5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여러분과 함께 경축하면서, 체전 준비와 따뜻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주신 성무용 천안시장님과 5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벅찬 가슴을 안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3년 전인 지난 2001년,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이라

는 쾌거를 일구어낸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곳에서 가슴 벅찬 환희와 감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충남체육의 불멸의 금자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청인이라는 사실에 감격해했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는 것이었으며, 이후 우리가 이룩한 자랑스런 결실의 원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1등 충남의 위상을 드높여왔습니다.

2002 안면도꽃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 내외에 우리의 역량을 과시하였으며, 관광산업과 화훼산업 발전의 도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방분권 운동을 제창하였으며, 지방이 중심 되는 시대를 앞장서서 열어왔습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를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농업테크노파크를 개원하여 전통 농업도로서 앞서가는 충남농정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각종 전국단위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올해는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충남 월드브랜드를 선포를 통해 고품질 충남경영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제82회 전국체전 종합우승 이후 우리가 일구어낸 값진 결실들인 것입니다.

자랑스런 도민 여러분 !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05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이 이곳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선보일 기회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의 대축전을 국민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슴을 열고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역화합과 발전이라는 옥동자를 만들어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최되는 도민체전이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함께 이번 도민 체전을 몸으로 만나고 숨결로 느끼면서, 새로운 충남시대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내는 기회로 활용해 나갑시다.

참다운 스포츠 정신을 통해 단결하고 화합하면서, 더욱 전진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십시다.

모쪼록 '흥겨운 만남, 뜨거운 열정, 희망찬 미래'라는 구호아래 펼쳐지는 이번 도민체전이 이러한 다짐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축제의 한 마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석자 여러분과 200만 도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으로 소중한 결실

제3회 백제문화개발연구원 학술회의 축사

2004. 10. 22.

오늘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운 이곳 공주에서 백제사 관련 석학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신 가운데 제3회 백제문화개발연구원 학술회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이번 학술회의 개최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부영 백제문화개발연구원장님, 양종국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최석원 공주대학교 총장님, 이만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근래 우리는 못난 후손으로서 참담함을 느껴야 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의해서만 자행되어오던 역사왜곡이 이제는 중국에서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는 발해 유적에 대한 모든 발굴을 마치고 이를 중국의 변방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일명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역사적 죄악들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감회에 젖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때늦은 후회에 가슴을 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백제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을 되돌아 볼 때, 떳떳함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는 대신, 철저한 연구를 통해 역사적·학술적 논리를 강화함으로써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백제문화개발연구원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백제문화개발연구원은 1982년 발족한 이래 백제논총을 비롯해서 60여종의 고대사분야 학술서적을 발간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150여건의 유적 조사와 발굴을 지원해왔으며, 학술단체지원사업을 통해 학계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백제역사문고' 30책 발간 3개년 계획 중 제1차년도 분인 10책을 발간함으로써 백제사 연구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이 백제사에 연구에 쏟는 관심과 열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리는 이 학술회의도 이러한 성과를 기념하면서 백제사 연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열정과 관심으로 연구해 오신 전문가 여러분이 함께 하신 자리이니 만큼, 저는 발달된 해상세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국력을 자랑했던 동아시아의 패권국가 백제,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창조했던 격조 높은 문화국가 백제의 당당한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道 또한 이를 위한 일에 앞으로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학술회의 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단법인 백제문화개발연구원과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체험의 장

2004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개막식 격려사

2004. 10. 22.

오늘 세계적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에서 '새와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4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규선 서산시장님과 김원균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이복구 · 차성남 도의회의원님과 김성만 한국조류보호협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천수만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 제205호인 노랑부리저어새를 비롯해 매년 300여종 하루 최대 40여만 마리의 조류가 찾아오는 철새들의 낙원입니다.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가창오리는 전 세계의 약 80%이상인 30여만 마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고 있으며, 가을하늘을 아름답

게 수놓는 群舞를 펼쳐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천수만이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명성을 얻기까지에는 단순히 넓은 담수호와 농경지를 갖추고 있다는 환경조건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새들은 애써 지은 농작물을 축내는 성가신 존재로만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환경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철새는 청정성을 대표하는 환경의 지표임을 알리는데 앞장섰고 이에 서산시와 시민들이 호응을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천수만 철새기행은 세계적인 철새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는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체험의 장으로, 철새전문가들에게는 소중한 생태연구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서산시에서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여 이 곳에서 생산되는 쌀에 '기러기 오는 쌀'이란 브랜드를 붙여 일반 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지역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환경단체,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는 소중한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개척정신은 바로 무한경쟁시대와 지방분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장한 시민정신인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열린 이 행사가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복된 터전

을 만드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산시 환경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미술제의 새로운 성공모델

2004 제1회 공주국제미술제 축사

2004. 10. 22.

단풍이 붉게 물들어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는 오늘, 찬란한 백제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공주에서 2004 제1회 공주국제미술제가 개최된 것을 경축하면서, 축제에 참가하시기 위해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세계 각국의 미술인 여러분과 오늘 작품을 출품해주신 국내 작가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먼저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축제를 준비하신 오영희 공주시장님, 임립 관장님,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중기 TJB대전방송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오시덕 국회의원님, 오제직 도교육감님, 그리고 공주시민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문화예술인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인 윈스톤 처칠경은 '전통이 없는 예술은 목자 없는 양떼이고, 혁명이 없는 예술은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여 예술에 있어서 전통과 혁명의 조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임과 흩어짐'이란 주제로 열린 이 축제야말로 이런 예술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미술인들이 함께 모여 자연과 문명, 전통과 미래의 영역을 넘나들며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시각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곳은 일찍이 백제의 도읍지로서 중국과 일본을 잇는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북방의 힘과 정렬, 남방의 온화함을 조화시키는 가운데 부드럽고 우아하며 인간미가 넘치면서도 세련된 백제미술을 꽃피운 중심지였습니다.

현대미술을 전공하신 임립관장님께서 바로 이 곳에 미술관을 개관하신 것도 전통과 전위의 조화를 통해 자랑스러운 백제문화를 계승하여 이를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곳에서는 한국현대미술 초대전과 향토작가 초대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주민의 소중한 문화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미술실기대회 개최와 미술문화강좌 개설을 통해 자라나는 2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미술의 저변 확대에도 앞장서왔습니다.

이렇듯 향토문화 발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임립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이제 지역예술도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살려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힘을 키워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축제는 미술전시회 이외에 예술영화 상영, 백제인의 먹거리, 그리

고 관람객이 참여하는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리게 되니 공주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미술 가족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공주국제미술제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미술제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서 자리잡게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공주시가 국제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약해나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축제를 위해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국내외 예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세계적인 디스플레이의 메카

에버테크노공장 준공식 축사

2004. 10. 22.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세계적인 디스플레이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이곳 아산시에 에버테크노 공장이 준공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공장을 준공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백운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문규 도의회 부의장님, 강희복 아산시장님, 김현병 아산시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김영태 삼성전자 상무님을 비롯한 기업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기업인 여러분!

저는 지금 마치 자식을 장가들여 살림을 내주는 것처럼 참으로 기쁘고,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도가 정성을 기울여 육성해온 스타벤처기업 1호인 에버테크노 주식회사가 디스플레이산업 부품소재의 중견업체로 성장하여 오늘 공장을 준공했기 때문입니다.

에버테크노는 지난 2000년 5월에 천안밸리에서 직원 3명으로 출발하여, 현재 150여명의 직원과 5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매출이 2,600%나 성장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두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을 이룬 이면에는 정백운 사장님의 탁월한 리더쉽과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경영철학, 그리고 직원 여러분이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역대학과 산학협력을 맺고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창조와 도전정신이 더해져 오늘의 성공신화를 일구어 낸 것입니다.

저는 에버테크노의 이러한 일류정신과 혁신정신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의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가져야 할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류가 아니고서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신속히 적응하기에는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같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더욱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살찌우기 위해서는 기업을 비롯해 지자체, 대학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혁신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에버테크노와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더욱 많

이 육성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 충남으로 기업이 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이런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우리 충남을 세계적인 디스플레이의 메카로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에버테크노의 성공과 신축공장 준공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에버테크노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적 성원의 출발점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위촉식 인사말씀

2004. 10. 25.

오늘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위촉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위원님들께서 위촉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바쁘신 시간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점에 대하여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고려인삼'이라고 하여 그 옛날 중국은 물론 아라비아까지 널리 알려졌으며 현대 의학으로도 그 우수한 효능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국산 인삼의 저가 물량 공세와 농업개방 등으로 인해 고려인삼의 위상이 매우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국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여 고려인삼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는데 우리의 뜻을 모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신비의 명약인 고려인삼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이라는 위상을 확립하는 가운데,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더 한층 확산시켜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2003년 3월부터 이 사업에 착수한 이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월에는 사무처를 발족하여 열심히 세계인삼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직위원 위촉식을 계기로 하여,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반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고려인삼을 세계 일류의 명브랜드로 육성하여 내수와 수출을 함께 촉진시키는 획기적인 발판을 만들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위한 일에 위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기고 노력해 나간다면 고려인삼의 명성회복을 통해 금산이 국제인삼산업의 성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이러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을 약속하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국민적인 성원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낙성 국회의원님과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각계의 원로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의 크나큰 성공과 위원님 여

러분의 하시는 일에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청도민회의 새로운 출발

미동부 충청도민회장 이·취임식 축사

2005. 10. 25.

존경하는 미 동부 충청도민회 회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미동부 충청도민회의 새출발을 알리는 제9대 회장 취임식이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머나먼 이국 생활 속에서도 늘 조국과 고향을 잊지 않으시고, 충청도민의 긍지를 키워 나가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임기 동안 충청도민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해오셨고, 늘 고향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전임 김영환 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이번에 미 동부 충청도민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정영렬 신임 회장님께도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충청도민회 회원 여러분!

지금 이곳 고향에서는 온 들판이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가운데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거두느라 한창입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맘 때 쯤이면 들녘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풍성한 성과를 올린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1월 우리 도는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충남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이라는 월드브랜드를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수출 증가율과 무역수지 흑자 면에서 전국 최고수준을 유지하며, 우리 충남이 경제불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말 충청남도 개도 이래 처음으로 수출 200억불의 금자탑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위해 200만 도민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이루어 낼 수 있는 값진 성과였습니다.

아울러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고향의 발전을 염원하신 여러 회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미 동부 충청도민회에서는 재미 청소년 모국방문과 고향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100년만의 폭설피해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고국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성금을 지원해주어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고향에 대해 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 우리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충청도민회 회원 여러분!

21세기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면서 지방의 자율성과 독창성이 존중되는 지방화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는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새 시대에 맞는 지역혁신체제를 굳건히 구축함으로써 우리 고장이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결 같은 성원과 관심이 우리 고장의 발전은 물론,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행사가 교민 여러분의 화합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가운데 미 동부 충청도민회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조국과 고향에 항상 뜨거운 사랑을 쏟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미 동부 충청도민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나눔과 봉사의 정신

제12회 여성자원봉사자대회 대회사

2004. 10. 26.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는 오늘 제12회 여성자원봉사자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그동안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오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를 드리면서, 고귀한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오신 점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일을 해라,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해라, 셋째 어떤 희망을 가져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처럼 밝은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돕는 일을 하는 여러분이야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가 민주사회시민의 당연한 책무로 인식되는 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善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과 체험을 통해 자원봉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국가의 큰 행사를 계기로 인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근래 우리나라도 주5일 근무제와 건전시민운동의 확산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연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국민의식이 정착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이 제도화되어 이 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이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날로 복잡·다양해지면서 행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그 혜택은 여전히 틈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 몸소 봉사활동을 펴오신 덕분에 우리 사회는 한결 훈훈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여성자원봉사자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고장,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가운데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웃음과 행복을 키워가는 훈훈한 사회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정에서는 주부와 어머니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바쁘게 사시면서도 어둡고 그늘진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자원봉사활동을 펴심으로써 우리사회를 밝게 만드는 작은 등불입니다.

작은 등불이 모여 어둠을 밝히는 큰 불이 되듯이 여러분의 거룩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우리 충남을 밝고 건강한 고장으로 만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대회가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가운데 이웃과 사회에 대한 참사랑을 확산시켜 나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자원봉사활동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향토문화와 지역사회의 발전

제48회 충청남도문화상 시상식 식사
2004. 10. 26.

오늘 마흔 여덟 번째 맞는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정재훈 공주대학교 교수님, 김석원 한국예총 보령지부 자문위원님, 윤규상 월진회장님, 이종승 충청남도 태권도협회장님께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상자의 오늘이 있기까지 정성으로 내조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신 가족·친지 여러분과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최청송 도교육청 교육국장님, 최성호 충청하나은행 대표님, 한상구 제일은행 충청·호남 본부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도 문화상은 학술과 예술, 지역사회와 체육, 그리고 문학과 교육 분야 등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그분들의 업적을 선양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문학과 교육 등 2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대상 수상자를 찾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향토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이룩하고 이 상의 권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부득이한 결단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와 같은 우리의 절제된 노력이 머지않은 장래에는 더욱 알찬 성과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상자로 선정되는 네 분의 공적은 더욱 찬연하게 빛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공적소개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수상하신 네 분의 수상자들께서는 학술과 예술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향토문화의 터전을 더욱 기름지게 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계발부문과 체육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며, 우리 지역을 건강하고 활기찬 터전으로 가꾸는데도 크게 기여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분들의 이와 같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지역의 문화적 역량과 지식기반이 이만큼 튼튼해 졌으며,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께 드린 이 상은 이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이자 더 나은 충남 건설을 위해 우리의 역량을 모아가자는 다짐의 의미도 함께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로 추진하였던 신행정수도건설이 차질을 빚으면서 그 피해의 중심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단기적, 장기적 대책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고 자치도정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만, 이런 때 일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민이 마음을 다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일에 앞장 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 자신보다는 이웃과 지역을 위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며, 그런 노력이 경주될 때만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제48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을 맞아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업적이 널리 선양되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 가는데 원동력으로 승화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더 큰 성취와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계 일류를 향한 도전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치사

2004. 10. 27.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이곳 안면도에서 도내 기업인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형집 도기업인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기업인 여러분!

지난 9월말 우리 도는 수출 200억불을 달성하여 개도 이래 최대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우리나라는 대망의 수출 2천억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1964년 처음 1억불을 달성한 뒤로 꼭 40년 만에

거둔 쾌거로서, 그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수출입국을 위해 노력해온 값진 결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래 우리의 경제는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력에서는 선진국에 뒤지고, 가격에서는 후발경쟁국에 밀려 우리나라 상품이 점차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만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수출품목과 수출대상국을 다변화하여 수출호황의 파급효과가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IT업종을 집중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들 기술력의 바탕이 되는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런 기업인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불가능 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며 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일구어온 우리 경제의 선봉장입니다.

어느 경제인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 말을 "세계는 넓고 팔 것은 많다."라고 바꾸어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이제는 수시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보다 더 좋은 세계 최고의 머리, 세계 기능 올림픽을 휩쓰는 탁월한 손재주, 그리고 한번 붙들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오기와 끈기를 잘 살려서 이제 다시 세계 일류를 향해 도전해 나갑시다.

저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기업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활동과 역할을 기대하면서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이러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충남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생명존중정신의 구현

한국불교선농회 선농원농장 개원식 축사

2004. 10. 28.

오늘 우리 충남의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이곳 청양에서 친환경농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선농원이 개원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선농원을 개원하기 까지 애써주신 장혜명 한국불교선농회중앙회 이사장님과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 기관·단체 관계자님들께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선농회 회원 여러분!

지난날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식량자급을 위해 녹색혁명을 통해 증산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환경오염과 농산물 안전성의 문제가 야기되어 우리의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동안 농촌은 2·3차 산업 위주의 성장성책에 밀려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은 이농현상, 농촌인구 고령

화 그리고 농가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농사의욕마저 잃은 상황에서 힘든 생활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지구촌 단일시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DDA와 FTA 등 개방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 들어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요 생명의 보고인 농촌이 안타깝게도 날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국난의 위기 때마다 힘을 하나로 모아왔으며, 지난 IMF 경제위기 때에도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경제를 되살렸던 우리 국민들은 역시 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농업·농촌의 발전없이는 국가의 장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농업·농촌을 되살리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최근 웰빙붐이 일면서 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자연의 생태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농업·농촌을 살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친환경농업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이 새롭게 발전해가는 가운데 농촌이 살기 좋은 터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할 때입니다.

그동안 한국불교선농회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身土不二정신을 계승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의 농촌과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오늘 개원한 선농장이 바로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요람이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생명존중정신을 구현하는 도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친환경농업을 전국에 널리 확산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선농원이 개원되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농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선농원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생산적 복지의 실현

2004 충남자활한마당대회 격려사

2004. 10. 29.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자활가족 여러분의 화합을 다지는 2004 충남자활 한마당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이윤기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충남도지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고 자활사업에 참여해 오신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이기봉 연기군수님, 그리고 정석구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

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자활가족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IMF를 맞으면서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중산층의 붕괴와 대량실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가정이 해체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시행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자활사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자활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한계점으로 인해 아직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자들이 대부분 단순노무활동에 종사하여 제대로 된 자활교육을 받지 못해 자립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자활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갖게 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단순히 빵을 나누어 주는 일보다는 항구적인 면에서 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자활근로자의 자립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자활시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삶에 대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시고 지금보다 더욱

힘을 내셔서 꿋꿋하게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대회가 여러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가운데 우리 도의 자활사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고, 가정에도 늘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길

2004 충남쌀축제 환영사

2004. 10. 29

오늘 UN이 정한 쌀의 해를 기념하여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충남쌀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2004 충남쌀축제가 농협하나로클럽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상호 농협충남지역본부장님과 박석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장을 비롯한 농민단체 여러분과 양승조 · 박상돈 · 김학원 · 홍문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출향인사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쌀 가족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부터 우리민족은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이 모든 산업의 근간을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여러 농산물 중에서도 쌀은 우리민족의 주식으로 오랜 농경생활 속에서 우리와 삶을 함께 해온 소중한 식량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DDA · FTA 등 농업개방의 물결이 확산되면서 쌀시장 개방이라는 최대의 시련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쌀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 외국산 쌀 들이 국내시장에 무차별 유입되어 우리 쌀의 입지 약화는 물론 농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생활패턴이 서구화됨에 따른 식습관의 변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쌀밥 중심의 식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권위있는 연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쌀은 뇌조직의 포도당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침에 쌀밥을 먹으면 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쌀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한편, 당뇨병 및 암 예방에도 우수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우리 쌀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쌀과 농민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 쌀에 대한 온 국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이는 충남쌀은 웰빙시대에 맞춰 우리 충남의 청정지역에서 환경농법과 유기농법에 의해 재배한 고품질쌀로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하는 쌀입니다.

내 가족의 건강과 영양을 생각하고, 우리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우리 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가운데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남쌀 재배농가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문화의 창달과 발전

2004 충남문화예술인대회 축사

2004. 10. 30.

오늘 황금들녘과 분홍빛 단풍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고장 문화예술인들의 큰 잔치인 2004 충남문화예술인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병달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님, 김영천 한국예술문화단체 충청남도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신 공으로 표창을 받으신 스물다섯 분의 수상자 여러분께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채현병 홍성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출향인사로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우리 충남의 명예를 드높이고 계신 세계적인 소리꾼 장사익 선생께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10월 말일이고 보면 금년 한 해도 이제 겨우 두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아쉬움이 많은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만, 우리 도 문화 예술 측면에서 본다면 의미 있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10월 부여 구드래에서 개최된 제11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천안병천고의 "웃다리 풍물"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부여 세도의 "가회리 장군제"가 금상을 차지하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대회 운영측면에서도 지역주민의 관심과 성원이 역대 대회 중 가장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가하면 브레멘 세계합창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한 천안글로리아 소년소녀합창단이 同聲부문 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와 공주국제미술제가 열려 백제의 찬란했던 미술문화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술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올린 이러한 성과는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보람이자 우리 도민 모두의 기쁨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빛나는 예술혼과 창작 열정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예술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어가고 있는 21세기는 문화예술이 가치창출의 핵심요소가 되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산업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월한 문화역량을 가진 강대국의 문화로 동질화되어 가기도 하고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문화예술조류 속에서 문화적 전통성을 살리고 새로운 문

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하여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을 적극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화예술이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 이상으로 지역문화의 창달과 발전을 위한 일에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한 일에 지혜와 성심을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행사가 이러한 다짐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개최를 축하하면서, 여러분 모두 더 큰 예술적 성취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따스한 품으로 감싸는 사랑

어머니포순이봉사단 발대식 축사

2004. 11.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을 모아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응조 한국자유총연맹 충남도지회장님과 시·군 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해주신 이병열 도봉사단장님과 각 시·군 봉사단장님, 그리고 봉사단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봉사단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수출 2천억불 시대를 열며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물질만능주의가 만연되면서 범죄 발생비율이 날로 증가하는 등 사회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

실입니다.

특히, IMF 이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가계빚 증가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늘어만 가고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찍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우리에게 늘 포근하고 위안을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머니의 부드러움과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갈수록 난폭해지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경찰서장으로 잘 알려진 김강자 前 종암경찰서장은 감히 남자 경찰관들도 엄두도 못내는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할구역에서 매춘을 뿌리 뽑았습니다.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매춘의 정점에 있는 우두머리를 찾아 아주 근원적으로 매춘의 고리를 차단한 것입니다.

김서장이 이렇게 강력한 활동을 벌인 것은 같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매춘에 혹사당하는 자식같은 여성들을 그냥 볼 수 없었던 따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김서장과 같이 사회를 따스한 품으로 감싸며 다시 밝고 건강하게 만들려는 굳은 의지와 행동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는 불우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의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힘이 미약한 가운데 냉혹한 현실에 부딪치며 어렵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쉽게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어려운 이웃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으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따스한 손길로 그늘진 사회를 어루만지며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께 모인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결의와 노력을 구체화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고장을 좀 더 밝고 건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 더욱 많은 도민의 협조와 참여 속에 도내 전역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의 무궁한 발전과 단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의 건강은 곧 지역발전의 원동력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명사칼럼

2004. 11. 1.

얼마 전 우리 고장 공주에서 동아일보 · 충청남도 · 공주시가 공동주최하는 2004백제큰길 마라톤대회가 열려 선수와 가족 등 2만 여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89세의 어르신에서부터 4세의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가을꽃이 핀 금강변을 따라 가지각색의 옷을 입고 긴 행렬을 이루며 달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달려 나가는 선수들을 보며 이른 바 웰빙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일찍이 미국의 건국지도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건강을 보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첫째 의무이자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하여 건강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이제 한나라 국민의 건강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노인인구는 급속도

로 증가하는 가운데 40대 성인남자 사망률은 세계 최고수준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 노동인구의 질과 그 수의 감소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계층,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생활체육은 가족건강을 지키는 밑바탕이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며, 지역화합과 국가통합을 이끄는 구심체라는 인식 아래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건강은 곧 그 지역의 경쟁력이요, 사회를 밝고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혹자는 바쁜 생활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쁜 것으로 따지자면 나도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매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내

고 있다.

심지어 퇴근 후 집에서조차 결재서류나 보고서를 검토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다.

이렇게 바삐 살면서도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해온 것은 아침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맨손체조와 아령 들기, 그리고 집 주변을 산책하는 일을 꾸준히 해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늘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가 늘어만 가는 현대생활을 활력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건강을 소홀히 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위해 하루 중 다만 몇십분이라도 시간을 내자.

행복이라는 집은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이라는 두 기둥이 있어야만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웃과 지역을 위한 고귀한 역할

2004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 대회사

2004. 11. 2.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펼쳐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더욱 알찬 실천을 다짐하는 2004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경축하면서,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시환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랑과 봉사의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앞장서 오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자원 봉사자 여러분!

세상에는 더할수록 커지는 것이 있는 반면에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사랑과 봉사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봉사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나눔의 철학이 얼마나 큰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금년만 해도 여러분께서도 참으로 다양한 활동의 참여를 통해 이를 입증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의 엄청난 폭설피해 현장에서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께서는 그늘진 이웃을 위해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도민체전을 비롯한 각종 행사장에서, 그리고 교통정리와 생활주변의 정화활동과 같은 생활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은 언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100년 만의 폭설이라는 커다란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었고 성숙한 사회의 진면목은 물론, 각종 행사의 성공적 개최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이와 같은 참여와 나눔의 실천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펼쳐주신 이웃과 지역을 고귀한 역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랑스런 자원 봉사자 여러분!

흔히 성숙한 시민사회는 경제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지닌 사회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선진사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땅에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오신 분들이며, 우리 사회에 미소와 활력을 전달해주는 참사랑의 전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활동이 변함없이 펼쳐지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실천운동으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보듬어 주는 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위헌 결정에 따른 상실감이 너무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자치도정 또한 발 벗고 나서야 할 일입니다만, 여러분의 진심어린 위로와 변함없는 역할은 이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대회가 여러분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고장 자원봉사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준비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숭고한 사랑의 실천

사랑의 인술사업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축사

2004. 11. 2.

오늘 '사랑의 인술사업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석 단국대학교 병원장님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분주한 방한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라봉떼 슈라이너병원장님, 이창건 남가주 충청향우회장님을 비롯한 향우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관료로서 한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보람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아주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아가씨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에는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면서, 첫 직장생활에 대한 흥분과 기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변한 자신을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와 자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작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씨입니다.

존경하는 라봉떼 원장님!

병원장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씨는 지난 1997년 3월 우리 도와 LA 슈라이너병원간에 체결한 '장애아동 무료시술' 협정에 의해 1998년 첫 시술자로서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16살의 나이로 척추만곡증이라는 천형과 어려운 가정환경은 나이 어린 그가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고 모습은 애처로웠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슈라이너 병원에서의 수술과 재활기간을 거쳐 이제는 당당한 사회인이 되어서 직장생활을 시작한다는 편지는 그래서 저에게 더욱 큰 감동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애에 바탕을 둔 슈라이너 병원의 숭고한 사랑의 실천과 향우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한 소녀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부여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인술사업을 지속적이고 더욱 활기차게 전개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봉떼 원장님을 비롯한 슈라이너 병원의 변함없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인술사업이 정착되어 더 많은 장애어린이들이 새로운 희

망과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일에 저와 우리 도는 성심을 갖고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의 실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행사를 계기로 더욱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어 사랑의 인술사업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도에 머무시는 동안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 사랑의 실천

제41회 충청남도 4-H경진대회 치사

2004. 11. 3.

자랑스런 4-H회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이룩한 4-H 운동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 위한 제41회 충청남도 4-H경진대회가 알차게 마무리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반가운 만남의 자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따뜻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4-H회와 농촌 활력화 운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오늘 그 공적으로 상을 받으신 단체와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4-H회원 여러분!

나는 오늘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리란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행사장을 가득 메운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이러한 기대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용기와 희망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이 가져온 결과가 우리 도민들에게 안겨준 상실감과 허탈감이 너무도 큰 것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실의에 빠져있는 도민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대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젊음의 열기와 농촌사랑의 뜨거운 정열을 느끼면서 내 고장 충청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 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언제나 활력과 전진의 상징어가 되어왔습니다.

우리 농촌에 희망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사람들도 여러분이고, 농촌사랑의 실천을 통해 힘찬 전진을 약속한 사람들 또한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는 올해도 변함없는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만 말할 때, 여러분은 내 고장 특산품자랑 경연대회와 도·농교류 문화체험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교 4-H 국화전시회와 꽃길·꽃동산 조성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내 고장 가꾸기에도 앞장 서 주셨으며, 공동학습포를 활용한 친환경농업실천에도 적극 참여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대해 희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여러분의 역할 때문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4-H 회원 여러분!

나는 이러한 여러분의 힘찬 활력이 우리 사회에 널리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지난 시절 4-H 운동이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되었듯이 실의와 상실감에 빠져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우리 자치도정 또한 이를 적극 뒷받침 해나갈 것이란 약속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경진대회가 이를 위한 일에 마음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충남 4-H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용기와 희망

제85회 전국체전선수단 해단식 치사

2004. 11. 3.

자랑스런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오제직 교육감님,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단을 격려하고, 그 성과를 되돌아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체전에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싸워준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훌륭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선수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성과였습니다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고 나름대로의 뜻깊은 결실을 일구어 냈습니다.

우리 도민들 또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결코 자만이나 실력이 뒤진데 따른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만이 간직하고 있던 노하우가 다른 시·도 팀에게 알려졌고, 우리에 대한 견제와 추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시 변화를 시도하고, 우리만의 의지와 노하우를 축척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으뜸 충남이 그러하고, 여러분이 세운 빛나는 충남체육의 금자탑이 또한 그러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신화를 재현해 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도민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위헌결정에 따른 심한 좌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는 심한 상실감에 젖어있는 우리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잡고, 내년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전국체전 선수단 해단식을 맞아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선수여러분께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하는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남인이 하나로 뭉칠 때

시·군의회의원 의정연수 축사

2004. 11. 4.

올해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오늘 우리지역 의원님들의 의정수행능력 함양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충남시·군의회의원 의정연수가 실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선현장에서 민의를 수렴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정원 충남시·군의회의장회 회장님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재창 전국시·군의회의장회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국가백년대계의 大役事를 거스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우리 충남, 나아가 전국 지자체의 오랜 여망이 무산되는 참으로 황당한 사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기·공주지역 주민들은 물론, 충청권 全주민들이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으로 인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도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당했구나 하는 배신감과 분노로 우리 지역은 지금 연일 항의시위와 집회로 들끓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근본을 무시한 채 우는 아이 달래는 식의 임시방편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로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난 40년 동안 해온 것처럼 百藥이 무효가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명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지난 10월 28일 대통령님을 면담하고, 신행정수도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원칙대로 시행할 것과 우리지역 경제혼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헌재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버금가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셨고, 충청권 경제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만, 이는 충청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연기·공주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한 우리도의 모든 장기발전전략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만 도민의 자존심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상처받은 점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벌어진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차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서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확정후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결코 용기가 없다거나 무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번에는 정말 이전되는구나 하는 확고한 신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대한 국가의 대역사를 두고 충청권의 입장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타지역 주민들을 자극하게 되고, 이는 곧 국론분열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대승적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과 상실, 그리고 배신과 분노뿐입니다.

이제 우리 충남인의 자존심상 도저히 참고 넘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200만 도민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옛부터 우리 충남인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구국을 위한 충정과 기개를 떨쳐왔습니다.

바로 지금이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우리 충남인이 하나로 뭉칠 때입니다.

이번 기회에 충남인의 자존심과 저력을 하나로 모아 단합된 힘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땅에 떨어진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고, 우리의 절박한 생존권을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자랑스런 선조들과 미래의 주역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한 일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 初心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도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가운데, 앞으로 이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남시·군의회 의장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손잡고 힘을 내는 출발점

제16회 연기농업인 화합대회 축사

2004. 11. 4.

자랑스런 연기 농업인 여러분!

군내 농업인 단체 회장단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둔 결실을 자축하고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 위한 제16회 연기농업인 화합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그 공적으로 영예의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연기 농업인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노력이 풍년농사를 일구어 냈습니다.

생각해보면 금년 농사는 참으로 어렵게 시작하였습니다.

백년 만이라고 하는 3월의 폭설이 있었고, WTO · DDA 농업협상 등 물 밀듯 밀려오는 개방의 파고는 우리를 힘겹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땀의 정직함을 믿고 묵묵히 땅 일구어 오신 여러분의 의지는 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농업에 대한 믿음이, 거친 손이, 그리고 굳은살 박힌 어깨가 오늘의 풍년농사를 일구어 낸 것입니다.

나는 그런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장하십니다.

자랑스런 농업인 여러분 !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마냥 기쁨의 풍년가만을 부를 수 없는 것이 또한 솔직한 현실입니다.

우리 농업에 몰아닥치고 있는 여러 불리한 여건도 문제이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이 이곳 우리의 터전인 연기를 크나 큰 상실감 속으로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더덩실 어깨춤을 춰도 부족할 경사스러운 날에, 더욱 무거워진 여러분의 어깨를 보는 제 마음 또한 추수가 끝난 저 텅빈 들판처럼 그저 허허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툴툴 털고 일어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는 것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욱 보듬고, 사랑해야 합니다.

흐트러진 몸도 마음도 모두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굳건히 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저 먼 길을 당당

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치 도정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옳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다시 힘을 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화합대회가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풍년농사를 일구어내신 올 한 해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 발전의 지름길

건전소비생활 범도민 다짐대회 격려사

2004. 11. 5.

오늘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건전소비생활 범도민 다짐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대회 준비에 애써주신 박연규 전국주부교실충남도지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건전한 소비생활과 물가안정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오영희 공주시장님, 송민구 도의원님, 그리고 주부교실 회원님들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주부교실과 소비자단체 회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와 중국의 긴축정책, 그리고 장기화된 내수침체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축보다는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고,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저축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낭비와 합리적인 소비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원을 재활용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도하는 등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우리나라는 아끼고 절약하는 것을 왠지 궁색하게 여겨 멀쩡한 물건도 유행이 지났다하여 함부로 버리고, 유명브랜드가 아니면 구입하지 않으며, 물건도 유명백화점이나 대형마켓에서가 아니면 아예 사지 않는 풍조가 만연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서민경제의 활력소인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내수경기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근본적인 내수침체의 원인은 과중한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계저축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신용카드 범람 등으로 마이너스형 과소비 풍조가 팽배하여 가계빚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근래의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비효율이고 단기적인 투자에 몰두하여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 IMF 경제위기를 맞았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후로 계속된 구조조정과 실업은 가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결국 또 빚으로 생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저축을 늘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지난날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로 국민저축률이 40%가 넘을 정도로 우리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저축에 힘써온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저축은 개인에게는 미래의 불안을 담보하는 가운데 자산증식을 이루는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한 투자를 이끄는 경제발전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제 국가경제가 어려운 지금부터 아나바다운동과 자원재활용운동 등 합리적이고도 절약하는 소비생활을 다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좀 더 아끼고 절약하는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소비생활 풍토가 정착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건강하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를 통해 우리의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앞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이 도내 전역에 확산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백제역사문화의 가치 재발견

백제향기찾기 자동차랠리 격려사

2004. 11. 6.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누리에 붉게 물든 단풍이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는 11월의 첫 주말에 '백제향기 찾기 자동차랠리'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멀리에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참가자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대회는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주말 자동차여행과 가족단위 역사문화체험을 결합시킨 전국 최초의 자동차 체험관광입니다.

우리 충남은 백제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 공주, 부여 등을 비롯해 도내 각지에 유서깊은 백제문화의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처럼 꽉 짜여진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즐겁게 운전하시면서 수준높은 문화를 꽃피운 백제의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그윽한 옛 문화의 정취에 빠져보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넉넉하고 포근한 충청도의 인심에 흠뻑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여정이지만 방문하시는 곳마다 이전에는 잘 몰랐던 백제역사문화의 참다운 가치를 재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여행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는 동시에 가족 또는 연인끼리 두고두고 추억에 남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운행에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사회 안정을 이루는 첫걸음

제12회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 식사

2004. 11. 8.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인 농어촌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 장한 공적을 기리는 제12회 충청남도 농어촌 발전대상 시상식 및 제4회 여성농업인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예의 대상을 받으신 이우석·남성현님과 각 부문별 수상자, 기관·단체,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광된 자리가 있기까지 구슬땀을 흘려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지역농업발전에 헌신하신 박인주 여성농업인연합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군수님, 농업관련 단체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엄격한 심사로 농어촌 발전대상의 권위를 높여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여성농업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경사스러워야 할 자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정성을 다해 일군 풍년농사를 자축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8년 연속 쌀 생산량 전국 1위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혹자는 개방화시대에 그런 성과가 무슨 의미 있는 것이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그만큼 우리 농업인이 가진 우수성과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이는 우리 도 농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실질적인 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농정에서의 성공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첫걸음이라는 데서도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올 한해 여러분이 올린 성과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며, 찬사를 받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풍년농사를 일구어내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뜨거운 치하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농업인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현실은 풍년가만을 부를 수 없는 여건에 놓여져 있는 것이 또한 솔직한 현실입니다.

WTO와 DDA 농업협상, 쌀 관련 관세화 관련 재협상 등 국가간의 무역장벽이 해체되면서 전면적인 개방의 파고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자치도정이나 중앙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왔습니다.

금년 만해도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농정대토론회를 가진 후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계의 많은 의견을 들은 바 있고,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모두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험난한 파고를 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자치도정과 중앙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어려운 농촌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여러분의 의지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토론회를 통해서 나타난 공통된 의견은 최근의 농업·농촌의 현실은 어렵지만 "정부와 생산자 학계가 삼위일체가 되어 대응한다면 우리 농업도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농촌과 농어업의 미래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런 농어업인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농어업과 농촌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꾸어 갈 것을 다짐합시다.

농촌은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농업은 경쟁력 있고 소득확보가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다짐하십시다.

여러분이 앞장 서 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충남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저는 농업선진국의 목표는 반드시 달성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을 기회 삼아 여러분과 우리도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힘을 모으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여러분 지난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농어촌발전대상을 받으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능력 함양

2004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격려사

2004. 11. 9.

오늘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단풍으로 붉게 물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지역의 여성지도자 여러분을 모시고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따스함으로 지역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여성단체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조춘자 도 여성단체협의회장님과 허운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여성지도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속된 유교문화권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관행과 의식이 매우 강하게 자리잡아 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남성들이 사회생활을 잘 하도록 내조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전통적 사고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2004년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세계

144개국중 29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여성권한척도는 세계 78개국 중 68위로 최하위수준입니다.

이는 교육, 건강, 소득 면에서 양성간의 차이는 적지만, 주요결정권한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수많은 법들이 제정되는 가운데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17대 국회의원중 여성의원이 전체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중 36%가 여성기업인 이라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여성지도자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미래는 3F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사회는 여성성(Feminity), 감성(Feeling), 상상력(Fiction)의 특성을 보이면서 육체적인 근력에 의존하지 않는 두뇌와 지식이 자산이 되기 때문에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을 갖춘 여성에게 더욱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우먼파워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능력을 함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여성정보화교육을 통해 지식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사회적응능력을 제고시키는데 힘써왔으며, 각종 자원봉사활동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도정참여에도 앞장서왔습니다.

하지만,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여성의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여성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그 변화에 당당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여성단체의 지도자로서 그동안 여성의 권익향상과 남녀평등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오신 우리도 여성계의 선구자입니다.

이제 미래사회는 여러분이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여성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계발하고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교육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길을 시도해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도 및 시·군 여성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재미있는 소일거리

실버인터넷 경진대회 시상식 인사말씀

2004. 11. 9.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기령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님, 조춘자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이재우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도가 주최하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한 실버 인터넷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여 영예의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의 영광된 자리에 서기까지 힘과 용기가 되어 주셨던 가족과 친지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흔히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못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먹는 음식과 입는 옷, 심지어는 놀이문화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는 지역이라는 공간, 그리고 세대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놀이문화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어린시절에 즐겼던 놀이는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치기니, 구술치기, 그리고 연날리기 등 일상적 놀이문화였던 것이 지금의 어린 세대들에게는 생소한 것임은 물론, 명절 때나 혹은 고궁에서 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반대로 생각한다면 컴퓨터는 여러 어르신들에게는 익숙지 못한 것이며, 신세대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일종의 놀이문화라 할 것입니다.

익숙지 못한 것을 익혀야 하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기계라는 점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곳에서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의 교감을 나누는 풍습에 익숙하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정을 느낄 수 없는 괴물단지 정도로 여기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근래의 놀이문화요, 정보의 통로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받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정보화 마을과 고향사랑 NET을 통해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노인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노인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신 실버 인터넷 경진대회도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른 노인 정보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노인층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어렵게만 느껴지고 남의 나라 일 같았던 컴퓨터가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이며, 재미있는 놀이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세상과의 교통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손자 녀석들과도 의사소통은 물론 같은 문화를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셨을 줄 압니다.

앞으로 더 많이 즐기고 익히셔서 여러 어르신들의 삶을 활기차고 즐겁게 영위하심은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배움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 어르신들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웃음 넘치는 삶 가꾸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혁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자 격려 만찬사

2004. 11. 10.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멀리 이곳 부산에서 개최되는 '자치단체 혁신박람회'에 참석하시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이번 박람회에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중심, 충남'을 표방하면서, 4대 전략산업 육성의 야심찬 비전의 홍보와 함께 지역혁신 성공우수사례 발표와 전시·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타시·도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충남의 지역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대회에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그 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지금 우리 충남의 참담한 상황도 함께 전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반드시 우리 충청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피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公論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모쪼록, 소찬이지만 즐거운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어둠을 밝히는 횃불

대한적십자사 창립99주년 기념 2004년 지사연차대회 축사

2004. 11. 12.

존경하는 대전·충남 적십자 가족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임광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님과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대한적십자사 창립 99주년을 기념하는 대전·충남지사 2004년 연차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인도주의활동에 앞장서고 계신 한만우 회장님을 비롯한 대전 · 충남 적십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십자 사업에 이바지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축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적십자 가족 여러분!

국제적십자운동은 1859년 장 앙리 뒤낭에 의해 전쟁터에서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 시작된 이래 사랑과 봉사, 그리고 평화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고종황제의 칙령에 의해 대한적십자사가 설립된 지 어언 10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해구호, 국민건강사업, 사랑의 헌혈사업, 국제구호활동, 청소년 적십자운동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복지증진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남북이산가족 찾기와 이산가족 상봉운동에 앞장서 남북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민족의 화합을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적 역할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거룩한 희생과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런 적십자 가족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우리사회는 갈수록 각박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진 탓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인간존중의 정신이 날로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고통 받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 이 땅에 넘쳐흐를 때 우리사회는 보다 밝고 훈훈한 사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인류애의 정신으로 말없이 봉사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이 온 국민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 속에 알찬 결실로 맺어져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횃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차대회가 우리의 이러한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품격높은 경로복지정책의 구현

노인복지정책토론회 인사말씀

2004. 11. 16.

오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 도 노인복지시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노인복지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오늘 정책토론회를 참관해주시는 시군 노인회장님들과 여러 어르신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최기령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토론회 진행을 담당해주실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님, 발제를 해주실 변재관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인구·경제 팀장님, 허선 아산시 노인복지회 관장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에 대한 범지구적 대책을 천명한 케리 앤드루스 교수는 '교육'이야말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삶의 한 과정인 만큼 사회에서 삶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인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고 이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을 구분하는데 있어 다소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는 성장기, 일하는 중·장년기, 그리고 은퇴해서 쉬는 노년기의 구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분 방식이 자칫 노년기의 어르신들에 대해 쉬는 계층이며, 따라서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관념을 갖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삶의 의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구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이 잘못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금년 8.3%에서 2019년에는 14.4%, 그리고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얼마 전 언론보도는 노인계층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노인인력지원기관의 운영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건강 및 레크레이션은 물론 컴퓨터 교육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의 확충 등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품격 높은 경로복지정책의 실현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유쾌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내 실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사랑과 존경으로 상존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발전시켜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주체가 되는 자치도정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가 현업과 학계에서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이 모이신 자리이니 만큼 훌륭한 방안이 도출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책화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제도상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우리 도 노인복지정책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변함없이 이어지는 적십자정신

대한적십자사대전 · 충남지사회장 이 · 취임식 축사

2004. 11. 16.

자랑스런 적십자사 가족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님,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김상기 대전 MBC 사장님, 이상윤 한남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대한적십자사 대전 · 충남지사 회장님의 이 · 취임식을 맞아 여러분을 뵙고 축하인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년 동안 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적십자사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고 이임하시는 한만우 회장님께 마음 깊은 존경과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대전 · 충남지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박건영 신임회장님께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인도의 성인 간디는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순수한 봉사야 말로 인류의 행복을 구현하는 최선의 가치임을 강조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한만우 회장님을 옆에서 뵈어왔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임하시는 회장님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만우 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 기업인이자, 그늘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와 희생적인 삶을 살아오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 1998년부터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제25대와 26대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펼쳐 보이신 남다른 열정은 회장님이 지니신 지역에 대한 헌신과 인류애적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회장님께서는 재임하시는 동안 아주 작고 표시 나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진실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적십자정신을 구현해내는데 앞장서셨습니다.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구호 및 봉사활동의 활발한 전개가 재임기간 동안 더욱 두드러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회장님께서는 우리 자치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회장님의 협조가 으뜸충남의 도정을 구현해 내는데 큰 힘이 된데 대하여 저는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마감하시고 그 직책을 떠나신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참으로 크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이임이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 일뿐, 지역의 어른으로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열정과 역할은 변함없이 이어지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27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박건영 회장님께서는 1997년부터 적십자사와 인연을 맺고 부회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하시면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훌륭하신 분께서 새롭게 적십자사를 이끌어 가시게 된 것을 무엇보다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며, 신임회장님에 의하여 숭고한 적십자사의 이념이 더욱 확고하게 구현되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회장 이·취임식이 이러한 기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적십자 활동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두 분의 이·취임식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기업문화 창조

기업하기 좋은 천안·아산 만들기 대토론회 격려사

2004. 11. 17.

오늘 우리 충남경제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이곳 천안에서 기업하기 좋은 천안·아산 만들기 대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축하하면서,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하섭 단국대학교 부총장님, 이효선 단국대학교 천안발전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성무용 천안시장님과 이정원 천안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립형 생존전략이었습니다.

불과 2년 10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우리 도는 그동안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필두로 하여 각종 규제조치의 완

화와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중소·벤처 기업 및 첨단산업의 지원 강화와 경쟁력 있는 공장용지 확충 등은 우리 도가 벌여온 그동안의 노력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이러한 노력은 생산과 투자, 그리고 고용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고른 성과로 나타나 자치단체 중앙합동평가 지역경제부문 3년 연속 최우수도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 불안요인과 대내적 내수침체가 겹쳐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지속적인 호조와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경제인 여러분이 힘을 합쳐 주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 도가 추진해온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의 시책 또한 큰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대 토론회가 이를 모토로 하여 출발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천안·아산지역은 교통과 통신, 그리고 인력 등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다 기업 활동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행정과 지역민이 나서서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어간다면, 더 이상의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지방정부의 기업지원방안과 기업경영애로 및 규제개혁 방안 등 주로 기업 활동의 사회적인 환경측면에 모아져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가 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소

망합니다.

지역경제의 주체인 기업과 지역민 그리고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천안·아산을 신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는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만큼, 참으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이를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농촌건설의 적임자

제24회 충청남도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격려사

2004. 11. 18.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 해의 성과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농업·농촌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생활개선회원 여러분께서 한자리에 모여 제24회 충청남도생활개선 실적발표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남 충청남도생활개선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생활개선단체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생활개선회원 여러분!

생활개선회는 지난 1958년 생활개선구락부로 처음 활동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 농촌의 근대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사, 육아, 노동, 그리고 생활개선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현장의 곳곳에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배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만큼 우리나라 농촌이 잘 살기까지에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마음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여성의 主流化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흐름은 농업분야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농업분야에서도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농촌여성'이 아닌 농업의 생산자이며 경영자인 '여성농업인'으로서 당당히 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생명공학과 환경농업이 중시되면서 섬세한 감각을 갖춘 여성농업인이야말로 1차 산업인 농업을 2·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여성농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FTA와 DDA 등 농업시장 개방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그늘 속에 누적돼온 농촌문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농촌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있는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희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숱한 위기를 굳은 의지와 믿음을 갖고 극복해왔기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농촌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

심과 보람을 갖고, 내 집 텃밭을 가꾸는 따스한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 농촌을 보듬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생활개선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대장정

신행정수도 사수 범충남연대 출범식 치사

2004. 11. 22.

존경하는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우리 지역 언론계와 학계, 그리고 종교계와 각급 시민단체 대표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 여러분!

재인천 장한조 충남도민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충청향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정수도 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위헌 결정이 있은 후의 지난 1개월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담한 심정과 허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만, 그런 마음만으로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격앙된 마음을 추스를 수 없어 흥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던 적도 있었습니

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행동은 자제하였습니다.

차분한 대응을 통해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를 모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믿음을 공유해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뜻이 하나로 모여 이 대강당을 뜨겁게 달구는 오늘의 열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열기야말로 우리가 이미 행정수도 건설의 차질에서 비롯한 허탈감에서 벗어나 새롭게 일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인이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신행정수도건설의 불씨를 살려나가고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각급 시민단체 대표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신행정수도사수 범충남연대가 주축이 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헌결정이 있은 후 지금까지의 한 달 기간이 다소 격앙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보다 이성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에 대한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의 완성을 위하여 500만 충청인이 하나가 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신행수도 건설이 원칙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어내고 신행정수도건설의 재추진을 통해 국가의 신인도를 회복하고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위헌결정이 있은 후 지난 한달을 돌이켜보면 정치권은 여야의 입장에 따라, 정부는 정부대로 신행정수도 위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추진하는데 있어 언론을 비롯한 주위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이 보다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함은 물론, 신행정수도건설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전령사가 되도록 협조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2,160만평에 대한 매입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지역민이 겪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허탈감이나 상실감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각급 시민단체 대표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 여러분!

하지만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해야 하는 이러한 일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그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이러한 의지와 노력이 전제된다면, 우리가 결의하는 신행정수도건설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을 이를 위한 대장정의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우리 모두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가십시다.

우리 충청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다.

오늘 신행정수도사수 범충남연대 출범식을 맞아 이런 다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굳은 결의를 모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산업

제18회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치사

2004. 11. 22.

오늘 늦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때에 우리 도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제18회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류철호 충청남도 산업디자인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님과 임성규 논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각 부문별로 입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정성을 다해 훌륭한 작품을 출품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산업디자인 가족 여러분!

21세기 감성과 문화의 시대를 맞아 이제 디자인은 단순히 한 기업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 전체의 이미지와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식기반경제의 흐름 속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으로, 소비자의 상품구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디자인 코리아'를 표방하고 국가적으로 디자인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우리나라의 브랜드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산업디자인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을 위협하는 새로운 산업디자인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랄만한 짧은 기간 내에 디자인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로부터 지녀온 품격높은 공예문화 저력 위에 세계 수준의 IT기술을 접목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런 산업디자인 가족 여러분!

오늘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맞아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기호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디자인입니다.

저는 상품의 특징과 장점을 가장 인상적으로 디자인하여 이를 국내외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역군이요, 국가경쟁력 제고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 발전해온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이 어느새 18년이란 연륜을 쌓아왔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차원높은 작품을 출품해주신 여러분을 보며 저는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꿈과 소질을 마음껏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도정에서도 여러분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일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열린 산업디자인대전이 우리의 이러한 각오를 다지는 가운데 우리 도 산업디자인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남산업디자인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

브뤼셀 투자유치설명회 환영인사

2004. 11. 29.

존경하는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유럽의 정치 · 경제 중심지인 이곳 브뤼셀에서 여러분을 뵙고 우리 충청남도를 소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특히, 벨기에는 우리 한국과 수교 100주년이 넘는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50여년 전 한국 전쟁 시에는 벨기에의 젊은이들이 참전하여 자유수호를 위해 활약하였던 특별한 인연이 있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방문하여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은 우리 충청남도가 여러분의 투자대상지역으로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과 벨기에는 지난 1974년 '투자보장협력'을 체결한 이래 꾸준한 경제 협력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세계경제가 글로벌화하면서 벨기에 기업들이 아시아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對한국 투자 또한 최근 3년간 투자액이 1,243백

만 유로로 현재까지 총 투자액의 60%를 차지하는 등 더 한층 투자와 교역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도 유럽 각국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여 활발한 경영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토탈화학, 유미코아, UCB 등 벨기에의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우리 충남지역에 3억3천만 유로를 투자한 토탈화학은 연인원 900명을 고용하고 년간 14억 유로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유망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유미코아의 경우에도 '99년부터 천안 외국인 기업전용 단지 내에 공장을 건립, 가동하면서 86백만 유로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천안공장 증축 및 테크니컬센터 건립 등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외국의 유망기업들이 우리 충남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투자메리트 때문입니다.

우리 충남은 수도 서울의 배후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정보통신 우수한 인력 등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자동차산업 등 핵심 산업이 권역별로 클러스트화 되어있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특히, 동북아 관문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은 인구 5백만명 이상의 극동아시아 13개 도시와 모두 1~2시간 내에 연결이 가능하여 마켓팅 활동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안정된 노사관계로 한국기업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투자 최적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 지도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충청남도에 투자 하십시오.

우리 200만 도민 모두는 여러분의 입주를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공이 바로 우리들의 성공이라는 신념으로 좋은 기업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1대1 밀착 원스톱 행정 서비스와 함께 세제감면, 보조금지원, 토지관련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우리 충남도에서 성공신화를 창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개혁과 통합의 토대

제3회 충남 NGO-DAY 만찬 축사

2004. 12. 2.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성과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제3회 충남 NGO-DAY 행사를 통해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여러모로 애써주신 이상선 충남NGO-DAY 조직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회장님, 차수철 · 최진하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멀리 일본에서 오신 오가타 신이치 기타큐슈시 환경교육담당주간님과 김시환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회원 여러분!

충남 NGO-DAY 행사가 시작된 지 어느덧 3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도정의 감시자로서, 때로는 서로 돕는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참다운 민주주의와 개혁의 씨앗을 뿌려오셨습니다.

특히, 정치·경제·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00만 도민의 뜻을 대변하며, 자치도정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민주사회의 건전한 시민정신이 자리잡고, 참여와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개혁과 통합의 기반 또한 단단한 토대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사회에 시민운동이 시작된 지 불과 얼마돼지 않았음에도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랑스런 시민단체가족 여러분!

하지만, 우리사회가 보다 나은 선진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의 위헌결정과 관련 이를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금의 어려움과 수많은 사회의 갈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과 이에 못지않은 뜨거운 가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 이상으로 이러한 역사적인 과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 서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치도정 또한 여러분과 손잡고 이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화합과 우정을 돈독히 하는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준 역사적 쾌거

제41회 무역의 날 포상전수식 격려사

2004. 12. 6.

한 해 동안 땀흘린 성과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제41회 무역의 날을 맞아 상을 받으신 기업인과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전수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증대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로로 포상을 받으신 기업인과 공무원 여러분께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배명렬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님, 김영수 한국수출보험공단 대전지사장님, 그리고 김석영 한국수출입은행 대전·충청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기업인 여러분!

갑신년 한해가 어느덧 마지막 한 달 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늘 이맘때쯤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만, 올해는 우

리 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참으로 의미있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개도 이래 처음으로 수출 200억불이라는 빛나는 금자탑을 세운 뜻깊은 한해였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가 이룩한 이러한 성과는 수출증가율 측면에서 본다면 57.5%로 전국 평균 33%의 배에 이르는 실적이며, 무역흑자 119억불 또한 우리나라 무역흑자액 245억불의 절반에 가까운 경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우리 도는 수출증가율과 무역수지 흑자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뿌듯하고 저절로 신바람이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 좌절로 인해 답답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든든한 자신감과 굳센 용기를 심어준 자랑스러운 성과이자,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게 해준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룬 이같은 성과는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기업인과 무역인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기업인과 무역인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런 기업인 여러분!

최근 국제경제 여건을 보면 환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의 수출 전망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200만 도민의 단합된 힘이 있고,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충청남도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상품이 컨테이너에 실려 오대양 육대주를 향해 힘차게 파도를 헤쳐 나가는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슴 속에는 충남인 특유의 끈기를 품고 이제 활활 타오르는 자신감과 용기라는 두발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갈 것을 다짐합시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분께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랑스러운 상을 수상하신 기업인과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축하를 보내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한 師道의 표상

TJB 백제문화재단 교육대상 시상식 축하메시지

2004. 12. 9.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입니다.

오늘 TJB 대전방송이 마련한 'TJB 백제문화재단 교육대상 시상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각 부문에서 영예의 상을 받으신 아홉 분의 수상자 여러분께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상식은 TJB 백제문화재단이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의 표상이자 귀감이 되시는 우리 지역 선생님들의 업적을 기리고 이를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선생님들은 참다운 스승의 길이 무엇이며,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과 절대적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이와 같은 뜨거운 인간애와 교육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는 것이며, 우리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시상식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이 올바로 서고, 우리 사회에 스승존경의 정신이 더욱 확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지혜와 성심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시상식이 모든 교육자 여러분께 보람으로 빛나고 지역 교육계에도 힘찬 활력소가 되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영예의 교육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甲申年 한해, 하시고자 하는 일 잘 마무리 하시고, 乙酉年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참여하여 얻는 보람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 송년의 밤 인사말씀
2004. 12. 9.

자랑스런 대능인 여러분!

오늘 한해가 저물어 가는 세모의 길목에서 존경하는 여러 원로 선배님들과 동문 여러분이 함께 하신 가운데 송구영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올해의 자랑스런 대능인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으신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모교를 빛내 오신 동문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선배님과 동문 기관장 여러분, 원거리에서 참석해준 동문님, 그리고 오늘의 행사가 있기까지 묵묵히 협조해준 동창회 임원진과 동창회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여러 동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동문 여러분!

저는 올해의 벽두에 화안금정(火眼金睛)이라는 네 글자를 한해의 사자성

어로 선정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안금정(火眼金睛)이란 서유기에 나오는 것으로 손오공이 '불꽃같이 이글거리는 금빛 눈알로 천리 밖의 잠자리를 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갑신년 원숭이해를 맞아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보다 멀리 그리고 깊이 있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혜안을 가지자'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다짐이었습니다.

한해가 불과 20여일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지금, 이런 다짐에 내가 과연 얼마나 충실해왔는가를 되돌아볼 때,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느끼는 감회이기도합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기에 그 느낌 또한 더욱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아쉬운 대로, 보람이 있다면 또 그것대로 저무는 甲申年에 실어 보내고,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롭게 밝아올 乙酉年에 새 희망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문회의 경우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여러 동문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영광스럽게도 총동창회장에 취임하였고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대고의 전통과 명예가 그리고 숨겨져 있는 우리 대능인의 저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향각지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모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여러 동문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은 동문들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창회의 모토를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열린 동창회'로 정하고 전체동문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처럼 흩여져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더 큰 대능인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동문이 함께 하였던 여러 행사를 통해서 선배님들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 젊은 동문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활기찬 대고, 자랑스런 대고동창회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런 대능인 여러분!

흔히 애정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때만이 그에 대한 보람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여 동문 상호간의 애정과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랑스런 대능인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빛나는 명예와 전통을 우리가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십시다.

오늘 송년의 밤을 맞아 이런 다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송년모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

2004 신문경영자 세미나 인사말씀

2004. 12. 10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해가 저물어가는 세모의 길목에서 '2004 신문경영자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언론문화 창달에 앞장서 오시고 이번 세미나를 위해 우리 고장을 찾아오신 홍석현 회장님을 비롯한 발행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논의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의 공동화를 방지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보면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공약으로 처음 제기된 이래, 국가의 정책으로 선택되었으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법으로 성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총선이 끝난 후, 정치적 변화를 시발로 하여 첫째, 천도라는 주장, 둘째,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주장, 셋째, 통일이후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하여 반대의 논리가 제기되었고 위헌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실상에 대한 검토 없이 주장된 것들에 불과합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주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1978년 처음으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확정 발표된 때에 우리의 수출은 100억불 미만이었으며, 국민소득은 1,399불이었습니다.

이는 10월 현재 우리 충남만의 수출액이 243억불이며, 2004년 기준 국민총생산은 720조, 예산규모는 200조가 넘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경제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총 건설비용이 약45조인데 이 중 정부투자비가 11.3조로 이는 연간 1조원 정도의 투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경제규모로 볼 때, 큰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는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충청권은 정신적·물질적으로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혹과 경악, 상실과 허탈감 확산이 그것이며, "충청도가 또 속았다"는 자괴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현실이 또한 그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직접적인 경제적 파장이라 하겠습니다.

현주민 대부분이 융자를 받아 代土를 구입했는데 이는 고스란히 농가 부채로 남았고 이로 인해 금융의 부실화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국회 입법기능이 훼손되었으며, 국론의 분열, 국가 대외신인도 추락, 행정불신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 처방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2,160만평 토지를 모두 매입,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정부의 추진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행정불신의 문제, 국가대외신인도 회복 등 위헌결정이 가져온 파장을 일거에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 건설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본질과 원칙에 입각하여 재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될 때만이 국정목표를 실현할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모처럼 우리 고장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한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널리 알려주시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 재추진의 불꽃을 점화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갑신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알찬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 장래를 담보하는 원천

제16회 충청남도교육상 시상식 축사

2004. 12. 13.

오늘 그동안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수상자 여러분을 모신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후세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와 가족 · 친지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성구 충청남도천안교육장님을 비롯한 시 · 군교육장님과 김상무 대한삼락회 충남지회장님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와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즈음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한류열풍을 새롭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만든 영화나 소프트웨어 하나가 웬만한 기업의 매출액보다 더

나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수한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창출·활용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인적 자원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담보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며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갈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늘 강조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4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배로 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에 주력해온 결과였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으시며 온 젊음을 후세 교육에 힘써 오신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의 번영을 일군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자랑스런 교육가족 여러분!

한 나라의 장래를 보려거든 그 나라의 숲과 청소년을 보라는 말처럼,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최첨단산업에서부터 농수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을 고루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우리국민의 저력과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정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과

제도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21세기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위한 교육문제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변함없는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충청남도 교육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따뜻한 축하를 보내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의 방향타

2004 충남벤처인대회 축하 메시지

2004. 12. 13.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지사 심대평입니다.

한해가 저무는 세모의 길목에서 우리 지역 벤처 기업인 여러분이 함께 하신 가운데 2004 충남벤처인 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산업현장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 오신 벤처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랑스런 벤처 기업인 여러분 !

보람과 성취로 일구어왔던 갑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금년 한해, 우리는 참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지난 2002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를 처음 시작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제는 우리 충남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開道이래 최초로 수출 200억불을 돌파했으며, 수출증가율과 무역수지 흑자 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벤처기업인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한데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은 금년 1월 198개에서 11월 현재 223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서고자 하는 우리 충남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공률의 극대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벤처성장기반의 구축과 체계적인 육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도의 이러한 의지와 벤처기업인 여러분의 열정이 한데 모아진다면 우리 충남의 벤처기업이 지역경제의 방향타가 되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한 일에 변함없는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파이팅 2005, 또 하나의 가능성'이란 주제로 열리는 오늘 2004 충남벤처인 대회가 올 한해를 뜻있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역동적으로 맞이하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충남벤처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모습

새마을부녀회 평가대회 및 외국인여성과 어울한마당 치사

2004. 12. 13.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펼쳐온 부녀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더욱 활기찬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새마을부녀회 평가대회 및 외국인여성과의 어울 한마당 행사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훈훈한 지역사회 건설에 앞장서 오시고 오늘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고애례 충청남도새마을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각 시군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장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한영 충청남도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부녀새마을운동의 활기찬 활동을 전개해 오신 공적으로 오늘 상을 받으신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새마을부녀회장단과 외국인 여성 여러분!

어느덧 한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든지 그 성과의 명암은 있게 마련입니다만,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가 백년대계로 추진하였던 신행정수도건설이 위헌결정이라는 암초를 만나 제자리에 멈춰서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된 경제침체로 인해 서민경제는 물론,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탄핵정국이 있었는가하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논쟁이 가열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는 더욱 굳셌고 여러분의 역할 또한 빛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금년 한해 이룩한 성과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지난 3월에 있었던 폭설피해를 딛고 8년 연속 단보당 쌀 생산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각종 쌀 품평회에서 최우수 쌀로 선정됨으로써 품질 면에서도 전국 최고의 수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개도 이래 최초로 수출 200억불을 돌파했으며, 제41회 무역의 날에는 수출증가율과 무역수지 흑자 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무의탁 노인 가정생활 돕기 운동을 전개해 주셨으며, 스승과의 만남의 광장 행사 등, 스승존경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품격 높은 도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와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운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과의 어울림 마당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지켜가야 할 정신문화운동을 주창하고 이를 실천해 오신 것입니다.

자랑스런 부녀새마을 회장단과 외국인 여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롭게 열어갈 내년 을유년에는 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 낼 수 있다'는 뜨거운 의지와 '해 내고자'하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마을부녀회 평가대회 및 외국인여성과 어울 한마당 행사를 맞아 이러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펼쳐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지역사랑 운동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평화가 가득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통일을 위한 큰 뜻

제2회 충남평화통일포럼 세미나 축사

2004. 12. 15.

오늘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제2회 충남평화통일포럼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희수 충남평화통일포럼 대표 회장님과 김태완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주신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 성무용 천안시장님, 변평섭 대전매일신문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및 사회단체 임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평화통일에 기여하신 공로로 오늘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자문위원님과 천안·보령시협의회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평화통일포럼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는 협력과 갈등관계가 교차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질시와 반목이라는 전형적인 대립이 70~80년대의 모습이었다면,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이루어진 이후의 금강산 관광,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일련의 변화는 화해와 협력체계의 구축을 이룩한 근래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경제분야에까지 이어져 개성공단이 건설되고, 남북간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연결공사가 마무리 되는 등 남북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남북간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오늘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계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 상황이 또한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간의 굳건한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남북간의 그 어떤 논의나 결정은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주변국의 우려를 씻을 만한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런 평화통일 가족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저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사회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각계·각층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위한 큰 뜻을 하나로 이끌어 내는 일입니다.

우리 내부의 통일도 이루지 못하고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 채 반세기를 넘어 존재해온 북한과 화해의 시대를 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나 명분으로도 약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미나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열린 것으로 통일에 대한 우리 충남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실천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 평화통일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의견과 정책방향이 모아짐으로써 우리민족의 통일역량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선도적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자치도정에서도 이를 위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금메달을 향한 집념어린 노력

충청남도 카누인의 밤 격려사

2004. 12. 15.

오늘 한 해의 성과를 마무리 하는 충청남도 카누인의 밤이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선수와 임원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노승복 충청남도 카누협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무환 부여군수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충남 카누가족 여러분!

일찍이 카누는 신석기시대 때부터 원시인들이 교통수단이나 수렵도구로 사용했을 만큼 우리 인류와 역사를 같이해온 유서깊은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카누가 스포츠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1984년 카누연맹을 만들고 난 후부터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충남은 그동안 전통적인 육상종목이나 구기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 뿐 카누에 대해서는 불모지라 할 만큼 생소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카누를 향한 우리의 집념어린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산저수지라는 천혜의 연습장을 갖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부여군청과 부여고등학교에서 카누를 전략종목으로 선택하여 금메달을 향한 대장정에 앞장선 것입니다.

여기에 충남카누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해졌습니다.

반드시 금메달을 따고야 말겠다는 지도자 선생님과 선수들의 강한 의지 앞에는 열악한 훈련여건도, 거센 비바람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오로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굳센 투지와 피같은 땀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아 지난 1997년 전국체전에서 8위를 거둔 것을 시작으로 2001년부터는 연속 4년째 금메달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우리 도가 7년 연속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자랑스러운 금자탑을 이루는데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처럼 찬란한 위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협회가 하나로 뭉쳐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충남 카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께 진심어린 찬사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런 충남 카누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충남 카누는 그동안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정

상에 우뚝 섰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는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정상의 자리를 지켜간다는 것은 정상에 오르기보다 몇 갑절 더 힘이 들고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혼연일체가 되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그동안 못다한 정담을 나누시면서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충남 카누가족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

제8기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수료식 격려사

2004. 12. 17.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 도정을 이끌어 나갈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제8기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이 종료되어 수료식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우리 도 15,000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수료식이 있기까지 세심한 정성으로 여러분을 보살펴주신 홍용표 원장님과 알찬 지식을 전수해주시느라 애쓰신 여러 지도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개월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학업에 정진하여 우수한 성적을 얻은 수상자 여러분과 뒷바라지에 정성을 다해주신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배움의 길을 함께한 교육생 여러분께도 뜨거운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런 정예공무원 여러분!

21세기 현대사회의 특징을 말하자면, 사회가 복잡·다원화되는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20세기 산업사회시대에의 행정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지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예측이 불가능한 혼돈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로 인해 기존의 가치질서는 빠르게 붕괴되고 있고, 이제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한 개방된 가치가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 할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만 가고 있는데 조직과 구성원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우리가 리드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동안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직사회의 변화를 맨 처음의 과제로 내세웠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요인이 하드웨어적인 구조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소프트웨어적인 행태나 공직문화를 바꾸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런 정예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앞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아니면 낙오하느냐 하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정부혁신이 모든 개혁의 출발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사회의 혁신은 이제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인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도정에서 혁신을 주도해나갈 사람은 연령과 지위상 중간계층에 있고, 개방적인 사고와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바로 여러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교육을 마치고 소속기관에 복귀하게 되면, 그동안 이곳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우리도정에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도하는 새로운 개혁의 물결은 우리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이 되고, 보다 진취적인 도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교육생 전원이 무사히 정예공무원 교육과정을 마친 것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늘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도적인 분권화 노력

혁신분권연구단 창단식 인사말씀

2004. 12. 20.

오늘 한해가 저무는 세모의 길목에서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분권연구단이 창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자치도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이번 연구단 위원직 수락도 흔쾌히 승낙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왔던 갑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릴 정도로 많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했던 한해였습니다.

우선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가 거둔 성과를 살펴본다면, 지난 3월에 있었던 폭설피해를 딛고 8년 연속 단보당 쌀 생산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각종 쌀 품평회에서 최우수 쌀로 선정됨으로써 품질면에서도 전국 최고의 수준임을 인정받은 뜻깊은 해였습니다.

개도 이래 최초로 수출 200억불을 돌파했으며, 제41회 무역의 날에는

수출증가율과 무역수지 흑자 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큰 한해였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로 추진하였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중단된 일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여러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고 특히 지난 주말에는 행정수도 대안선별 5대원칙이 확정되는 등 재추진의 불씨가 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는 본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논의이니만큼, 헌재의 결정이 존중되는 범위 안에서 당초의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500만 충청인이 그 의지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 한해동안 거둔 이와 같은 성과와 아쉬움을 토대로 새해에는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변화의 급류 속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는 것으로 근래 들어 행정의 개념이 '거번먼트' 즉 통치라는 개념보다, '거버넌스', 즉 협치라는 개념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에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복잡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분들을 찾아내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을 이루는 일인데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으로부터 이양되는 권한과 재원을 받아오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권한과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하면서도 주도적인 분권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의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 시행, 그리고 11월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 실행계획'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지방분권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발판은 이미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분권과 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과 이를 하나하나 구체화해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혁신분권연구단 창단식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 충남자치도정의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분권과 혁신의 과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가운데 자치도정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바람직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보람과 성취 일구시는 뜻깊은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

산·산·학·연 협력 활성화 토론회 인사말씀

2004. 12. 22.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도내 기업 및 경제관련인사 여러분을 모시고 산·산·학·연 협력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헤스본 주식회사를 비롯한 6개 기업과 올해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종합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당진군 등 4개 시·군, 그리고 기업유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서산시 등 3개 시·군에 대해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특강을 해주실 황종환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님과 주제발표를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기업인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과 경제인 여러분!

21세기 지식기반경제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이제 어느 한 국가나 한 기업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간에는 경제블럭화와 경제협상이 강화되고, 기업간에는

합종연횡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생존전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급변하는 디지털기술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계 전자업계에서 영원한 경쟁상대인 삼성전자와 소니가 포괄적 상호 특허사용계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미래에 이익이 된다면 이제는 적과도 협력해야 할 만큼 생존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하물며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지방기업의 입장에서 기업간 또는 지역경제 주체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랑스런 기업인과 경제인 여러분!

그동안 우리 충남경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증가율과 무역수지 흑자 면에서 전국 최고를 보이며 힘찬 성장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신뢰할만한 국내경제연구소들은 내년에는 고유가와 환률하락이 계속되면서 올해보다 더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개방과 경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일구어 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막연한 경제불안심리에 위축되기 보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려는 자세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 지역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돕는 상생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산·학·연 협력, 그리고 행정의 역할' 이란 주제로 토

론의 자리를 마련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함께 모여 서로 힘을 모아 나가는 가운데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욱 촉진시켜 나가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가운데 산·산·학·연·관간의 협력과 역할 정립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다함께 이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주신 기업인과 경제인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신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불교문화의 창조적 계승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기공식 축사

2004. 12. 22.

존경하는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님!

원로대덕 스님과 불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불교계가 보유한 유·무형 전통문화의 문화산업적 가치를 재창출하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심시설이 될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기공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센터가 우리 고장에 들어설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원장님을 비롯한 불교계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심 가득한 불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갑신년을 보내는 세밑에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기공식이라는 마음 넉넉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계의 오랜 숙원을 이루었다는 데서 오늘 기쁨이자, 내일을 향한 또 하나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불교문화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며 그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보아도 불교가 우리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영역을 차지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불교는 이 땅에 처음 전래된 이래 마음의 안식을 전하는 정신적 지주이자, 생활의 지침이 되는 생활불교로, 그리고 나라가 위급에 처했을 때는 분연히 일어서 나라를 구하는 호국불교로 언제나 민족과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교의 이와 같은 역할에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집대성하는 노력과 제대로 전하고 교육하는 기관, 그리고 시설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공식을 갖는 본 시설이 완공되면, 교육과 수련활동 물론,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불교문화의 체계적 연구와 정리를 통해 올바른 이해와 가치를 전달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산업을 통괄 · 지원하는 통합기관으로서 불교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포함하여 교육과 체험, 그리고 문화산업화를 이루는 전략기지로서 굳건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그 첫 삽을 뜬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모쪼록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차질 없는 공정의 진행 속에 불교문화의 산실로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공식을 축하하면서, 여러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갑신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 열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맞춤형 자원봉사체제 구축

충청남도 전문자원봉사단 발대식 식사

2004. 12. 23.

자랑스런 전문자원봉사단 여러분!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도 전역의 균형적 자원봉사조직 육성을 위한 전문자원봉사단 발대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오늘 발대식이 있기까지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 구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 그 공적으로 영예의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전문자원봉사단 여러분!

보람과 성취, 그리고 아쉬움을 함께 안겨주었던 갑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릴 한해였습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 도는 오래도록 기억될만한 자랑스런 성과를 일궈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 도는 사상유례가 없었던 3월의 폭설피해를 딛고 8년 연속 단보당 쌀 생산 전국 1위라는 불멸의 금자탑을 세웠으며, 각종 쌀 품평회에서 최우수 쌀로 선정됨으로써 품질 면에서도 1등 충남 쌀의 위업을 달성하였습니다.

개도 이래 최초로 수출 242억불을 달성했으며, 수출증가율과 무역수지 흑자 면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200만 도민의 정성과 참여가 함께 해주시고, 내 고장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구슬땀이 한데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3월, 폭설의 현장에서 보여주셨던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는 오늘 이룩한 성과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전문자원봉사단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거둔 이러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더 알찬 활동을 다짐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히 기존의 틀과는 차별화된 전문자원봉사단이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축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자원봉사활동이 예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컸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자원봉사의 활동영역과 참여율의 지역적 편차문제, 그리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의 미흡 등 운영과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줄

곧 제기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기능별 · 광역적 · 맞춤형 봉사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발대식을 갖는 일곱 개 봉사단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여러 일들을 해오셨습니다만, 오늘을 계기로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쉬움 속에 중단된 신행정수도건설은 가장 중요한 현안의 문제입니다.

현재 후속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저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 지역주민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국가경쟁력 강화와 서울 살리기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해쳐나간다면 이와 같은 역사적 과업의 성취는 물론, 내년 또한 보람과 성취의 한해가 될 것이란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 이를 실천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올 한해 동안 보여주신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의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 모두,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지역을 이끌어 나갈 소중한 일꾼

의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인사말씀

2004. 12. 28.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 우리지역의 소중한 꿈나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과 이사님들을 모시고 의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은 자랑스러운 미래의 주역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장학생 여러분을 따뜻한 사랑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오제직 도 교육감님, 그리고 최석원 공주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의암장학회 장학생 여러분!

일찍이 '제3의 물결'로 유명한 미국의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앞으로의 세계는 지식이 모든 생산수단을 지배하게 되며, 이에 대비한 후세의 교육 없이는 어느 나라든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교육은 한 국가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것도 바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그토록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희생을 해오신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현명하신 선택이었습니다.

제 선친께서도 평생을 교육자로 봉직하시며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세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래인재 양성을 우리 자치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알차게 준비해온 것도 교육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와 함께, 선친의 유지를 조금이라도 받들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어린 인재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져 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의암장학회 장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과 우리민족의 번영을 이끌어 나갈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인격과 훌륭한 재능을 고루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때 우리사회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튼튼한 두 발로는 현실이라는 땅을 굳게 디디고, 뜨거운 가슴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큰 사랑과 이상을 품고, 그리고 맑은 머리에는 현명한 지혜와 사고를 담는 가운데 다가오는 미래를 힘차게 헤쳐 나가길 바랍니다.

나 또한 여러분이 든든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나갈 것입니다.

더욱 분발하고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에게 새로운 꿈과 용기를 심어줌으로써 우리 충남의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펼쳐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이 의암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온 공직의 귀감

2004 하반기 정년 · 명예퇴임식 치사

2004. 12. 28.

오늘 우리는 동고동락해온 동료 여러분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아쉬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영예로운 퇴임을 맞으신 여덟 분의 동료공직자 여러분께 충남공직자 전체를 대신하여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내조해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사모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빛나는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친지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동료 공직자 여러분!

레바논의 작가인 칼릴 지브란은 "사랑은 이별의 시간이 될 때까지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서고 보니 문득 이 말의 의미가 되살아남을 느낍니다.

지역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해오신 여러 일들을 떠올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직에 들어오신 후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충남 도정의 든든한 맥을 이어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길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인내와 헌신을 요구하는 길이었으며, 공직자로서 특별한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특히 살림을 꾸리셔야 하셨을 사모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박봉의 어려움을 참도 견디어야하는 인고의 세월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여러분의 감회는 그런 아쉬움보다는 더 큰 보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헌신하셨던 우리 충남도정이 으뜸 충남의 든든한 반석위에 올라섰고, 늠름하고 당당하게 자란 자손들 또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랑스런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성공된 삶을 사신 분들이며, 그리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크게 이바지 하였다는 평가를 받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분의 어깨에 놓여있던 무거운 짐들은 우리들 어깨 위에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은 도정과 지역을 위해서 고뇌하고 뛰어다니셨던 여러분의 채취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도정사를 창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비록 정해진 제도로 인하여 몸은 우리들 곁을 떠나시지만 여러분이 보여

주신 열정과 헌신은 공직의 귀감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우리들이 맺은 소중한 인연은 영원히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부디 새롭게 전개되는 제2의 인생도 알차게 영위하시고 좋은 만남과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 속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성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사모님과 가족,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신의 은총이 늘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 국민운동으로 재점화

2004 충남지역새마을운동 평가보고대회 치사

2004. 12. 29.

오늘 갑신년 한 해가 저무는 세모의 길목에서 도내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을 모시고 2004 충남 지역새마을운동 평가보고대회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행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한영 도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지역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우수지도자와 시군협의회 회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한창숙 도 새마을회장님을 비롯한 시군·읍면동 협의회장님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새마을운동 협의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우리 충남의 새마을운동이 여러 분야에 걸쳐 활동영역을 확산해온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닥친 폭설피해 복구, 시·군 순회 예절특강 및 연극공연, 효행청소년 발굴·시상, 사랑의 김장 담그기, 무연고분묘 벌초운동, 사랑의 집 고치기운동 등을 통해 충남정신의 발양과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은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이같은 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날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일구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안타깝게도 이러한 새마을정신을 낡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그 성과를 폄하하는 등 왜곡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 속에 제2의 새마을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재점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을 도민과 마음도 함께, 보람도 함께 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우리충남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희망·새정신·새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다함께 뜻을 모아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가보고대회를 갖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개최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랑스런 새마을 가족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금년 한 해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새해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가 이룩해야 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200만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 등에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한데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새마을운동이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남의 이미지를 드높인 한 해

2004년 송년사

2004. 12. 31.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

보람과 아쉬움이 함께 하였던 갑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신행정수도건설에 매진해왔으며, 국정개혁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것이었으며, 앞서가는 충남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시대를 열어갈 을유년 새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웅비하는 충남시대의 개막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나갑시다.

내 고장 충남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불태웁시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며, 도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의지

제야의 종 타종식 인사말씀

2004. 12. 31.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과 관광객 여러분!

도약과 성취의 한해가 될 을유년 새해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올 한해에도 우리 도민들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울러 어둠을 뚫고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저 종소리처럼 새해를 여는 우리들 가슴마다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가득 차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도정사에 빛날 성과도 있었고, 안타까움에 가슴 저미는 아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서른 세 번의 종소리에 실려 보내고, 더욱 다부진 결의와 각오로 2005년 을유년의 새해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일찍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련은 있었지만, 절망과 포기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번영을 창조해올 수 있었던 것도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러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불신과 나약함을 거둬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확고히 해 나갈 때, 새로운 도약과 희망이 성취되는 을유년 새해는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둠을 깨우고 사악함을 물리치는 저 장닭의 홰치는 소리처럼 힘차게 새해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소망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복된 새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도전과 영광이 함께 하는 한 해

계룡산 천왕봉 해맞이행사 축하메시지

2005. 1. 1.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지역의 각계 인사 여러분 !

우리의 여망을 가득 담고 乙酉年 새해의 첫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먼저 저 상서로운 햇살이 온 누리에 가득 펼쳐져 국운이 상승하고 우리 충청남도에도 새로운 도약과 영광이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지금 새벽의 여명을 밝히며 떠오른 저 태양은 충청인의 숨결이 어린 이곳 계룡산 천왕봉을 감싸고 우리가 가야 할 저 길 위에 서기(瑞氣)충만한 햇살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룡의 정기가 잉태해낸 이 뜨거운 아침 해를 가슴에 안고 금년 한해를 도전과 성취의 해로 열어가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 하겠

습니다.

특히 새롭게 열어갈 올 乙酉年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의 불씨를 재 점화하고 이를 성취하는 일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중대한 시대적 과업입니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임은 물론, 국가의 명운을 가늠할 이 시대적 과업이 기필코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다부진 마음으로 굳건한 결의와 의지를 새롭게 다집시다.

이룰 수 있다는 당당한 자신감으로 힘차게 헤쳐 나갑시다.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고, 그것이 우리 충남의 자랑스런 역사가 되게 합시다.

새벽을 여는 상서로운 닭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해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면서,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충남시대

신년사

2005. 1. 1.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역동적으로 펼쳐갈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먼저 새해의 성스러운 기운이 우리 충청남도와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열리고 있는 2005년은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충남시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내 고장 충남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진취적 기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한 힘찬 대장정의 깃발을 올립시다.

신바람으로 일구어온 일등 충남의 영예를 그 깃발 위에 펄럭이게 합시다.

을유년 새해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디며, 도민여러분 모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대한 충남시대를 향한 힘찬 도약

2005년 시무식사

2005. 1. 3.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1만 4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슴 벅찬 새해를 맞아, 저는 먼저 200만 도민여러분과 동료 공직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충남인으로서 자랑스런 삶을 개척하고 계시는 향우 여러분께도 따뜻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펼쳐나갈 새해 새날을 맞으면서, 금년에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모두와 함께 가져봅니다.

2005년 새해는 이렇게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05년은, 익히 아시는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식·정보시대」의 심화 속에 「하이터치의 감성시대」로

빠르게 진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디지털도 하이터치를 토대로 할 때만이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고유가와 내수침체 등 안팎의 악재들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발전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자치 도정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소중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 등21세기 충남의 미래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해 이기도 합니다.

저는 2005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의미와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성취하는 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동적인 도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미래인재 양성', '자치역량 강화'의 큰 틀 위에서 '고품질 충남경영'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지방분권을 선도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중심 'Heart of Korea'의 꿈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속에서 다음 「일곱 가지」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과 충청권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공동화를 방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대안으로 선택된 국가 백년대계로서, 결코

충청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편법과 원칙이 아닌 본래의 취지와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는 한편, 신행정수도의 역사가 충청권에 의해 다시 쓰여지느냐 마느냐를 판가름 짓는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내에 구성운영중인 신행정수도건설 후속대책특위와 긴밀히 연계하여 충청권의 여망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제제일 도정」을 활력 있게 추진하여 충남경제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충남경제는 지식기반의 첨단산업 확산추세에 부응하여 3大 신지식산업을 적극 육성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그동안 우리道가 추진해온 전략산업육성시책을 토대로 하면서자동차산업과 부품·소재산업 등으로 산업구조를 한층 고도화해 나가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노산업과 IT·BT 등 융합신기술의 원천기술 역량을 높이고, 디자인 산업을 선진화 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돕기 위해 혁신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전담팀」을 가동하여 기업민원을 처음부터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들을 다각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

겠습니다.

우리는 선진외국에 비해 땅의 크기나 부존자원 면에서 매우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땅의 크기에서 밀린다면 생각의 크기」로 맞서야 한다는 말처럼, 품질로 경쟁해 나간다는 전략 아래 혁신적인 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21세기형 농어업을 이끌어갈 핵심리더로 「1마을 1CEO」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영농희망 대학생을 「창업농 인턴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충남 쌀의 고품질화」를 위한 전략으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건조시설과 저온보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충남 쌀 명품 만들기」의 목표를 계속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웰빙시대의 안전 농식품 선호추세에 맞추어 「안전농산물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산 청정道의 이미지 구축과 함께, 어촌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주 5일 근무시대에 부응하여 농어촌 체험관광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 열리는 「벤처농업 박람회」와 「금산 세계 인삼 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의 유서 깊은 문화유적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연계하여, 「감동을 주는 충남관광」을 실현하겠습니다.

「관광」은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충남의 관광력을 높여 전국에서, 세계에서 우리 도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공정 49%에 머무르고 있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갖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되, 사업기간 연장('94~2005→

2010년:5년 연장)과 국비지원 확대(6,643→9,902억원 : 增 3,259억원)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확정된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을 적극적인 홍보 속에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연계하여 百濟史와 道史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인문화콘텐츠 산업의 원천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다국적 기업인 「딜로이트 FAS社」와의외자유치 협약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투자가를 물색하여 국제적인 고품질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데 적극적인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광자원을 「100% 상품화」해나간다는 전략으로 도시내 여유 공간을 활용한 「그린 충남파크」를 조성하고, 도로안내 표지판과 오래된 문화재 안내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밝고 아름다운 충남 가꾸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다소 부진한 기록을 보였던 충남체육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종목별 「팀」을 쇄신하고 우수선수를 선발 육성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쏟겠습니다.

다섯째,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복지시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여건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생활이 어려운 도민」과 「장애인」, 「어르신」 들에 대해서

계층별 맞춤 복지시책을 내실 있게 펴 나가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과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 한편,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기능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 시책과 연계하여, 그 동안 추진해왔던 「어린이 인성학습원」을 2006년 개원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면서, 영어장애가 없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영어 체험캠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기적으로 「영어 체험마을」과 「영어특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푸른 충남」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푸른 산과 깨끗한 바다를 가꾸기 위한 사업을 시민단체들과 함께 추진하고, 충남의 젖줄인 「금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미래지향적 비전과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실현기반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道가 자체 추진해온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충남2020 정책비전」을 3차 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새롭게 수정 보완하고, 이를 하나하나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양·금산·부여·서천 등 4개 군을 대상으로 한 「신활력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그 추진기반을 다져온 「대단위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는, 호안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고, 석문국가산업단지도 토지공사 주관 하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입체교통망은 도전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망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관심사항이자 현안사업이기도 한 도청이전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진행과는 별도로 보완용역을 실시하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도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위주의 행정혁신으로 「선진 자치도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분권시대의 주인은 곧 「지방」입니다.

지방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권능력을 바탕으로 자율과 창의에 의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지난해 구성된 「혁신분권연구단」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마인드를 고취시켜 나감으로써 지방분권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정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道가 추진해온 「ISO 9001」과 「Single ppm」, 「행정서비스헌장」실천 등을 상호 연계하여 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는 한편, 이와 같은 추진상황에 대해서 내실 있게 평가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처리지연 민원사례들은 발굴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도민편익을 높이는 「참봉사」 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道民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을유년」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성취의 충남시대」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위대해 지거나, 초라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큰 꿈을 가진 사람만이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꿈과 희망을 갖고 나아간다면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갖고 2005년의 대장정을 힘차게 시작합시다.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인 것입니다.

자랑스런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내일, 그 「위대한 충남시대」를 열어나가는데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갑시다.

乙酉年 새해에도 도민여러분과 공직자 가족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성취하는 해

2005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2005. 1. 3.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뜻깊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준호 대전일보 사장님, 김주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기관 단체장님들께도 반가운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의 민속상 을유년으로 닭의 띠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예로부터 닭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명을 알리는 상서롭고 신통력을 지닌 서조(瑞鳥)로 여겨져 왔습니다.

무속신화나 건국신화에서 닭 울음소리를 천지개벽이나 국부(國父)의 탄생을 알리는 태초의 소리로 여겼던 이유도 바로 닭이 지닌 이러한 특성에

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밝음을 향해 달려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경제난과 사회갈등의 모습들은 바로 그와 같은 그늘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충청의 입장에서도 신행정수도의 위헌결정이라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악재가 있었습니다.

마침 올해가 닭의 해 인만큼 새해는 지난해의 이러한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밝음만 함께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용에 '화이불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인 자로가 강함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신 말씀 중에 나온 것으로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세상 일반의 시류에는 휩쓸리지 아니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이 주는 의미를 보다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화이불류'의 기본자세를 견지하면서, 을유년 새해를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성취하는 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동적인 道政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인본복지 행정과 지식경영행정을 근간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미래인재 양성', '자치역량 강화'의 큰 틀 위에서 '高품질 충남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선도하여,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중심 'Heart of Korea'의 꿈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의 불꽃 재 점화는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중대한 시대적 과업임을 명심하고 기필코 성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모

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역인사 여러분 !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위대해지거나, 초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큰 꿈'을 가진 사람만이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도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간다면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갖고 2005년의 대장정을 힘차게 시작합시다.

보다 나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오늘 신년교례회를 맞아 이런 다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새해의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준비에 애쓰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받으십시오.

#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시발점

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신년사

2005. 1. 5.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지역의 기업인과 경제인 여러분을 뵙고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시느라 애써주신 김용웅 북부상공회의소 회장님과 변평섭 대전매일신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과 오제직 도 교육감님, 그리고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기관·단체장님과 기업인·경제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과 경제인사 여러분!

저는 새해 첫 날 계룡산 천황봉에서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여명을 밝히며 찬란히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둠을 헤치며 힘차게 떠오르는 저 태양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리 충남의 모습이라는 믿음을 스스로 다졌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해 우리충남은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자랑스런 모습으로 우뚝 섰습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이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된 모습으로 꿋꿋하게 대처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열린 이 해를 '위대한 충남'을 여는 원년으로 삼아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경제인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입니다.

이는 결코 충남이라는 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지난해가 엄청난 충격으로 인한 마음을 추스르고 뜻을 모으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하나된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相生의 정신이며, 혼돈을 깨고 반드시 밝은 새벽이 열린다는 희망과 믿음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을유년에는 그동안의 갈등과 불신의 벽을 넘어 더 큰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의 경제에 대해 경제전문기관의 발표나 국민의 체감지수 등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혁신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 또한 '경제 제일의 도정'을 올해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가운데 새로운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다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열심히 땀 흘려 나가십시다.

모쪼록 오늘 열린 신년 인사회가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새로운 지역경제의 활력을 창조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께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정과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2005. 1. 5.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지역 여성 지도자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소망과 덕담을 함께 나누는 여성단체 신년교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과 같은 뜻깊은 만남의 자리를 위해 애쓰신 조춘자 도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오제직 도 교육감님, 성무용 천안시장님, 도의원님들과 여성관련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여성지도자 여러분 !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 민속상 을유년으로 닭띠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닭의 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닭이 지닌 여러 특징을 예로삼아 덕담을 나누고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모성애와 평온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닭은 하늘에 독수리나 솔개의 출현이 있으면 자신의 위협은 생각지도 않고 그 깃털 속에 병아리를 숨기는 강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민화에 등장하는 닭의 모습은 무리의 병아리를 이끌고 모이를 찾는 것이 대부분으로 평온함을 안겨주는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닭의 해를 맞아 우리 사회가 불신과 다툼으로부터 벗어나 안전과 평안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은 소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의 예에서 보았듯이 갈등의 요인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기 마련이고 예기치 못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얼마나 많은 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때만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실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 지도자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갈등과 대립, 다툼과 분쟁을 저 커다란 모성애라는 용광로에서 이해와 사랑, 포용과 나눔의 불로 용해시켜 주실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재추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함은 물론, 이 과업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 이상으로 올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맡아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의 구심체로서 그리고 앞서가는 충남 여성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충남발전의 신기원을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나 보람과 성취가 함께하는 나날 열어 가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찬 사회

2005년도 신년조찬기도회 격려사

2005. 1. 6.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乙酉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청 기독교직장선교회원 여러분과 함께 국가와 도정발전을 위한 기도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처럼 뜻깊은 기도회를 마련하시느라 애쓰신 최영두 도청 기독교직장선교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김수흥 진잠감리교회 담임목사님, 신 청 삼성성결교회 담임목사님, 그리고 최승준 은혜침례교회 담임목사님과 김종락 CBS대전방송 본부장님, 김문준 대전극동방송 지사장님, 그리고 유상혁 대전직장선교회장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도와 내빈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우리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점철되는 가운데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해와 욕구가 대립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가치관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때 일수록 참으로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그 복음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 자세가 더욱 절실한 때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200만 도민의 안녕을 빌어주신 그 자체가 가슴 뭉클한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사회가 점차 믿음과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상생을 통해 다함께 행복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메시지를 실천하는 소중한 노력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독교 직장선교회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뜻깊은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와 충남도정을 밝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며, 직원간 화합을 다지는 데도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랑스런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땀흘려 지역발전의 기반을 든든히 다져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과 함께 열린 2005년은 더욱 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행정 수도 건설의 중단없는 추진을 통해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또한, 민선자치도정 시행 10년을 맞아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도민들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 소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2005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의미를 보다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충남이 새롭게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신앙심을 모아 함께 기원하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신년 조찬기도회가 국가와 도정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사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도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는 도청 기독교직장선교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화해와 상생의 시대

대전불교단체연합회 신년하례대법회 축사

2005. 1. 8.

존경하는 법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

여러 원로 대덕 스님과 불자 여러분 !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 을유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안녕과 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원하기 위한 신년하례 대법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장곡 백제불교회관 관장 스님, 만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스님, 오상기 대전불교신행단체협의회장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아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여러분 가정마다 가득 넘쳐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소망하는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새해를 맞아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행복과 우리 사

회의 안녕에 대해서 부처님께 기원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새해 아침을 계룡산 천황봉에서 맞이하였습니다.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며, 새해의 소망을 축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남의 영광과 우리 도민의 안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을 찾아서 서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에서 벗어나 갈등과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인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려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신행정수도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원이 부처님의 크신 원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해 이 자리에 계신 장곡 스님 등 여러 스님들께서 종교계를 대표해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동참해주셔서 참으로 큰 힘이 됐습니다만, 새해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깊은 불심에서 우러나는 불자 여러분의 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전에 정성으로 기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 우리 지역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신년대법회가 이를 다짐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역의 번영, 그리고 불교의 발전과 중생의 편안함을 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

다.

다시 한번 무변광대한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이 세상 가득 넘쳐 나고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는 한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행정수도 '대안 해법' 4원칙

동아일보 기고문
2005. 1. 9.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된 이후 이제 관심은 그 대안이 무엇인가에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정부와 여당에 이어 야당도 대안을 발표했고, 최근 국회 논의를 통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얘기가 들린다.

후속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신행정수도 논의 과정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절차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었기에, 이제는 성급하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후속 대책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요구된다.

후속 대책이 국가발전전략으로 국가정책목표를 실현하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후속 대책은 국민의 신뢰와 국가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헌 판결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책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른 정책 수단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속 대책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니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 피해 보상의 원칙이다. 정부정책을 믿고 따랐던 충남 연기-공주 지역 주민이 본 선의의 피해는 후속 대책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돼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보상책은 기존 예정지역 2160만 평을 매입해 그 활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연기 공주 지역은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로 이미 입지적 탁월성이 검증된 지역이다. 발전 잠재력을 지닌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효율적 국토 이용과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예정지역 토지의 매입은 피해보상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약하는 선언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줄 것이다.

셋째, 신행정수도 건설이 원래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세계화시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면서 지방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과 역사적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후속대책은 수도권의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만 그 정당성을 지닌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없는 '충청권 달래기식'의 임

시방편적 대책은 국가적 대의를 지역문제화해 어느 지역의 동의도 이끌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후속 대책안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넷째, 후속 대책은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 새로운 대책은 법률, 제도 및 재정뿐 아니라 기술적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역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거나 규범적인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번의 위헌 판결을 타산지석 삼아 이제는 원칙에 충실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 뜨거운 가슴을 열고 하나가 되는 자리

촛불문화행사 인사말씀

2005. 1. 17.

자랑스런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연기군민 여러분 !

황순덕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연기군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하신 이기붕 연기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

오늘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저 촛불처럼, 우리 또한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 경건한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를 갖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며, 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시대적 필연성의 요청이며,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행정수도건설의 중단을 맞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치면서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던 이유도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동안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하루도 거름 없이 이 역사의 현장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또한 이와 같은 확고한 명분과 신념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촛불 문화행사야말로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자신감이 집약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희망과 비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의 지킴이자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연기군민 여러분 !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새싹 피워내는 봄이 온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신행정수도건설 또한 이와 같은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좀더 인내하고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희망은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날을 위해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뜨거운 가슴을 열고 하나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 신행정수도 건설의 충족요건

신행정수도 관련 세미나 기조연설

2005. 1. 18.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행정수도건설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모색해보는 신행정수도관련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석원 공주대학교 총장님과 중도일보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의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늘과 같은 소중한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점도 많았고 급기야는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이 중단되는 어이없는 경우도 발생하였지만, 거기서 그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오늘 재 점화의 불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진지한 노력이 계속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참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신행수도건설에 관한 논의가 발생했는가.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건설 논의의 출발점은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해소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의 실상과 폐해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는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우리의 문제 인식은 참으로 빨랐습니다.

이미 40여 년 전부터 수도권 이전논의가 진행되어왔다는 사실만을 보아도 이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집중과 과밀화로 입은 서울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은 약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이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친지 오래고 사람이 없어 시골 공간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지방 또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이는 규모의 문제로 마치 적은 그릇에 너무 많은 것이 담겨져 하나는 넘치고 하나는 모자라 모두가 정상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오늘날 신행정수도건설이 추진된 배경이고 당위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은 일시 중단되는 중대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홍보부족이라든지 중앙언론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접근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는 이론과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도권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론가들이나 혹은 전문가 그룹들만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등으로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이해당사자들에게 구체적 이해득실을 비교 설명하지 못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논리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한, 설득력의 문제를 야기 시켰던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논리마저 전 국민에게 올바로 전달된 것도 아니고 지방의 일부 언론에서만 취급했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청회나 각종 세미나 또한 실제 참석자는 주최자측이 대부분이었던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론자 측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중앙언론이라는 거대한 언덕을 배경으로 단순논리로 대응해왔던 것입니다.

서울이 이전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한강만한 식수원을 가진 도시가 있느냐, 통일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 직접 개인의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라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들을 감성을 앞세워 대응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반대론자들의 이러한 감성적 접근이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냉철한 법리보다는 감성과 선입감에 젖은 결정이 내려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서울이 수도로서의 역사를 생각하면 조선시대 500백년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서울의 지명이 한양과 한성, 다시 경성으로 이어졌으며, 서울로 불리게 된 것은 1946년부터로 채 60년의 역사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문민정부시절 일제 36년 동안이나 위치해온 중앙청을 허문 것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일제의 잔재를 부정한 것으로 비로소 우리가 해방을 맞고 정부를 수립한 이후부터 새로운 서울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의 감성과 선입견, 그리고 시류한 편승한 듯한 결정은 이 나라의 5천년의 역사를 5백년 조선의 역사로 축소시키고, 논리적으로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오류를 거울삼아서 다시 재 점화의 불꽃을 피워 올린 신행정수도건설이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과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위헌판결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재의 위헌결정은 내용이 아니라 절차의 잘못에 있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내용은 원안대로 추진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

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여러 후속대안들이 원안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국가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후속대책은 국민의 신뢰와 국가 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되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면 정책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정책수단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후속대책이 신행정수도건설이 지니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여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의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따랐던 연기·공주지역 주민의 선의의 피해는 후속대책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보상책은 기존 예정지역 2,210만평을 매입하여 그 활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연기·공주지역은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로 이미 입지적 탁월성이 검증된 지역입니다.

발전 잠재력을 지닌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효율적 국토이용과 국가재정운용을 위해서도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예정지역 토지에 대한 매입은 피해보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약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셋째, 신행정수도 건설이 원래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세계화시대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면서 지방도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과 역사적 당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대책은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만 그 정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없는 '충청권 달래기식'의 임시방편적 대책안은 국가적 대의를 지역문제화 하여 어느 지역으로부터도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후속대책안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방분권을 통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고 동시에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후속대책은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책은 법률, 제도 및 재정뿐만 아니라 기술적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지역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기존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거나 규범적인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행정수도건설이 추진된 배경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이

를 추진해오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완성시키기 위한 대안이 지녀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과연 신행정수도건설이 졸속 추진이었는지, 아니면 서울을 옮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 것인지, 서울을 그대로 두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분명한 결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시행한 500여 가지의 조치들을 포함, 백약이 무효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의 배경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고 확고한 정책실현 의지를 천명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1단계로 편입예정지의 땅을 당초대로 매입하고 다음에는 국민설득과 단계적 접근을 통해 당초 목표를 달성해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역사적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그동안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함께 모아오시고 전문가로서의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 만큼 유익하고 진일보한 방안들이 마련되는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모쪼록 재점화시킨 신행정수도건설의 불꽃이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거듭 왕성한 불꽃이 되어 우리의 앞길을 비추게 되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개최에 애쓰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새해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화시대를 스스로 열어 갈 역량 구축

혁신분권연구단 워크숍 인사말씀

2005. 1. 18.

존경하는 혁신분권연구단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온 2005년을 맞아 지역주도적 분권화를 위한 워크숍이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는 가운데 가정에도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시대의 과제인 혁신분권운동에 앞장서주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기영석 혁신분권연구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일찍이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분권 촉구 선언을 하여 실질적인 지방화시대를 여는 희망의 등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노력과 여망이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하는 기폭제가 된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는 등 성공적 기반을 조성하였

으며, 지방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권과 혁신의 원리에 입각한 많은 정책들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혁과제를 추진함에 따른 급격한 변화와 충격으로 인해 그동안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첫 단추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중단되면서 중앙집권의 사고와 틀을 허무는 일이 얼마만큼 힘든 일인지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권과 혁신은 개방과 경쟁의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이는 지방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런 위원님 여러분!

150여년 전에 우리는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쇄국정책으로 일관해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변화의 흐름에 참여하길 주저하고 혁신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개방과 경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지난날의 전철을 되밟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행히 디지털혁명과 지식정보화사회로 대변되는 21세기를 맞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발달된 IT산업, 우수한 인력, 그리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국민의 저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세계가 놀랄만한 짧은 기간 내에 세계 5위의 전자정부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달걀을 밖에서 깨면 프라이가 되지만 안에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지방화시대를 우리 스스로가 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물론, 대학, 기업, 시민단체 등 지역혁신주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만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워크숍이 혁신분권연구단 구성의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는 가운데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해 우리도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혁신분권연구단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년의 힘

충남지구JC회장단 취임식 축사

2005. 1. 20.

오늘 을유년 새해를 맞아 충남 지구 JC의 역동적인 새 출발을 다짐하는 제36대 회장단 취임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힘찬 패기와 열정으로 새롭게 충남 JC를 이끌어갈 박철순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충남 JC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오늘 이임하시는 강신욱 전임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기봉 연기군수님, 유환준 도의원님, 황우성 군의회 의장님, 박태권 전 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충남 JC 가족 여러분 !

저는 오늘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새해 들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자리는 줄곧 있어왔습니다만, 오늘처럼 본격적인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 사회의 활력소가 되어온 자랑스런 JC회원 여러분이라는 점에서 그 반가움은 더욱 크기만 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언제나 늘 푸른 청년정신을 실천하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년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애우들의 선진지 견학을 비롯해서 각종 자선활동을 펼쳐온 일이라든지, 매년 개최되는 장항선 항구 축제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3·1절 기념 아우내 봉화제 행사 등을 통해 여러분은 오늘을 지탱하는 주춧돌이요, 미래 도약의 디딤돌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밝은 미래를 열어 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더욱 다부진 각오와 결의로 새 출발 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감회는 남다르고 기대는 더욱 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JC회원 여러분 !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나는 여러분의 이런 활약이 다시 한번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그중에서도 신행정수도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준 역사적 소명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후속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행정수도건설의 배경이 된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달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바로 그것만이 당초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를 위한 대열의 맨 앞에 서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번영과 도약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견인차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새 출발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36대 회장단 취임식을 맞아 여러분의 역량과 열정에 기대하는바 참으로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기대와 다짐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하면서, 우리 자치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충남지구 JC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청인의 단합된 모습과 저력

충청향우회 중앙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축사

2005. 1. 20.

존경하는 류근창 충청향우회 총재님을 비롯한 향우회원 여러분 !

오늘 을유년 새해를 맞아 새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아 향우회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는 보람찬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자치도정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충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주신 업적으로 제1회 자랑스런 충청인상을 수상하신 황우석 서울대학교 교수님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님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매년 이맘때면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나누어왔습니다만, 오늘은 더욱 특별한 자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4개의 단체로 운영되어오던 향우회가 충청향우회라는 이름으로 뭉쳐, 처음으로 갖는 신년교례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인사가 되겠습니다만, 향우회가 보여주신 하나 된 모습은 고향에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인의 저력을 보여주신 류근창 총재님을 비롯한 우리 향우회원 여러분께 거듭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랑스런 충청향우회원 여러분 !

이제 새롭게 떠오른 을유년의 태양은 우리에게 올 한해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힘차게 열어갈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중용에 나오는 '화이불류'라는 사장성어를 올 한해의 지침으로 삼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이불류'는 제자인 자로가 강함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신 말씀 중에 나온 것으로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세상 일반의 시류에는 휩쓸리지 아니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이 주는 의미를 보다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화이불류'의 기본자세를 견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우리 충남 도정을 지역경쟁력 제고와 미래인재 양성,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라는 큰 틀 위에서 고품질 충남경영의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 올해 을유년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신행정수도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집중과 과밀의 폐해로부터 벗어나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 향우회원님들

의 조언과 협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신행정수도건설의 배경과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가장 적절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이 우리 충청인의 단합된 모습과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 충청인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이룩해 낼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향우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고향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향우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면 작은 밀알이라도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신년 모임을 계기로 이런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져, 내년 이 자리에서는 자랑스런 성과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행정수도 건설 홍보의 전령사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대국민 홍보단 발대식 격려사

2005. 1. 24.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시장 군수님과 시군의회 의장님 여러분 !

한창숙 · 육동일 신행정수도 범충남연대 대표님을 비롯한 각급 시민사회단체 대표님과 언론인 여러분 !

오늘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다짐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 후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억누르며,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충청권 범도민연대를 결성하여 전체 충청인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앞장 서주셨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극복하고 가장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우리의 주장과 의지를 밝히고 전파해왔습니다.

정도와 원칙, 국가경영과 국민통합, 그리고 국가의 백년대계차원에서 신

행정수도건설 문제를 생각하고 대처해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선택과 실천은 옳았습니다.

중단위기에 처했던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해 재점화의 불꽃을 피워 올리고, 정부와 국회로부터 후속대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가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는데 주력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불씨가 제대로 된 불꽃을 피워내고 번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는 근래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후속대안을 살펴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후속대안은 우리에게 커다란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목표로 하였던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의 명분에도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으며, 국정운영에도 심각한 문제만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후속대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 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구 40~50만의 도시 건설이라든지, 몇 개 부처가 오고 안 오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후속대안은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데에 정책목표를 두고 향후 2~30년에 걸쳐 청와대를 포함한 전 중앙부처가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후속대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 신행정수도 건설의 후속대책은 국민의 신뢰와 국가 신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원래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그것은 반드시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하는 4대 원칙을 제기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후속대안은 받아드릴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 지금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원점으로 돌아가 신행정수도 건설의 정책목표를 확실히 인식하고 확고한 정책실현 의지를 천명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며, 책임도 지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만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대국민 홍보단원 여러분 !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국가적 대의와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 나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건은 어렵고, 무거운 책임감은 우리의 시대적 숙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시대의 커다란 물꼬를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나서야 하겠습니다.

다부진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언론 접촉과 활용을 극대화 하여야 하고, 이론과 논리를 통한 접근과 함께 반대론자들이 진행시켜온 감성적 호소를 통한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상지역과 계층에 따라 홍보를 차별화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며, 오늘의 발대식을 뜻있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야말로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에 뜨거운 의지를 모아주셨던 분들이니만큼 홍보의 전령사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해 내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발대식을 맞아 호소하는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모든 이들의 가슴으로 전달돼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전국홍보단 발대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보람과 성취 일구시는 나날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남경제의 힘찬 도약을 위한 출발점

기업인단체 신년교례회 축사

2005. 1. 27.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힘차게 열린 을유년 새해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기업인단체 신년교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형집 도 기업인연합회장님, 김종희 여성기업인협의회장님, 그리고 김중애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충남도지부장님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강태봉 도의회 부의장님과 김광만 도의원님, 그리고 조종현 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계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더욱 개방과 경쟁이 요구된 반면, 우리사회는 미쳐 이를 수용할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곳곳에서 혼란과 갈등이 반복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악화된 국내외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12위의 수출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수출 200억불을 돌파하며, 수출증가율과 무역수지 흑자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선도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일선산업현장에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불굴의 투지와 열정으로 극복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기업인 여러분!

전 백악관 참모였던 매리 매털린의 아버지는 그에게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는 오직 한가지 차이밖에 없는데, 그것은 돈도 머리도 아닌 자신감이다."라는 말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새출발을 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께 자신감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올해도 고유가, 달러약세,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은 여전히 희망적이지 못하며, 국내적으로도 수출이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관계가 조기에 뿌리내리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탄탄한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 스스로는 우리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대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경영합리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며, 중소기업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틈새시장을 찾고 업종간 공조·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올해 도정의 중점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두고 기업인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충남경제의 힘찬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을유년 새해를 맞아 기업인 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중부권 물류의 중심 항만

당진항 명명식 치사

2005. 1. 28.

존경하는 당진군민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열어가는 을유년 새해를 맞아 우리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당진항 명명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민종기 당진군수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평택·당진항이 탄생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강무현해양수산부 차관님, 김낙성 국회의원님,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성기문·정용해 도의원님, 정홍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님, 김천환 당진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당진군민과 출향인사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무일 INI스틸 부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시대 이래로 우리나라는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천년이 넘게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잡고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찬란한 우리의 문화를 전파해온 활동의 중심에 바로 당진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랑스런 사실은 그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왔습니다.

물론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역할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항구의 이름과 옛 명성이 연결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쉬움은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 경과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가 지난 1998년부터 본래의 이름인 당진항을 되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의지가 결실을 맺어 당진항의 명명이라는 축하의 자리를 함께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랑스런 당진군민 여러분!

21세기 글로벌경제가 확산되면서 국제교역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해상을 통한 원료와 상품의 이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해운항만을 통한 물류산업의 거점 구축이 곧 국가와 지역발전의 지름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진항은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최적의 여건이 구비된 항만입니다.

인근에 국가산업단지와 배후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고속도로 · 철도 · 공항 등 연계교통망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과 가장 근접거리에 위치하여 부산이나 광양항보다 물류비용을 1/3로 절감할 수 있어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로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특히, 신행정수도가 건설된다면 배후항만으로서 국제적인 무역항으로서

도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이토록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당진항을 대중국교역의 전진기지이며 중부권 물류의 중심항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인접한 평택시와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생 발전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이러한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가운데 당진항이 21세기에 걸맞는 신항만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준비에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을유년 새해를 맞아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께 늘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남농업의 도약을 위한 희망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축사

2005. 1. 31.

을유년 새해를 맞아 충남농업의 힘찬 출발을 위한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충남농업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취임하시는 김지식 신임 회장님과 임원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지재돈 전임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서정의 중앙연합회 회장님, 김문규 도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정용해·송민구·이종웅 도의원님, 오제직 도 교육감님, 유상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 엄홍우 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님, 그리고 각 시·도 및 시·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농업경영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연합회 회장단의 취임과 더불어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으

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다하겠다는 김지식 신임회장님의 열정과 패기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시장 개방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농업개혁과 동시에 농민의 삶의 질 향상도 이룩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회장단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 할 수도 없는 과제라는 점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눈앞에 닥친 총체적인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농촌이 우리의 삶의 기반임을 널리 인식하는 가운데 전국민의 폭넓은 호응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새로운 돌파구를 개척해 나가는 노력도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웰빙시대에 대비한 친환경농업,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농촌 어메니티 조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벤처농업, 그리고 都農을 연계한 1社1村운동 등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바로 그 것입니다.

오늘 새로 취임하신 김지식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농업현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지역의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올해에는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지역특성에 맞는 분권형 맞춤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운데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우리 충남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충남농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을유년 새해를 맞아 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1세기 충남문화의 양대축

내포문화권개발 활성화 심포지엄 축사

2005. 2. 1.

오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이곳 예산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님, 정덕기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장님, 박종순 예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에 함께 참여해주실 교수님들과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조선시대의 학자 청담 이중환 선생은 그의 저서 "택리지"에서 내포지역을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도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내포는 기후가 온난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인심 좋은 지역으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유적을 비롯한 유교, 천주교 유적은 물론 선인들의 발자취가 묻어나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자 박물관이며, 호젓한 갯벌과 하얀 백사장, 푸른 파도와 황홀한 낙조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광은 관광자원으로

도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대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서해안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국토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은 이러한 역사문화자원과 환경보전에 목표를 두고 종래의 정신문화창달 및 문화유적 정비사업을 확대·추진하면서 관광휴양 및 도로교통망 확충 등에 총 1조 505억원을 투자하는 명실상부한 국가계획입니다.

본 종합개발계획이 더욱 뜻깊은 것은 우리 도가 특정지역제도 부활을 선도하고 부활된 제도에 의하여 전국 최초로 특정지역을 지정함으로써 개발의 물꼬를 트고, 지역균형 개발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을 기존의 왕조·귀족문화에서 탈피하여 庶民문화를 중심으로 공주·부여지역의'백제문화권'과 더불어 21세기 충남문화의 양대 축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철저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지역에 꽃피었던 찬란한 문화의 실체를 재조명해 낼 것이며, 내포에 전해오는 독특한 유·무형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의 실체를 발굴·정비·복원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인 이점과 서해안이 지닌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시설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소득과 연계시켜 나갈 것이며, 이러한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들을 연결해 주는 도로교통망 확충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결실을 맺는다면, 내포지역은 21세기 역사·문화·관광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특

히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건설과 맞물리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이 어떠한 것인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보는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해 말 확정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직접 참여하셨거나 도움을 주신 분들이 함께 해 주셨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 자리이니 만큼, 훌륭한 방안들이 도출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되는 여러 대안들은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의 이 심포지엄이 내포문화의 성격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가운데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 대한 전 도민적 관심과 의지를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준비에 애쓰신 충남발전연구원과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발전의 중심

JC특우회장단 이·취임식 축사

2005. 2. 1.

자랑스런 JC 특우회원 여러분 !

오늘 새롭게 열어가는 을유년 새해를 맞아 충남지구 JC 특우회 회장단 이·취임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JC 특우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 김세환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신 조성준 전임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김낙성 국회의원님, 민종기 당진군수님, 성기문, 정용해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힘찬 출항의 닻을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는 물론, 올 한해를 보람과 성취의 해로 만

들어 가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결의가 담겨져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나눈 이러한 다짐이 반드시 알찬 결실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지금 처한 우리의 여러 여건들을 살펴볼 때 이렇듯 낙관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은 늘 있어왔다는 것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 오늘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다부진 결의와 의지를 함께 나누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준 역할이며,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사실 인식은 이를 성취하는 견인차가 되어왔습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그것 역시 후세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는, 우리 시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명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께서 신행정수도지속추진을 위한 결의를 나누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는 이것이야말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건설은 집중과 과밀의 폐해로부터 벗어나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이루어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살며, 세계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국가 백년대계가 바로 신행정수도건설의 근본취지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에게 이 일 말고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원칙대로, 원안에 입각해서 해내야만 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신념이자 의지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에 대해 힘찬 결의를 함께 나누어 준데 대해서 마치 백만 대군을 얻은 것과 같은 든든함을 느낍니다.

자랑스런 JC 특우회원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이 새 출발을 하는 자리에 와서 축하인사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여러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여러분께 거는 신뢰와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의 주체세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는 역할을 펼쳐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거듭 당부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행사가 이를 다짐하는 가운데 힘찬 출발을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활기찬 지역사회 건설에 앞장서온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하면서, 충남 JC 특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 보람과 성취일구는 한 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대전고등학교 제84회 졸업식 축사

2005. 2. 5.

사랑스런 졸업생과 학부모 여러분 !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교직원 여러분 !

오늘 대전고등학교 제84회 졸업식을 맞아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년간의 학업을 보람으로 마치고 오늘 졸업의 영예를 안은 519명의 졸업생 여러분께 3만 3천여 전체 동문을 대신하여 따뜻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졸업생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정성으로 보살펴주신 부모님,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송윤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졸업생 여러분 !

그동안 여러분은 이곳 한모의 동산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인격을 도야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순결', '진실', '용기'라는 대전고등학교의 교훈은 여러분을 늠름한 한모인

으로 서게 하는데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감회는 매우 남다를 것이며, 내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은 여러분의 가슴을 벅차게 할 것입니다.

나 또한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선배이자 지역의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믿음직스럽고 당당한 젊은이들을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맞아들였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자 기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갈고 닦은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와 우리 사회를 위해 지금 지니고 있는 역량을 더욱 살찌우고 넓혀 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익힌 것은 미래를 위한 기초지식이었으며, 기본적인 소양을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곳에 색깔을 입히고 빛나게 함으로써 누구와도 겨룰 수 있는 경쟁력으로 키워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련도 있을 것이고 좌절이라는 늪지대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혁명에서부터 시작된 작금의 급변하는 시대변화는 두려움의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라는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란 詩 구절처럼 나는 여러분이 빛나는 젊음과 불굴의 의지로 당당히 이겨낼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굳세게 맞서고 힘차게 헤쳐 나오기 바랍니다.

뚜렷한 목표설정과 이를 반드시 달성하고자 말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결실들을 일구어내고 자랑스런 한모인으로 그 이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은 그런 모습들을 지켜볼 것이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졸업식을 맞아 이런 기대와 당부를 함께 나누면서, 거듭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해주신 학부모님과 내빈, 그리고 대능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는 나날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풍요로움과 정겨움이 넘치는 시간

설맞이 담화문

2005. 2. 9.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

오늘은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 설입니다.

저는 먼저 도민 여러분 모두 편안하신 가운데 풍요로움과 정겨움이 넘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설 명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으며, 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한해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정갈한 마음으로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차례를 올렸으며, 마을의 어른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는 것으로 한해를 열었던 것입니다.

비록 넉넉한 살림살이는 못되었지만,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 먹고 즐기는 것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왔던 것도 이 날이 지닌 우리의 미풍양속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풍속이 올해도 변함없이 지켜지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주위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실업자 등의 어려운 이웃은 물론, 고향을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분 들이 지닌 이러한 아픔을 함께 껴안음으로써 보다 넉넉하고 풍족한 명절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민족의 대 이동이 있는 때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각종 비상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일들은 결코 행정의 힘만으로는 이룩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양보하는 미덕과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일입니다.

이점을 한번 더 생각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오늘 우리 민족의 전통명절인 설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는 가운데 도민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의 첫걸음

충청투데이 기고문

2005. 2. 11

지난해 12월 우리 충남의 서북부지역인 서산·보령시와 홍성·예산·태안·당진군 등 6개 지역 955㎢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과 함께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경사가 있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내포(內浦)라는 의미는 조선후기 지리학자인 청담 이중환선생이 택리지에서 지칭한 가야산일대 10고을, 혹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밝힌 홍주목이 관할하는 20여개 고을을 일컫는다.

예로부터 이곳은 기후가 온난하고 물산이 풍부하며 인심 좋은 지역으로 이름 높았던 곳이다.

불교유적을 비롯한 유교·천주교 유적은 물론, 선인들의 발자취가 묻어나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자 박물관이며, 국난의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 나라를 구한 충효정신과 꼿꼿한 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충남정신의 본향이기도하다.

그런가 하면 호젓한 갯벌과 하얀 백사장, 푸른 파도와 황홀한 낙조가 어우러진 풍광은 관광자원으로도 크게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2000년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대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서해안지역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경부축과 함께 국토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확정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이곳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국비 4,502억원, 지방비 5,258억원, 민자 745억원 등 총 1조 505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국가사업이다.

돌이켜보면 내포문화권 특별지역 지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종래의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존재하였던 '특별지역' 제도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법령개정을 통하여 '특별지역'이라는 제도를 새로이 부활시켜야 했고 부활된 제도가 첫 적용되는 전국최초의 특정지역이다 보니 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등의 여러 산고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 도는 이 지역을 기존의 왕조·귀족문화에서 탈피, 서민문화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공주·부여지역의 '백제문화권'과 더불어 21세기 충남문화의 양대 축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철저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종래의 정신문화창달 및 문화유적 정비사업을 확대·추진하면서 지역에 꽃피웠던 찬란한 문화의 실체를 발굴하고, 이를 정비·복원하여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인접해있는 지정학적인 이점과 서해안이 지닌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시설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소득과

연계시켜 나갈 것이며, 이러한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들을 연결해주는 도로 교통망 확충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나는 우리의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결실을 맺는다면 내포지역은 21세기 역사·문화·관광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건설과 맞물리면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역량이 어떠한 것인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200만 도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한데 결집하여 나가는 일이다.

이를 통해 내포지역 개발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과 함께 충남 전체를 하나의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도민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요구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 우리사회의 당당한 주역

청양대학 제6회 졸업식 치사

2005. 2. 16.

사랑하는 졸업생과 학부모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하신 김학원 국회의원님,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최운용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김시환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는 도립 청양대학의 제6회 졸업식을 맞아 보람과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경축하면서, 오늘 영예스러운 학위를 수여받은 476명의 졸업생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은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을 지역과 국가의 든든한 인재로 길러주신 서재문 학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졸업생 여러분 !

여러분은 지난 2년간 이곳 청양대학에서 미래를 향한 큰 꿈을 키워왔습니다.

밤늦도록 도서관의 불을 밝히고 학문을 연마했으며, 교수님들의 지도와 친구들과의 진한 우정을 바탕으로 인격도야에 정진해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었음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이라는 200만 도민의 열망을 안고 개교한 청양대학의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늠름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것은 우리 청양대학의 자랑스런 전통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에 의하여 이룩된 취업률 100%라는 신화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의 산실이라는 청양대의 빛나는 명예가 여러분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런 졸업생 여러분 !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곳에서 쌓은 이와 같은 실력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펼쳐질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도 당당히 맞서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난 2년간 이러한 현실에 맞설 지혜와 용기를 익혔으며, 지역과 국가의 장래를 선도해갈 늠름한 기상과 의지를 배양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감내하기 힘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는 글로벌 체제 속의 치열한 경쟁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넓은 세계에서 당연히 만나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이 반드시 뚫고 나가야 하는 장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종환 시인은 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흔들리

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라고 하여, 꽃도 시련을 딛고 피어났기에 더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만개하는 그 꽃처럼 시련과 좌절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이겨내길 바랍니다.

이곳 벽천리 교정에서 익힌 창의적 도전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되새기며, 희망찬 미래와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굳건한 용기와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확신을 가져주길 기대합니다.

우리 도민들은 여러분이 펼쳐갈 그 장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모든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제6회 졸업식을 맞아 이런 기대와 다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출발점에 선 전체 졸업생 여러분께 밝고 활기찬 미래가 펼쳐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언제나 우리 청양대학의 발전을 위해 일에 지혜와 성심을 모아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고장 농업발전의 구심체

2004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식 축사

2005. 2. 21.

오늘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2004학년도 최고농업경영자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교육에 힘써주신 이광진 충남대학교총장님과 김태철 농업생명과학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생업으로 인해 바쁜 중에도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교육에 임해주신 수상자와 농업경영인 여러분께 마음 깊은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자리를 함께하신 박성효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님, 김지식 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님, 송영철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송민구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농업경영인 여러분!

21세기 들어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농업분야에서도 개방과 혁신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식량작물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이 자국의 보호장벽에서 벗어나 무역자유화가 날로 활발해지면서 시장개방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DDA/FTA 등 농업협상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농업시장 개방의 흐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이런 추세를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대학들과 위탁교육협약을 맺고 전문기술과 경영기법교육을 통해 농촌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온 것도 그 중 하나의 예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미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시장 개방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준비가 채 마무리되지 못했으며, 농촌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미래 우리농촌을 이끌어나갈 일꾼이 점차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랑스런 농업경영인 여러분!

일찍이 농업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유럽이나 일본도 역시 우리처럼 초창기의 혼란과 갈등을 겪으며 굳은 신념과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여 오늘날의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농업도 지금의 중대한 전환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낸다면 앞서간 선진농업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과 유통 중심으로, 관행농법에서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농업소득 중심에서 농업외소득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농업이 국민들에게 자연, 생태, 환경 등을 제공하는 소중하고도 지속가능한 산업임을 인식시키는 가운데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새로운 지역농업의 비전과 발전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일 또한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맡아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쌓으신 경험과 지난 1년간 습득하신 신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고장 농업·농촌발전의 구심체를 이루며 개혁의 선봉에 당당히 앞장서주시리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후원자로서 여러분을 위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이러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고장 농업·농촌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교육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경영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혁신' 성공요체는 참여와 실천

중도일보 기고문

2005. 2. 21.

세계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흐름 속에서는 과거의 인식과 관행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고와 인식의 틀을 바꾸는 '혁신(革新)'만이 유일한 생존전략이라고 하겠다.

'혁신'은 기존의 것을 고치고, 버리고, 새롭게 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즉 시대 흐름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고치고, 낡은 관행을 떨쳐 버리고 나아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까지 개조함으로써 사회전반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를 되돌아 볼 때 개혁과 혁신이 성공을 거두면 진일보한 문화를 꽃피웠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고려 말 귀족사회의 폐해를 혁파하고, 제도화된 조선 유교사회를 개창한 정도전 등 조선 초기 성리학자들의 개혁과 중화사상에 물든 한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 보급한 세종대왕의 혁신 성공 사례가 있다. 이

시기 조선의 사회 발전상은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었다.

반면에 조선 중종 때 정암 조광조는 도학 정치를 표방하며 신진사림의 등용문인 현량과 설치 등 급진적인 국가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훈구파의 반발에 의해 뜻을 펴보지도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정암의 도학정치가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조정은 쇄신되어 당파싸움이나 70여년 뒤의 임진왜란은 격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키워드가 '변화와 혁신'이다. 이에 따라 정부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의 물결이 일고 있다. 정부는 권위의 틀을 벗고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대응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으며, 기업과 대학도 눈을 세계로 돌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차원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나 혁신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예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사회 곳곳에서 개혁과 혁신에 대하여 만만치 않은 저항이 표출되고 있다. 혹자는 이를 두고 혼돈 상태라고 하지만, 필자는 전환기에 치러야 할 홍역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혁신은 간단히 성취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주민의 욕구와 편의를 살펴 우선순위를 설정한 다음 사회적 낭비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시에 모든 것을 혁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혁신추진 과정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핵심과제부터 실천에 옮기는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 참여 없는 혁신은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혁신과정에서 제1의 충분조건이라고 하겠다. 이

런 바탕위에서 삶의 방식을 개조하는 혁신활동을 담론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열정과 실천 그리고 주민의 공감과 참여가 바로 혁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체라고 하겠다.

자전거 페달 구르기를 멈추면 자전거는 곧 넘어지고 또 그렇다고 무작정 페달만 밟으면 방향을 잃거나 충돌하기 십상이다. 공직자들이 '혁신' 페달을 열심히 밟으며 앞으로 나갈 때, 혁신의 방향을 제대로 찾아 나가는지를 관심 있게 주목하고 이끌어 주는 것은 바로 주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청정 충남의 견인차

제3기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총회 축사

2005. 2. 22.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열어가는 을유년 봄의 문턱에서 제3기 푸른 충남 21 추진협의회 총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제3기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애쓰시고 오늘 행사준비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대표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운용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유상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푸른충남21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1,2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역할들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는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가 지니고 있

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앞서가는 지방의제21 추진실태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도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맑고 푸른 충남 건설과 지역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촉되신 3기 위원님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깊으신 분들로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일에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러분이 펼쳐주실 활동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환경문제의 해결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심과제입니다.

지난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토의정서'는 깨끗한 지구환경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자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벌써부터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성장이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친환경기술은 첨단산업 못지않은 부가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며, 친환경제품 시장도 급성장할 것이라는 예상 등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환경이 정책결정의 최우선 고려목표가 될 것이며, 환경문제의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도 꾀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이후에나 의무감축국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문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지금 당장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푸른충남21 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도민과 사회단체, 기업과 행정이 각자 하여야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주체이며, 오늘 위촉되신 여러 위원님들은 이를 선두에서 이끄는 견인차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 의하여 청정 충남은 이루어 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달성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여러 훌륭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시길 바라면서, 모쪼록 오늘 총회가 이를 위한 힘찬 출발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을 위한 일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시대의 진정한 교육자

신극범 대전대학교총장 이임식 축사

2005. 2. 25.

오늘 존경하는 신극범 대전대학교 총장님의 이임식을 맞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대전대학교 제4대 총장으로 취임하시어 대학의 발전과 인재양성에 헌신하시고, 오늘 영예로운 이임식을 맞으신 총장님께 진심어린 경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성으로 내조해 주신 사모님과 가족, 그리고 친지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 대학교 총장님들과 시도 교육감님, 그리고 내빈여러분과 임용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대전대학가족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자리에 나와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이임하시는 총장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저와의 소중한 인연을 쌓아 오신 분이십니다.

사적으로는 평소 존경하는 학교 선배님이자, 80년대 청와대 근무시절에

는 상사로 모셨고, 대전대 총장님으로 재임하시면서부터는 지역의 어른으로서 교육발전을 위한 고언을 듣는 사이였으니 그 인연의 깊이는 참으로 깊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총장님을 뵐 수 있었고, 그 분이 지니신 삶의 철학과 교육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전 약력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총장님은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산 증인이십니다.

끊임없는 학구열로 학문연마에 힘써 오셨으며 '교육만이 희망이다'라는 준엄한 말씀으로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시고 이를 몸소 실천하시는 진솔한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특히 대전대학교에 재임하시는 동안에는 '21세기 세계속의 명문대학'이라는 기치아래 '비전2020'을 수립하고 시행하심으로써 미래를 향한 굳건한 틀을 마련하셨으며, 한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과 대전권 대학발전협의회 공동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셔서는 어려움에 처한 교육현실을 타파하고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시기도 하셨습니다.

시경에 '아는 것은 쉽지만 행하기는 실로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총장님께서는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활동으로 당신이 지닌 지식과 사상을 우리 교육현실에 접목시키고 또한 이를 스스로 실행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총장님을 이 시대의 진정한 교육자이자 교육학자이며, 교육행정가로서 높이 받들고 맨 윗자리로 모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총장님께서는 지난 시간 이룩하신 이와 같은 모든

업적들을 뒤로하시고, 오늘 영예로운 이임식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임기를 끝으로 현직에서 물러나시겠다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현실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총장님의 높으신 식견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는 참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형식상의 문제일 뿐, 우리 교육과 지역사회를 위한 총장님의 열정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디 이제까지 짊어지셨던 무거운 짐은 훌훌 벗어버리시고, 여유로움 속에서 더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총장님께서 평생을 통해 이룩하신 교육발전에 대한 업적과 이곳 대전대학교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은 오래도록 훌륭한 가르침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임식이 총장님의 값진 삶에 영광을 더하고, 더 큰 보람을 찾아가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 총장님의 건안하심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사회 스승의 본보기

이광진 충남대학교총장 이임식 축사

2005. 2. 28.

오늘 이광진 총장님의 이임을 맞이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4년의 재임기간 동안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사회의 번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총장님께 진심어린 찬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총장님은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동문의 관계이자, 제가 지난 1995년 민선도지사로 취임할 때는 충남대학교병원장으로 계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충실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당시 총장님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의과대학에 몸담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병원을 독립법인으로 만들어 시설확충을 통해 지역민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대병원이 오늘날 중부권 최대의 의료기관으로

자리잡는 기틀을 다지셨습니다.

총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발전도 기대할 수 없으며, 새롭게 발전하지 않으면 결코 21세기 주역으로 나설 수 없다."는 평소의 신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전개해오셨습니다.

먼저 대덕연구단지 중심대학으로서 IT · BT · NT 등 첨단산업분야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에 힘쓴 결과, 얼마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에서 충남대가 기계분야 3위, 생명공학분야 5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충청인의 자존심을 드높이셨습니다.

개교 50주년을 맞아 '비전 2010'을 선포하여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계 24개국 76개 명문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충남대를 아시아 50위권의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국 ·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을 맡아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종합대학교 통합문제를 거론하여 충북대학교와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권발전협의회장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결정 이후 각 계각층의 혼란을 수습하여 충청권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500만 주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데도 앞장서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정형외과학의 권위자로서 아시아견관절학회 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세계견관절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영광을 안으셨습니다.

그동안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가슴과 굳은 의지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총장님은 지역사회 스승의 본보기로 영원히 우리의 가

슴에 남아 길이 간직될 것입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며, 총장님의 앞날에 한없는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남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온 겨레가 하나 되는 혼불

제27회 3·1절 기념 봉화제 축사

2005. 2. 28.

자랑스런 20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 온 겨레가 함께 일어섰던 숭고한 3·1 독립만세 운동 정신을 기리는 제27회 봉화제를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현 병천JC회장님을 비롯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박상돈 국회의원님, 박유철 국가보훈처장님,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86년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지금 우리를 굽어보고 있는 저 매봉산 정상에서 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첫 봉화를 올렸습니다.

그 횃불은 뜨겁게 타올라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온 겨레가 하나 되는 혼불로 승화되었습니다.

이곳 아우내 장터를 힘찬 만세소리와 태극기의 물결로 물들이며, 조국의

독립을 향한 애국애족의 거센 불꽃으로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발로였으며, 민족의 존엄성을 다시 세우고자했던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던 우리 충청인의 기개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선열들이 흘리신 피와 함성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만세의 함성으로 뭉쳐진 겨레의 힘은 해방의 기쁨과 오늘날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날의 함성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펼쳐주시는 재현행사를 통해 선열들이 지니셨던 위대한 조국애와 희생정신을 다시 되새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되살려 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신으로 승화시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충남시대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미 이를 위한 여건은 마련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의 확정은 이를 알리는 서막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손에 다시 피어올린 횃불이 이러한 소망과 의지를 환히 밝히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선열들이 이루고자 했던 민족의 독립과 자존의 3·1정신을 완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세의 함성이 피어올랐던 이곳 아우내 장터에서 우리 선열들처럼 우리 또한 후세에 자랑스런 조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행사가 이를 다짐하는 뜨거운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 횃불

3·1절 조찬기도회 인사말씀

2005. 3. 1.

존경하는 교계지도자 여러분 !

박상돈 국회의원님,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 !

오늘 3·1운동 86주년을 맞아 민족화합을 위하고 천안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조찬기도회가 개최된 것을 하느님의 크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의 모임을 준비해주시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이정호 천안기독교연합회장, 이희평 천안홀리클럽 회장님을 비롯한 목사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우리 지역 천안에 하느님의 복음이 전파 된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생각해보면 기독교의 전파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사상과 서양문물이 들어와 우리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데 커다란 물꼬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근대화된 교육시설과 제도의 상당부분, 그리고 아직 봉건시대의 그늘에 있었던 우리 사회에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소개한 것도 기독교였습니다.

86년 전 조국독립의 횃불을 높이 들고 민족이 하나 되는 대 서사시를 연출하는데 있어서도 기독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이러한 역할이야말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열어가는 있는 이 시대가 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면에서 개선해 나가야 불합리한 요소들을 안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가하면, 우리라는 공동체 전에 나라는 개인이 먼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열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내 이념 내 주장만이 두터운 담을 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래가지고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서서 큰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계지도자 여러분 !

86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종교와 이념, 지역과 계층을 넘어 민족이라는 대의 앞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조국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며,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3·1절 제86주년과 천안선교 100주년을 맞아 함께 한 조찬기도회가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 횃불로 다시 피어나고, 교회의 더 큰 역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아침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숭고한 조국애의 발로

제86회 3·1절 기념행사 기념사

2005. 3. 1.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

오늘 우리는 여든 여섯번째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애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

86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조국의 독립과 자존을 염원하며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2,000만 동포가 하나 되어 외친 대한독립만세 소리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메아리쳤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의지와 기상을 세계만방에 전했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독립을 쟁취해 내자는 것이었으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을 일깨워 萬世에 빛나게 하자는 숭고한 조국애의 발로였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이렇게 모아진 민족적 역량을 바탕으로 줄기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고 마침내는 조국광복이라는 기쁨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기미년 독립운동이 시발점이 되고 수많은 애국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랑스런 200만 도민 여러분 !

저는 오늘 위대한 민족혼이 서린 이곳 독립기념관에서 선열들이 주시는 3·1운동의 준엄한 가르침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선열들은 3·1운동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는 힘이 얼마나 큰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이러한 일들을 해내야 하겠습니다.

굳건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의 주인공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집과 질투가 아닌 이해와 포용으로 화합하고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의미이자 당위성인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성공적 완수라는 역사적 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발과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 충청은 물론, 번영과 발전의 한반도 시대도 앞당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역사적 책무가 우리 충청인으로부

터 시작되어 완수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일찍이 우리 충청인은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하다가도 시대가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나 당당하게 앞에 나섰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이며, 이를 통해 3·1운동의 정신을 완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신념과 의지, 충남인 특유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나가야 할 때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광복 60주년과 3·1운동 86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이를 위한 일에 지혜와 성심을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자랑스럽고 당당한 우리를 있게 해주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예를 올리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편안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겨레 민족혼의 표상

제1회 태극기사랑 한마당 격려사

2005. 3. 1.

오늘 3·1절을 맞아 민족정기와 독립운동의 산실인 독립기념관에서 제1회 태극기사랑 한마당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삼웅 독립기념관장님과 전덕기 대한민국국기선양회장님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주신 독립운동가와 유족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특별초청인사와 참가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태극기사랑 가족 여러분!

한나라의 국기는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국민통합을 통해 국가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표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생성·발전하는 우주의 원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겨레의 정신이 오묘하게 담겨있습니다.

태극기의 백색바탕은 평화를, 태극원형은 통일, 태극음양은 창조성, 그리고 4괘는 무궁한 발전과 광명을 각각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25시'로 유명한 루마니아의 소설가 게오르규는 "한국의 국기는 세계 모든 철학을 요약한 내용이 새겨져 있어 그 어느 나라와도 닮지 않은 유일한 것이다."라고 하여 태극기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같이 자랑스런 태극기는 고종황제의 빛나는 자주정신의 발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882년 박영효 일행이 일본에 사절단으로 갈 때에 청나라에서는 주역의 태극도와 自國의 삼각형 龍旗를 변용하라는 압력을 가했으나, 고종황제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민족 고유의 태극과 4괘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박영효가 이를 그대로 그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게양한 것이 효시입니다.

또한 태극기라는 명칭은 3·1운동에 참가할 국민들의 손에 국기를 들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국기로 불리던 국기를 일본인들이 알지 못하도록 태극기로 바꿔 부르면서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한말에 탄생하여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겨레의 자주독립정신과 민족혼의 표상으로 자리잡은 태극기는 마침내 조국광복을 계기로 삼천리 방방곡곡에 힘차게 펄럭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태극기는 국가의 위기 때마다 우리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구심점이 되었으며,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칠 때마다 벅찬 환희와 감격을 온국민에게 안겨준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의 신화를 창조하여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밑바탕에 우리의 태극기가 늘 함께 해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랑스런 태극기를 대한민국

을 넘어 세계 방방곡곡에 자랑스럽게 휘날릴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의 성전인 독립기념관에서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뭉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처음으로 열린 태극기사랑 한마당대회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화합을 이루고, 국운융성을 위한 새로운 기폭제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크신 발전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애국애족정신의 시금석

한훈 선생 어록비 제막식 축사

2005. 3. 1.

오늘 우리고장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신 한훈 선생의 어록비를 우리민족 자주독립의 성전인 독립기념관에 건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드리면서, 어록비를 건립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형선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훈 선생께서는 우리고장 청양 출신으로 일찍이 17세 때부터 홍주의진에 참여해 항일투쟁을 시작한 이래 풍기광복단을 조직하고, 대한광복회와 광복단결사대에 가담하여 활동하시는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독립운동가이십니다.

광복단결사대를 조직하여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을 비롯해 을사오적과 조선인형사를 처단하는데 앞장서신 점은 불굴의 항쟁의지와 행동하는 정의를 보여준 것으로 우리 충남인의 애국정신과 개척정신의 표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광복단을 조직하시면서 "내 몸이 잘 되고난 후 내 나라가 잘 되기는 어려우므로 내 몸보다는 먼저 내 나라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선생의 말씀은 오늘날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는 우리에게 크나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가운데 남북통일은 물론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해야하는 막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사회통합과 민족번영을 이루기 위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처럼 보다 크고 넓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소홀했던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가운데 나보다는 우리를,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노력하는 충남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한훈 선생의 거룩한 희생과 유지를 받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건립된 선생의 어록비가 후손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훈 선생 어록비 건립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광복회의 무궁한 발전과 애국지사 후손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대한 비전 펼치시길

제3대 청양대학장 취임식 축사

2005. 3. 2.

희망찬 새봄이 시작된 오늘 우리는 앞으로 4년간 도립청양대학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실 학장님을 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3대 청양대학장으로 취임하시는 정휘영 학장님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면서, 200만 도민과 더불어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선흥 도의원님, 김시환 청양군수님, 그리고 박상진 청양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과 대학가족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청양대학 가족 여러분!

도립청양대학이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큰 뜻을 품고 문을 연 지도 어언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청양대학은 학문과 기술을 겸비한 중견산업인력을 배출하며,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청양대학이 이처럼 발전을 거듭해올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향학열로 열심히 땀흘려준 학생들의 힘도 컸지만, 학생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해주신 전임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과 정성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주시고, 청양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일찍이 제3의 물결로 유명한 앨빈 토플러는 "앞으로의 세계는 지식이 모든 생산 수단을 지배하게 되며, 이에 대비한 후세의 교육이 없이는 어느 나라든 생존하기 어렵다."고 하여 21세기 지식산업사회를 맞아 교육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취임하시는 정휘영 학장님이야말로 교육이 가지는 이와 같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러한 중대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끄실 적임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학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감사원에 몸담으시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이룩한 많은 연구실적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료로서의 인품과 경륜, 학자로서의 소양과 지식, 거기에 탁월한 비전과 리더십을 고루 갖추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를 비롯한 200만 도민들은 신임 학장님께서 청양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청양대학 구성원 모두는 학장님께서 갖고 계신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청양대학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든든히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열린 취임식이 우리의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앞으로 청양대학이 힘찬 웅비의 나래를 펼쳐 나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학장님의 뜻깊은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청양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람찬 대학생활을 위한 출발점

청양대학 2005학년도 입학식 축사

2005. 3. 2.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과 청양대학 가족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열어갈 3월을 맞아 청양대학 2005학년도 입학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드높은 이상과 푸른 꿈을 안고 청양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의 기쁨이 있기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신 가족과 친지 여러분께 마음 깊은 축하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입학식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휘영 학장님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시환 청양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신입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은 이 곳에서 펼쳐질 대학생활을 그려보며, 벅찬 감격과 부푼 꿈으로 가득차 힘차게 고동치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은 이전과는 다른 기대와 희망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정휘영 학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어 남다른 열정과 의지로 청양대학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기대와 함께 우리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맞아 앞으로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눈물겨운 노력과 땀을 통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제 그토록 바라던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 대학생활의 낭만과 여유를 찾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단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한 과정을 이제 막 통과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의 타율적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출발해야 하는 여정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날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도 경쟁력을 갖춰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분 개개인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선배들이 이루어 낸 자랑스런 전통을 바탕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일구어 낼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굳건한 두 발로 현실이라는 땅을 튼튼히 딛고, 두 눈은 멀리 희망찬 미

래를 내다보며, 가슴 속에는 불굴의 의지와 패기로 여러분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00만 도민들은 늘 여러분의 곁에서 당겨 주고, 밀어 주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거듭 여러분의 뜻깊은 입학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입학식이 보람찬 대학생활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청양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께 늘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 추억과 낭만

가수 윤형주 노래비 제막식 축사

2005. 3. 4.

새봄을 알리는 해풍이 넘실대는 이곳 대천해수욕장에서 최고의 통키타 가수인 윤형주씨의 '조개껍질 묶어'노래비 제막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노래비 제막식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시우 보령시장님과 가수 윤형주 씨에게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류근찬 국회의원님, 이준우, 오찬규 도의원님, 임대식 보령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노래비 제막식을 축하하고 기념음악회를 위해 우리 지역을 방문해주신 송창식, 김세환, 최백호, 김도향, 유심초, 신형원, 유익종씨 등 가수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은 연간 1천만명 이상의 피서객과 관광객이 찾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휴양지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점점이 떠있는 섬들, 그리고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조개껍질이 부서져 만들어진 백사장은 이곳을 거니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행사도 오래전 이곳의 자연환경에 감흥을 받은 한 가수의 아름다운 추억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포크송의 선두주자로 활동해온 가수 윤형주]씨가 지난 70년 8월에 놀러와 해변에 흩어진 조개껍질을 주우며 작사·작곡한 노래 '라라라'가 바로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래비의 주제어이기도 한 '조개껍질 묶어'로 시작되는 노래 말은 경쾌한 음률과 함께 우리 대천해수욕장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해 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소중한 의미와 많은 이야기 거리를 담고 있는 노래비를 이곳에 세움으로써 또 하나의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비를 통해 대천해수욕장이 지닌 아름다운 이야기를 떠올리고 또 새롭게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새로운 이야기는 더욱 아름다운 노래 말이 되고 음률이 되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를 계기로 우리의 자랑인 대천해수욕장이 더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고 기억되는 관광지로 거듭 나길 기대하면서, 우리 도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곳이 언제나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노래비 제막을 축하하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추억을 한 아름씩 안고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공간

백제군사박물관 개관식 축사

2005. 3. 7.

오늘 새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될 백제군사박물관 개관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오늘 이처럼 웅장한 박물관이 들어서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성규 논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이인제 국회의원님, 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님, 허평환 논산 육군훈련소장님, 박태진 · 송영철 도의원님, 김영운 논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

저는 오늘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박물관의 중후한 자태를 본다는 기대감도 즐거운 것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의 자부심을 가질 만한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박물관중에서 군사문

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독특한 박물관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자치단체는 물론, 세계 유수의 도시에서도 이를 갖추고 있지 못한 데서 이는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박물관을 가질 수 있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이곳 논산이 그 옛날 전장으로서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자 우리나라의 삼군본부가 들어선 전형적인 군사도시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옛날 찬란한 꽃을 피웠던 백제왕국의 문화적 우수성과 역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군사문화 하나만을 가지고도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여야 할 만큼 사료적 가치로나 양적으로 충분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1·2전시관에 마련되어 있는 백제군사 관련 유물과 모형 등은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백제군사박물관의 개관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이를 널리 선양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곳 논산의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되고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확인하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차별성을 지닌 문화적 공간의 확보를 통해 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그 깊이를 더하고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를 위한 일에 지혜를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백제문화의 연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박물관 개관을 맞아 여러분과 이러한 기대를 함께 나누면서 모쪼록 이곳이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는 전쟁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국가관 확립과 호국정신의 교육장으로 활용되길 바라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개관이 있기까지 많은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하의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편안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주의 승리의 도화선

3·8민주의거 45주년 기념식 축사

2005. 3. 8.

오늘은 우리 고장에서 자유와 민주의 함성이 힘차게 메아리쳤던 3·8민주의거 4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먼저 이를 여러분과 함께 경축하면서,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정의, 최우영 3·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공동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송윤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의거에 대한 가치의 재조명과 평가, 그리고 체계적 정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의거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가치에 비해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의거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이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의거의 참뜻을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시고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그 뜻을 기리는 숭고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이를 널리 선양하기 위해 애쓰시는 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불의를 보고 일어선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억압과 폭정의 현실적 여건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것도 아직 사상이나 철학이 제대로 여물지 못한 어린 학생들의 경우라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젊은 학생들은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 민족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역사적 사명감이라는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이 의거가 4·19혁명의 단초가 되고 마침내는 민주주의 승리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지럽고 혼탁한 사회를 바로잡아 보자는 순결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가 되었던 당시 젊은 학생들의 기개와 정의감에 절로 고개가 숙여짐을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며, 올바르게 평가되고 후세에 계승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한 자리에 모여 그 의미를 새겨보는 이유도 바로 여

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3·8민주의거 4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이 의거가 올바로 이해되고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남 환경의 지킴이

한국환경운동 충청남도지역본부 발대식 축사

2005. 3. 10.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봄이 오는 길목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조직활동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환경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환경운동 충청남도지역본부 발대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오늘의 출범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종득 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임성규 논산시장님, 여남현 논산시교육장님, 박용세 한국환경운동본부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제기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그치지 않고 연이어 환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 만큼 심각함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늘어나는 교통량과 건물의 냉난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고통을 받고 있고, 농어촌은 농어촌대로 축산폐수와 생활 오·폐수 문제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왔습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쾌적한 푸른 충남 구현'이라는 목표아래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한 수질환경의 보전과 조성을 위해 많은 시책들을 계발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좀 더 크게는 지난 1992년 리우선언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교토의정서에 이르는 예에서 보듯이 환경문제에 관한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이 함께 대처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환경은 개선의 여지보다는 더 악화 쪽에 무게중심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달과 인간이 지닌 편안함의 추구라는 속성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개선의 어려움보다는 쉬운 쪽의 유혹에 넘어갈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잘 유지하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커다란 재앙을 불러 올 수 있고 이것이 다시 복구되는 데는 오랜 세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우려는 현실감을 더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본 단체가 출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흔히 동성이속(同性異俗)이라 하여 사람의 성질은 태어날 때는 같으나

자라면서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환경보전에 대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이후의 그 어떤 교육과 조치보다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출범하는 한국환경운동본부 충남지부가 당초의 이러한 목표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충남환경의 지킴이로 나서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단체를 이끄시는 분들이 기업가와 교육자 출신 등 우리 지역의 존경받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라는 점에서 그 기대는 더욱 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을 계기로 저희 자치도정과 함께 손잡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일에 힘을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여러분의 큰 활동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범이 있기까지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로효친정신 재점화의 원동력

서천군노인종합복지타운 기공식 치사

2005. 3. 10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구심체가 될 노인종합복지타운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기공식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나소열 서천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영조 · 전영환 도의원님, 오세국 서천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정도훈 농업기반공사 이사님을 비롯한 내빈과 서천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일찍이 孔子는 "나도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말씀으로 우리나라를 동방에 있는 예의바른 군자의 나라로 일컬으며 칭송했다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로효친을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 여기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왔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

들은 젊은이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미풍양속으로 여기며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최근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전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가정의 붕괴로 우리의 경로효친정신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존경과 위로는커녕, 가정과 사회에서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 채 질병과 외로움 속에 고생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노인공경에 대한 위기의 모습이라면, 최근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사회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67%에 이르러 젊은층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하게 됨으로써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는 이러한 우리의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문제를 한 가정의 문제로 방치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오늘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노인종합복지타운 기공식을 갖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 전반에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인복지가 완벽한 북유럽국가의 양로원에서도 노인들이

가끔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남긴 유서에는 "오늘도 내게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의 관심과 사랑은 물질적 지원보다 더 절실하고도 소중한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기공식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정신이 새롭게 점화되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운동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거듭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서천군의 무궁한 발전과 어르신 여러분의 강녕과 평안하심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이웃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기총회 치사

2005. 3. 11.

오늘 희망으로 열어가는 새봄의 문턱에서 충남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제9차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상덕 운영협의회장님과 각 시·군 운영협의회장님들께 심심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오영희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매년 한번씩 오늘과 같은 정기총회를 통해서나 뵐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향 분들을 만난거와 같은 친근함과 편안함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고 계신 보건진료소에서의 역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는 우리 자치도정의 기본철학인 인본복지행정

을 실천하는 최일선의 현장이자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이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농어촌은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보호자 없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할 것입니다.

이는 도회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 그리고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못한 시설과 낙후된 장비로 인해 다소 불만족스러운 면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진료소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방문보건사업 등을 통해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주체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보건진료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해드리지 못한데 대한 송구한 마음과 함께, 저는 이점에 대하여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이 반가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도에서는 보건진료소가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향후 10년 계획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란 약속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운영협의회 회장님들께서도 지금까지 해주신 것 이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정기 총회가 이러한 다짐과 기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분권과 통합을 통한 조화와 균형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토론회 축사

2005. 3. 11.

새로운 희망으로 열어갈 3월을 맞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성호 · 조연상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님과 정운영 충남발전협의회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김민남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님, 그리고 이상선 · 김학민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공동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일,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꿰게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바라던 규모에서 상당히 축소되어 결코 만족스런 결과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서막을 열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00만 충청권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서주신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지방분권국민운동 가족 여러분!

21세기 들어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분권과 통합의 원리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국가를 이룩해야 합니다.

지방이 스스로의 역량과 특성을 살려나가는 분권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중앙은 이를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자립화전략을 마련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야할 지방화의 길은 또 멀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결코 멈추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는 물론 지역에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와 역량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참여정부의 분권·균형발전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활동을 되짚어보면서 이 땅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전방향의 모색과 함께 현안으로 대두된 행정도시특별법의 후속대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방분권국민운동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일

충청투데이 기고문
2005. 3. 11.

지난 3월 7일 논산시 방문을 끝으로 50여일간 계속된 시·군 순방 일정을 모두 마쳤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 없이 순방을 마칠 수 있도록 애써준 관계 공무원들과 시장·군수님들을 비롯한 현장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생각해보면 벌써 10년이 넘게 매년 시·군 순방을 해왔지만 유독 올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것은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이라는 큰 충격 속에서 실시되었다는 점과 예년의 틀을 과감히 벗고 현장에서 직접 도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을유년 새해 첫 날을 계룡산 천황봉에서 맞으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기원했다.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커다란 충격으로 어렵고도 힘든 상황에 처한 200만 도민들에게 저 찬란한 태양처럼 내가 먼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첫 방문지를 연기군으로 정했던 것도 나름대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돌이켜 보건데 당시 우리 충청인은 물론 연기군민들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의 중단이라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

곳곳에서 항의집회가 계속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에 분통을 터뜨리며, 도지사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는 호된 질책도 받아야 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필자는 이 분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고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만 같은 자괴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다행히 우리 충청인의 열망이 한데 모아져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첫 단추를 꿸 수 있었지만, 그동안 겪어야 했던 우리의 분노와 허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단되었던 신행정수도건설이 재추진의 불을 밝힌 것이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난 8일 나는 내가 그동안 속해있던 정당을 떠났다. 그 자리에서 밝힌 나의 자민련을 떠나는 변은 분명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이것을 제대로 완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유로운 위치에 서는 것이 필요하며,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은 필자의 솔직하고도 분명한 소신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이번 지역 순방을 통해 느끼고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이번 순방 기간 중 삶의 애환이 그대로

묻어나는 현장에서 만난 분들을 지금도 기억한다.

지난해 폭설로 공장건물이 붕괴된 것을 다시 복구하여 생산을 재개한 중소시업사장님과 직원들, 경기침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대를 허리에 찬 채 활기 있게 장사를 하는 재래시장 상인들, 농업개방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최초로 톱밥표고재배기술을 특허출원하여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임업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성부지 일부를 선뜻 무상으로 제공한 고마운 분들, 바로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충청인의 표상이자, 앞으로 우리의 충청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 라고 생각한다.

이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난 우리의 눈앞에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열어갈 밝은 길이 펼쳐져 있다. 앞으로 이 길을 걷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뒤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그리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이라는 목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를 위한 일에 우리 200만 도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재도약을 향한 새로운 전기

충남대학교총장 취임식 축사

2005. 3. 17.

존경하는 양현수 총장님 !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과 충남대학교 가족 여러분 !

오늘 충남대학교의 재도약을 이끌어 가실 양현수 제15대 총장님의 취임식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만 충남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충남대학교는 개교 이래 우리 중부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 국립대학으로서 굳건한 위상을 구축해왔습니다.

학문의 전당으로서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많은 연구실적을 남겼으며, 인재양성의 산실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반세기를 넘게 이어오면서 쌓아올린 이러한 성과는 우리 지역민의 자랑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는 것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충남대학교가 이러한 명성과 전통에 걸맞은 덕망 높으신 양현

수 총장님을 모심으로써 재도약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비전 CNU'를 통해 충남대학교의 청사진을 밝히신바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충남대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세계 속의 대학을 건설해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총장님의 이러한 포부가 하나하나 구체화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특히 지금 충남대학교는 대덕R&D특구 지정, 충북대학교와의 통합, 지능형 모바일캠퍼스 구축 등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명문 충남대학교의 굳건한 위상은 앞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장님의 취임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고, 충남대학교 구성원의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총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훌륭한 결실을 일구어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취임사를 통해 밝히신 총장님의 비전과 의지는 그러한 믿음에 굳은 신뢰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총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충남대학교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메카로서 그 역할을 다해나감은 물론, 세계 속의 대학으로 우뚝 서게 되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양현석 총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충남대학교

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뢰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축사

2005. 3. 17.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이 샘솟는 3월을 맞아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재복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의장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님, 양승조 국회의원님, 정종학 도의원님, 이기봉 연기군수님, 권녕학 천안부시장님, 그리고 나장백 대전지방노동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국노총 대의원 여러분!

올해 1월에 산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력산업에서 세계 5위권, 연구개발수준에서 세계 7위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GDP규모로 세계 10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하루 평균 수출실적이 10억 8천말달러로 사상 최대

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국내적으로는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와 대외적으로는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의 악조건 속에서 달성한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더욱 값진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자랑스런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발전의 역군이라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구슬땀을 흘려주신 근로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마음 깊은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런 노동 가족 여러분!

최근 국내경기는 침체의 바닥을 벗어나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정부는 물론, 국내외 경제기관에서도 4%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표된 경기기대지수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와 현황들은 이러한 예측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처럼 만에 당겨진 경기회복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경제양극화를 해소시켜 나가는 가운데 각 경제주체들이 함께 성장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립과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임금단체협상이 시작되면서 노사간 시각차이가 크기 때

문에 갈등과 대립이 재현되리라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중소업체 및 여성 근로자 등의 문제로 인해 순탄치 못한 노사관계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서 보여준 의지와 노력을 잘 알고 있기에 이같은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지금까지 이룩해온 이와 같은 자랑스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노사간에 서로 신뢰와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동반성장을 이루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대의원 대회가 우리의 이러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대의원 여러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국노총의 무궁한 발전과 대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농업인의 밝은 미래를 위한 출발

한국여성농업인 충남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축사

2005. 3. 18.

오늘 한국여성농업인 충남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을 맞아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농업의 발전과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희망과 의욕을 갖고 취임하시는 정숙향 신임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도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박인주 전임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오영희 공주시장님, 허기옥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장님, 김지식 도 연합회장님, 이병열 도 여성단체협의회장님, 그리고 유상호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여성농업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는 전체 농업인구에서 여성농업인이 차

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장년의 이농현상과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을 여성농업인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영농형태가 벼농사 위주에서 과수·채소·화훼 등 원예작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를 높이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농림부에서 발표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은 전체 여성취업자에 비해 농번기에는 거의 두 배나 되는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우리 농촌과 농업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차지하는 이러한 위치와는 달리 그에 상응하는 지위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 2001년 '여성농업인육성법' 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한데 모아질 때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여러분 스스로도 단순한 영농보조자가 아닌 전문여성농업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당당히 설 때 이는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새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바로 여기에 있

습니다.

정숙향 신임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이 지니고 계신 농촌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농업은 21세기 지식산업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도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와 홈쇼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웰빙시대를 맞아 친환경농업과 건강식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농어촌 체험관광이 새로운 농어촌의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남성보다 감성이 풍부하고 섬세함을 갖춘 여성에게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역할은 점차 증대될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산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참다운 용기는 현실을 위기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개방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아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가까이에 있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간다면 반드시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여성농업인 도연합회의 임원 이·취임식을 맞아 이런 기대와 다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자리가 충남여성농업인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한국여성농업인 충남도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사랑

2005 행정동우회 정기총회 축사

2005. 3. 24.

존경하는 선배님 여러분!

활력이 넘치는 새봄을 맞아 오늘 정기총회에서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록 몸은 도정을 떠나셨지만 마음만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변함없이 충남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김건배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충청남도 행정동우회가 탄생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퇴직 당시에는 장년의 신사였던 선배님들이 어느덧 반백의 어르신들이 되신 모습을 보고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세월을 그저 덧없이 흘려보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아 보자는 한마음으로 뭉쳐 산업화를 통한 초고속 경제성장의 신화를 일구어냈습니다.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마침내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화를 이룩하였습니다.

민선 초기에 약화된 도세를 회복하고 2001 전국체전 종합우승,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자신감과 용기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곳곳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위대한 충남시대를 이루는 밑불이 되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를 토대로 수출 293억불을 돌파하며 개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흑자 면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올해에도 지속되어 우리도가 수출 순위 4위를 달성하는 가운데 수출 300억불대를 향한 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민의 오랜 여망인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 확정되었고, 장항·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개발 등 주요현안사업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이 활력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되어 그동안 중단되었던 행정수도 건설이 다시 재개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누리는 찬란한 영광들은 모두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묵묵히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선배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선배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어린 찬사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런 선배님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밝고 환한 길이 펼쳐 있습니다만, 때로는 뜻하지 않은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쳐 주저앉거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앞에서 희망의 등불을 들고 손짓을 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며 저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가까이 다가와 등을 두드려 줄 때 다시 일어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후배들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듭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 행정동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선배님 여러분의 강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청가족 화합과 동료애 증진의 구심점

직장협의회 정기총회 축사

2005. 3. 24.

오늘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열어가는 새봄을 맞아 제5차 직장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건전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오늘 행사준비에도 많은 애를 쓴 양승록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6급 이하 직원들로부터 최고공무원으로 선정된 임헌용 문화관광국장, 정동기 전 복지환경국장, 권오인·이정훈 계장,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받은 공보관실 구재철 주임, 과학산업과 신인숙 주임, 의회사무처 이광숙 주임, 보건위생과 손순희 차장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직장협의회는 지난 2000년 5월, 직장협의회가 창립된 이래 '바르고 활기찬 직장을 생각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이후 우리 충청인이 실의에 빠져 있

을 때에는 전국 시·도직협회장단회의를 유치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고,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범국민연대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오늘의 성과를 일구어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집회가 있을 때에도 슬기롭고 현명한 대처를 통해 강한 신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펼쳐주신 여러분의 이와 같은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동료여러분!

나는 우리 도청직장협의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해 주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내년부터는 공무원노동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이제 공무원도 법 테두리에서 자유로이 노동활동을 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혜안과 균형감각을 갖고 正道를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의 노동운동이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민주화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나라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이외의 그룹들에 의한 직·간접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건전한 공무원 노동운동이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공무원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점은 창조적인 직장문화를 꽃

피우는 것이며, 모든 국민들에게 대한 한없는 봉사와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실천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직장협의회가 우리 도청가족들의 화합과 동료애 증진에 구심점이 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는 물론, 도내 각자치단체가 건전하고 바람직스럽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아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 역시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직장협의회 활동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제5차 정기총회가 이러한 기대와 다짐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힘찬 전진을 기약하는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도청직장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과 봉사의 전도사

충남간호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치사

2005. 3. 25.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활기찬 새봄과 함께 열린 대한간호협회 충남간호사회 제4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혜선 회장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남다른 헌신과 봉사를 통해 우리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한창옥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충남간호사회 대의원 여러분!

충남간호사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활동해온 지도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고지순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직도 남성중심의 전통이 남아있는 가정과 사회에서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을 오가며 가정주부로서, 그리고 백의의 천사로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인류애라는 고귀한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오신 것입니다.

저는 만일 도민들로부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받아야 할 직업인이 있다면 사랑의 전도사로서 누구보다도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이웃의 고통을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주시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충남간호가족 여러분!

그동안 건강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었습니다만, 최근 웰빙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빈부격차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료문제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의료혜택이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농어촌이나 산간지역은 제 때에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연차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갈수록 늘어만 가는 국민의 건강수요를 공공영역에서 전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전문직능단체로서 충남간호사회의 새

로운 역할과 활동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일선현장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여러분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에 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 큰 사랑과 정성으로 주민들을 보살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가운데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다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남간호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웃과 사회를 위한 큰사랑의 실천

제4회 유관순상 시상식 식사

2005. 3. 31.

오늘 우리민족 자주독립의 꽃 넋인 유관순 열사를 기리고, 그 분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제4회 유관순상 시상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랑스런 영예의 유관순상을 수상하신 이효재 경신사회복지연구소 소장님과 유관순 횃불상을 수상한 정소희 · 신희연 · 홍미숙 · 황수지 · 김수현 학생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상식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창용 이화여자고등학교장님과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님을 비롯한 유관순상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진표 부총리님, 장하진 여성부장관님, 그리고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족대표와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사랑하는 이화여고 학생 여러분!

오늘 상을 받으신 이효재 소장님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권익 향상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오신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산증인이십니다.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하셨으며,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한국여성사회교육원 등을 창립하여 후학양성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맥을 잇게 하셨습니다.

1990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를 창립하여 정신대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하게 하는 등 일제의 만행을 전세계에 고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야말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여성의 능력계발과 민족정신을 드높인 것으로서, 겨레와 민족을 위해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의 빛나는 민족혼을 되살리는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나라 여성의 권익신장과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한평생을 다 바쳐 오신 이효재 소장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유관순 횃불상을 받은 다섯 명의 학생들도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만 합니다.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중풍·치매노인 등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참다운 이웃사랑을 실천함은 물론, 인류애를 구현하기 위한 해외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바쁜 학교생활 중에도 어린 동생들을 위해 공부방을 운영하고, 학습도우미로 나서는 등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참사랑의 실천은 우리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일찍이 유관순 열사께서는 "내 손과 다리가 부러진 고통은 참을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다."하시며,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다."라는 말을 남기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장렬히 순국하셨습니다.

차디찬 지하감옥 속에서 마지막 눈을 감으시면서 까지도 오로지 민족의 자주독립만을 간절히 염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유관순 열사의 거룩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86년전 삼천리 방방곡곡을 밝혔던 조국애의 횃불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열사께서 그토록 이루시고자 했던 나라의 독립과 겨레의 번영을 이루는 일이며,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상식은 매우 의미있는 자리이며, 열사의 고귀한 얼을 오늘에 되살려 나보다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큰 사랑을 펼쳐 오신 수상자 여러분의 업적은 참으로 자랑스럽고도 빛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시상식이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인식함은 물론,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혼을 승화시켜 국론통합을 이루는 가운데 당당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새롭게 드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다가오는 4월을 힘차게 열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족자주성 회복의 계기

고구려대탐험전 개막식 축사

2005. 4. 1.

오늘 광복 60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남북공동협력사업의 하나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고구려 대탐험전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원식 중도일보사장님,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님, 그리고 이헌규 국립중앙과학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염홍철 대전시장님과 유홍준 문화재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일찍이 고구려는 선비, 흉노, 거란, 돌궐, 말갈 등 중국인도 제압하지 못한 북방민족을 복속시키면서, 서쪽으로는 중국의 황하, 북으로는 몽골과 시베리아 남쪽, 남으로는 아산만과 단양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동북아시아의 패권국가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중국 및 북한과의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현

지 유적에 대한 학술탐사와 역사적 고증 등을 통해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여기에 복원·전시된 덕흥리 고분벽화의 주인공인 유주자사 '진'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의 북경市長이므로 당시 북경과 하북성 일대를 고구려가 지배했던 지역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웅혼한 기상으로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고구려의 역사를 잊고 지내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거리상의 문제와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고구려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역사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고구려사에 대해 등한시 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이른 바 '동북공정'이란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만주와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향후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통일한국의 영향력을 미리 차단시키려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남북공동으로 고구려 대탐험전을 개최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남북이 하나로 뭉쳐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왜곡된 고구려의 역사를 바로 잡아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먼 옛날 말발굽을 달리며 중원대륙을 호령하

던 고구려의 드높은 기상과 불굴의 기백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전시회가 우리의 이러한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고구려의 역사를 바로 알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께 4월의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1세기 과학기술 한국을 꿈꾸며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비전 명사칼럼

2005. 4. 1.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래 과학기술은 인류문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는 편리한 생활과 생산의 증대는 물론, 세계 문명의 흐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온 것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기술은 한 나라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우수한 인력양성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강국이라고 자부할 만큼 탁월한 장인정신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과학기술을 창조해왔다.

동양최고의 첨성대, 첨단건축기술의 걸작품 석굴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세계인의 찬탄을 자아내는 고려청자, 천년의 세월을 견디는 한지, 가장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 한글, 세계 제1의 발효식품 김치, 가장 효율적

인 에너지절약형 주택인 온돌과 초가집 등은 바로 우리나라의 발달된 과학기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저력과 타고난 근면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작년에 GDP규모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같은 성과는 그동안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입국을 표방하며, 기술향상과 인재양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라고 할 것이다.

특히, 10여 년 전부터 정부는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확산시키는 등 디지털시대를 맞아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써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CDMA기술과 MP3플레이어를 개발하고, D램 매출 1위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디지털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브라운관, LCD, PDP, OLED 등 디스플레이 4개 부문에서 세계 1위에 올라 세계 최초로 '디스플레이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 IT의 성장세를 두고 얼마 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은 우리나라의 디지털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고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경쟁국은 물론, 브릭스(BRICs)를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에게 추월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고,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덧붙여 나는 21세기에 걸맞는 선진과학기술 건설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두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전세계 LCD관련 생산품의 44%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 중 80% 정도가 아산만권을 중심으로 한 천안·아산·평택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충남은 매년 수출이 30%~40%씩 신장되어 지난해에 293억불을 달성했고, 무역흑자도 138억불에 이르러 우리나라 전체의 47.1%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 지역을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인근의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메카트로닉스산업 등과 연계하여 첨단과학기술 집적단지로 집중 육성시킴으로써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이 지역 인근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여건이지만, 대덕연구단지 자체만으로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시험 및 생산, 판매에 이르는 선순환구조를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덕연구단지 배후지역에 과학기술집적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덕R&D특구, 오송단지, 그리고 행정도시권을 연계한 초광역 과학기술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신기술의 발전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해나갈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과학선진국들은 일찍이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을 전공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과는 별도로 초중

고교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기초과학원리를 가르치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과학적인 사고와 지식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습득함으로써 이들이 대학과 기업에 진출하여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폭넓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배우는 내용도 이론 중심이며, 설사 실시한다하여도 1회성이거나 영재교육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육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산물을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15세기 당시 정밀함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혼천의, 앙부일귀, 간의 등의 천문관측기기를 만든 이면에는 세종대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그 뜻을 따라 연구에 몰두한 이천, 장영실, 이순지 등의 학자와 기술자가 있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인정된 가장 견고한 성인 수원화성의 축조에는 정조대왕의 의지와 정약용의 거중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복제실험에 성공하여 '바이오 코리아'의 붐을 일으킨 황우석 교수, 불모지인 인공위성 제작에 뛰어든 우리별 연구팀, 한국형 휴먼 로봇 개발에 성공한 연구팀들은 하나같이 사회적 무관심과 열악한 지원여건을 신념과 열정으로 극복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신기원을 개척한 선구자들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은 물론, 이 분들의 뒤를 잇는 제2, 제3의 연구팀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얼마 전 영국 얼스터대학과 핀란드 헬싱키대학에서 공동으로 세계 185개국 국민의 평균 지능지수(IQ)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홍콩의 107에 이어 106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홍콩이 중국의 영토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사실상 세계 최고의 지능지수를 가진 민족이다. 또한 우리민족은 한동안 세계기능올림픽을 장기간 석권할 만큼 손기술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 최고의 머리와 손기술,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근면을 바탕으로 이제 물리·화학 등의 기초과학에서부터 생명공학, 나노, 신소재, 대체에너지, 지구·해양·천문과학에 이르는 미래과학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자랑스러운 과학기술인재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투자와 지원, 사회의 관심과 협조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 몸담고자 하는 젊은 과학도의 도전과 용기가 더욱 절실한 때이다. 미래를 설계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과학기술의 세계에서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길 기대한다.

#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요람

강경중앙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 축사

2005. 4. 3.

새로운 희망이 용솟음치는 4월을 맞아 강경중앙초등학교 개교10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꿈많던 어린 시절에 이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고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우식 기념사업회장님과 동문 여러분, 그리고 이강희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이인제 국회의원님, 오제직 도 교육감님, 임성규 논산시장님, 그리고 강부자 동문대표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경중앙초등학교 가족 여러분!

일찍이 강경은 예학의 본고장이요 곡창지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는 전국 3대 시장 중의 하나로서 서해 해산물의 집산지로 매우 번성

했던 곳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우편취급소가 설치되고, 전기가 최초로

들어오는 등 근대화 초기에 우리나라 발전을 선도해왔습니다만,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강경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 명성을 되살리고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어 밝은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강경중앙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어 오늘의 개교 100주년 기념식의 기쁨과 감동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역사의 굴곡이 심했던 곳에서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가 100년 동안 존속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중앙초등학교는 지난 1905년 보명학교로 이 곳에 처음 개교한 이래 그동안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함으로써,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일제치하의 고통과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을 향한 지역주민의 굳은 의지와 애정으로 꿋꿋하게 일어나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해 온 것입니다.

자랑스런 강경중앙초등학교 가족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교육은 과거의 가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조에 있다."고 하여 미래를 대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산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자랑스러

운 나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는 우수한 인재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굳은 의지와 용기를 심어주어 밝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저는 강경중앙초등학교가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서는 가운데 앞으로도 지역민의 성원과 사랑 속에 더욱 성장하여 참다운 지역사회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새롭게 다지면서, 강경중앙초등학교가 그동안의 빛나는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선도하는 요람으로 거듭 발전해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강경중앙초등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졸업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이 솟구칠 터전을 만드는 일

2005 사랑의 집짓기사업 기공식 축사

2005. 4. 5.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움트는 새봄을 맞아 '2005 희망의 마을 기공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시고 오늘 기공식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순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 천안·아산지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근모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 이사장님, 박상돈·양승조 국회의원님,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 청명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청명일을 맞으면 논농사의 준비작업인 가래질로 한해의 농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시작에는 부푼 희망이 따르기 마련이듯이 우리 조상들은 가래질을 하면서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식목일이기도 합니다.

산에 묘목을 심으며, 그것이 아름드리 나목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소망은 물론,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희망도 함께 심는 날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날을 맞아 오늘 우리가 행하는 기공식 또한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이름과 마을의 이름에서 보듯이 사랑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희망의 집을 짓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 사업은 숭고한 인류애에 바탕을 둔 사랑의 실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표시나지 않는 작은 정성과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이 한데 모아져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힘찬 삽질은 행복의 샘터를 찾는 일이며, 희망이 솟구칠 터전을 고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비록 소박하지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며, 이웃간의 사랑이 피어나는 터전을 가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맹자께서도 '거처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수양은 몸을 변화시킨다.'고 하여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저는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주위에 행복한 가정이 늘어갈 때, 건강한 사회 또한 이룩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104세대의 화합의 마을과 지난해 16세대의 희망의 마을 건축을 통하여 이를 실천해왔습니다.

저는 올해 건축될 16세대 역시 이러한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 속에서 희망을 키우는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 태어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한 일에 우리 모두의 정성과 지혜를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변함없는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희망과 감동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언제나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봄에 피우는 상생의 꽃

충청투데이 기고문

2005. 4. 6.

쌀쌀함 대신에 한층 가벼워진 바람이 아침 창을 두드리고 있다.

봄이 온 것이다.

"봄이 올 때면 젊음이 다시 오는 것 같다"고 찬미한 어느 시인의 마음처럼 해마다 봄이면 설렘으로 기다려지는 무엇이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러한 설렘이 조금은 무색하게 봄이 왔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과 교과서 왜곡이 봄날의 황사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다. 올해가 광복 60년을 맞는 해인데 일본의 이 같은 행동은 여전한 듯하다.

일본과의 분쟁 확산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문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자존심을 치유하고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해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여 비교우위에 선다면,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면 결코 망언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

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일본 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잃어버린 10년' 동안 추월할 수 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우리는 '1만 달러 함정'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 어쩌면 발전 잠재력을 잃고 낙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정말 일본을 넘어서 초일류 국가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은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나라와 함께 지구상에 둘밖에 남지 않은 분단국가,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아일랜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45년부터의 감자 대흉년은 굶주림을 면하려는 아일랜드 국민들을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정은 1921년 독립한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한 '슬픈 아일랜드'가 2만 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독립된 지 80년 만에 영국을 앞지르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1987년 '사회연대협약'이란 대타협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과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는 클릭 한 번만으로 빛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어제의 적과도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자기이익 챙기기는 점점 도를 더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조그만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미래에 돌아올 파이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압축성장 과정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발전보다 배타와 불신을 키워왔다.

지나가는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크기가 고정된 쇠 침대에 올려놓고 키가 큰 사람은 자르고 작은 사람은 늘려서 죽였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

대'같은 독선의 잣대가 어느 순간 여유와 관용 대신 독버섯처럼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함께하면 반드시 불신과 상실의 아픔이 초래하고 있는 고비용 구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믿는다.

'잘 살아보자'며 함께 손잡고 만들어낸 한강의 기적과 '대한민국' 함성과 붉은 물결이 넘치는 2002년을 기억해보자. 그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였지 않은가.

지난 1월 27일 충남과 경기도는 행정구역으로 나뉜 도계의 개념을 넘어 조그만 지역이익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과 협력을 하기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들이 잘 살고 신나게 기업하는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자는 신선한 메시지이다.

충남과 경기도는 국민과 기업인 입장에서 협력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진정한 자립형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국가발전을 선도하여 이끌어갈 것이다. 이는 지방에서 먼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제시하여 국가를 바꿔갈 수 있음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이다.

날로 급변하는 융합과 복합의 시대에 나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적어진다.

힘을 나누면 반 이하로 줄지만 합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이 상생의 힘인 것이다.

지금 내가 먼저 우리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보자.

'처음보다 더 처음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 백설을 뚫고 새봄을 깨우는 희망의 전령이 되어 함께 상생의 꽃을 피워보자.

우리의 새봄은 연둣빛 열정과 희망이 충만한 젊음으로 피어날 것이다.

# 자랑스런 동포사회 건설

LA한인경제인 초청만찬 만찬사

2005. 4. 7.

존경하는 이용태 LA한인회 회장님, 김춘식 충청향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LA 한인 경제인 여러분 !

오늘 멀리 타국에서 여러분을 뵙고 고국과 고향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에 우리 충남 도정에 깊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오늘 분주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2003년 6월에 이곳을 방문하였으니 2년 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치 어제 방문 한 곳을 다시 들른 것과 같이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정감어린 환대가 마치 고국과 고향에서와 같은 편안함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국과 고향에 각별하신 성원

과 배려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1997년 이곳 슈라이너 병원과 우리 도가 체결한 장애아동 무료시술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가 있었기에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올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2명의 장애아동이 이곳 슈라이너 병원에서의 시술을 통해 새 희망을 찾았고 또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됨으로써 인류의 존엄한 인술사업이 더욱 아름답게 꽃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 보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자랑스런 한인 경제인 여러분 !

고국은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 2,500억불을 달성하며, 불황탈출의 청신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경우 수출증가율과 무역수지 흑자 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수출 293억불을 달성하는 등 한국경제의 힘찬 동맥으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3월 18일 공포됨으로써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기를 열어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동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선택한 이번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를 갖고 지켜봐 주시고 아울러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이곳 미국에서 차지하는 우리 동포사회의 위상이 예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 2세들이 주류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그 역할을 다해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자랑스러운 동포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소망하면서, 고국에 있는 우리들 또한 여러분이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조국을 만드는데 모든 지혜와 성심을 모아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비록 소찬입니다만 진수성찬으로 여기시고 즐겁게 드시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향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

미동남부 충청향우회 주최 초청만찬 만찬사

2005. 4. 9.

향우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리 타국에서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와 우리 방문단 일행을 초청해 주시고 이처럼 따뜻한 환대를 해주신 이정무 미 동남부 충청향우회장님, 송희성 초대 회장님을 비롯한 향우회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우리 고향분들을 한자리 모시고 고향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곳 애틀랜타는 오늘 방문이 처음입니다.

우리 도정과 고향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분을 좀 더 일찍 찾아뵙고 고향소식과 그동안의 고마움에 대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의당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곳 애틀랜타는 남북전쟁과 전후의 재건을 배경으로 했던 불후의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의 원작자인 마가렛 미첼의 탄생지로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상을 섬세하게 묘사하였음은 물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강인하게 살아가는 여주인공 스칼렛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만, 이런 영화 속의 역할이 그동안 타국에서 삶을 개척해 오신 우리 향우회원님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향우회원님들이야말로 영화 속의 스칼렛처럼 낯설고 물 설은 이국에서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곳 주류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서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런 향우회원 여러분 !

흔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표현으로 호마의북풍(胡馬依北風)이라고 해서 호나라의 말은 북풍이 볼 때마다 호나라를 그리워한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만, 이는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지니고 계신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의 고향 충청은 지난해 참으로 의미 있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정사상 처음으로 293억불이라는 비약적인 수출성과를 올렸으며,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통해 12억불의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도가 동북아의 투자유망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에 걸쳐 1조 505억원이 투자되는 내포문화권개발계획이 확정되었고, 한보철강 정상화와 함께 석문국가공단 개발주체 확정 등으로 도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개발 가속화가 이루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가 그동안 농업도의 이미지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첨단산업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전체 충청인이 하나 되어 행정도시건설의 든든한 기반을 구축한 점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지방분권시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백년대계의 출발점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는 계기가 됨은 물론, 우리 충청 발전의 시금석이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향에 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향우회원님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릴 것은 "2006 금산 세계인삼 EXPO"가 내년 9월에 우리 도 금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난 2002년도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을 바탕으로 인삼EXPO도 온 도민이 나서서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회원님들께서도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충남을 찾아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일행을 환영해 주기 위해 이곳을 찾아와 주신 향우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청인의 명예와 위상 제고

미동부 충청도민회 주최 환영만찬 만찬사

2005. 4. 12.

오늘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향분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일행을 이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성대한 환영의 자리까지 마련해주신 정영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김기철 전 뉴욕한인회장님과 전·현직 임원님, 그리고 뉴욕지역 유관기관·단체장님과 경제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뉴욕은 이번 방미일정의 마지막 방문지입니다.

그동안 저는 LA 방문하여 우리 도와 협약을 체결, 난치병어린이들에게 무료시술을 해주고 있는 슈라이너 병원 관계자와 만나 의료협력의 확대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리 농산물 특판전을 개최했으며, 디트로이트에서는 오웬스 코닝사와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미시간 주립대학과의 교류협력

방안에 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매우 바쁜 일정이었습니다만, 정치, 문화, 예술, 금융과 무역의 세계 중심인 뉴욕의 모습을 확인해보고, 이곳에서 한국인의 명예와 충청인의 위상을 빛내 주시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만나 뵙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또 이와 같은 따뜻한 환대를 받고 보니 참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꽉 짜여진 일정을 소화하면서 쌓인 여독이 저절로 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교민 사회가 화합하는 가운데 고향의 정을 함께 나누면서 정겹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향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293억불의 수출성과를 올렸으며, 수출증가율과 무역수지 흑자 면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에 이어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에 걸쳐 1조 505억원이 투자되는 내포문화권개발계획이 확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결실을 일구어냈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의 공동화를 방지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추진한 국가정책과제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해결은 물론, 우리 충청 또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금년 들어 우리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평택·당진항 일대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지역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한 것도 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체결은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일에 지방정부가 나서 상생과 협력, 그리고 조화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160조원의 경제이익 창출과 150억 달러의 외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 지역은 동북아 물류거점 및 중국을 겨냥한 거점지역으로, 동북아 최고의 산업중심지로 거듭 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충청인 모두는 이와 같은 성과와 계획들이 더욱 알찬 결실로 열매 맺도록 하는 일에 지혜와 성심을 모아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의 일행에게 베풀어주신 따뜻한 환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래도록 간직하겠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더욱 편안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편안함과 반가움이 넘치는 자리

가락회 주최 환영만찬 만찬사

2005. 4. 13.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일행을 이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성대한 환영의 자리까지 마련해주신 존경하는 심재길 전 가락회장님, 최창옥 대전고등학교 뉴욕동창회장님, 그리고 전·현직 임원님들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1년 방문 때 뵈었으니까 4년 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맞아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이 금년도 저의 방미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LA를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와 디트로이트를 거쳐 이곳까지 오는 동안 많은 분을 만나뵙고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과의 인연이 특히 남다르다는 데서 오는 편안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와서 동포만 봐도 반가운 일인데 언제나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시는 가락회원님들과 모교 동문이라는 특별한 인연을 가진 분들을 만나는 자리이니 그 편안함과 반가움이야 어디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거듭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저와 고향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고국과 이곳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먼 거리라 하지만, 발달된 메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시시각각으로 전해져오는 고향소식을 잘 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근래 고향에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국가의 정책과제로 추진하여왔던 신행정수도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제정으로 이제 본격적인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우리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며, 결국 이는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그 한 가운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3월초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만,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를 완수해내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인접한 경기도와 지역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입니다.

지방정부간 상생과 협력, 그리고 조화라는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기억될 이번 협약체결은 150억 달러의 외자 유치와 160조원의 경제이익이 창

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선 충남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저 개인적인 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 제가 자민련을 떠난 것과 관련하여 그 이후 저의 행보를 가늠하는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어떤 말씀을 드릴 때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주신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정도에서 이해해주시고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저의 방문과 관련하여 다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적 대역사의 성공적 완수

제44회 연기군민체육대회 치사

2005. 4. 17.

존경하는 연기군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온누리에 복사꽃 향기가 가득한 오늘 8만여 연기군민의 신명나는 화합의 대축제인 제44회 연기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봉 연기군수님과 황우성 연기군의회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연기군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박상돈 국회의원님, 유환준·임상전 도의원님, 이규진 재경연기군향우회장님과 옥정옥 육군방공학교장님, 서명상 육군 제62사단장님, 박성규 제203특공여단장님, 그리고 임국빈 경찰서장님, 김창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연기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가슴 벅찬 감회와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겨우내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고, 새봄을 맞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과 분노 속에서도 나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우리는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첫 단추를 다시 꿸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결실을 거두기까지에는 무엇보다도 8만여 군민 여러분과 200만 도민이 하나로 뭉쳐 쓰라린 아픔과 좌절을 슬기롭게 이겨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어린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런 연기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밝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일부 지역의 반대여론이 아직 남아있고, 내부적으로는 보상과 이주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서 남다른 지역사랑의 열정과 국가적 대의를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국가적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오면서 참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해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걸린 이 과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이 기회를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열린 체육대회가 이러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함께 몸과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흥겨운 우정과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연기군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소중한 자원

2005년도 충남지방기능경기대회 대회사

2005. 4. 19.

오늘 우리고장 산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기술인을 선발하는 2005년 충청남도지방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방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오제직 도교육감님, 강동복 도의원님, 김성헌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장님,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최부환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김완식 천안공업고등학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과 선수 및 가족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산업기술인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보다 우수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고도화야말로 기업,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세계 일류가 아니고서는 결코 장밋빛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필요성

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IT·BT·NT 등 첨단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기술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동안 중화학공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대기업 위주의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인력에 대한 차등대우로 인해 이공계 기피현상이 확산되면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이 원활하게 양성되지 못한 것도 인력난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부품·소재산업 등 중핵기업 300개를 육성하여 첨단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산업별로 대학, 연구소, 그리고 기업이 함께 참여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들은 전문기술인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에게 밝은 희망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여러분과 같은 전문기술자가 우대받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각자 전문분야에 대한 배움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소중한 자원으로 여기고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서로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 보람찬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과 의지로 이룬 값진 승리

제25회 장애인의 날 행사 대회사

2005. 4. 20.

친애하는 장애인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이시우 보령시장님, 오영희 공주시장님, 조규선 서산시장님, 김무환 부여군수님, 나소열 서천군수님, 진태구 태안군수님, 고희일 KBS 대전방송총국장님, 한창숙 충청남도 새마을회장님, 이종원 충청남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2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곳 만세보령에서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한 삶을 살아오고 계신 장애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반가운 만남의 자리를 위해 애쓰신 소진정 충남지체장애인협회장님, 황화성 한국시각장애인협회장님, 노윤철 충남농아인협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자랑스런 충청남도 장애극복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의 하나인 곡우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곡우는 곡식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의미의 날로 우리 선조들은 이 날 봄비가 내리면 백곡(百穀)이 윤택해진다 하여 길조로 여기고 반갑게 맞이하곤 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침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만, 풍년농사와 함께 지역과 국가의 모든 일들이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친애하는 장애인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자연적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희망과 의지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을 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의지가 없다면 내일의 희망 또한 꽃피울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늘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마다 희망과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 덕목인가를 새삼 깨우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한번쯤 감내하기 힘든 시련을 겪으신 분들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자기와의 싸움이었으며, 희망과 의지가 없으면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이를 극복해 내셨다는 것이며, 그러한 눈물겨운 자활의지는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벽을 허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간다면 신체의 불편함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 누구든지 존중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다가서길 기대합니다.

우리 자치 도정 또한 여러 시책개발과 이의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 서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기대와 다짐을 함께 나누면서, 모쪼록 오늘 장애인의 날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제해결에 200만 도민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멀리까지 오신 장애인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행사준비에 애쓰신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아계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밑거름

제5기 충남여성자치대학 개강식 인사말씀

2005. 4. 2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누리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을 모시고 제5기 충남여성 자치대학 개강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아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틈틈이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배움의 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랑스런 자치대학 수강생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법률개정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과 남녀차별 금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가운데 점차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남성우위의 유교적 전통이 고착화되어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우리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졸자중 여성이 절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40대 대기업의 신입사원중 여성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며, 채용분야도 단순사무직이 대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혼여성들의 대부분이 스스로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고, 자아발전과 사회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감성의 시대로,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섬세한 자질과 풍부한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사회에서 남성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IT·BT·NT 등의 첨단산업분야는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섬세한 여성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웰빙과 문화관광산업이 부각되면서 이와 연관된 분야에도 감성이 풍부한 여성의 손길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사회에 참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충남여성 자치대학이 열린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강좌가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자아계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즐겁고 보람있는 배움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남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방향타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격려사

2005. 4. 21.

오늘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봄날을 맞아 2005년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우리 자치도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오늘 행사준비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이병하 회장님의 인사말씀 중에 이제 그만 충남발전협의회장직을 내 놓으시겠다는 간곡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7년여의 시간을 우리 도정을 위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물러나시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해주십사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또 물러나시겠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떠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아쉬움을 대신해야 할 듯싶습니다.

여러분, 이병하 회장님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회원 여러분!

지난 1990년 창립한 충남발전협의회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앞장서 주셨으며, 우리 자치도정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든든한 방향타가 되어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은 여러 회원님들의 지역사랑 의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러한 역할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도가 이룩한 1등 충남의 굳건한 밑바탕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만해도 우리 자치도정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놀랄만한 성과를 창출해내었습니다.

사상유례가 없었던 폭설피해를 극복하고 8년 연속 단보당 쌀 생산 전국 1위를 달성했는가 하면, 품질면에서도 아산 맑은 쌀이 전국 쌀 품평회에서 대상을, 태안 황금빛 노을 쌀이 소비자 단체 최우수 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개도이래 최초로 수출 293억불을 달성했으며, 수출증가율과 무역수지 흑자 면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을 확정지었음은 물론, 충남역사문화원을 설립하여 백제사를 비롯 道史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속에 이룩한 소중한 성과들인 것입니다.

자랑스런 회원 여러분 !

저는 여러분의 이와 같은 역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지역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좌표를 제시해주실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비롯하여 우리가 이룩해나가야 할 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도정은 여러분의 조언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지역의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지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정기총회가 이러한 발전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되길 소망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하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남발전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의 기본요건

제42회 법의 날 기념행사 축사

2005. 4. 25.

존경하는 강충식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님, 오세빈 대전지방법원장님, 그리고 서희종 대전지방변호사회장님을 비롯한 법조인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님과 지역주민 여러분!

오늘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고 준법정신을 진작시키기 위한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평타당한 법의 적용을 통해 늘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법조인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도내 마을 대표자와 주민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법학자인 옐리네크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구성원간의 합의를 거쳐 최소한 지켜야할 기본적인 것이 도덕이자 사회질서이며, 이를 명

문화한 것이 곧 법임을 천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법은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위한 구성원간의 공동약속으로서 누구나 이를 준수해야할 근본규범이요, 행동준칙인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東方禮義之國으로서 법보다 더 차원높고 포괄적인 도덕과 예의를 생활 속에서 숭상하며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이러한 자랑스런 전통이 고루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법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우리사회에 팽배해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조선말기의 세도정치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부당한 수탈에 대한 저항의식이 자리 잡았고, 경제적으로는 근대화과정을 겪으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릇된 잔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일부 지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망각하고 탈법행위를 자행하여 대중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줌으로써 준법의식이 해이해진 것도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찍이 국내외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탈법과 무질서가 성행한 때에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예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면서 준법의식이 소홀했었던 때에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수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준법정신은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기본요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조인과 지역주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지난날의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점

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욱 성숙된 질서의식을 바탕으로 도덕률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며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준법정신을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선진사회는 먼저 기초질서부터 잘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 모두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준법정신을 생활화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기념행사를 통해 법의 존엄성을 새롭게 되새기는 가운데 앞으로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동량

영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격려사

2005. 4. 25.

희망찬 생명의 기운이 온누리에 가득한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2005년 영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미래의 푸른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배움의 길에 정진해온 장학생 여러분에게 200만 도민과 함께 따뜻한 치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과 정성을 다해 지도해주신 선생님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윤 도의회의장님, 오제직 도교육감님, 최운용 교육사회 위원장님과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님, 이재우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이사님 여러분, 그리고 오영희 공주시장님, 김태룡 공주시의회 의장님, 이문하 공주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영재장학생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는 GDP 규모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땅도 좁고 내세울만한 부존자원마저 없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불과 광복 60년 만에 어떻게 세계가 놀랄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바로 여러분과 같은 우수한 인재들을 꾸준히 양성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는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10여년전 민선도지사로 출범하면서 미래인재 양성을 도정 3대 목표 중의 하나로 정하고, 이를 알차게 추진하고자 도립 청양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급한 영재육성장학금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이며, 여기에는 여러분을 지극히 아끼는 200만 도민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충남의 미래이며,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소중한 꿈나무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열어갈 여러분의 앞날은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충남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 땅에 건설되면 우리도가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으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동북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장악하며 패권국가로서 찬란한 문화를

이룩했던 백제시대의 영광이 천오백년이 흐른 오늘에 다시 활짝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충남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방의 인재라 하여 조금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시대에 뿌려진 지방화의 씨앗은 앞으로 여러분이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될 때에는 확고한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재장학생 여러분!

일찍이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엄 벨은 "마지막에 성공의 깃발을 높이 드는 사람은 평소에 작은 노력들을 꾸준히 쌓은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가올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 이러한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동량으로 힘차게 커나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영재육성장학생으로 선정된 여러분에게 마음 깊은 축하를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께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직원화합과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청심회 영산홍축제 인사말씀

2005. 4. 26.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내 여직원 모임인 청심회에서 주관하는 영산홍 축제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오희숙 청심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영산홍이 가진 꽃말은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사랑'인데 거기에 '첫' 자라는 접두어가 붙었으니 영산홍이 가진 꽃말의 의미는 참으로 고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심회원들을 보면서, 이런 영산홍의 꽃말처럼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고이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올해로 청심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그 장구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그때의 순결한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보람된 일을 해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청심회가 펼쳐온 복지시설의 방문과 봉사활동,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직원 돕기에 앞장서온 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청심회의 이러한 활동은 영산홍의 붉은 빛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산홍이 만개한 아름다운 후정에서 펼쳐진 행사에 많은 준비를 해주신 여러분께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직원들의 화합과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변치 않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정성

충남의 미래비전 및 핵심전략 세미나 축사

2005. 4. 27.

오늘 충남발전연구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충남의 미래비전 및 핵심전략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실 이규방 국토연구원장님, 주제발표와 토론에 함께 참여해주신 각계의 전문가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개원한 것은 지금부터 10년 전인 1995년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굳건히 하면서 충남발전연구원을 출범시켰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은 우리 자치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정책개발을 통해 막힌 물꼬를 터 주었으며, 도정발전의 방향타가 되어주

었습니다.

앞선 충남의 자랑스런 위상을 세우는데 견인차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전환기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 각국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에 매진하고 있고 변화와 혁신의 대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은 지역대로 특성과 여건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지금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있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중심도시의 건설에 대한 당위성과 성사만을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당위성이 현실에 정확히 옮겨지도록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12부 4처 2청이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추행정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도시 뿐만 아니라, 국내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첨단 미래도시가 되도록 건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과제들이 앞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체결된 경기도와의 상생발전협약을 구체화하는 일은 물론, 오늘 세미나의 주제로도 선정되었습니다만, 농촌과 농업의 문제, 지역

사업과 경제발전의 문제, 환경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충남의 미래에 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남발전연구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세미나 시리즈로 개최된 오늘 행사가 이러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는 오늘 논의되고 도출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준비에 애를 쓰신 관계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

호서대 가족기업체결식 격려사

2005. 4. 28.

오늘 도내 최초로 호서대학교와 지역산업체간에 밀착형 산학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족기업 체결식을 갖는 자리에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일구 호서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정백운 에버테크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참여기업체 대표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보도에 의하면 지난 1/4분기 우리도의 수출실적은 75억불로서 전국에서 수출순위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중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75%정도가 증가한 약12억불로서 우리도의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이 1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같은 성과는 국제적으로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자금난과 인력난을 겪는 二重苦를 극복하는 가운데 이룩한 것이기에 더욱 자랑스럽고도 값진 결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이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인 여러분께서 산업현장에서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의 노력이 변함없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도는 이를 위해 지역산업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을 뒷받침하고 확산시켜 나갈 연관산업의 동반발전이 절실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0%수준에 불과하며, 더욱이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부품·소재는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 지역대학과 기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발전을 위해 가족기업이란 구심체를 구성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지역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기술혁신은 결코 기업체만의 힘으로는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산·학협력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호서대 가족기업이 그야말로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도

와주는 가운데 연구개발과 신기술의 사업화, 생산, 그리고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신기원을 이루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얻은 결실들이 도내 중소·벤처기업 전체에 확산되고, 이는 곧 지역발전을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어 기술충남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가족기업 체결식이 이러한 우리의 희망과 결의를 새롭게 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호서대 가족기업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1세기 천안 번영의 힘찬 동력

제43회 천안시민체육대회 치사

2005. 4. 30.

자랑스런 천안시민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박상돈, 양승조 국회의원님, 김문규 · 정종학 · 강동복 · 이종웅 도의원님, 이정원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기관 ·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 !

오늘 50만 천안시민의 한마당 화합축제인 제43회 천안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경축합니다.

아울러 활기찬 시정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시고 이번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준비해주신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충남체육의 영광을 쟁취했던 이곳 종합운동장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시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매번 이곳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지난 2001년 제82회 전국체전에서 차지한 종합우승의 영예는 참으로 감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영광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이를 함께 일구어낸 여러분

을 보면서, 새로운 의욕과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자랑스런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도의 수부도시 시민으로서 충남발전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는 천안시민 여러분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는 우리 충남이 국가적인 행사를 담당할 때마다 이를 완벽하게 치러냄으로써 그 역량을 보여주셨습니다.

2001년 전국체전은 물론이고, 2002년 소년체전, 그리고 장애인체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더욱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천안시가 체육과 문화의 도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큰 대회를 치루면서 여러분은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국가의 중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러한 열정과 역량이 금년 5월 14일부터 3일 동안 치러지는 '2005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대회 또한 전국 1,600만 생활체육동호인의 함께하는 큰 잔치로 대한민국의 중심, 우리 충남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런 천안시민 여러분 !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시민체육대회는 이를 다짐하는 자리이자, 여러분이 지니신 자긍심을 21세기 천안번영의 힘찬 동력으로 삼아가기 위한 화합의 한 마당입니다.

50만 천안시민의 흥과 멋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열정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신명의 축제인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부고속철도와 수도권전철시대를 맞아 시 승격 41년 만에 인구 50만을 넘어선 대도시 원년의 해로 그 의미는 더욱 큰 것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뛰고 겨루는 가운데 동료이자 친근한 이웃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웃고 즐기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다짐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천안시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역사랑의 의지를 기대하면서, 모쪼록 오늘 시민체육대회가 이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과 도정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천안시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의 번영을 일군 역량

근로자의 날 행사 축사
2005. 5. 1.

자랑스런 근로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박상돈 국회의원님, 성무용 천안시장님, 강동복 · 정종학 도의원님, 최부환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님,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장님, 이준일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

오늘 신성한 근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경축하면서,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려 오신 근로자여러분께 진심어린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오시고 오늘 행사 준비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재복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산업발전과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지역 경제발전의 든든한 동반자인 근로자 여러분께서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날이자,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115번째 '국제노동절(Mayday)'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GDP 규모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개인생활이 이만큼 여유를 갖게 된 것은 바로 근로가족 여러분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해만해도 우리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으로 놀랄만한 성과를 창출해냈습니다.

수출은 12위를 달성하였으며, 외환보유고는 4위를 이룩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디지털 TV기술은 미국에서 표준이 되었고, 올해 4월에는 우리나라 한 업체의 휴대전화가 지난해 노트북에 이어 러시아 국민 브랜드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분야의 세계적 시장조사기관인 인터내셔널 데이터 그룹(IDG)이 얼마 전 170여 개국 상품을 대상으로 최고 IT 제품 9개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5개가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지난해 여러분이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근로가족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혜와 힘을 합쳐 나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각종제도의 정비와 지원을 통해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들이 성심을 갖고 일하고 자신이 가진 창의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성심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최고의 생산성과 최상의 품질을 생산해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의 노력과 투명한 경영, 그리고 생산적인 노동운동이라는 기업문화가 하나로 합쳐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모두의 행복은 물론, 산업의 안정도 경제의 발전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난관이 많겠지만, 저는 오늘의 번영을 일군 우리의 역량이라면 이를 충분히 이룰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힘들지만, 배려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이해와 협력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우리의 공동체를 이룩합시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다짐을 함께 나누면서, 모쪼록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구슬땀의 소중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가운데 내일의 더 큰 성취를 위해 재충전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경제를 당당한 주체로서 열심히 생활해주시는 여러분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족정신을 이어주는 매개체

제15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격려사

2005. 5. 4.

자연의 싱그러움이 온누리에 가득한 활기찬 계절을 맞아 전통민속의 향기가 그윽한 서천에서 제15회 민속대제전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각 시·군을 대표해서 참가한 선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원식 중도일보사장님과 나소열 서천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영환·박영조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과 서천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세계 각국은 각자 고유한 전통과 풍속이 담긴 민속놀이를 생활 속에서 즐겨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음악과 가무를 유달리 즐긴 우리민족은 삶의 희로애락을 멋과 흥을 통해 승화시키며 지역마다 독창적이고도 흥겨운 민속놀이를 계승·발전시켜왔습니다.

농경생활의 고단함을 흥겨운 농악으로 해소시키는가 하면, 절기마다 씨름, 줄다리기 등의 다양한 민속놀이를 통해 마을 구성원간의 화합과 유대를 다지며, 이를 생활의 활력소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는 힘든 노동을 흥겹게 하는 데서 출발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면서 우리의 민족정신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온 것입니다.

한 때 민속놀이는 일제시대의 탄압과 산업화로 인한 냉대 속에서 그 명맥이 끊길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탄압과 시련 속에서도 이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는 민속놀이가 오랜 세월동안 우리민족의 삶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정서와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러한 조상들의 얼과 전통을 되살려 지역화합과 발전을 이루고자 이 제전을 개최한 지도 1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한산모시문화제가 개최된 중에 민속경연을 겨루는 대제전이 함께 열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널리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제전을 통해 한데 어우러지며 하나가 되었고, 이는 곧 200만 도민의 마음을 결집시키는 든든한 구심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랑스런 도민 여러분!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를 열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함께 충남의 위상을 새롭게 바꾸어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으로 힘차게 발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

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바로 그 중심에 오늘과 같은 민속대제전이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승패를 떠나 흥겨운 장단과 몸짓으로 함께 어울리면서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가운데 위대한 충남인의 저력과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힘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자랑스러운 충남을 힘차게 이룩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민속대제전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뜨거운 용기로 열어갈 희망을 새롭게 심어주는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전통민속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오늘 대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산업 기술혁신의 전진기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방사무소 청사 준공식 축사

2005. 5. 4.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만 가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아 오늘 우리지역 산업인력양성의 요람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방사무소 신청사가 준공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그동안 신청사 마련을 위해 애쓰신 이동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 김규하 대전지역본부장님, 그리고 한상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오제직 교육감님, 성무용 천안시장님, 이시우 보령시장님과 문형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각 대학 학장님, 나장백 대전지방노동청장님, 그리고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과 천안시민 여러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982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직업교육훈련 실시, 현장중심의 기술인력 양성, 취업알선과 고용촉진 등을 수행하면서 우

리나라가 기술입국으로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앞장서왔습니다.

또한 충남지방사무소는 IMF 경제위기로 우리경제가 한창 어려울 때에 개소하여 실의와 좌절에 빠진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함으로써 오늘날의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는데 이바지 해왔습니다.

저는 이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경제와 지역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것은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하나로 뭉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단 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은 찬사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랑스런 산업인력공단 가족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국은 개방화로 인해 무한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무형의 자산인 지식과 기술을 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표방하며 기술우위의 정책을 펴나가는 가운데 유능한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학벌중시풍토와 이공계 기피현상이 남아있어 인력수급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기업과 IT 등 첨단산업에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는 반면,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체는 기술인력의 능력계발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근로자 스스로도 신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방사무소가 새롭게 출발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내 산학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식산업사회를 선도해나갈 지역의 기술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데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방사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새롭게 문을 연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방사무소가 지역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인력 양성의 전진기지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거듭 행사 준비에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방사무소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혜와 헌신의 등불

부처님 오신 날 봉축연등점등식 축하말씀

2005. 5. 4.

존경하는 법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큰 스님, 법정 수덕사 주지스님, 진각 마곡사 주지스님, 장곡 갑사 주지스님, 요명 동학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원로 대덕 스님 여러분!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경찰청 불자회 여러분과 백제불교회관 및 소속 단체, 그리고 시·군 불자회 회원 여러분!

오늘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 점등식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경축하면서, 부처님의 크신 자비가 이 환한 빛으로 세상 가득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불심 가득한 연등을 밝히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권희태 불자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기리며 연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 연등은 무지로 가득한 무명세계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며, 지혜의 등불입니다.

지극한 정성과 큰 원력으로 피운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오늘 그 불로 피워 올린 연등은 어둠을 사르는 불빛이 되어 우리의 세상을 환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대명천지에 살면서도 제대로 난 길을 모르며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최고의 존귀한 존재라는 인간의 존엄성마저 땅에 떨어졌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위기는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탐냄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혹독한 고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불사르고 참 지혜의 환한 불빛을 밝히라는 커다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 저 등불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주위의 이웃들에게 길을 밝혀주라는 헌신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전에 지극 정성으로 불을 밝히고 기원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혜와 헌신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한 마음 한뜻으로 소망하는 이 바램이 부처님의 크신 원력으로 원만히 성취되길 기원하면서, 모든 불자와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 미래를 떠받치고 나갈 기둥

제83회 어린이날 기념식 기념사

2005. 5. 5.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어린이 날입니다.

나는 먼저 5월의 신록처럼 푸른 희망을 안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어린이 여러분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를 떠받치고 나갈 기둥입니다.

튼튼하고 좋은 기둥이 집을 떠받치고 있을수록 그 집은 오래가고 좋은 집이 될 수 있듯, 여러분이 올바르고 슬기롭게 자라야만, 우리나라도 튼튼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 훌륭한 어린이가 되고 21세기를 이끌어 갈 당당한 주역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

지금 여러분 앞에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님과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찬호와 박세리,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태극 듀오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박지성, 이영표 선수와 같이 세계를 무대로 힘차게 달리는 운동선수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끝임 없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바로 여러분 만할 때 목표를 세우고 오늘의 성공을 위한 쉼없는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책을 골라 열심히 독서하고 지식을 넓혀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지식이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워서 지식을 넓히고 컴퓨터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력이 튼튼해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힘차게 뛰고 달리면서 굳센 체력을 연마하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여러분이 지키고 노력하면, 여러분 모두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꿈이 실현될 수 있

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도와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정말 기쁘고 신나는 어린이날을 맞아 1년 내내 어린이를 생각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하면서, 이처럼 풍성한 자치를 마련해 주시고 후원해주신 오제직 도 교육감님과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즐겁고 신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성과 도리가 살아있는 훈훈한 사회

제5회 전국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 대회사

2005. 5. 7.

신록의 푸르름과 싱그러움이 온누리에 가득한 5월을 맞아 우리사회에 스승존경운동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제5회 전국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국 각지에서 이 대회에 참가해주신 청소년적십자단원과 지도교사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건영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회장님과 박상규 청소년적십자 대전·충남본부장님, 그리고 윤재명 강경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오정근 강경여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님, 최원용 청소년적십자중앙본부장님, 이화복 교육인적자원부 과장님, 박태진 도의원님, 그리고 이희두 도교원단체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내빈과 논산시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스승을 가장 존경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섬겨왔습니다.

'君師父一體'라는 말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속담은 스승에 대한 예의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스승이 가정과 국가를 이끌어 나갈 2세를 교육하는 교육자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며 가정과 국가를 연계시켜 주는 중요한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에 人性이 메마르고 날로 각박해지면서 예전처럼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교육의 부실과 학교폭력문제까지도 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이처럼 스승존경의 정신이 희박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학벌중심의 인식으로 인해 선생님을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로 보는 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등 모든 교육주체가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한가정의 보배요, 앞으로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꿈나무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 그 곁에는 늘 사랑과 정성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마음 깊이 선생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스승의 깊은 은혜를 기리며 이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백일장을 개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진심으로 스승을 믿고 존경하며,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人性과 道理가 살아있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백일장이 스승의 높은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는 가운데 스승존경운동이 우리사회에 널리 확산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행동하는 인류애의 실천

국제로타리 3620지구 제10차 지구대회 축사

2005. 5. 8.

존경하는 로타리안 여러분!

로타리 활동을 정성으로 지원해 주신 영부인 여러분!

오늘 국제로타리 3620지구 제10차 지구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주시고 오늘 행사 준비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덕 총재님과 로타리안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국제로타리 회장님을 대신하여 메시지를 전하여 주실 김길현 회장 대리님을 비롯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을 봅니다.

초아의 봉사를 통한 여러분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신뢰와 믿음 가득한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는 지난 1995년 7월 1일 분구된 이후 10년여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봉사단체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불우청소년의 장학사업에 연간 2억 5천만원을 지원해왔으며, 150여명에 대한 백내장 수술, 그리고 로타리 창립 100주년기념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 등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특히 서남아시아 지진해일 참사 때에는 구호성금을 기탁하는 등 더불어 사는 지구촌시대 사랑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로타리안 여러분의 행동하는 인류애를 보여주는 것이며, 진실과 공평, 선의와 우정, 모두에게 유익함이라는 로타리즘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로타리안과 영부인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와 같은 숭고한 로타리즘은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공동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열어가고 있는 세계는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 난제들이 앞에 놓여있습니다.

세대와 계층간의 갈등이 그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치관의 혼돈과 정립 문제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가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성공을 비롯해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각성과 일치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제로타리 창립 100주년과 3620지구 10년차를 맞아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중요한 매듭을 맺을 시기를 맞아 도덕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 희망

과 미래가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더욱 활기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에 기대하는바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제10차 지구대회를 맞아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가운데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국제로타리 3620지구의 힘찬 도약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로타리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승리를 향한 힘찬 발걸음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결단식 격려사

2005. 5. 10.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소진정 선수단장님, 황화성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지부장님, 노윤철 충남농아인협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오제직 도 교육감님, 그리고 조선호 충남지방경찰청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도 선수단의 장도를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선 선수와 임원 여러분께 마음 깊은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충북 청주의 하늘아래 우리 충남의 위상을 드높이고 돌아오길 200만 도민과 함께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 참으로 장하고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충분하지 않은 훈련시설과 지원여건을 참아내며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뙤약볕과 비바람 속에서, 때로는 이보다 혹독한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넘어지고 상처받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이같은 어려움을 여러분의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로 삼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충남은 장애인체전에서 2년 연속 3위 입상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굳은 의지와 힘찬 기백은 200만 도민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선진 충남의 자랑스런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만 가는 5월을 맞아 지난 1년간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리며 쌓아온 기량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빛나는 눈동자와 구릿빛 얼굴을 보며 3년 연속 3위 입상이라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승리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펼쳐 주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런 여러분을 지켜보며 힘찬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거듭 여러분의 장도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자랑스러운 승리의 월계관과 우승컵을 안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다함께 신나는 개선가를 부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다운 지방행정의 새모습

제1회 자치단체단체장 혁신토론회 환영사

2005. 5. 13.

오늘 중앙과 지방의 혁신리더 여러분께서 한자리에 모이신 가운데 성공적인 지방행정혁신 실천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자치단체 부단체장 혁신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전국에서 오신 부단체장님,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혁신리더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세계화와 지방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가운데 지구촌에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가 점차 다원화 되면서 위기와 갈등이 급증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개혁과 참여의 요구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행정여건 속에서 혁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부터 먼저 나서서 조직개편, 제도개선 등을 통해 혁신을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누구나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틀은 마련되었지만, 막상 구성원들이 이를 수용하며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의지는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혁신을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어려움을 감당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 '성공적인 지방행정혁신 실천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권한과 재정의 대부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분권형 선진국가로 발전해 나가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만을 탓하면서 혁신의 실행을 주저하고 있기에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긴박하고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혁신을 통해서 보다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이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켜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참다운 지방행정의 새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혁신방안들이 도출되는 가운데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늘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체육축전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충청투데이 기고문

2005. 5. 13.

일찍이 미국의 독립운동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비록 몸은 자기 것이라 하더라도 건강을 보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첫째 의무이며, 또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하여 건강의 사회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자국 국민의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바쁜 현대생활의 흐름 속에서 잠시 짬을 내어 운동을 하는 모습들이 날로 늘어만 가는 것은 생활체육이 우리 생활에 점차 뿌리를 내리며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생활체육은 우리나라에서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이후부터 태동됐으며 2002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더욱이 최근 웰빙붐과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체육 활동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생활체육은 성별·연령·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여건에 맞는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통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제주에서 최초로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여 범국민적인 참여를 통한 국민건강의 진흥에 힘쓰고 있다.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의 경기종목은 축구, 탁구 등 대중적인 종목 외에 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등 레저형 스포츠는 물론, 게이트볼과 보치아 등 다양한 종목이 포함된다.

또한 생활체육은 그동안 체육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인과 장애인 등 폭넓은 계층이 다 함께 참여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루고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처럼 전국체전이 이른바 엘리트체육으로서 전문체육선수들의 경쟁을 통해 선수 개개인은 기록과 경기력 향상에 주력하는 반면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은 순수한 아마추어체육으로서 승패를 떠나 체육동호인들이 한데 모여 기량을 겨루는 한마당 잔치로 진행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한마당 잔치인 '2005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이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3일간 우리 고장 천안·공주·아산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우리 충남이 이번 대축전을 유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도가 그동안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도는 그동안 생활체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 주관으로 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옴으로써 2002년부터 3년 연속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생활체육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국민생활체육대축전 개최로 인해 우리 도는 그동안 2001년 전국체전, 2002년 소년체전, 2003년 전국장애인체전에 이어 체육 관련 전국단위행사를 모두 개최하는 영광을 안게 되어 체육 강도(强道)로서의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각급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이번 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대축전이 끝날 때까지 우리 도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 우리 충남인의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번 대축전이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생활체육이라는 공통분모

한 · 일 생활체육교류 환영연 환영사

2005. 5. 13.

선수단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 · 일 생활체육교류환영연에서 여러분과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일본 이와테현과 톳토리현에서 와주신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대축전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엄삼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한 · 일 생활체육 교류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97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국의 생활체육인들은 매년 경기종목과 선수단의 교류를 통해 우의를 돈돈히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짧은 기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교류의

진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양국은 고대 이래로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며,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하여 양국이 나눈 우정은 대립과 갈등, 또는 선린과 화해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역사만큼 더욱 깊어 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체육활동을 즐긴다는 공동분모를 지니신 분들이 만났으니 그 교류의 진전이야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런 양국의 생활체육인 여러분!

흔히 생활은 문화와 사상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습관과 관습이 생겨나는 것이며, 이것이 모여져 공동체의 일정한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즐기시는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 그 자체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솔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로 만나 운동장을 달리고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생활체육인 것입니다.

오늘 한일 양국의 생활체육인 만남이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양국간에 드리워져 있는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유함으로써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대회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량을 유감

없이 발휘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방문한 우리 고장 충남은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운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경기를 마치시고 옛 향취가 살아있는 백제의 옛 고도 공주와 부여를 방문하신다면 오래도록 기억될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이번 방문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져 생활체육의 발전은 물론, 양국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우리 고장 방문을 환영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선전과 편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론통합과 국력신장의 원동력

2005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환영사

2005. 5. 14.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우리 고장에서 '2005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와 해외로부터 와주신 참가자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엄삼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님과 최희택 충청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랑스런 1,600만 생활체육동호인 여러분!

이 땅에 국민생활체육운동을 꽃 피운지 어언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88 서울올림픽을 개최로 본격 태동된 국민생활체육운동은 2002 월드컵을 계기로 정점을 이루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직장과 지역단위의 동호회를 중심으로 건전한 생활체육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가운데 국론통합과 국력신장의 원동력이 돼 온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웰빙과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인해 건강과 삶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생활체육운동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체육운동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동호인 여러분께서 열심히 땀 흘려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생활체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마음 깊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생활체육가족 여러분!

이번 우리 도에서 개최된 대축전은 2만 여명에 달하는 임원과 선수단, 그리고 동호인을 포함하여 총 6만 여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의 축제입니다.

특히 우리 고장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확정된 후에 처음으로 맞는 전국 규모의 대회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200만 도민들은 이번 대회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속에서 새로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담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충남의 넉넉한 인심과 포근한 정을 느끼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참가한 동료들과 우정을 나누고 화합의 하모니를 연출하는 아름다운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선수단 여러분, 열심히 달리고 힘차게 도약하기 바랍니다.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시는 땀과 힘찬 함성은 국민건강의 활력소가 되어 돌아올 것이며, 국민대통합의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모쪼록 이번 대축전이 지역·계층·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생활체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을 이루는 가운데 국민대통합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선수단 여러분 모두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축사

2005. 5. 15.

존경하는 원로대덕 스님과 내빈, 그리고 불자 여러분 !

오늘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청정도량인 이곳 마곡사에서 봉축 법요식이 개최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높은 공덕을 기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불교발전에 헌신하시고 오늘의 법요식 준비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진각 주지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께 깊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봉축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진석 국회의원님, 김수진 신도회장님을 비롯한 신도와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우리는 석가세존의 탄생일을 맞아 그 뜻을 기리고 무량하신 자비가 이 세상 가득 넘쳐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새롭고 각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침 스승의 날과 겹치면서 인류의 크신 스승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는 가르침을 통해 인간존엄의 사상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주 삼라만상 중에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고 하셨으며 하찮은 미물까지도 귀히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는 빈부귀천을 초월하여 누구나 힘써 정진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심으로써 자만과 아집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양에 힘쓸 것을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욱한 우리 중생은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측면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살펴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존귀한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고 인명경시풍조는 생명존중의 사상 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개인주의는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더 큰 것을 얻으셨습니다.

고행을 통해 진리를 구하셨으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사바세계의 뭇 중생들에게 참된 진리의 환한 빛을 주셨습니다.

버림과 희생, 나눔과 배품을 통해 우리 인류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올해의 봉축표어처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정성을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의 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경사스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그 거룩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밝고 인정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무변광대한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합장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활력소

제13회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축사

2005. 5. 19.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을 맞아 제13회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기령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는 민선자치제 실시 초기부터 우리 충남이 다른 도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점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지역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궁리 끝에 게이트볼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각 시·군별로 팀을 구성하고 경기장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여 왔습니다.

게이트볼은 그다지 힘이 드는 운동이 아니어서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아 어르신들께서 즐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게이트볼은 세련된 기술과 전략이 요구되므로 두뇌훈련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청장년, 어린이 등 가족 3대가 함께 즐길 수가 있어 어르신들이 정신적 안정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어 게이트볼은 이제 전국에 60여만명의 동호인이 활동하는 노인스포츠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근래 들어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과 의학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한 노후와 여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생활체육시설의 건립을 확대하는 등 고령화사회와 웰빙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노인건강 증진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은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연계되며, 국민통합과 건강사회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어르신들께서 당당하고도 아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의료사업 확대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을 유지하시는 가운데 도정을 위한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도정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로 열세번째를 맞는 이 대회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화합을 다져주고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활력소가 되길 기대하면서, 그동안 못 나눈 얘기를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서로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어르신 여러분의 강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충남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워크숍 축사

2005. 5. 19.

자연의 싱그러움이 온누리에 가득한 계절을 맞아 '고령친화산업 및 충남 RIS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충남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워크숍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님, 강병익 고령친화 RIS사업단장님, 그리고 신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가 하시는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기업인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역혁신가족 여러분!

오늘날 세계 각국은 개방화로 인한 무한경쟁의 파고를 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하면서, 지방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가운데 지역특성과 장점에

적합한 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우리사회에는 웰빙문화와 딩크족이 확산되어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는 반면,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노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선진국들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가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노인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적자원의 질과 양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때에 고령사회를 대비한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 고령친화산업과 지역혁신을 연계해 바람직한 지역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이 개최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지역혁신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충남의 노인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의 12%를 넘어 노인인구비율로 볼 때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앞으로 우리가 고령친화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지역에는 노인과 복지분야에서 특성화된 대학과 시설들이 여러 개 있고,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고령친화산업체가 있으며, 고려인삼 등 건강식품의 생산·유통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지역특성과 장점을 살려 새로운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학, 기업, 연구소, 그리고 주민 등 지역경제주체가 서로 뜻을 하나로 모으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감으로써 더욱 밝은 미래를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워크숍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가운데 고령친화산업을 지역혁신전략과 효율적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워크숍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가 오래도록 간직해야 할 자산

제24회 스승의 날 기념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 행사 치사
2005. 5. 20.

존경하는 여러 스승님!

자리를 함께 하신 제자와 학부모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스승의 날이 며칠 지났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여러 스승님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제자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사은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뜻깊은 만남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전·현직 스승님, 제자부부와 자모회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훈훈한 사제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애례 도 새마을부녀회장님을 비롯한 부녀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강동복 도의원님, 이종원 도부교육감님, 김상무 도교육삼락회장님, 이희두 도교원단체 총연합회장님, 그리고 한창숙 도새마을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추억속의 그리운 사람을 찾아주는 TV 프로그램을 한번쯤은 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몇 번 감동적인 만남의 순간을 본 적이 있는데, 특히 사제기간의 만남 장면은 오래도록 긴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공개된 장소로서의 특성이 있고, 또 그동안 그 사람이 쌓아온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그거와는 관계없이 백이면 백 모두 다 선생님을 뵙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는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평소 우리가 스승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스승에 대한 예의와 존경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로부터 尊師愛弟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니고 있어 스승님을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여기고, 그 분으로부터 인간의 도리와 삶의 지혜를 배워왔습니다.

스승님께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감을 잃지 않으시고, 오로지 제자들을 위한 한없는 사랑과 준엄한 가르침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스승님을 정성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스승님들을 모셔 존경의 뜻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것도 제자로서의 당연한 도리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오랜만에 스승님과 제자가 함께 만나는 이 시간을 맞아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감회가 새로우실 것입니다.

스승님들께서는 철부지였던 제자가 어느덧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 가는 든든한 기둥으로 장성한 것에 대해 흡족해 하실 것이며, 제자 여러분은 마냥 젊기만 하셨던 스승님께서 어느덧 반백의 어르신이 되신 것에 대해 마

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이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는 우리가 오래도록 간직하고 선양해 나가야 할 귀중한 자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성을 다해 이 아름다운 전통을 더욱 계승발전 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모쪼록 오늘 하루 그동안 못다 한 정담을 나누는 가운데 스승의 높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스승님께서도 내내 강녕하시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인재양성의 요람

신성대학 개교 10주년 기념식 축사
2005. 5. 20.

신록이 무르익어 가는 젊음과 희망의 계절에 신성대학 개교 1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병하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김낙성 국회의원님, 민종기 당진군수님, 성기문 도의원님, 그리고 함기선 한서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성 가족 여러분!

개인이나 단체에 있어 어느 한 순간에 매듭을 맺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반추를 통해 본래의 모습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입국의 길을 걸어온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할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신성대학은 지난 1995년 개교한 이래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신성대학이 이룩한 질적·양적인 성장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처음 개교할 당시 9개 학과 720명에 머무르던 대학이 오늘날 5계열 15개 학과 2천여명의 학생을 모집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력을 갖춘 참다운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방침을 바탕으로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 배출의 산실로 우뚝 섬으로써 기술충남, 나아가 기술한국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굳건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중심대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신성인의 하나 된 마음과 정성이 이루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축하드리면서, 신성인의 이와 같은 노력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져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신성 가족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학은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습니다.

학문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는가 하면, 교육자원의 부족이라는 원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경쟁에서 대학 또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거듭나는 대학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기는 위험인 동시에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신성대학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냄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개교 10주년을 맞아 그 뜻과 의미를 새롭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개교 1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일련의 일들이 향후 100년을 향한 든든한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개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신성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신성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유수호에 대한 의지

전몰참전미군용사 위령비제막 추모식 기념사

2005. 5. 20.

오늘 전몰참전 미군용사를 기리는 자유 평화의 빛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여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축하하면서, 기념비 건립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봉 연기군수님과 김부현 무공수훈자 연기군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채명신 장군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곳 개미고개는 한국전쟁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입니다.

그 당시 미 21연대는 이곳에서 적의 우세한 전력에 맞서 무려 5일간의 남진을 지연시킴으로서 북한군의 남침전략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생각해보면 준비 없이 당한 전쟁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7월의 무더운 날씨와 멀리 타국에 와서 싸워야하는 미군 병사들의 힘겨움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지켜내야 한다는 자유수호에 대한 의지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월등한 적의 화력 앞에서도 장시간의 지연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이후의 방어선 구축과 전력의 정비를 이룩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병사들이 이국의 땅에 젊음과 청춘을 묻어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전쟁 발발 반세기를 훌쩍 넘긴 지금, 이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한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의 영웅적인 공적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경제적 여유와 자유로움만을 만끽한 전후세대들이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전쟁의 사실과 참상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애써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긴장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반도 한 가운데는 남북을 가르는 철책선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부보다는 내부의 이념적 갈등을 더욱 염려해야 한다는 우려석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솔직한 현실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막되는 기념비가 이러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는 산 교육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하여 이국땅에서 장렬히 전사한 젊은 병사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상징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 기념비 제막식이 우리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다시 확인하는 가운데 나라사랑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막식이 있기까지 애를 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빛나는 전통과 명예의 계승·발전

대전고 2005 정기총회 및 모교방문의 날 축사

2005. 5. 21

오늘 우리 대능인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우정을 나누는 2005 정기총회 및 모교방문의 날 행사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3만 3천여 동문 여러분과 함께 경축하면서, 반가운 만남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원로 선배님과 후배 동문 여러분, 우리 자랑스런 모교의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후배 재학생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일본 구마모토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동창회인 강원회 임원진 여러분께서 우리 동창회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영과 감사의 표시로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동문 여러분 !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동창회장이란 영광된 직책을 맡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준비가 부족하였습니다만, 여러 동문들의 성원과 협조 속에

작은 성과를 거둔 1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함께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열린 동창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있었던 대능가족 등반대회를 시작으로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동문들의 적극적 참여는 동창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 힘찬 에너지로 작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별과 직능별 모임이 활성화됨으로써 전체 동문회를 구성하는 튼튼한 허리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성과는 명예와 전통에 빛나는 대고인의 자긍심이 지난 해 입시를 통해 우리 후배 재학생들에 의해서 다시 불꽃을 피워 올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창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1억여원의 기금이 더 조성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모교사랑플러스기금 조성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재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선생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명문대고의 위상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여러분께 동창회의 외연확대를 위하여 대전중학교와의 통합동창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직 동창회 전체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한 관계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별 동창회 등 전체동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대능인 여러분 !

금년은 우리 모교가 개교한지 88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더욱 빛나게 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명예는 정직한 수고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대고의 명예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앞으로 쌓아갈 명에 또한 이와 같은 정직한 노력의 결정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대고의 명예를 중요시 하는 우리 동문들이 더욱 굳게 손잡고 자기 자신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동안에도 저는 대능인이라는 명예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만, 저부터 더욱 새로운 각오를 다져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대능인의 기개를 떨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모교와 동문들로부터 받은 분에 넘치는 기대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우리 다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대고의 빛나는 전통과 명예를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십시다.

더욱 단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일에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나갑시다.

우리 대전고등학교 총 동창회는 모교와 동문, 그리고 재학생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 날 것입니다.

오늘 정기총회를 맞아 이런 다짐과 각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모쪼록 이 자리가 청운의 꿈을 나누었던 학창시절로 돌아가 오붓한 정담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모교와 동문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여론 형성의 리더

대전 · 충남기자협회 체육대회 축사

2005. 5. 21.

5월의 해맑은 날을 맞아 대전 · 충남기자협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의를 나누는 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지역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행사준비에 애를 쓴 지영한 기자협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신한철 목요언론인클럽 회장님, 박병석 · 이상민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 전통적 풍습에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날짜 잡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여 길일을 택한다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이곳저곳서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많이 전달된 것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남도만 하더라도 오늘 공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운동장에서 필수 요원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한마음대회를 치룰 예

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기자여러분과 우리 도의 담당자가 같은 분께 길일을 물어봤던지, 아니면 서로가 마음이 통해서 오늘을 길일로 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농담만도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과 지역민은 이처럼 같이 호흡을 맞춰가야 할 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전하는 소식 대부분이 지역에 관한 것이며, 그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 또한 지역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호흡하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역민의 의사를 한데 모으고 소식전달의 매개체이자 여론형성의 오피니언 리더들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항상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언론문화 창달과 지역발전의 선구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야외행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재현장에서 일정에 쫓기고 언론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만큼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서로 웃고 즐기는 가운데 정보도 교환하고 우의를 돈돈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활력과 힘을 얻는 시간

도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격려말씀

2005. 5. 21.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실에서만 만나다 이처럼 야외에서 여러분을 보니 더욱 반갑습니다.

5월을 가르켜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야외에 나와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병풍처럼 둘러선 산이 온통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청단풍이니 홍단풍의 색깔도 참으로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니 오는 길의 금강에서도, 지금 여러분의 가벼운 옷차림에서도 5월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5월에 가장 많은 기념일과 행사가 몰려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은 물론이고 성년의 날, 법의 날, 근로자의 날 등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행사였던 2005전국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의 행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일들을 치러내면서 여러분 모두 많이 힘들었고, 또 그만큼의 보람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생활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분 참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이점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였던 부담감과 피곤함을 떨치고 직원 상호간에 손을 맞잡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 것으로 압니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업무의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평상심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을 달리면서 자신의 체력도 점검해보고 동료와의 진한 우정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동료간에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월보다 더욱 싱그러운 동료애와 활기찬 활력이 솟아나는 걸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한마음 대회가 새로운 활력과 힘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가 되는 동료의식

한마음체육대회 마무리말씀

2005. 5. 21.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유쾌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줄 압니다.

먼저 상을 받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함께 참여해준 동료 여러분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한마당 체육대회는 직장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유익하게 준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각 기관과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료와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데 더 없이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체력 연마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기회도 되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동료직원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달리기를 해보지 않은 관계로 뛰는 모습은 조금 어설프고, 또 무리한 주법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하나가 되는 동료의식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앞서가는 충남의 굳건한 위상 또한 가능했다는 것을 나는 새삼스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여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야외에서 동료들과 나눈 소중한 대화,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가쁜 숨결로 나누었던 호흡과 땀방울을 기억하고 더욱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의 힘을 합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모레, 월요일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 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

제13회 충남여성포럼 대토론회 축사
2005. 5. 26.

오늘 '정치발전과 정당·지역·여성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3회 충남여성포럼 대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토론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경숙 충남여성포럼 선임대표님과 이선자·하금수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오영희 공주시장님, 이병열 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이영재 공주대학교 교무처장님과 주제발표와 토론 참여해 주실 이계경 국회의원님과 김소영 공주지원장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충남여성 여러분!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지수는 세계 58개국중 54위로 선진국은 물론, 일본, 중국 등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정치적 권리보장 분야에서는 최하위 수준

을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설문항목과 조사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6%로 OECD 평균 78.4%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비율은 전체의 13%로 세계 평균 15.3%는 물론, 40%인 북유럽국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부장적인 유교전통이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남아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아 우리사회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 여성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천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30% 이상 위촉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사회에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여성 스스로 또한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분야에도 적극 참여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뜻을 모아주시는 것도 바로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여성의 지위와 권한이 한층 강화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그런 기대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모쪼록 오늘 토론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남여성포럼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

제35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시상식 축사

2005. 5. 27.

자연의 싱그러움이 온누리에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신인작가의 발굴·육성을 위한 제35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시상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대전을 통해 입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대전을 빛내주시기 위해 우수한 작품을 출품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현남주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강동복 도의원님, 김영천 한국예총 도연합회장님, 그리고 김용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충남미술인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고장은 북방과 남방의 문화를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가운데 부드럽고 우아하며 세련미가 넘치는 특징을 지닌 수준높은 문화유산을 이

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과 예술적 기량은 우리가 문화예술의 본향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으며, 실제로 수준높은 예술작품과 유명 예술인의 배출을 통해 이를 입증해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21세기 문화와 감성의 시대를 맞아 예술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술은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통해 바쁜 현대생활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아름다움과 인간성을 새롭게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주5일 근무제와 웰빙문화가 확산되면서 여가를 활용하여 가족, 동호인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미술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시회, 강좌, 체험활동 등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전문가영역으로서 어렵게만 인식돼온 미술이 최근에는 우리생활 속에 좀 더 가까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충청남도 미술대전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출품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참여폭의 확대를 통해 미술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작품의 질과 수준을 한층 높임으로써 우리고장 미술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번 대전은 예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출품작품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작품의 질도 한층 높아져 입상작 선정에 애로를 겪었다고 하니 더욱 큰 기쁨과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입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국내 유수

의 전시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상하신 경력이 있을 만큼 탁월한 기량을 지니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충남 미술의 미래를 생각할 때 참으로 뿌듯한 일이며, 보다 나은 결실을 위한 밝은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미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꾸준히 정진하시는 가운데 위대한 예술혼이 담긴 훌륭한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지역미술계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대전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미술을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나아가 우리충남을 미술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과 행복의 구심체

제2회 충청남도 장애인생활체육 탁구대회 대회사

2005. 5. 27.

신록의 푸르름이 날로 그 빛을 더해가는 싱그러운 계절에 제2회 충청남도 장애인생활체육 탁구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대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희복 아산시장님과 강종건 충남장애인복지관 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각 시·군의 명예를 짊어지고 참석해 주신 선수와 임원, 그리고 가족 여러분과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적극 후원해주신 기관·단체 및 기업체와 경기지원에 흔쾌히 협조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탁구가족 여러분!

탁구는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도 그다지 큰 체력적 부담없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보훈병원에서 재활치료 차원에서 시작된 장애인 탁구가 이제는 장애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장애인들이 즐기는 인기종목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2.5g에 불과한 탁구공이 장애인들이 함께 마음을 열고 어우러지는 가운데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구심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 웰빙붐과 함께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추어 우리가 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를 개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면서 지역과 동호회의 명예를 드높이시길 바랍니다.

선수와 관객이 다함께 하나가 되어 정정당당히 실력을 겨루는 가운데 모두다 자랑스러운 승리를 거두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서로의 등을 두드리면서 따뜻한 축하와 위로를 아끼지 않는 참다운 스포츠정신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여주시는 열정과 화합은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 가운데 진정한 인간승리를 일구어 내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대회가 서로에 대한 우정과 사랑을 새삼 확인하는 가운데 다함께 하나로 어우러지는 즐거운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장애인복지관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향우회원들의 정신적 구심체

재인충남도민회 체육대회 축사

2005. 5. 28.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누리에 푸르름과 활력이 넘치는 오늘 1100여만 충남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 위한 제6회 재인 충남도민회 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영환 도민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류근창 충청향우회 중앙회장님, 문석호 · 김학원 · 김낙성 · 최용규 · 이윤성 국회의원님,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그리고 박광현 인천지방경찰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까지 오는 동안 차창에 비춰진 인천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천 인구의 거의 절반을 우리 도민이 차지하고 있어 밖에 보이는 저 공장, 저 건물 하나하나에 우리 충남인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날 고향을 떠난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꿋꿋하게 극복하시면서 이곳 인천이 21세기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해 나가는데 중심역할을 담당해오셨습니다.

그런가하면, 고향 일이라면 만사를 접어두고 내일처럼 앞장서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 충남인의 단합된 힘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중심에 충남도민회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민회는 향우회원들의 정신적 구심체이자, 정겹게 고향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랑방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도민들이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줌으로써 타향살이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매개체가 되어온 것입니다.

자랑스런 충남도민회원 여러분!

올해로 재인 충남도민회가 태동된 지도 어언 60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고향인 충남은 전도민의 합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충남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사는 고장이 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한국의 중심, 충남'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록 고향을 떠나 생활하고 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늘 간직하고 계신 여러분의 힘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입니

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200만 도민들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대한 충남을 이루기 위한 돌을 하나하나 충실히 쌓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를 통해 그동안 쌓인 회포를 마음껏 푸시는 가운데 서로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대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재인 충남도민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아 성찰의 시간

제22회 천주교 전국공무원 피정 축사

2005. 5. 28.

존경하는 김 베드로 주임신부님을 비롯한 성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천주교 공무원 교형 자매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조선호 충남지방경찰청장님, 변평섭 충청투데이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스무 두해 째를 맞는 천주교 전국공무원 피정의 자리에 참석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피정 참석을 위해 우리 고장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예수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느님과 나 자신, 그리고 공동체와 나 자신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하루에 불과한 짧은 일정입니다만, 이번 피정이 이웃과 나,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 관해 성찰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숨 가쁘게 돌아가는 현실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것은 잊고 살아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삶의 목적은 물론,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웃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늘진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잊고 실천하지 않았으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삶의 여유를 잊은 탓이며 정작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피정의 시간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묵상을 통해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새로운 쇄신을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림으로써 거듭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피정 주제가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입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드린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피정을 맞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거듭 나는 계기로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형자매 여러분께 축복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천주교 전국공무원 피정이 우리 도에서 개최된 것을 축하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사회의 통합과 화해를 위한 노력

대한성공회대전교구 설립40주년 감사성찬례 및 선교대회 축사
2005. 5. 29.

온누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흐르는 축복의 계절을 맞아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설립 40주년 기념 감사성찬례 및 선교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현삼 대전교구장님과 허종현 행사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성공회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정종택 충청대학장님, 김주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남재두 대전일보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교리를 신봉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온 대한성공회 대전교구가 설립된 지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대한성공회는 종교적 원리에 충실하는 가운데 우리사회의 통합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찾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북한동포를 돕

는 일에도 앞장서 민족통일을 이루고자 힘써왔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여기고 가깝게 다가가는 친교활동에 주력하여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대한성공회의 이러한 노력들은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우리사회를 밝고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성공회의 숭고한 정신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펼쳐온 역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참 사랑의 실천은 아름답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건설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성공회 가족 여러분!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이 낳은 빈부격차의 심화, 가정의 붕괴, 사회적 윤리의 상실 등은 우리에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반인륜적인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가 하면, 사회 곳곳에서는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포용, 이해와 믿음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치유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가슴을 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며,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대한성공회 대전교구가 펼쳐온 역할이 더욱 가치 있고 고귀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였으며, 진정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써 대한성공회가 펼칠 역사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란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모쪼록 오늘 행사가 지역사회에 사랑과 평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설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거룩한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성공회 가족 여러분의 앞날에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지역

행정자치부장관 방문 인사말씀

2005. 5. 30.

존경하는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님!

국정의 바쁘신 업무 중에도 오늘 이렇게 우리 도의 도정을 살피시기 위하여 방문해주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고향의 따뜻한 정을 담아 도민 모두와 함께 환영합니다.

우리 도는 과거에는 전통적인 농업도 이었습니다만, 지난 10년간 획기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하여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신성장동력산업의 핵심지역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INI STEEL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지하고 있고, 백제권과 내포문화권 등 뿌리 깊은 충남의 역사와 전통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감동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연기·공주지역에 확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충남은 Heart of Korea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영교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면 1등은 없다"는 신념으로 KOTRA에서

이루어낸 경험을 토대로 정부혁신과 지방행정혁신을 추진해 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전자정부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국가로서 독창적인 정부혁신사례가 세계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지난 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정부혁신세계포럼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자치단체장들은 한국정부와 자치단체의 혁신사례를 모두 공감하고 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지난 1995년 민선1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일찍이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분권 촉구선언을 하여 실질적인 지방화시대를 여는 계기로 마련하였으며, 특히 우리 도에서도 지난주 정부혁신세계포럼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시책을 발표하여 각국 정상과 세계 자치단체장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권과 혁신은 개방과 경쟁의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이는 지방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장관님의 우리도 방문을 맞아, 1만 5천여 공직자가 함께 이루어온 도정 성과와 향후발전과제를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혁신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도정에 대해서는 유덕준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고향을 방문해주고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문화 창달의 빛나는 시금석

당진 문예의 전당 개관식 축사

2005. 5. 31.

자랑스런 당진군민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성기문 도의원님, 김천환 군의회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임계수 경찰서장님, 조남강 교육장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

오늘 당진군 문화예술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문예의 전당 준공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준공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종기 군수님, 전임 군수님이신 김낙성 국회의원님, 정정희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랑스런 당진군민 여러분 !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군민 문화활동의 중심이 될 문예의 전당이 마침내 그 웅장한 자태를 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1년 첫 삽을 뜬 이래 군민 여러분과 당진군이 보여준 관심과 열의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훌륭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보자는 열정이 한데 모아진 것이었으며, 당진군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역량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자랑스런 건축물을 보면서, 근래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문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려는 당진군민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현대식 건물도 건물이지만, 대공연장을 비롯하여 잘 꾸며진 시설들은 여러분의 의지를 실현시키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진군은 그동안 열악했던 문화적 인프라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예술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은 이곳을 통해 문화예술의 정수를 만끽하면서, 문화의 주체로서 문화향유권을 마음껏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흔히 문화라고하면 일부계층이나 전문가 그룹의 전유물로만 여겨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참여하는 문화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문화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문화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발전여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척도가 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시·군 1 문화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신장시키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준공하는 당진 문예의 전당이 지역문화 창달의 빛나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준공이 있기까지 보여주신 관계자의 노력과 당진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충남을 대표하는 바람직한 기업인상

제12회 충청남도 기업인대회 대회사

2005. 5. 31.

오늘 제12회 충청남도기업인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탁월한 기업경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으로 오늘 제12회 기업인 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신 최창호 하나마이크론 대표이사님과 각 부문의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표창을 받으신 모범사원과 유공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와 함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기업인과 모범사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술과 자본, 그리고 노사의 화합이라는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하였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래처럼 기업 환경이 어렵고 변화와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활발하고 원활한 기업 활동을 통해 진정한 기업인

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자랑스런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우리 충남을 대표하는 바람직한 기업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명확히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것에 맞추어 조직의 변화를 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며, 그 과정에서 오는 내부적 갈등을 봉합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더 많은 노력과 합의를 요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근래 몇 년 사이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함으로써 명멸해간 기업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더욱 자랑스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과정을 이겨 냈다는 것이며, 그것도 한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경제의 주체로 당당히 섰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런 기업인과 모범사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러한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과 창조의 기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시대를 보는 정확한 눈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뢰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구성원의 땀과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치도정은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모토로 하여 이를 위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이러한 역할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지역과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일에 견인차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기업인 대회가 이를 다짐하는 가운데 힘과 용기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업인대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기업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따뜻한 사랑의 메신저

적십자봉사원 한마음체육대회 축사

2005. 6. 2.

오늘 적십자봉사원 여러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박상돈 · 양승조 국회의원님, 박성효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님, 성무용 천안시장님, 장석준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님, 곽일훈 대한적십자봉사회 중앙협의회 의장님, 김선균 사회봉사사업 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대회준비에 애쓰신 박건영 대한적십자사 대전 · 충남지사 회장님, 이귀순 대한적십자회 대전 · 충남지사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와 함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랑스런 적십자 봉사원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에머슨은"열정 없이 성취된 위업은 하나도 없다"고 하여 열정을 지닌 사람들에 의하여 세상이 발전하여왔음을 말한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여러분이야말로 삶에 대한 아름다운 열정을 지

니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펼쳐 오신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과 지역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열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봉사활동을 통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는 따뜻한 사랑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는가 하면, 위급한 재난 현장에는 맨 먼저 달려와 구슬땀을 흘리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수호천사였습니다.

특히 근래 몇 년 사이에 우리 도에서 치러진 각종 국가적 행사에서는 성공대회를 이끄는 견인차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지역에 적십자 봉사회 조직이 만들어진 1990년 이래 한결같은 것이었으며, 여러분이 착용하시는 붉은 십자가가 새겨진 노란색 조끼는 이제 사랑과 봉사의 대명사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러한 역할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의 발로이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런 적십자봉사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열정을 펼쳐 보이셨다면 오늘 하루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료를 위해 우정과 사랑의 한마음 체육대회를 펼치는 날입니다.

남을 위해서는 헌신적인 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한 편이라 걱정도 됩니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을 위한 일에만 충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와 정겨운 대화도 나누시고 두 손을 잡고 힘껏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목청껏 소리치며 응원도 하시고 이곳 유관순체육관을 뜨거운 열기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과 체육관에 울려 퍼지는 함성은 우리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열정의 메아리가 되어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한마음 체육대회를 맞아 그동안 여러분이 펼쳐 오신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아름다운 삶의 열정에 대해 진실로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개최를 축하하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는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식 기념사

2005. 6. 4.

오늘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고장을 맑고 깨끗한 곳으로 가꾸기 위해 노력해오신 오정근 자연보호충청남도 협의회장님과 한종득 한국환경운동본부 충남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환경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환경보전에 애쓰신 공로로 대상의 영예를 안으신 육군 인쇄창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

인종과 언어, 그리고 풍습이 각기 다른 세계인들을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로 묶는 공통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환경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연의 유한성에 따르는 환경보전의 문제는 국가와 민족을 떠나 전인류의 현재와 미래가 달린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폭발, 아마존 밀림의 파괴, 동남아의 대형 산불, 그리고 중

국의 황사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환경파괴는 한 국가를 초월해 주변국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UN에서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정하고, 매년 주제를 설정하여 세계 각국이 환경보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뒤늦기는 했지만 10년 전에 환경의 날을 지정하여 범세계적인 환경보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수강산으로 이름난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소중한 자연환경이 빠르게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갈수록 우리사회에서 인성이 메마르고 범죄가 흉폭해지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파괴된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녹색공간이 점차 사라지고, 소음, 매연, 분진 등 각종 공해에 찌들다보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산업국가 인체질병의 약 30%가 환경오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의 역사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보전의 역사로 새롭게 바꾸어야만 합니다.

바로 지금이 대기와 수질 등 환경매체 위주의 환경정책을 생태계와 인간 등 환경수용체 중심으로 전환해야할 시기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환경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함께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절명의 사명임을 깨닫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생명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선진녹색, 한국'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모두 가슴을 열고 하나가 되어

2005년도 충남장애인부모대회 축사

2005. 6. 4.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장애인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2005년도 충남장애인부모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대회 준비에 애쓰신 이숙이 장애인부모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와 함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 보면 부모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열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위조악업은(爲造惡業恩)이라고 해서 자식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뵈면서 참으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자식이 몸이 불편하다는 것도 가슴 미어지는 일인데 그로

인해 받아야 할 사회적 불평등을 차마 볼 수가 없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선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치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이 나서지 않아도 될 만한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일에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오늘 건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있다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장애란 단지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로 인해 겪어야 할 어려움은 생활의 전부인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만은 틀림없는 일입니다만, 그것만으로 불편함 없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 장애인 문제에 관하여 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도정부터 앞장서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허무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각종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해 나가는데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

니다.

장애인의 편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시책을 개발할 것이며, 이를 실천에 옮겨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적극 협력해주시고 호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굳건한 자활의지를 갖도록 도와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과 같이 하나의 시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정보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는 일도 그에 못지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슴을 열고 지혜를 모아간다면, 모두가 염원하고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은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이러한 마음과 다짐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알찬 행사로 만들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통문화 발전의 밑거름

제9회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치사

2005. 6. 4.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의 싱그러움이 무르익어 가는 계절에 우리의 전통민속예술을 계승하고 주부 여러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제9회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가 열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 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문선이 당나루 풍물놀이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군을 대표해서 참가해 주신 주부풍물단 여러분과 멀리에서부터 우정출연차 와주신 풍물단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과 당진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주부풍물단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풍물은 우리민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온 전통예술입니다.

예로부터 농경생활의 피곤함을 신명나는 가락으로 풀고, 마을의 애경사

가 있을 때마다 풍물을 통해 하나로 뭉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다져왔습니다.

이처럼 풍물은 음악, 무용, 그리고 놀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서 여기에는 우리민족 삶의 애환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인 것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는 고유한 민족문화를 잘 보존하는 한편, 이를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제 주부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가정경제의 책임자가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주체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도가 주부 여러분을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적임자로 여겨 오래 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주부풍물대회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풍물대회를 개최한 지가 어느덧 10년이 다되어 가는 만큼 그동안의 전통과 경험을 충분히 살려 이번 대회를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꾸며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닦으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신명나는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가운데 주민통합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회 준비에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00년을 향한 새로운 시작

충남발전연구원 개원10주년 기념식 치사

2005. 6. 7.

오늘 충남발전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씽크탱크'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께 마음 깊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과 여러 이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前원장님으로서 특별히 참석해주신 정종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과 오제직 도 교육감님, 그리고 뜻깊은 행사를 축하하시기 위해 멀리에서부터 와주신 이인석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시도연구원협의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영국의 시인이자 저명한 비평가인 새뮤엘 존슨은 "인생에 있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념과 희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처럼 저는 그동안 민선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도민들에게 신념과 희

망을 심어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995년 민선 1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도정목표로 천명하였습니다.

당시 대전시로부터 분리된 지 얼마되지 않아 道勢가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제가 제시한 목표가 너무 당찬 것이 아니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러한 신념과 희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도의 정책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정책실을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100억원을 출연하여 충남발전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도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여기에 먼저 투자한 것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충남발전연구원은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충남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계룡시 승격, 내포문화권 개발,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혁신 5개년 계획 및 충남 2010비전 수립 등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여 우리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온 것입니다.

자랑스런 충남발전연구원 가족 여러분!

민선자치도정을 수행해온지 10년이 지난 지금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수출 충남의 위상을 다지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나

가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 2위의 잘 사는 고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01년 전국체전 종합우승과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일등충남을 실현하는 가운데 200만 도민의 자신감과 긍지를 드높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위대한 충남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은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오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과 전도민의 합심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어린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자랑스런 토대 위에서 또 다른 10년 아니 100년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 대장정에 여러분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산실로서 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조언자로서의 기능을 다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정의 아이디어뱅크로서 더욱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남발전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한 생활을 이루는 활력소

제3회 충남어머니생활체육대회 치사

2005. 6. 8.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지역 어머니들의 큰 잔치인 제3회 충청남도 어머니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회를 위해 애쓰신 최희택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과 심태진 공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엄삼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님, 이덕분 한국여성스포츠회장님, 오제직 도교육감님, 정진석 국회의원님, 오영희 공주시장님과 송민구 · 최운용 · 이제남 도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어머니생활체육회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년기 기혼여성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보호의 손길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경제적 안정과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삶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비만과 퇴행성질환 등이 급증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들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이어트나 질병 예방에는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막상 운동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70%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참여율이 저조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3년 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 건강의 지킴이인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와 웰빙붐이 확산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요즈음 생활체육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생활체육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생활의 활력소를 되찾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의식을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에 우리 도는 3년 연속 생활체육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생활체육에 관한 한 전국 최고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 고장에서 '2005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여 역대 최다 종목에 최다 인원이 어우러진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머니 여러분의 한마당 잔치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겨루는 가운데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어머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길이 남을 유익한 시간이 되는 가운데 우리고장에 생활체육이 널리 확산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대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생활체육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어머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간승리의 참 모습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대회사

2005. 6. 8.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오영희 공주시장님, 최운용, 강동복 도의원님, 김태룡 공주시의회 의장님, 황화성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지부장님, 노윤철 충남농아인협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 도 장애인의 기능수준 향상과 취업 그리고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05 충남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대회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소진정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충남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하기까지 지도와 뒷바라지에 정성을 다해주신 지도 선생님과 가족여러분의 헌신적 노고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습니다.

신체의 불편함에서 오는 어려움도 그릇된 사회적 편견과 인식도 당당한 기능인으로 서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극복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겪어야 했을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이며, 오늘 이렇게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승리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더욱 빛나고 당당해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커다란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한 세상은 예전에 비해 훨씬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든지 남보다 앞선 기술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독창적인 창의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를 다짐하는 자리이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역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는 단지 불편한 것뿐이지 그것이 결코 실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런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힘찬 박수를 보낼 것이며, 자치도정 또한 여러분을 위한 일에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기능경기대회를 맞아 여러분과 이런 기대와 다짐을 함께 나누면서, 모쪼록 오늘부터 펼쳐지는 이번 대회가 여러분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

베트남 롱안성장 환영만찬 인사말씀

2005. 6. 8.

존경하는 여응 꿕 쑤언 롱안성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고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베트남에서 만남이후 9개월여 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옛 선현의 가르침 중에 '친구가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얼마나 기쁜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친구가 있으니까 좋고 그 친구와 우정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좋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베트남에서 이곳까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며, 여러분을 맞는 기쁨이 큰 것을 보면 우리들 또한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임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친구가 찾아오면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것을 하나의 예절로 여겨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그런 친구의 예로 대할 것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입니다만, 머무시는 동안 여러분의 고향집에서 같은 편안함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소찬을 준비했습니다만, 입맛에 맞을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정성으로 준비한 만큼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신다면 큰 기쁨과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무대에서의 든든한 동반자

베트남 롱안성과 우호협력협정서 조인식 기념사

2005. 6. 9.

존경하는 여응 궉 쑤언 성장님을 비롯한 롱안성 관계관 여러분!

팜 띠엔 번 대사님, 이준희 자문대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충청남도와 베트남 롱안성과의 우호적 선린관계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양 지역간의 깊은 우의와 신뢰를 확인하는 가운데 '우호협력협정서' 조인식을 갖게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조인식이 있기까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응 궉 쑤언 성장님을 비롯한 롱안성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조인식은 지난해 9월 제가 롱안성을 방문하여 성장님과 우호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9개월 여만에 갖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이로서 양 지역은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국제무대의 당당한 동반자로서 새 출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글로벌시대의 공동체로서 공동의 번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오랜 기간 동안 맺어왔던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관계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같은 유교문화 뿐만 아니라 동양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물리쳐온 역사적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양국이 짧은 수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의 교류가 급속도로 확대, 발전되어온 것은 이러한 유사성과 친근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월 한-베트남 총리 회담을 통해 2010년까지 교역량을 두배로 확대키로 합의 한 것이나, 6월 1일 베트남 WTO 가입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베트남 양자협상 타결은 미래의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양국의 신뢰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양국이 발전시켜온 이러한 선린 우호적 관계는 밝고 희망찬 내일을 담보하는 것이며, 우리 충청남도와 롱안성간의 미래 또한 밝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해 9월 롱안성을 방문하였을 당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통 농업도로서 생물자원이 풍부하고 호치민시의 배후도시로서 잠재적 개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롱안성과 선진농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룬 우리 충청남도가 서로의 보완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간다면, 그것은 바로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베트남 속담에 '친구간의 우정이 깊으면 동해바다도 다 퍼낼 수 있다.' 라는 구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신뢰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창출할 수 있는 성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협정서 조인식을 통해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와 소중한 친구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와 같은 친구로 여러분을 만나고 가슴을 열 것이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은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며,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일에 모든 노력과 성심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체결한 우호협력협정서가 양 지역의 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한 굳건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면서, 롱안성의 무궁한 발전과 여응 궉 쑤언 성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로 어우러지는 한마당

제1회 충남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축사

2005. 6. 10.

오늘 제1회 충남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애쓰신 이정원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님과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인제·김학원 국회의원님,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시장·군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우리 충남 의정사에 길이 남을 만한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대회가 지방의회 개원 14년 만에, 그리고 민선지방자치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지역 시·군의회의원님들께서 함께 모여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14년은 이 땅에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꽃피운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갖고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주셨습니다.

자치도정에 대해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함으로써 지방자치라는 수레바퀴의 한 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역할은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것이었으며,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자치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군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의원 여러분!

오늘은 일상의 번잡한 일로부터 벗어나 마음으로나마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한마당 잔칫날입니다.

마침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화합을 다지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선경기라도 시합이라면 누구나 이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인 만큼 자칫 의욕이 너무 앞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다함께 열린 마음으로 화합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다짐으로써 지역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남 시·군의회 의

장협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충청투데이 기고문

2005. 6. 10.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두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건강이야말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임을 표현한 것이리라. 실제로 유사 이래 무병장수는 인류의 염원이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대복지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건강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린 건강의 정의처럼 오늘날의 건강은 각 개인이 모든 분야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 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웰빙붐이 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

으며, 국민 스스로도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생활습관을 갖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운 휴가를 구상하고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시기이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에도 전염병이 없는 한 해를 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비상방역근무를 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방역활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집단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과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다행이 우리고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염병 발생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동안 지역보건행정을 수행하면서 안타깝게 느낀 점은 우리국민들의 보건위생의식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전염병을 후진국병으로 인식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병이 발생할 수 있겠냐며 의아해 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염병은 이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지만,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홍역 등은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불시에 전국에 확산되었다. 또한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등은 오히려 이전에 비해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위생에 소홀히 하면 전염병

은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그리 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철저한 위생관념을 갖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우선 외출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귀찮더라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또한 주변을 청결히 하여 감염경로를 차단하며, 상한 음식은 아깝다고 먹지 말고, 음식은 가급적 익혀서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손쉬운 전염병 예방방법이 있는 데에도 우리는 여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제 서서히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다가오는 여름은 더위와 함께 즐거운 휴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개인과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올여름도 전염병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 충청인의 마음을 모으는 구심체

재제주 충청인의 날 행사 축사

2005. 6. 12.

향우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제주에서 충청인의 날을 맞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대한 행사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중묵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이원종 충북지사님, 김태환 제주지사님, 그리고 강석순 충청향우회 부총재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향우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 옛날 동남아의 해상권을 장악했던 백제의 후예답게 일찍부터 이곳에 진출하여 1만여 회원들이 똘똘 뭉친 가운데 충청인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비록 고향과의 거리는 멀지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국의 어느 향우회보다도 깊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는 지난 2002년 전국체전에 출전한 고향선수들을 뜨겁게 환영해주시는 등 늘 고향의 크고 작은 일에 깊은 애정과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향우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금 우리 충청권은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여건을 살려 산업, 경제,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며 자치역량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충청권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확정됨으로써 또 다른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500만 충청인이 내고향 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친 결과이며, 멀리서나마 고향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향우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거듭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향우회원 여러분!

오늘은 모처럼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서로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바삐 살아오시면서 미처 못나눈 정담을 나누시는 가운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함께 몸과 마음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충청공동체로 뭉치는 하나된 마음이야말로 고향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고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고,

우리 충청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든든한 구심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주도 충청향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승화

제11회 도의새마을운동촉진대회 치사

2005. 6. 14.

존경하는 이수성 중앙회장님, 한창숙 도새마을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축하의 자리를 함께하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이한영 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 고애례 도 새마을부녀회 회장님, 그리고 채현병 홍성군수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제11회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를 맞아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도의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와 같은 공적으로 영예의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마을 운동은 우리 현대사에 찬

연히 빛나는 국민정신운동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운동이었고, 우리의 숨겨진 역량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확인시켜준 운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해보자'하는 의욕과 열정의 불을 지폈으며, 숙명처럼 여겨왔던 가난과 좌절의 늪을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우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래 들어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통해 창출해온 이와 같은 가치와 성과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 새마을 운동이 70~80년대나 필요했던 운동이며, 단순히 경제적 부흥만을 위한 운동이었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질을 간과한 것이며, 우리가 이룩한 물질문명에 우리 스스로가 갇힌 결과입니다.

진정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망각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마을운동이 지닌 진정한 정신을 되새기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새마을가족 여러분!

지난 20세기가 물질문명을 바탕으로 한 양적 성장의 시대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신문명을 바탕으로 한 질적 성장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도덕과 윤리, 예절과 질서 등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의식의 생활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기치를 새롭게 드는 일이며, 여러분이 앞장서 주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 정신혁명을 이끈 선봉으로서 오늘의 가치를 창출해왔듯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발전의 리더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가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굳은 결의로 도의새마을운동의 불을 지펴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러한 기대와 결의를 함께 나누면서, 모쪼록 오늘 대회가 도의와 예절의 고장 충남의 자랑스런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다정한 이웃, 건강한 사회, 행복한 나라를 일구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과 새마을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역대 대회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

2005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 해단식 격려사

2005. 6. 14.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2005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이 끝난 지도 어느덧 한달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해단식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그날의 벅찬 감동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대축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헌신해오신 공로로 오늘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희택 도생활체육협의회장님과 종목별 연합회장님, 시·군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강희복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자랑스런 생활체육가족 여러분!

지난 5월에 막을 내린 2005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27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활

성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다 종목에 최다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다함께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을 연출하여 역대 대회중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이번 대축전을 통해 200만 도민이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힘을 바탕으로 종합성적 1위를 달성하여 충남인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우리고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선비의 고장이라는 자긍심 또한 드높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처럼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마음 깊은 찬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생활체육가족 여러분!

이제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는 새로운 전기를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생활체육을 널리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는 이 자리를 통해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거듭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생활체육협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한.일 문화교류의 전도사

제26차 한 · 일불교문화교류 수덕사대회 인사말씀

2005. 6. 14.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입니다.

오늘 제26차 한 · 일 불교문화교류 수덕사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모시고 소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대회를 위해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미야 바야시 쇼겐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 불교 각 종단 대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언제나 축원해주시고 우리 자치도정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법장 큰 스님, 운덕 스님, 회정 스님, 법등 스님, 홍파 스님을 비롯한 원로대덕스님과 불자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큰 스님들을 뵈니 그동안한 · 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본 협의회는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불교의 학술적인 교리 연구 및 연대사업 등을 진행시켰으며, 특히 한국인 징용자의 유골 송환 작업을 성사시키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부처님의 크신 원력이 이루어 낸 것이며, 여러 큰 스님들의 노고가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불교는 아주 오랜 고대국가시절부터 양국을 연결해주는 문화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일본 성실종의 개조가 된 도장 스님을 비롯하여 많은 백제의 승려가 일본에 건너가 불교를 전하여 준 일이라든가,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남긴 담징 스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야말로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 한 것이며, 이를 오늘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로우심 아래서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어제 입국하셔서 피로를 풀 겨를도 없이 오늘은 하루 종일 법회와 세미나에 많은 힘이 드셨을 줄 압니다.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도 나누시며, 여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만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맛있게 드신다면 큰 기쁨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위해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축원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 충청권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

충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세미나 축사

2005. 6. 15.

오늘 충청국제정치학회 2005년도 하계학술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상태 충청국제정치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윤 한남대학교 총장님, 박성효 대전시 정무부시장님, 육동일 한국자치행정학회장님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실 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함께하시는 전문가와 학생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충청권은 한가족이라는 유대감이 유달리 강해 공동체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온 원동력이 되었으며,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

했던 상황 속에서도 500만 충청권 주민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끝까지 노력한 결과 마침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단순히 중앙부처 일부가 이전해와서 인구 50만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 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경제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정치사회적으로는 지방분권을 도모하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앙에서는 분권과 분산, 그리고 균형정책을 통해 지방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은 지방대로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쟁력과 자치역량을 제고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새로운 충청공동체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된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담론의 장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처럼 정치사회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충청권 주민들은 우리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이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우리의 힘으로 참다운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지역발전과 함께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이루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다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충청권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지방정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충청국제정치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앞날에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안전의 지킴이

천안의용소방대 60년사 발간 격려사

2005. 6. 15.

광복 60주년을 맞아 천안의용소방대의 생생한 역사의 발자취를 수록한 '천안의용소방대 60년사'가 발간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책자 발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명일 천안시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의용소방가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용소방가족 여러분!

천안의용소방대가 창립된 지도 어언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지역안전의 지킴이로서 뜻하지 않은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때로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역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이제 의용소방대는 대표적인 지역안전브랜드로 자리

잡아 많은 도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구촌 환경파괴가 심각해지면서 대형 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가 날로 복잡다양화 되면서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분산된 국가재난관리체제를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하는 총체적 통합재난관리체제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고장 의용소방대원의 활약상을 담은 '천안의용소방대 60년사'가 발간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여러분의 소중한 땀과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헌신은 참여와 자치시대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앞으로도 길이길이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든든한 초석이라 할 것입니다.

거듭 '천안의용소방대 6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 책이 우리고장의 안전을 위한 소중한 길잡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의용소방대가 되길 바라며, 천안의용소방대의 무궁한 발전과 대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한 지역사회의 디딤돌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 개원식 축사

2005. 6. 16.

오늘 실비노인요양시설인 '생생꿈마을' 개원식이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설이 완공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영한 이사장님을 비롯한 법인 관계자 여러분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황인성 전국무총리님, 류근찬 국회의원님,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과 이시우 보령시장님, 그리고 전해철 도정평가단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효친을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여기며, 이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여성취업과 핵가족의 증가로 인한 전통가족제도의 붕괴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우리의 어르신들은 점차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점차 희박해진 탓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13.1%로 전국 평균 8.5%를 초과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가정소득의 감소는 어르신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문제를 이제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여겨 가정의 책임으로만 미룰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역사회와 국가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문제중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치매요양병원 건립 등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해 충분한 혜택을 드리지 못해 늘 안타깝고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민간유료요양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시설 자체가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민층이 이를 이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 '생생꿈마을'이 개원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생꿈마을'이 어르신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에 앞장섬으로써,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진화된 시설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개원식이 노인문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가운데 곧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료서비스를 새롭게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오늘 '생생꿈마을'의 개원에 이르기까지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무궁화 복지법인의 무궁한 발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도

CBS대전방송 발전과 대전·충남지역 성시화를 위한 부흥대성회 축사
2005. 6. 16.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이정식 CBS 사장님, 윤석전 서울 연세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김병화·유병문 전임 운영이사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

오늘, CBS 대전방송 발전과 대전·충남지역 성시화를 위한 부흥대성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지역방송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종락 CBS 대전방송 본부장님과 신청 운영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CBS 대전방송 애청자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랑스런 성도여러분 !

오늘 우리는 지역민의 안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모든 바람과 소망이 이뤄지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사회이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빛이 있는가 하면 그 만큼의 그늘이 공존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사회는 인간이 지닌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고 가정의 해체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대신 이기주의와 지역의 님비현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두가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때문이며, 물질이 정신을 앞지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진정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이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시간을 갖는 것도 바로 이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흔히 '기도'는 신과의 호흡이며 영양을 주고받는 젖줄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큰 힘을 주실 것이며, 이는 또한 거룩한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모쪼록 오늘 부흥대성회가 CBS 대전방송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융성 그리고 도약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준비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CBS 대전방송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

여성유권자 전진대회 환영사

2005. 6. 17.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36주년 기념 2006 양성평등 지방선거 - 여성유권자 전진대회가 우리 고장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를 축하하면서, 여러분의 우리 고장 방문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평소 여성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오늘 대회 준비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연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올리버 골드 스미드는 '행복이나 지혜를 얻기 원하는 자는 계속 변화시켜야 한다.'고 해서 변화를 행복의 전제조건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이런 변화를 스스로 추구하면서, 또 그렇게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왔습니다.

중앙집권적 정부형태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독창성이 강조되는 지방화 시대를 개막했으며,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산다는' 데에서 '잘 산다'는 웰빙 문화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또한 몇 군데 있는데 정치가 바로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정치는 이념과 노선의 선명성 경쟁이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졌고 국민들 또한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키워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해방과 건국, 그리고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이는 일정부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종과 민족을 넘나드는 지구촌시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해가고 있는 지금까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건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변화의 물줄기에 끌어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야말로 공허한 논리나 이념의 정치가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이어야 하고 주민들 속에서 주민

들과 함께하는 생활정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주실 분들은 바로 여러분, 여성 유권자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생활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며, 새로운 정치를 희구하시는 분들로 그 의지와 역량 또한 지니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것도 이를 다시금 인식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결의되는 것들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출발점이 되고 여러분이 그 주체로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여성 유권자 대회를 맞아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오늘 대회 개최와 여러분의 우리 고장 방문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속적인 청년운동의 보루

제36차 JCI Korea 충남지구회원대회 축사

2005. 6. 18.

자랑스런 JC 회원여러분 !

박철순 지구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

오늘 제36차 JCI Korea 충남지구 회원대회를 맞아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낙성 국회의원님,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이시우 보령시장님, 민종기 당진군수님, 성기문 도의원님, 김천환 군의회 의장님, 최범진 JCI Korea 중앙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JC 회원 여러분 !

영국의 정치가이자 소설가인 디즈레일리는 '위대한 일의 대부분은 청년기에 이뤄진다'고 하여 청년의 무한가능성에 대해 말한 바 있습니다만, 나는 바로 여러분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늘푸른 청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나라를 위한 일에

끝없는 도전을 펼쳐왔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지난 1969년 창립한 이래 우리 고장에 사랑과 봉사의 씨앗을 뿌리며, 내일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키워왔습니다.

그것은 지도역량의 개발, 지역사회개발, 세계와의 우정이라는 JC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었으며, 더욱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어 가자는 순수한 애향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앞선 충남의 기치를 높이 드는 것이었으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이와 같은 역할이 우리 충남의 또 다른 역사가 되고 희망찬 지역사회를 열어오는데 원동력이 되어왔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36차 대회를 통해 여러분은 장년의 든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분에 기대하는바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랑스런 JC 회원 여러분 !

역사는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가 시대의 중심이 되어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청년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바로 그와 같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는 지금 우리가 열어가고 있는 세상이 변화와 혁신이 강조되는 시대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이 영속적인 청년운동의 보루로서 다시 한번 우뚝 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왔듯이 청년기의 열정과 순수함으로 다시 뭉쳐 역동적인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해주시고 뜻깊은 시간을 갖는 것도 바로 이를 위한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펼쳐질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아름답고 희망에 넘칠 것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대회가 이를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화합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치도정과 지역사회에 보내주는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보람과 희망찬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충남시대의 창조

민선자치 10주년 기념식 기자회견

2005. 6. 21.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지난 1995년 7월 1일 역사적인 민선자치정부가 출범한 이래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민선자치도정이 대과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200만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충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충남은 전통농업도에서 동북아와 한국의 성장동력을 이끌어가는 첨단산업도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충남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충남의 1인당 지역총생산액(GRDP)이 2003년말 현재 16,683불로 울산에 이어 전국2위를 기록하고 있고, 더욱이 산업생산지수의 경우 2004

년 7월말 현재 전국 균이 129인데 비하여 충남은 179로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변화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도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산업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2차 산업 비중이 1995년도에 27.3%이던 것이 2003년말에는 40.3%로 늘어난 반면, 1차 산업은 같은 기간 중 18.9%에서 8.9%로 바뀌어 이제 충남은 정체된 낙후지역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행정체질의 개선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시대의 모델로 국내외적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기 민선도지사로 취임하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도정의 기본목표로 제시하고, 人本과 經營을 두 축으로 한 자치도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모든 도정시책에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인본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한 차상위 계층의 생계보호특별지원과 미국 LA 슈라이너 병원과의 장애아 무료시술 등은 한 사람의 도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과 도정평가단, 도정모니터 등 다각적인 피드백 기능을 정착시켜 수요자중심의 행정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난해 지방행정연수대회에서는 전국 최우수 주민참여형 정책개발 사례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국 제1의 시간관리도」를 목표로 행정규제 완화, One-stop서비스제 도입 등 그동안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S-PPM, ISO 9001 등 행정무결점 운동

을 함께 추진하여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민선 2기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 충남의 외형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충남인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초유의 IMF 외환위기를 맞아 200만 도민과 함께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경주해 나감으로써 3년 만에 이를 극복해왔는가 하면, 공직 내부적으로는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고비용·저효율 요소를 제거하여 도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도는 서울대학교와 동아일보사가 주관한 민선자치도정평가('95~'96)는 물론, 한국능률협회와 조선일보사가 주관한 지방자치경영평가('97), 기획예산처 주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대회('98)와 행자부 주관의 전국자치단체 종합평가(2004)에서 각각 전국 최우수도」 꼽히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본격 추진과 충남 테크노파크 조성, 2001 전국체전 종합우승과 2002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디지털 충남 선언 등을 통해 도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충남의 일류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충남역사상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공직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왔던 민선 1기와 외형적 성장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였던 민선 2기의 성과를 토대로 민선 3기에는 충남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Heart of Korea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쟁력 제고, 미래인재 양성, 자치역량 강화의 큰 틀 위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촉구선언을 하여 분권시대의 새 지평을 열었는가 하면,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슬로건으로 한 고품질 도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공직자의 현대인재개발원 위탁 교육에 이어, 금년에는 한국공공행정학회 주관으로 혁신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년만의 폭설피해를 딛고 일어서 8년 연속 단보당 쌀 생산 전국 1위의 위업을 달성하였는가 하면, 우리도가 국제인삼 유통의 메카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2006 금산 세계인삼 엑스포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2002년부터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를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에는 293억불의 수출과 12억불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시책의 성과는 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정부혁신 세계포럼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어 세계 각국에서 참석한 자치단체장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로 가는 첫 단계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500만 충청인들의 힘을 모아 쟁취해 냄으로써, 우리충남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여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이루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괄목할만한 변화와 성장은 200만 도민이 이뤄낸 땀의 결정체로 그 중심에 항상 자랑스런 도민들이 함께 하였다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첨단산업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지역에 개발의 효과가 집중되어 시·군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일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인식의 토대위에서, 민선 1기에서 민선 3기까지 저의 임기를 착실히 마무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도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의 성장동력 극대화와 함께 균형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4+3 Project를 수립하고, 이의 시책화 노력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4+3 Project는 한마디로 4대권 개발경영구상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서북부지역은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육성하고, 서해안지역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동부지역은 행정도시 입지에 따라 정치·행정중심도시로, 그리고 금강권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은 생산·주거·위락·관광 등 종합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제문화권 개발과 내포문화권 개발, 도청이전 등 3대 핵심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서민·종교문화중심의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지난해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왕실·귀족중심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이어 추진함으로써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청이전 사업은 임기 내에 이전후보지를 확정지어 도내 균형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기구와 추진절차를 정하는 특별조례안을 도의회와 협의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조기에 마무리하여 도민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는

충남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도정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금년초 여·야 합의로 통과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청구를 한 것은 수그러들었던 국론분열을 또다시 초래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국민모두의 행복추구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함께 헌법전문가로 구성된 법률대응반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가구별 실태 및 주민희망사항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정지역 주민의 삶과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충청인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함께 3대 국가균형발전 시책중 하나로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합리적 논리를 개발하고, 충청권은 물론 전국 각계각층의 동참을 통해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

고자 합니다.

셋째, Heart of Korea의 비전을 이끌어 갈 자치역량 강화와 4대 재정혁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세기에는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변화와 능력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민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역의 자치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터넷 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금년 10월까지 유비쿼터스 충남계획을 마련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민주주의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재정운영 체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여 충남의 중장기적 전략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4대 재정혁신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도에서는 IMF 외환위기시 4,238억원까지 늘어났던 지방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금년말까지 1,000억원 이하로 줄이는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역점 추진하고, 실국별 Top-down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 강화, 복식부기 회계제도 등 재정혁신 시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 강화를 위하여 오는 6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함으로써 중장기적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도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현안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 3기를 통틀어 도민들께 약속드린 사업은 총 323건으로, 이중 196건이 완료되었고, 135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7건은 미착수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135건은 물론, 보령신항 건설, 서해안 산업철도 건설 등 미착수된 7건에 대해서도 제3차 도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반영과 예산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약사업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CEO 등의 경영부실로 어려움을 초래했던 중부농축산 물류센터가 이젠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당초 정책목표인 산지형 농축산물 유통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도지사 임기가 일년 정도 남았다고 하여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저 자신은 물론 공직자 모두가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맡은바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던 정성을 다하라"는 말을 남긴바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원천이 정성과 열정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결실이라는 신조로 도민여러분과 함께 도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를 변함없이 간직하면서 충남의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추진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道民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보

다 더 처음같이 신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남은 임기동안 도민 여러분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충남체육의 미래를 밝게 하는 밑거름

제33회 충남소년체전 및 제34회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종합시상식 축사
2005. 6. 21.

자랑스런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오제직 교육감님과 시·군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선생님, 손성래 교육위원회 의장님과 교육위원님,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신 이인구 계룡장학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지난 제34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비약적인 성적 향상을 이루어낸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선수들을 뒷바라지 해오신 선생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늘 우리고장의 체육발전을 우해 애쓰시며, 오늘 우수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신 이인구 계룡장학재단 이사장님께도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장한 일을 해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달성한 9위의 성적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해의 목표가 금메달순위로 한자리수 진입이었으며, 여러분이 열심히 땀흘려준 덕분에 이를 무난히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년과 달리 각 경기종목에서 골고루 메달을 획득하여 총 메달 획득 순으로는 우리충남이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우리도에서 소년체전을 개최한 때를 제외하면 역대 체전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것이기에 더욱 자랑스럽고 가슴이 뿌듯하기만 합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무려 5단계를 도약한 성적이기에 점차 우리충남의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같은 자랑스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학교체육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일선학교를 두루 방문하시며 독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도 여기에 힘입어 어려운 훈련과정을 승리를 향한 열정과 의지로 극복하며 구슬땀을 흘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정성과 노력이 하나가 되었기에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소년체전을 통해 땀과 단합된 힘의 소중한 가치를 느꼈으며, 이를 통해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저력이 우리 충남체육의 미래를 밝게 하는 밑거름이며, 우리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해 나가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

다.

거북이가 비록 느리지만 쉼없이 전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승리를 향한 그날까지 한걸음 한걸음을 꾸준히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는 늘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께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힘차게 노력해 나가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시상식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각오와 결의를 다지면서, 내년의 보람찬 결실을 이루기 위해 다함께 뜻을 모아 나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자랑스런 성과를 거둔 여러분에게 마음 깊은 축하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력 신장과 국운 융성을 위해 매진

6.25전쟁 제55주년 기념행사 격려사

2005. 6. 24.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자유수호전쟁 제55주년을 하루 앞두고 그 날의 역사적 의미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령들께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빌며, 유공자와 참전용사, 그리고 보훈가족 여러분께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성배 대전·충남 재향군인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인제 국회의원님,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 박동철 금산군 부군수님과 길준무 금산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호국·보훈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는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며 숙연해지게 됩니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순국하신 호국영령들의 뜨거운 충혼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호국영령들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와 같은 거룩한 희생과 용기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참담했던 전쟁의 폐허와 아픔을 딛고 우리는 불과 500여년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정치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골고루 잘 사는 민주복지국가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세계 속의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당당히 서게 된 것입니다.

자랑스런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6월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아픔과 눈물의 6월을 희망과 기쁨의 6월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뜨거운 월드컵의 열기가 몰아친 때가 6월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국력 신장과 국운 융성을 위해 다함께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의 포화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국가안보와 빈틈없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안정과 화합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7천만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기필코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혼을 기리는 길이며,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저는 굳

게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기념행사가 6.25의 진정한 교훈을 되새기는 가운데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향한 우리의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호국영령과 참전용사 여러분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맑고 깨끗한 고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

참게종묘 방류행사 인사말씀

2005. 6. 24.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만에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는 이곳 지천에서 우리 도의 대표적 내수면 특산품인 금강참게를 방류하는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게를 되살리기 위해 종묘 배양에 힘써준 도 내수면개발시험장과 청양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어린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신 박동윤 도의회 의장님과 유영호 · 정선흥 도의원님, 김시환 청양군수님과 박상진 청양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생태계 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주신 청양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스런 학생 여러분!

예로부터 민물에서 자라는 게는 질과 맛이 단연 으뜸이어서 '게'라는 이름 앞에 '참'자를 붙여 '참게'라 불리어 왔습니다.

특히, 이곳 지천은 물이 맑고 여울과 소가 많아 '물 반, 참게 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참게는 '까치내 참게'라 하여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가을철 밥도둑'으로 불릴 만큼 참게가 우리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단백질과 지방질, 그리고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칼슘이 우유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들어 있어 노약자와 어린이에게 좋은 영양식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와 친숙했던 참게가 농약과 비료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파괴로 점차 우리 곁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댐과 수중보는 참게가 바다와 강을 번갈아 오가는 것을 방해하여 번식을 어렵게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도는 지천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기반을 다지고자 지난 10여년 전부터 약 172만 마리의 참게 종묘를 방류해왔습니다.

그 결과 비록 예전의 명망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된 지금 이곳은 가족과 함께 참게잡이체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소홀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면 자연은 아주 빠른 기간 내에 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교육장님의 배려로 앞으로 우리고장의 환경을 지켜나갈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생들과 함께 방류한 어린 참게가 우리의 정성과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라 지천을 참게의 영원한 보고로 만들어 주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가운데 맑고 깨끗한 우리고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다가올 무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숭고한 인류애의 실천

향림원 이전 준공식 축사

2005. 6. 25.

최병운 시설장님을 비롯한 향림원 가족 여러분!

오늘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이전 준공식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만 도민과 더불어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박동철 금산부군수님, 심정수, 유태식 도의원님, 길준무 군의회 의장님,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님, 황용규 한국아동복지연합회장님, 김수진 충남사회복지협의회장님, 박찬중 전 도의원님, 허현구 유관기관단체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향림원이 아동사회복지시설로 출발한 것은 지난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직후의 일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집과 부모를 잃고 거리를 배회하는 어린 아동들을 모아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한 것이 오늘날 향림원의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식구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웠던 시절, 어린 아동들을 모으고 시설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향림원은 초기 유성 봉명동 시절에서부터 80년대의 금산 마전리 시대를 거쳐 그리고, 오늘 이곳 추정리에 이르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어린 아동들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우리 사회의 친근한 이웃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나서서 소중하고 고귀한 뜻을 펼쳐온 것입니다.

그것은 소명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숭고한 인류애의 실천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최병운 시설장님의 선친 되시는 고 최윤식 선생님께서는 유성에 과수원을 개간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마치 손 등이 거북이 등 같았다고 하는 전언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자, 오늘 향림원의 존재를 새삼 되돌아보게 하는 일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내빈 여러분!

이제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오늘 이와 같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으니 향림원의 미래는 그 이름처럼 향기로운 숲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한 법인체에게만 맡기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한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열어가고 있는 사회는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더 나은 여건을 요구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시설운영이 수용과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에 만족하였다면, 이제는 교육과 생활, 그리고 문화 등 아동이 누려야 할 제반 권익향상이 요구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 에서도 이러한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시설 기능의 다양화 등 아동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만, 우리 모두의 합심어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행사가 어려웠던 시절, 이웃과 사회를 위해 펼치셨던 고귀한 뜻을 다시금 돌아보는 가운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전 준공을 축하하면서, 향림원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과 함께 하는 신문

한겨레신문 창간17돌 행사 축사

2005. 6. 25.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사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정태기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겸 제2창간운동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는 참으로 좋은 의미를 지닌 것들이 많이 있는데 '더불어' 혹은 '함께'라는 표현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표현 속에는 동료의식과 동반자적인 사고가 포함되어 있고 나눔과 다툼이 아닌 이해와 포용, 상생과 공동번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신문이 창간 17주년을 맞았습니다만, 지나온 그 시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더불어' 또는 '함께'라는 의미를 생각하게하고 실천해온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선 출발부터가 기업인이나 독지가의 재산 출연이 아니라 전국의 소시민들이 소액주주로 참여함으로써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문의 눈높이와 지향점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이자, 가치가 되어왔음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치도정 또한 한겨레신문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에 대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이 사랑받는 정론지로 굳건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데에 그 연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대정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나는 '더불어, 또는 함께'야말로 이 시대의 화두며,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이러한 정신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의 갈등의 여지가 있고, 우리라는 개념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살리고 이를 제2의 창간정신으로 삼고자 하는 한겨레신문의 노력은 참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욱 활기찬 역할을 기대하면서, 우리 충청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론통합을 이끌어 내는 주역이자, 중심세력으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창간 17주년 및 제2창간을 축하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민족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한겨레신문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자랑스런 충남의 위상을 실현시킨 산증인

2005 상반기 정년 · 명예퇴임식 치사

2005. 6. 27.

오늘 우리는 그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동료 여러분과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예로운 퇴임을 맞으신 네 분께 공무원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면서,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 사모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런 동료 공직자 여러분!

일찍이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마하트마 간디는 "봉사를 위해 보낸 삶이야말로 오로지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하여 헌신적인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여년간을 도정발전을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일관해오신 네 분이야말로 값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높은 지위와 부를 쌓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은 성실한 남편이요, 훌

륭한 아버지이자, 자랑스런 대한민국 공직자의 표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어려웠던 시절에 공직에 입문한 뒤로 지역주민과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많은 땀을 흘리셨고, 정성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우인식 전 농업기술원장님은 농업분야에서, 김영갑 전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은 축산분야에서, 최정우 전 기반조성과장님은 건설분야에서, 그리고 정현우 전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체육분야에서 우리 도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도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셨고,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지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전통적인 농업도를 첨단산업의 메카로 변화시켰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역동적인 고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정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정을 펼침으로써 복지충남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충남의 자랑스런 위상을 실현시켜주신 산증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같은 빛나는 업적은 우리 도정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며, 후배 공직자의 귀감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퇴직자 여러분!

이제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평생을 공직에만 몸담아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헤쳐 나가야 할 길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고, 적지 않은 어려움도 또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동료공직자들은 여러분의 열정과 능력을 잘 알고 있기에 더 큰 보람과 성취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들이 맺은 소중한 인연이 변함없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새출발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면서, 정성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사모님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 품질은 기업경쟁력의 원천

2005 품질경영대회 대회사

2005. 6. 30.

존경하는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오늘 우리지역의 우수한 품질경영운동의 성과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2005 품질경영대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선현장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땀흘려주신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품질경영에 기여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이계형 한국표준협회장님과 정은주 대전·충남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해주신 성무용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일찍이 품질운동의 개척자인 미국의 조셉 주란 박사는 20세기가 생산성의 시대라면, 21세기는 품질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 경쟁의 양상이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전환되

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일찍부터 TQC, 싱글PPM, 6시그마 등 품질혁신운동을 펼쳐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웃 일본이 1950년대부터 '데밍상'을, 미국은 1980년대부터 '말콤볼드리지상'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품질상'을 제정하여 국가적으로도 품질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부터 수출입국의 기치 아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만, 주로 품질보다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역량은 뒤지고, 가격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국가에 밀려 갈수록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IT 등 일부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세계 일류의 기술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품질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품질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요, 기업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경영학자들이 21세기를 경영혁명의 시대라 하여 지식경영, 윤리경영과 함께 품질경영을 경영혁명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품을 이루는 나사 하나하나까지 정성을 기울이는 자세와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자 늘 고

민하고 노력하는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의 최고책임자에서부터 생산현장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품질혁신을 이루고자 하나로 뭉쳐 함께 노력해 나가는 자세라 하겠습니다.

오늘 분임조를 통해 발표될 사례들도 바로 이같은 고민과 노력 끝에 얻어진 값진 결실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선두주자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 우수한 품질혁신사례를 우리공장에도 한번 적용해보자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길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대회가 우리지역 기업들의 품질경쟁력을 한층 드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행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 (분야별 연설문 색인 목록)

## 〈 정책기획 · 혁신분권 분야 〉


▶ 제12대 충청남도교육감 취임식 축사 / 7. 22. ····· 41
▶ 충청남도의정회 대토론회 축사 / 8. 16 ····· 64
▶ 제2차 충청남도지역혁신협의회 인사말씀 / 8. 17. ····· 70
▶ 지방이양촉진 워크숍 격려사 / 8. 20. ····· 79
▶ 2004 세계통계기구특별회의 만찬 환영사 / 8. 30. ····· 87
▶ 건양대학교 명곡전시관 준공식 축사 / 9. 17. ····· 131
▶ 아태정책연구원 이사장 방문 환영인사 / 10. 6. ····· 182
▶ 예산증실골 사과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개관식 축사 / 10. 13. ····· 196
▶ 제3회 지역혁신협의회 격려사 / 10. 19. ····· 214
▶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위촉식 인사말씀 / 10. 25. ····· 238
▶ 실버인터넷 경진대회 시상식 인사말씀 / 11. 9. ····· 302
▶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자 격려 만찬사 / 11. 10. ····· 305
▶ 제16회 충청남도교육상 시상식 축사 / 12. 13. ····· 346
▶ 혁신분권연구단 창단식 인사말씀 / 12. 20. ····· 363
▶ 혁신분권연구단 워크숍 인사말씀 / 1. 18. ····· 429
▶ 청양대학 제6회 졸업식 치사 / 2. 16. ····· 465
▶ 중도일보 기고문 / 2. 21. ····· 471
▶ 신극범 대전대학교총장 이임식 축사 / 2. 25. ····· 477
▶ 이광진 충남대학교총장 이임식 축사 / 2. 28. ····· 480
▶ 제3대 청양대학장 취임식 축사 / 3. 2. ····· 497
▶ 청양대학 2005학년도 입학식 축사 / 3. 2. ····· 500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토론회 축사 / 3. 11. ····· 520
▶ 충남대학교총장 취임식 축사 / 3. 17. ····· 526
▶ 강경중앙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 축사 / 4. 3. ····· 556
▶ 제42회 법의 날 기념행사 축사 / 4. 25. ····· 592

▶ 충남의 미래비전 및 핵심전략 세미나 축사 / 4. 27. ····· 600
▶ 제1회 자치단체단체장 혁신토론회 환영사 / 5. 13. ····· 632
▶ 신성대학 개교 10주년 기념식 축사 / 5. 20. ····· 656
▶ 충남발전연구원 개원10주년 기념식 치사 / 6. 7. ····· 709
▶ 충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세미나 축사 / 6. 15. ····· 741

## 〈 자치행정 · 사회단체 분야 〉

▶ 제5차 합동수계법회 축사 / 7. 4. ····· 13
▶ 목요조찬회 인사말씀 / 7. 14. ····· 34
▶ 제1회 충남평화통일포럼 창립기념토론회 축사 / 9. 2. ····· 90
▶ 바르게살기협의회 의식개혁대강연회 격려사 / 9. 3. ····· 97
▶ 제4기 충남도정신문 주부명예기자 위촉식 인사말씀 / 9. 6. ····· 103
▶ 전국 시·도 새마을부녀회 회장단 연찬회 인사말씀 / 9. 14. ····· 119
▶ 제4회 전국 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 시상식 격려사 / 9. 15. ····· 122
▶ 평화번영을 위한 충청남도대회 격려사 / 9. 17. ····· 134
▶ 대전문화방송 창사40주년 기념식 축사 / 9. 23. ····· 143
▶ 여성통 · 리장 연찬회 격려말씀 / 9. 23. ····· 145
▶ 추석명절 담화문 / 9. 28. ····· 148
▶ 제14차 충남지구JC특우회 우정의 날 축사 / 10. 15. ····· 206
▶ 제12회 여성자원봉사자대회 대회사 / 10. 26. ····· 244
▶ 어머니포순이봉사단 발대식 축사 / 11. 1. ····· 265
▶ 2004 충청남도 자원봉사박람회 대회사 / 11. 2. ····· 271
▶ 시·군의회의원 의정연수 축사 / 11. 4. ····· 283
▶ 대한적십자사 창립99주년 기념 2004년 지사연차대회 축사 / 11. 12. ····· 307
▶ 대한적십자사 대전 · 충남지사회장 이 · 취임식 축사 / 11. 16. ····· 313

▶ 제3회 충남 NGO-DAY 만찬 축사 / 12. 2. ····· 332
▶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 송년의 밤 인사말씀 / 12. 9. ····· 340
▶ 2004 신문경영자 세미나 인사말씀 / 12. 10. ····· 343
▶ 새마을부녀회 평가대회 및 외국인여성과 어울한마당 치사 / 12. 13. ····· 351
▶ 제2회 충남평화통일포럼 세미나 축사 / 12. 15. ····· 354
▶ 제8기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수료식 격려사 / 12. 17. ····· 360
▶ 충청남도 전문자원봉사단 발대식 식사 / 12. 23. ····· 372
▶ 의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인사말씀 / 12. 28. ····· 376
▶ 2004 하반기 정년 · 명예퇴임식 치사 / 12. 28. ····· 379
▶ 2004 충남지역새마을운동 평가보고대회 치사 / 12. 29. ····· 382
▶ 2004 송년사 / 12. 31. ····· 385
▶ 제야의 종 타종식 인사말씀 / 12. 31. ····· 387
▶ 계룡산 천왕봉 해맞이행사 축하메시지 / 1. 1. ····· 389
▶ 신년사 / 1. 1. ····· 391
▶ 2005년 시무식사 / 1. 3. ····· 393
▶ 2005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 1. 3. ····· 401
▶ 2005년도 신년조찬기도회 격려사 / 1. 6. ····· 410
▶ 충남지구JC회장단 취임식 축사 / 1. 20. ····· 432
▶ 충청향우회중앙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축사 / 1. 20. ····· 435
▶ JC특우회장단 이·취임식 축사 / 2. 1. ····· 454
▶ 대전고등학교 제84회 졸업식 축사 / 2. 5. ····· 457
▶ 설맞이 담화문 / 2. 9. ····· 460
▶ 3 · 1절 조찬기도회 인사말씀 / 3. 1. ····· 486
▶ 제86회 3 · 1절 기념행사 기념사 / 3. 1. ····· 489
▶ 제1회 태극기사랑 한마당 격려사 / 3. 1. ····· 492
▶ 3·8 민주의거 45주년 기념식 축사 / 3. 8. ····· 508
▶ 충청투데이 기고문 / 3. 11. ····· 523

▶ 2005 행정동우회 정기총회 축사 / 3. 24. ····· 535
▶ 직장협의회 정기총회 축사 / 3. 24. ····· 538
▶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 격려사 / 4. 21. ····· 589
▶ 청심회 영산홍축제 인사말씀 / 4. 26. ····· 598
▶ 제5회 전국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 대회사 / 5. 7. ····· 623
▶ 국제로타리 3620지구 제10차 지구대회 축사 / 5. 8. ····· 626
▶ 제24회 스승의 날 기념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 행사 치사 / 5. 20. ····· 653
▶ 전몰참전미군용사 위령비제막 추모식 기념사 / 5. 20. ····· 659
▶ 대전고 2005 정기총회 및 모교방문의 날 축사 / 5. 21. ····· 662
▶ 대전 · 충남기자협회 체육대회 축사 / 5. 21. ····· 665
▶ 한마음 체육대회 격려말씀 / 5. 21. ····· 667
▶ 한마음 체육대회 마무리말씀 / 5. 21. ····· 669
▶ 재인충남도민회 체육대회 축사 / 5. 28. ····· 679
▶ 제22회 천주교 전국공무원피정 축사 / 5. 28. ····· 682
▶ 대한성공회대전교구 설립40주년 감사성찬례 및 선교대회 축사 / 5. 29. ····· 685
▶ 행정자치부장관 방문 인사말씀 / 5. 30. ····· 688
▶ 적십자봉사원 한마음체육대회 축사 / 6. 2. ····· 697
▶ 제1회 충남시 · 군의회의원 체육대회 축사 / 6. 10. ····· 723
▶ 재제주 충청인의 날 행사 축사 / 6. 12. ····· 729
▶ 제11회 도의새마을운동촉진대회 치사 / 6. 14. ····· 732
▶ CBS대전방송 발전과 대전·충남지역 성시화를 위한 부흥대성회 축사 / 6. 16. ····· 749
▶ 제36차 JCI Korea 충남지구회원대회 축사 / 6. 18. ····· 755
▶ 민선자치 10주년 기념식 기자회견 / 6. 21. ····· 758
▶ 6.25전쟁 제55주년 기념행사 기념사 / 6. 24. ····· 770
▶ 한겨레신문 창간17돌 행사 축사 / 6. 25. ····· 779
▶ 2005 상반기 정년 · 명예퇴임식 치사 / 6. 27. ····· 781

## 〈 문화관광 · 체육청소년 분야 〉


▶ 제33회 전국소년체전 시상식 축사 / 7. 1. ····· 1
▶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개장식 축사 / 7. 3. ····· 7
▶ 제34회 충청남도사진대전 시상식 축사 / 7. 3. ····· 10
▶ 천안문화원 개원50주년 기념행사 격려사 / 7. 10. ····· 25
▶ 청소년종합상담실 개소10주년 기념식 격려사 / 7. 13. ····· 28
▶ 제29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축사 / 7. 26. ····· 47
▶ 유도선수단 하계강화훈련 발대식 인사말씀 / 7. 31. ····· 50
▶ 전국체전 고등부지도자 필승결의대회 격려사 / 8. 6. ····· 56
▶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제8차 정치총회 인사말씀 / 8. 16. ····· 62
▶ 2004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리셉션 인사말씀 / 8. 17. ····· 68
▶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정기총회 탄방동미사 인사말씀 / 8. 22. ····· 82
▶ 제2회 충청남도여성생활체육대회 치사 / 9. 16. ····· 125
▶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개관식 축사 / 9. 21. ····· 137
▶ 성 김대건신부 생가 축성식 및 기념관 기공식 축사 / 9. 22. ····· 140
▶ 2004 계룡축제 치사 / 10. 1. ····· 150
▶ 제9회 공주아시아1인극제 축사 / 10. 1. ····· 153
▶ 임립미술관 특별기획초대전 축사 / 10. 1. ····· 156
▶ 전국 향토연극제 개막식 축사 / 10. 2. ····· 158
▶ 제13회 만세보령문화제 시민체육대회 치사 / 10. 2. ····· 161
▶ 제3회 충청남도풍물대회 축사 / 10. 3. ····· 164
▶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회사 / 10. 5. ····· 173
▶ 제85회 전국체전출전선수단 결단식 격려사 / 10. 6. ····· 179
▶ 제50회 백제문화제 치사 / 10. 9. ····· 187
▶ 국민생활체육 회원단체 워크숍 인사말씀 / 10. 13. ····· 199

▶ 제14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격려사 / 10. 15. ····· 204
▶ 관광정책토론회 인사말씀 / 10. 21. ····· 217
▶ 제5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대회사 / 10. 21. ····· 223
▶ 제3회 백제문화개발연구원 학술회의 축사 / 10. 22. ····· 226
▶ 2004 제1회 공주국제미술제 축사 / 10. 22. ····· 232
▶ 제48회 충청남도문화상 시상식 식사 / 10. 26. ····· 247
▶ 한국불교선농회 선농원농장 개원식 축사 / 10. 28. ····· 253
▶ 2004 충남문화예술인대회 축사 / 10. 30. ····· 262
▶ 제85회 전국체전선수단 해단식 치사 / 11. 3. ····· 280
▶ 백제향기찾기 자동차랠리 격려사 / 11. 6. ····· 293
▶ TJB 백제문화재단 교육대상 시상식 축하메시지 / 12. 9. ····· 338
▶ 충청남도 카누인의 밤 격려사 / 12. 15. ····· 357
▶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기공식 축사 / 12. 22. ····· 369
▶ 대전불교단체연합회 신년하례대법회 축사 / 1. 8. ····· 413
▶ 제27회 3·1절 기념 봉화제 축사 / 2. 28. ····· 483
▶ 가수 윤형주 노래비 제막식 축사 / 3. 4. ····· 503
▶ 백제군사문화박물관 개관식 축사 / 3. 7. ····· 505
▶ 고구려대탐험전 개막식 축사 / 4. 1. ····· 548
▶ 제44회 연기군민체육대회 치사 / 4. 17. ····· 577
▶ 영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격려사 / 4. 25. ····· 595
▶ 제43회 천안시민체육대회 치사 / 4. 30. ····· 606
▶ 제15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격려사 / 5. 4. ····· 612
▶ 부처님 오신 날 봉축연등점등식 축하말씀 / 5. 4. ····· 618
▶ 충청투데이 기고문 / 5. 13. ····· 635
▶ 한·일생활교류 환영연 환영사 / 5. 13. ····· 638
▶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환영사 / 5. 14. ····· 641
▶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축사 / 5. 15. ····· 644

▶ 제35회 충청남도미술대전 시상식 축사 / 5. 27. ····· 674
▶ 당진 문예의 전당 개관식 축사 / 5. 31. ····· 691
▶ 제9회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치사 / 6. 4. ····· 706
▶ 제3회 충남어머니생활체육대회 치사 / 6. 8. ····· 712
▶ 2005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성공개최 해단식 격려사 / 6. 14. ····· 735
▶ 제26차 한·일불교문화교류 수덕사대회 인사말씀 / 6. 14. ····· 738
▶ 제33회 충남소년체전 및 제34회 전국소년체전유공자 종합시상식 축사 / 6. 21. ····· 767

## 〈 농림·해양수산 분야 〉

▶ 농업정책 대토론회 인사말씀 / 7. 20. ····· 37
▶ 제2회 태안군 안흥항 오징어대축제 축사 / 8. 1. ····· 53
▶ 제2회 조치원 복숭아축제 축사 / 8. 6. ····· 59
▶ 2004 충남새농민연찬회 축사 / 8. 18. ····· 73
▶ 1사1촌 자매결연 및 친환경농산물 대축제 축사 / 10. 13. ····· 193
▶ 2004 아줌마대축제 겸 우리농수산물 큰잔치 축사 / 10. 21. ····· 220
▶ 2004 충남쌀축제 환영사 / 10. 29. ····· 259
▶ 제41회 충청남도 4-H경진대회 치사 / 11. 3. ····· 277
▶ 제16회 연기농업인 화합대회 축사 / 11. 4. ····· 287
▶ 제12회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 식사 / 11. 8. ····· 295
▶ 제24회 충청남도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격려사 / 11. 18. ····· 319
▶ 당진항 명명식 치사 / 1. 28. ····· 445
▶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축사 / 1. 31. ····· 448
▶ 2004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식 축사 / 2. 21. ····· 468
▶ 한국여성농업인 충남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축사 / 3. 18. ····· 532
▶ 참게종묘 방류행사 인사말씀 / 6. 24. ····· 773

## 〈 경제통상 · 국제교류 분야 〉


▶ 경제혁신 대토론회 인사말씀 / 8. 30. ····· 84
▶ 중도일보 기고문 / 9. 3. ····· 93
▶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결단식 격려사 / 9. 7. ····· 106
▶ 베트남 롱안성과 우호협력양해각서 체결 기념사 / 9. 8. ····· 109
▶ 롱안성장 주최 환영만찬 답사 / 9. 8. ····· 112
▶ 족자카르타특별주지사 주최 환영만찬 답사 / 9. 12. ····· 114
▶ 족자카르타특별주와 자매결연양해각서 체결 기념사 / 9. 13. ····· 116
▶ 한국방송연상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기념사 / 10. 7. ····· 185
▶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격려사 / 10. 19. ····· 212
▶ 에버테크노공장 준공식 축사 / 10. 22. ····· 235
▶ 미동부 충청도민회장 이 · 취임식 / 10. 25. ····· 241
▶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치사 / 10. 27. ····· 250
▶ 사랑의 인술사업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축사 / 11. 2. ····· 274
▶ 건전소비생활 범도민 다짐대회 격려사 / 11. 5. ····· 290
▶ 기업하기 좋은 천안·아산 만들기 대토론회 격려사 / 11. 17. ····· 316
▶ 제18회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치사 / 11. 22. ····· 326
▶ 브뤼셀 투자유치설명회 환영인사 / 11. 29. ····· 329
▶ 제41회 무역의 날 포상전수식 격려사 / 12. 6. ····· 335
▶ 2004 충남벤처인대회 축하메시지 / 12. 13. ····· 349
▶ 산 · 산 · 학 · 연 협력 활성화 토론회 인사말씀 / 12. 22. ····· 366
▶ 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신년사 / 1. 5. ····· 404
▶ 기업인단체 신년교례회 축사 / 1. 27. ····· 442
▶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축사 / 3. 17. ····· 529
▶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비전 명사칼럼 / 4. 1. ····· 551
▶ 충청투데이 기고문 / 4. 6. ····· 562

▶ LA한인경제인 초청만찬 만찬사 / 4. 7. ····· 565
▶ 미동남부 충청향우회 주최 초청만찬 만찬사 / 4. 9. ····· 568
▶ 미동부 충청도민회 주최 환영만찬 만찬사 / 4. 12. ····· 571
▶ 가락회 주최 환영만찬 만찬사 / 4. 13. ····· 574
▶ 2005년도 충남지방기능경기대회 대회사 / 4. 19. ····· 580
▶ 호서대 가족기업체결식 격려사 / 4. 28. ····· 603
▶ 근로자의 날 행사 축사 / 5. 1. ····· 609
▶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방사무소 청사 준공식 축사 / 5. 4. ····· 615
▶ 충남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워크숍 축사 / 5. 19 ····· 650
▶ 제12회 충청남도 기업인대회 축사 / 5. 31. ····· 694
▶ 베트남 롱안성장 환영만찬 인사말씀 / 6. 8. ····· 718
▶ 베트남 롱안성과 우호협력협정서 조인식 기념사 / 6. 9. ····· 720
▶ 2005 품질경영대회 대회사 / 6. 30. ····· 784

## 〈 보건복지 · 환경 · 여성 분야 〉

▶ 공주시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식 격려사 / 7. 1. ····· 4
▶ 제9회 여성주간기념 제21회 충남여성한마음대회 축사 / 7. 5. ····· 16
▶ 한일여성포럼 참가자 만찬 환영사 / 7. 6. ····· 19
▶ 한일여성포럼 격려사 / 7. 7. ····· 22
▶ 관리직 여성공무원 연찬회 격려말씀 / 7. 14. ····· 31
▶ 제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 / 9. 3. ····· 100
▶ 제6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만찬사 / 9. 16. ····· 128
▶ 사랑의 선교회 창립15주년 기념행사 축사 / 10. 4. ····· 167
▶ 제18회 약의 날 기념식 축사 / 10. 9. ····· 190
▶ 제10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대회사 / 10. 14. ····· 201

▶ 제3회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 격려사 / 10. 16. ····· 209
▶ 2004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개막식 격려사 / 10. 22. ····· 229
▶ 2004 충남자활한마당대회 격려사 / 10. 29. ····· 256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명사칼럼 / 11. 1. ····· 268
▶ 2004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격려사 / 11. 9. ····· 299
▶ 노인복지정책토론회 인사말씀 / 11. 16. ····· 310
▶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인사말씀 / 1. 5. ····· 407
▶ 제3기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총회 축사 / 2. 22. ····· 474
▶ 한훈 선생 어록비 제막식 축사 / 3. 1. ····· 495
▶ 한국환경운동 충청남도지역본부 발대식 축사 / 3. 10. ····· 511
▶ 서천군노인종합복지타운 기공식 치사 / 3. 10. ····· 514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기총회 치사 / 3. 11. ····· 517
▶ 충남간호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치사 / 3. 25. ····· 541
▶ 제4회 유관순상 시상식 식사 / 3. 31. ····· 544
▶ 제25회 장애인의 날 행사 대회사 / 4. 20. ····· 583
▶ 제5기 충남여성자치대학 개강식 인사말씀 / 4. 21. ····· 586
▶ 제83회 어린이날 기념식 기념사 / 5. 5. ····· 620
▶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결단식 격려사 / 5. 10. ····· 629
▶ 제13회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축사 / 5. 19. ····· 647
▶ 제13회 충남여성포럼 대토론회 축사 / 5. 26. ····· 671
▶ 제2회 충청남도장애인생활체육 탁구대회 대회사 / 5. 27. ····· 677
▶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식 기념사 / 6. 4. ····· 700
▶ 2005년도 충남장애인부모대회 축사 / 6. 4. ····· 703
▶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대회사 / 6. 8. ····· 715
▶ 충청투데이 기고문 / 6. 10. ····· 726
▶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 개원식 축사 / 6. 16. ····· 746
▶ 여성유권자 전진대회 환영사 / 6. 17. ····· 752
▶ 향림원 이전 준공식 축사 / 6. 25. ····· 776

## 〈 건설교통 · 신행정수도 · 소방 분야 〉


▶ 총리 오찬 인사말씀 / 7. 24. ····· 45
▶ 신행정수도 건설 성공기원 범국민물결대회 대회사 / 8. 19. ····· 76
▶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세미나 축사 / 10. 4 ····· 170
▶ 신행정수도 건설 전문가 대토론회 축사 / 10. 5. ····· 176
▶ 신행정수도 사수 범충남연대 출범식 치사 / 11. 22. ····· 322
▶ 동아일보 기고문 / 1. 9. ····· 416
▶ 촛불문화행사 인사말씀 / 1. 17. ····· 419
▶ 신행정수도 관련 세미나 기조연설 / 1. 18. ····· 421
▶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대국민홍보단 발대식 격려사 / 1. 24. ····· 438
▶ 내포문화권개발 활성화 심포지엄 축사 / 2. 1. ····· 451
▶ 충청투데이 기고문 / 2. 11. ····· 462
▶ 2005 사랑의 집짓기사업 기공식 축사 / 4. 5. ····· 559
▶ 천안의용소방대 60년사 발간 격려사 / 6. 15. ····· 744

심대평도지사 연설문집 제10권

발행일 - 2005년 7월 20일
발행처 - 충 청 남 도
인쇄처 - 충남문화사


충청남도
www.chungnam.net